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2024. 12.



— | 연구진 | —

연구책임자:	고창수	재정전망팀장
공동연구원:	권미연	선임연구원
	노지영	선임연구원
	백가영	선임연구원
	오수정	선임연구원
	정상기	선임연구원
	주남균	연구원

차례

I. 미국 OMB	1
1. 추진근거 및 추이	1
2.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2
3. 보고서의 구조	4
4. 전망전제	4
5. 전망결과	5
6. 민감도 분석	8
II. 미국 CBO	11
1. 추진근거 및 추이	11
2. 전망의 범위, 분야 및 방법	12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13
4. 보고서의 구조	14
5. 전망전제	15
6. 전망결과	20
가. 수입	20
나. 지출	22
다. 재정수지와 부채	26
7. 민감도 분석	28
III. 일본	32
1. 추진근거 및 추이	32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33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36
4. 보고서의 구조	37
5. 전망전제	37
6. 전망결과	43
가. 과거투영 시나리오	43
나. 성장이행 시나리오	46

다.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50
7. 민감도 분석	52
가. 잠재성장률 하락	52
나. 장기금리 상승	54
다. 정부지출 증가	55
IV. 캐나다	56
1. 추진근거 및 추이	56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57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59
4. 보고서의 구조	60
5. 전망전제	60
6. 전망결과	62
7. 민감도 분석	68
V. 스웨덴	70
1. 추진근거 및 추이	70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71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72
4. 보고서의 구조	72
5. 전망전제	74
6. 전망 결과	88
7.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102
가. 거시경제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	102
나. 특정 가정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	111
8. 평가	121
VI. 체코	123
1. 추진근거 및 추이	123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125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126
4. 보고서의 구조	126
5. 전망전제	128
가. 소득수준 수렴	128
나. 인구 전망	129
다. 실질임금과 소득분배	131
6. 전망 결과	132
가. 연금제도	133
나. 의료제도(health care)	140
다. 연금 이외의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및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143
라. 교육	145
마. 소득수준 수렴과 관련된 지출 및 기타 지출	147
바. 장기전망에서의 수입(Revenue in the long-term projection)	148
사. 일반재정 수지 및 부채	150
7.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154
가. 강화 정책에서의 수입 부문 조치	154
나. 연금 연동 제도 조정	155
다. 정년과 기대수명의 연결	157
라. 공공재정개혁(public finance reform)의 전반적인 영향	158
마. 다양한 인구통계 예측 변형	160
바. 연금제도에서의 세대간회계	161
사. 이전 보고서와의 비교	169
8. 평가	170
Ⅶ. 싱가포르	172
1. 추진근거 및 추이	172
2. 전망의 분야 및 방법	173
3. 보고서의 구조	173
4. 전망전제	174
5. 전망결과	176

가. 지출	176
나. 수입	183
다. 재정수지	187
6. 수입부양성 추정	189
가. 수입부양성 정의	189
나. 추정방법	189
다. 주요 결과	190
VIII. 호주	193
1. 추진근거 및 추이	193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194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196
4. 보고서의 구조	197
5. 전망전제	198
6. 전망결과	210
7. 민감도 분석	224
참고문헌	232

표목차

〈표 I-1〉 증기 거시전제	5
〈표 I-2〉 시나리오별 총량 전망결과	6
〈표 I-3〉 민감도별 국가채무 전망결과	10
〈표 II-1〉 거시전제	20
〈표 II-2〉 CBO 장기재정전망 결과	28
〈표 II-3〉 일정한 연방부채 비율 시나리오의 기초재정적자 개선 요인별 전망결과	30
〈표 III-1〉 「기본방침 2001」 내 재정전망 근거 항목	32
〈표 III-2〉 일본 재정전망의 전망 범위 및 분야	34
〈표 III-3〉 2024년 7월 중장기 시산의 시나리오	38
〈표 III-4〉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결과	39
〈표 III-5〉 거시경제전제 전망결과: 과거투영 시나리오	39
〈표 III-6〉 거시경제전제 전망결과: 성장이행 시나리오	40
〈표 III-7〉 거시경제전제 전망결과: 고성장실현 시나리오	40
〈표 III-8〉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43
〈표 III-9〉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기준	44
〈표 III-10〉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제외)	45
〈표 III-11〉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포함)	46
〈표 III-12〉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47
〈표 III-13〉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기준	47
〈표 III-14〉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제외)	48
〈표 III-15〉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포함)	49
〈표 III-16〉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기초재정수지	50
〈표 III-17〉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국가채무	51
〈표 III-18〉 민감도 분석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52
〈표 III-19〉 민감도 분석 결과: 장기금리 상승	54
〈표 III-20〉 민감도 분석 결과: 정부지출 증가	55
〈표 IV-1〉 주(州)정부별 순부채 전망	64
〈표 IV-2〉 대안 시나리오하에서의 재정갭 민감도 분석	69

〈표 V-1〉 스웨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71
〈표 V-2〉 연령그룹별 인구 비율 전망	76
〈표 V-3〉 고용률	79
〈표 V-4〉 기본 시나리오의 거시경제 변수 전망	85
〈표 V-5〉 이자율 및 수익률	87
〈표 V-6〉 거시경제 변수 전망	87
〈표 V-7〉 기본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101
〈표 V-8〉 거시경제 변수 전망 비교	108
〈표 V-9〉 이자율 감소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109
〈표 V-10〉 높은 투자비용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110
〈표 V-11〉 자원활용 감소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111
〈표 V-12〉 기본 및 대안 시나리오의 가정 비교	112
〈표 V-13〉 순 재정 상태 전망 비교	117
〈표 V-14〉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비교	118
〈표 V-15〉 건강과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119
〈표 V-16〉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120
〈표 V-17〉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121
〈표 V-18〉 기본 시나리오의 S2 지표 전망	122
〈표 VI-1〉 체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125
〈표 VI-2〉 체코 통계청의 인구 전망(2020~2022년)	130
〈표 VI-3〉 장기재정전망에서의 평균 한 해 성장률	132
〈표 VI-4〉 연금제도 전망 요약(10년 단위)	140
〈표 VI-5〉 소득수준수렴 관련 지출 및 기타 지출의 GDP 대비 비율	148
〈표 VI-6〉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수입(10년 단위)	150
〈표 VI-7〉 이자비용 및 재정수지(10년 단위)	151
〈표 VII-1〉 주요 수입의 부양성 추정치(FY1997-2021)	191
〈표 VII-2〉 주요 세원의 부양성 추정치(FY1997-2021)	192
〈표 VIII-1〉 호주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194
〈표 VIII-2〉 호주 인구 전망	205

〈표 VIII-3〉 호주 경제 및 재정 전망	209
〈표 VIII-4〉 정부 지출 분야별 추계 결과	223
〈표 VIII-5〉 민감도 분석 결과	231

그림목차

[그림 I-1] OMB 재정수지 전망	7
[그림 I-2] OMB 국가채무 전망	7
[그림 I-3] 민감도 분석: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전망결과	8
[그림 I-4] 민감도 분석: 의료지출 변화에 따른 전망결과	9
[그림 I-5] 민감도 분석: 재량지출 변화에 따른 전망결과	10
[그림 II-1]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15
[그림 II-2] 합계출산율 전망	16
[그림 II-3] 순이민 전망	17
[그림 II-4] 실질 잠재 GDP 성장률	18
[그림 II-5] 연방부채 및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평균 금리	19
[그림 II-6] 분야별 수입전망	21
[그림 II-7] 수입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2
[그림 II-8] 의무지출 중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지출 전망	23
[그림 II-9]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지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그림 II-10] 항목별 지출전망	25
[그림 II-11] 재정수지 및 연방부채 전망결과	27
[그림 II-12] 일정한 연방부채 비율 시나리오의 기초재정적자 전망결과	31
[그림 II-13] 연방부채에 대한 민감도 분석	31
[그림 III-1] 경제재정모델의 전망구조	35
[그림 III-2] 중장기 시산의 전망절차	36
[그림 III-3] 주요 거시전제 전망결과	41
[그림 III-4]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결과	50
[그림 III-5]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결과	51
[그림 III-6] 민감도 분석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53
[그림 III-7] 민감도 분석 결과(국가채무): 장기금리 상승	54
[그림 III-8] 민감도 분석 결과(기초재정수지): 정부지출 증가	55
[그림 IV-1] 인구증가율 전망	61
[그림 IV-2] 노년부양비율 전망	61
[그림 IV-3] 총노동시간 증가율	62

[그림 IV-4] 노동생산성 증가율	62
[그림 IV-5] 실질 GDP 증가율	62
[그림 IV-6] 1인당 실질 GDP	62
[그림 IV-7] 연방정부의 주요 이전지출	63
[그림 IV-8] 연방정부 전망결과	63
[그림 IV-9] 주(州)정부별 재정갭 전망	65
[그림 IV-10] 순현금흐름 전망(CPP & QPP)	67
[그림 IV-11] 순자산 전망(CPP & QPP)	67
[그림 IV-12] GDP 대비 정부 순부채 전망	67
[그림 V-1] 총인구 전망	74
[그림 V-2] 인구분포 전망 비교(2024년, 2050년)	75
[그림 V-3] 총부양비(유소년, 노인) 전망	76
[그림 V-4] 경제적 부양비 전망	77
[그림 V-5] 기대여명 및 퇴직연령 전망	78
[그림 V-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79
[그림 V-7] 65~74세 인구의 고용률	80
[그림 V-8] 실업률 전망	81
[그림 V-9] GDP 성장률 및 생산성 증가율	82
[그림 V-10] 생산성 전망	82
[그림 V-11] 공급 균형 전망	83
[그림 V-12] CPI 및 CPF 물가상승률	84
[그림 V-13] 금리 전망	86
[그림 V-14] 암묵적 이자율	86
[그림 V-15] 공공 소비 전망	89
[그림 V-16] 항목별 공공 소비 전망	90
[그림 V-17] 정부 단위별 공공 소비 전망	90
[그림 V-18] 정부 단위별 공공 투자 전망	91
[그림 V-19] 공공 이전 지출 전망	93
[그림 V-20] 노령연금제도의 수입 및 지출 전망	93
[그림 V-21] 세입 전망	95
[그림 V-22] 세원 전망	95

[그림 V-23] 기본 지출 및 기본 소득 전망	96
[그림 V-24]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전망	97
[그림 V-25] 순 재정 상태 및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98
[그림 V-26] 인구통계학적 부양비	99
[그림 V-27] 경제적 부양비	99
[그림 V-28] 장기 재정수지 전망	100
[그림 V-29] 장기 순 재정 상태 전망	100
[그림 V-30] 장기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101
[그림 V-31] 이자율 전망 비교	103
[그림 V-32] 투자 전망 비교	104
[그림 V-33] 가계 소비 전망 비교	104
[그림 V-34] 공공 및 가계 소비 전망 비교	105
[그림 V-35] 재정수지 전망 비교	106
[그림 V-36] 기초재정수지 전망 비교	106
[그림 V-37] 순 재정 상태 전망 비교	107
[그림 V-38]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비교	107
[그림 V-39] 경제적 부양비 전망 비교	113
[그림 V-40] 기본 지출 전망 비교	113
[그림 V-41] 공공부문의 소비 지출 전망 비교	114
[그림 V-42] 노령연금 순 자산 전망 비교	115
[그림 V-43] 재정수지 전망 비교	116
[그림 V-44] 순 재정 상태 전망 비교	117
[그림 V-45]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비교	118
[그림 VI-1] 오스트리아 기준 체코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 수렴 전망	129
[그림 VI-2] 체코 통계청의 순이주 전망(2020~2073년)	131
[그림 VI-3] 인구 전망(2020~2073년)	131
[그림 VI-4] 노령연금 수급자 전망(중위 인구 전망 기준)	134
[그림 VI-5] 평균 임금 대비 평균 노령연금 비율(좌) 및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 비율(우) ...	136
[그림 VI-6] GDP 대비 장애연금 지출 비율	137
[그림 VI-7] GDP 대비 유족연금 지출 비율	139
[그림 VI-8] 연도별 연금제도 수지	140

[그림 VI-9] 연령대별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지출(좌) 및 GDP 대비 공공의료 (public health care) 지출 비율	142
[그림 VI-10] 연금 이외의 현금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145
[그림 VI-11]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	147
[그림 VI-12] 기초재정수지 및 통합재정수지(기준 시나리오)	151
[그림 VI-13] 일반정부 부채(general government debt)	153
[그림 VI-14]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강화 정책에서의 수입 부문 조치 (revenue measures of the consolidation package)	155
[그림 VI-15] 연도별 연금제도 수지-중위 수준에서의 대안 시나리오 비교	156
[그림 VI-16] 일반정부 부채-중위 수준에서의 대안 시나리오 비교	156
[그림 VI-17]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좌) 및 통합재정수지(우)-기준 시나리오와 공공재정개혁 비교	159
[그림 VI-18] 일반정부 부채-기준 시나리오와 공공재정개혁 비교	160
[그림 VI-19] 일반정부 부채-인구 전망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비교	161
[그림 VI-20]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연금 납부(payments) 및 수급(receipts) 금액 비교	162
[그림 VI-21] 세대별 공공 재정 납부 및 수급액 금액 비교	163
[그림 VI-22] 각 세대별 순 수급분(net receipts)-기준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 비교	164
[그림 VI-23] 세대별 연금제도 납부 및 수급분 비교	165
[그림 VI-24] 보험료를 증가 시나리오-수지 기준(net balance)	167
[그림 VI-25] 소득대체를 하락 시나리오-수지 기준(net balance)	168
[그림 VI-26]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전망에 대한 요약-중위 인구전망 기준	171
[그림 VII-1] 정부 지출 구성요소(FY1991-2020)	177
[그림 VII-2] 만성질환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178
[그림 VII-3] 정부 의료비 지출(GHE)의 추이와 전망	180
[그림 VII-4] 정부 지출 추이와 전망	182
[그림 VII-5] 총정부지출(2019년 기준)	183
[그림 VII-6] 운영수익 추이(FY1991-2020)	184
[그림 VII-7] 싱가포르 세율 추이	184
[그림 VII-8] 운영수익의 추이 및 전망	185
[그림 VII-9] 싱가포르 재정수지(FY1991-2021)	187
[그림 VII-10] 중기 정부 지출 및 수입 추이	188

[그림 VIII-1] 호주 인구증가율 전망	199
[그림 VIII-2] 시대별 호주 인구 연령 피라미드	200
[그림 VIII-3] 노년 및 경제활동 부양비 전망	201
[그림 VIII-4] 부양비 변화 전망	201
[그림 VIII-5] 출생 시 기대수명	202
[그림 VIII-6] 호주의 출산율 추이와 전망	203
[그림 VIII-7] 순 해외이민자 추이와 전망	204
[그림 VIII-8] 호주 인구의 자연 증가 추이와 전망	205
[그림 VIII-9] 호주 경제성장률 과거 추이와 전망	206
[그림 VIII-10] 명목 GDP 과거 추이와 전망	207
[그림 VIII-11] 호주 거시경제 지표 평균 성장률 추이와 전망	207
[그림 VIII-12]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전망	208
[그림 VIII-13] 15세 이상 전체 인구 1인당 주당 평균 근무 시간	208
[그림 VIII-14] 호주 노동생산성 증가율 평균	210
[그림 VIII-15]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전망 결과	211
[그림 VIII-16] 역대 순부채(Net debt) 전망 비교	212
[그림 VIII-17] 총부채(Gross debt) 전망	213
[그림 VIII-18] 호주 정부 세입(receipts) 구성 전망	214
[그림 VIII-19] GDP 대비 정부 지출 전망	215
[그림 VIII-20] 1인당 호주 정부 지출	215
[그림 VIII-21] 이자 지출(Interest payments) 전망	216
[그림 VIII-22] 호주 지출 및 세입 전망	216
[그림 VIII-23] FY2062-2063년 고령화에 따른 주요 정부지출 변화	217
[그림 VIII-24]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payments) 전망	218
[그림 VIII-25] 호주 보건 지출 전망	219
[그림 VIII-26] GDP 대비 노인요양 지출 전망	220
[그림 VIII-27] 1인당 노인요양 지출 전망	220
[그림 VIII-28] GDP 대비 국방 지출 전망	221
[그림 VIII-29] GDP 대비 소득보장급여 지출	222
[그림 VIII-30] 1인당 소득보장급여 지출	222
[그림 VIII-31] 인구 민감도 분석에 따른 예산수지 전망	225
[그림 VIII-32] 인구 민감도 분석에 따른 총부채 전망	225

[그림 VIII-33]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지 전망	226
[그림 VIII-34]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따른 총부채 전망	226
[그림 VIII-35] 노동생산성 변화에 따른 예산수지 전망	227
[그림 VIII-36] 노동생산성 변화에 따른 총부채 전망	227
[그림 VIII-37]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228
[그림 VIII-38] 수익률 가정에 따른 예산수지 민감도 분석	229
[그림 VIII-39] 수익률 가정에 따른 총부채 민감도 분석	229
[그림 VIII-40] NDIS제도 성숙에 따른 예산수지 민감도 분석	230
[그림 VIII-41] NDIS제도 성숙에 따른 총부채 민감도 분석	230

I. 미국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s

- FY2025 예산은 부자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상향을 통한 세수확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확대 내용을 포함
- FY2025 예산안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온실가스감축에 의한 생산성 하락이 연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1. 추진근거 및 추이

- (법적 근거 및 추진추이) OMB는 연방정부 예산안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회예산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에 의하여 장기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재정전망 수행
 - 「의회예산법」에는 장기재정전망을 포함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FY1997 예산안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및 의료지출을 장기재정의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최초로 205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시행이 시행되어 매년 Analytical Perspectives의 한 부분으로 수록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이 현재까지 유지
- (전망범위) OMB의 장기재정전망은 자체 경제·인구전망을 토대로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추계
- (전망분야)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FY2025 예산안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로 나누어 재정수입 및 지출, 순이자지출,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해 전망
 -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 FY2025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정책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
 - (재정수입) 세입을 포함하여 전체 재정수입(Total receipts) 전망
 - (재정지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다시 주요 복지지출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의료지출인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로 구분
- (예산안 시나리오) 2034년까지는 FY2025 예산안의 중기 전망을 따르며, 이후 FY2025 예산안 반영 전망
- (재정수입) 세입을 포함하여 전체 재정수입(Total Receipts) 전망
 - 2034년까지는 FY2025 예산안의 전망을 따르고, 이후 GDP 대비 수입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소득세 수입은 실제 Real bracket creep¹⁾가 통합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개인소득세 수입을 예측
 - (재정지출: 의무지출) 중기전망 이후 사회보장지출, 메디케어 등의 의무지출은 예산안의 중기전망과는 별도의 모형으로 추계
 - (사회보장지출) 예산안의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보험수리국(Social Security Actuaries)에서 75년 시계열에 대해 전망
 - (메디케어) 2023 Medicare Trustees' report의 수혜자 수 증가와 초과의료비용 증가율을 기반으로 전망
 - (메디케이드) 2034년 이후 수혜자 1인당 GDP 성장률보다 0.7%p 더 높은 초과의료비용 증가율을 가정
 - (재정지출: 재량지출) 2034년까지 OMB 10년 중기전망을 따르고 이후부터 인플레이션과 인구증가율에 속도 연계

2.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주기) 매년 예산안에 장기재정전망 결과 수록
- (전망기간) FY1997 예산안에서는 2050년까지 전망하였고 FY1999부터 FY2017까지는 70년 이상의 상이한 기간에 대해 전망하였으나, FY2018 이후 25년의 기간에 대해서 전망

1) real bracket creep이란, 누진세제하에서 소득구간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소득구간을 상향 이동시키고 그 결과 이로 인한 증세가 일어나는 것을 말함.

- 사회보장(OASDI) 및 건강보험의 계리적 전망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75년의 기간에 대해서 전망
- (중기전망과의 연계성) 약 10년 전망까지는 예산안의 중기전망과 연계, 이후 전망은 장기 모형으로 추계
 - 매년 예산안에 실리는 OMB의 중기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OMB가 장기전망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별도의 모형으로 추계
- (전망주체) OMB의 예산심사국(Budget Review)에서 수행하나,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에서 전망
 - 예산심사국은 예산조정 업무와 지출추계 등 대통령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
 -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은 예산안의 장기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지출 전망
- (전망절차) OMB 모형으로 전 분야 자체 추계
 - 자체 인구 및 거시 전망을 사용하여 장기재정전망 수행
 - 인구 및 노동력 증가율의 경우는 「사회보장 재정보고서(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의 중위가정을 이용하여 전망
 - 수입, 지출 전 분야를 추계하며 지출추계를 이루는 사회보장지출*, 의료지출(Medicare, Medicaid 등) 등도 자체 추계
 - * 예산안의 장기 경제 및 인구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에서 별도 전망
 - 상기 과정을 거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연방정부 예산안 Analytical Perspectives에 수록되며, 이는 OMB의 이름으로 발간

3. 보고서의 구조

- 현 정책 시나리오 및 예산안 시나리오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후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 결과 제시

〈참고 1〉 보고서 *Analytical Perspectives FY2025* 목차

1. 서론
2. 경제분석(Economic Analyses)
 - 거시경제 가정(Economic Assumptions)
 - 장기재정전망(Long-term Budget Outlook)
3. 기타 세부 분석(Special Analyses and Presentations)
4. 연방정부 관리(Management Priorities)
5. 기술적 예산 분석(Technical Budget Analyses)

4. 전망전제

- (전망전제) 인구 및 거시 전제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예산안의 중기전망과 동일한 전제를 사용하며 이후 기간은 가정을 통해 외생적으로 설정
 - (인구) 인구 및 노동력 증가율은 「2023년 사회보장재정보고서(2023 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의 중위가정을 확대하여 전망
 -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5% 수준에서 2049년 그 비율의 3/4으로 둔화
 - (거시) 2024년부터 2034년까지는 아래 중기전망을 따르며 2034년 이후 중기전망의 마지막 연도(2034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
 - 실질 GDP 성장률은 연 1.7%, CPI 물가상승률은 연 2.3%, 실업률은 3.8%,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7%, 91일 만기 국채 금리는 2.7%로 일정하게 유지

〈표 I-1〉 중기 거시전제

	Actual 2022	Projections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Gross Domestic Product (GDP)													
Levels, Dollar Amounts in Billions:													
Current Dollars	25,744	27,347	28,507	29,640	30,863	32,139	33,466	34,870	36,368	37,947	39,594	41,313	43,110
Real, Chained (2017) Dollars	21,822	22,347	22,728	23,136	23,600	24,072	24,553	25,059	25,601	26,164	26,739	27,328	27,929
Chained Price Index (2017=100), Annual Average	118	122	125	128	131	134	136	139	142	145	148	151	154
Percent Change, Fourth-Quarter-over-Fourth-Quarter:													
Current Dollars	7.1	5.6	3.6	4.1	4.1	4.1	4.1	4.2	4.3	4.3	4.3	4.3	4.4
Real, Chained (2017) Dollars	0.7	2.6	1.3	2.0	2.0	2.0	2.0	2.1	2.2	2.2	2.2	2.2	2.2
Chained Price Index (2017=100)	6.4	3.0	2.3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Incomes, Billions of Current Dollars													
Domestic Corporate Profits	2,736	2,795	2,659	2,438	2,472	2,693	2,944	3,151	3,353	3,582	3,835	4,083	4,343
Employee Compensation	13,499	14,267	14,978	15,644	16,360	17,100	17,859	18,637	19,453	20,307	21,203	22,137	23,115
Wages and Salaries	11,116	11,823	12,402	12,967	13,557	14,168	14,792	15,435	16,109	16,818	17,555	18,325	19,148
Nonwage Personal Income	6,101	6,452	6,813	7,196	7,533	7,877	8,300	8,638	9,007	9,384	9,780	10,246	10,679
Consumer Price Index (All Urban)²:													
Level (1982-1984=100), Annual Average	293.0	305.0	314.0	321.0	328.0	336.0	344.0	352.0	360.0	368.0	376.0	385.0	394.0
Percent Change, Fourth-Quarter-over-Fourth-Quarter	7.1	3.4	2.5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Unemployment Rate, Civilian, Percent													
Annual Average	3.6	3.6	4.0	4.0	3.9	3.9	3.8	3.8	3.8	3.8	3.8	3.8	3.8
Q4 Level	3.6	3.8	4.1	4.0	3.9	3.8	3.8	3.8	3.8	3.8	3.8	3.8	3.8
Interest Rates, Percent													
91-Day Treasury Bills	2.0	5.1	5.1	4.0	3.3	3.1	2.9	2.8	2.8	2.7	2.7	2.7	2.7
10-Year Treasury Notes	3.0	4.1	4.4	4.0	3.9	3.8	3.8	3.7	3.7	3.7	3.7	3.7	3.7

¹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as of November 2023.
² Seasonally Adjusted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 p. 11.

5. 전망결과

-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입 및 주요 지출 분야,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 등 전망결과를 현 정책 시나리오와 예산안 시나리오로 나누어 제시
 - (재정수입) 세입 포함 전체 재정수입으로 제시
 - (재정지출) 이자지출과 비이자지출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제시
 - 의무지출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기타 의무지출로 구성
- (현 정책 시나리오) 현재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각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신탁기금 고갈과 관계없이 예정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전액 지급을 가짐
 - (수입) 2024년 GDP 대비 17.6%에서 2049년 19.3%로 증가
 - (지출) 2024년 GDP 대비 24.3%에서 2049년 24.0%로 소폭 감소

- (재정적자) 2024년 GDP 대비 6.8%에서 2049년 4.6%로 개선
 - (국가채무) 2024년 GDP 대비 99.8%에서 2049년 120.7%로 증가
- (FY2025 예산안 시나리오) FY2025 예산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하는 세 수확보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
- * 법인세율 현행 21% → 28% 상향,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최고한계세율인 39.6% 및 자산가치 1억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 이상 소득세율은 최소 25%로 조정
- (수입) 2024년 GDP 대비 18.0%에서 2049년 20.7%로 증가
 - (지출) 2024년 GDP 대비 24.6%에서 2049년 23.6%로 유지
 - (재정적자) 2024년 GDP 대비 6.6%에서 2048년 2.9%로 크게 개선
 - (연방부채) 2024년 GDP 대비 99.6%에서 2049년 98.9%로 소폭 감소
 - FY2025 예산안 전망결과 국가채무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2030년부터 2033년 기간동안 GDP 대비 106% 수준을 유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49년에는 전망 첫 연도인 2024년 99.6%보다 0.7%p 더 낮은 98.9%로 전망됨

〈표 I-2〉 시나리오별 총량 전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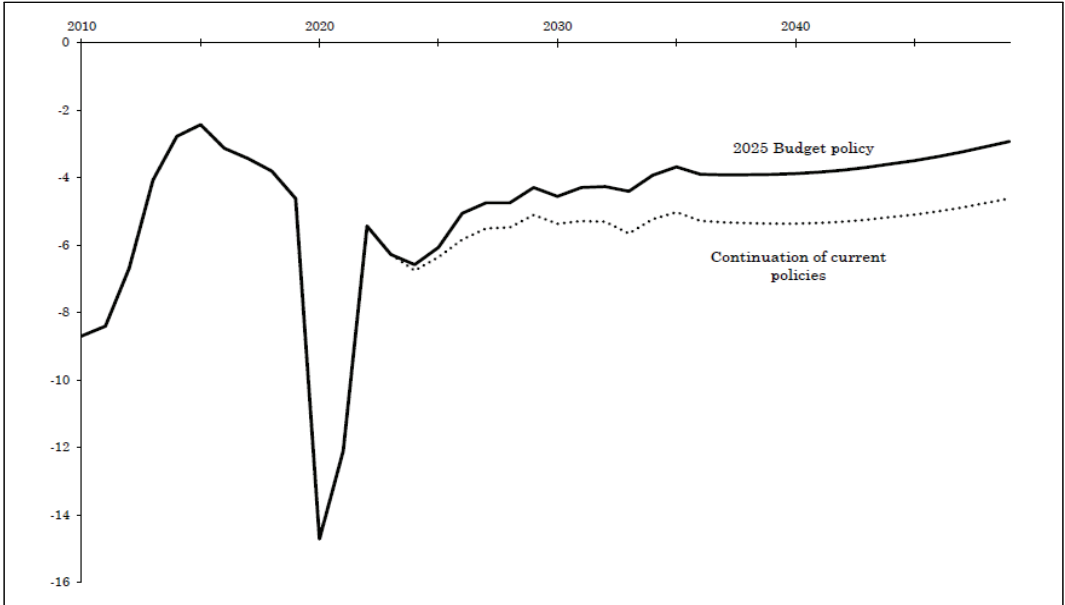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			FY2025 예산안 시나리오		
		2024	2034	2049	2024	2034	2049
총수입	16.5	17.6	18.8	19.3	18.0	20.3	20.7
총지출	22.7	24.3	24.1	24.0	24.6	24.2	23.6
의무지출	13.9	14.7	15.2	15.8	14.7	15.9	16.4
사회보장지출	5.0	5.1	5.7	5.6	5.1	5.7	5.6
메디케어	3.1	3.0	4.1	4.6	3.0	4.0	4.4
메디케이드	2.3	2.0	2.3	2.6	2.0	2.4	2.7
기타	3.5	4.6	3.0	3.0	4.6	3.8	3.7
재량지출	6.4	6.4	5.2	4.2	6.7	4.8	3.9
이자지출	2.4	3.1	3.7	4.0	3.1	3.5	3.3
재정수지	-6.3	-6.8	-5.2	-4.6	-6.6	-3.9	-2.9
기초재정수지	-3.8	-3.6	-1.5	-0.7	-3.4	-0.4	0.4
국가채무	97.3	99.8	113.3	120.7	99.6	105.6	98.9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를 바탕으로 요약 및 재작성.

[그림 I-1] OMB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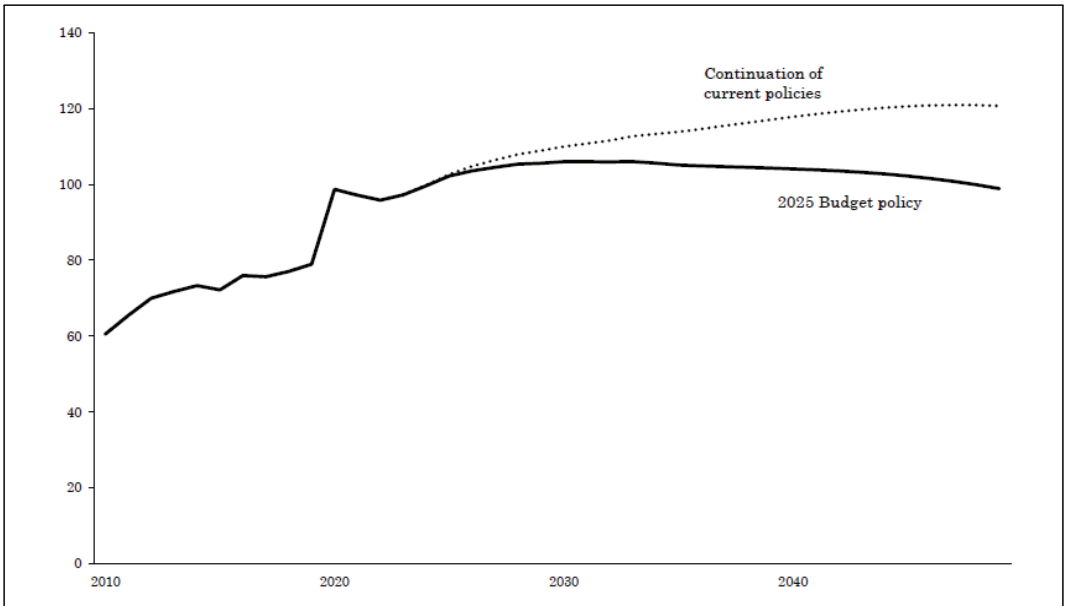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 p. 19.

[그림 I-2] OMB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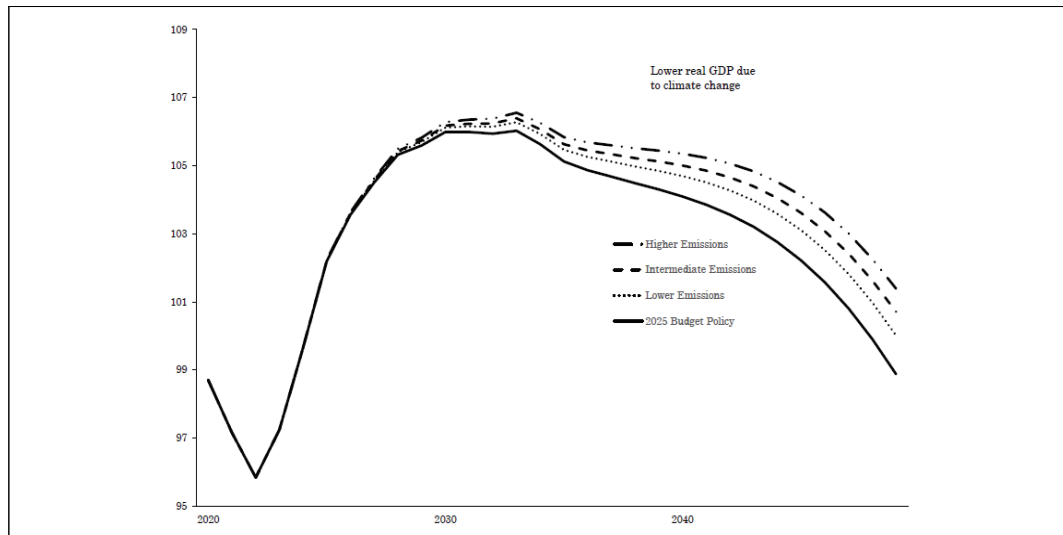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 p. 20.

6.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 FY2025 예산안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후변화를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의료지출, 재량지출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되 다른 국가들이 취하는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변화되었을 때의 낮은 생산성이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저배출 시나리오(lower emissions scenario):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동일하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함
 - 현상유지 시나리오(intermediate emissions scenario):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현재 정책 유지
 - 고배출 시나리오(higher emissions scenario):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정책이 약화됨
-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기후변화가 2049년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저배출, 현상유지, 고배출 시나리오별로 각각 100.0%, 100.7%, 101.4%로 전망됨

[그림 I-3] 민감도 분석: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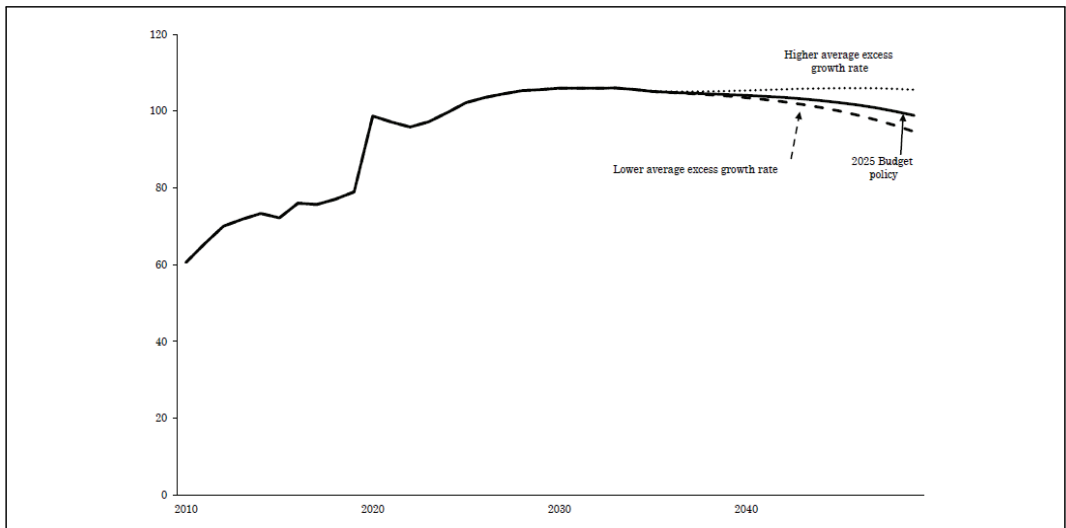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 p. 22.

- (의료지출) FY2025 예산안 시나리오의 수혜자 1인당 의료지출 증가율은 1인당 GDP 성장률보다 1.2%p 빠르게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초과의료비용 증가율(Excess cost growth)을 설정하여 수혜자 1인당 의료지출 증가율에 변화를 주어 민감도 분석을 실시
 - 1인당 의료지출의 성장률이 '초과의료비용 증가율 + 0.5%p'인 경우, 2049년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는 105.6%
 - 1인당 의료지출의 성장률이 '초과의료비용 증가율 - 0.5%p'인 경우, 2049년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는 94.7%

[그림 I-4] 민감도 분석: 의료지출 변화에 따른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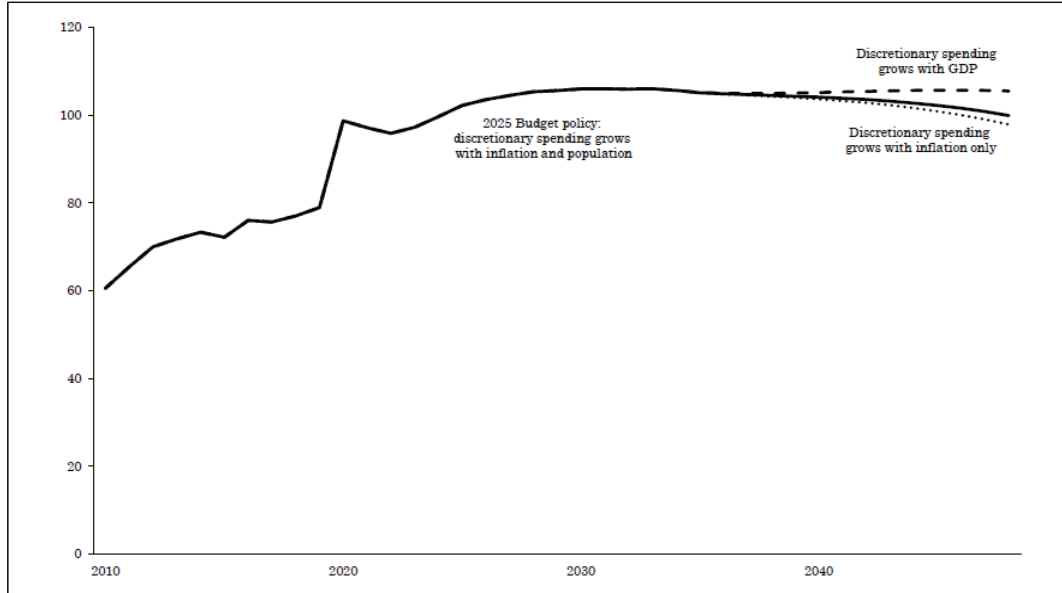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 p. 23.

- (재량지출) FY2025 예산안 시나리오에서는 2034년 이후 재량지출이 인플레이션과 인구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재량지출이 GDP 또는 인플레이션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민감도 분석 수행
 - 재량지출이 GDP에 연동하여 증가하는 경우, 2049년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는 105.3%
 - 재량지출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경우, 2049년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는 96.6%

[그림 I-5] 민감도 분석: 재량지출 변화에 따른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 p. 24.

〈표 I-3〉 민감도별 국가채무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시나리오	가정	2024	2049
FY2025 예산안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 증세 및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확대	99.6	98.9

(민감도 분석)

온실가스 감축	저배출 시나리오 : 미국 및 다른 국가 모두 탄소중립 정책	99.6	100.0
	현상유지 시나리오 : 미국 탄소중립 + 다른 국가 현상 유지		100.7
	고배출 시나리오 : 미국 탄소중립 + 다른국가 온실가스 배출정책 약화		101.4
의료지출	초과의료비용 증가율 + 0.5%p	99.6	105.6
	초과의료비용 증가율 - 0.5%p		94.7
재량지출	GDP에 따라 증가	99.6	105.3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		96.6

출처: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 2024를 바탕으로 재작성.

II. 미국 CBO

2024 The Long-Term Budget Outlook

- 2024년 예산전망은 이민증가, 경제성장정책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개선
- 2054년에 이르러 재정적자는 50년 역사 평균치의 두 배가 될 것이며, 연방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1. 추진근거 및 추이

- (법적 근거)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동 보고서는 경제 및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 중 하나로 매년 발간
 - 1974년 「의회예산법」²⁾에 따라 설립된 CBO는 의회 예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및 재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
 - 경제 및 재정 전망(10년 시계), 대통령 예산안 분석, 비용추계 등을 수행하며, 장기재정전망 역시 CBO의 의회 활동 보좌 업무의 하나
- (추진배경)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 시행
 - 1996년 5월 “The Economic and Budget Outlook: Fiscal Years 1997-2006”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최초 발표
- (추진추이) 1996년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다양한 보고서의 이름으로 연간 또는 격년으로 발표 되다가 2009년부터 현재와 같이 매년 발간

2)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2. 전망의 범위, 분야 및 방법

□ (전망분야) CBO의 장기재정전망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해 전망

○ (재정수입) 개인소득세, 급여세(payload tax), 법인세, 소비세(Excise tax), 유산세 및 증여세, 기타수입원으로 나누어 세목별 가정에 따라 전망

- 전망 시계열 첫 10년 동안 CBO의 예산 및 경제 중기전망 보고서인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이하, 중기전망³⁾)의 GDP 대비 재정수입 전망치를 이용하며, 이후 기본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세목별로 전망

○ (재정지출) 비이자지출과 이자지출로 구분하고, 비이자지출은 다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항목별 가정에 따라 전망

- (비이자지출: 의무지출)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아동의료보험(CHIP),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Marketplace Subsidie),⁴⁾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지출, 기타의무지출(Other)⁵⁾로 구분하여 전망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은 2034년까지 CBO 중기전망을 따르고 2035년부터 수혜자 수, 초과비용 증가율(Additional Cost Growth) 가정*을 고려하여 전망

* 초과비용 증가율은 1인당 명목 의료비 증가율이 1인당 잠재 GDP 증가율을 초과한 비용의 증가율을 의미

구분	2035년 이후 초과비용 증가율 가정
메디케어 (프로그램별 증가율 상이)	Part A 0.35%(’35) → 0.1%(’54) Part B 2.48%(’35) → 0.2%(’54) Part D 1.44%(’35) → 0.6%(’54) Total 1.61%(’35) → 0.22%(’54)
메디케이드	1.0%(’35) → 0.6%(’54)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	0.42%(’35) → 0.6%(’54)

3)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4)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따르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거래소(Marketplace)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Marketplace Subsidie는 해당 시장에서 구입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조금 지출액을 말함.

5) 공무원 및 군인연금, 특정 재향군인 지출, 푸드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실업급여, 현금형 세액공제를 포함.

- 사회보장지출(Social Security)은 전망기간 동안 신탁기금(Trust Fund)의 고갈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현행법에 따라 2054년까지 예정대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가정
- 아동의료보험은 2035년 이후 GDP 증가율로 일정하게 유지
- 기타의무지출 중 환급형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는 수입전망의 일부로 전망하며, 그 외 기타의무지출은 중기전망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31년부터 2034년 기간 동안 감소하고 이후 해당 감소비율을 2053년까지 유지
- (비이자지출: 재정지출) 2034년까지 CBO 중기전망에 따르며 이후 명목 GDP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이자지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율에 수렴 가정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주기) 2009년 이후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추계하여 보고서 발간
 -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연간 또는 격년으로 발표
- (전망기간) 최초 55년 전망에서 75년 전망으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 이후 다시 30년 전망으로 축소
 - 장기재정전망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보장지출 및 의료지출의 장기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중기전망과의 연계성) 장기전망에 사용되는 연방 지출 및 세입에 대한 정책가정의 초기 10년은 중기전망의 현행법 유지 가정과 연계
 - (중기전망) CBO는 연방정부의 현행법이 일관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시계열에 대해 ① 예산전망과 ② 경제전망을 실시한 중기전망보고서(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를 정기적으로 발표
 - (장기재정전망과의 연계) 중기전망의 예산전망 시나리오는 장기전망보고서(Long-term Budget Analysis)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경제전망은 장기전망보고서(Long-term Budget Analysis)의 거시전제로 활용

- (전망주체) “long-term budget outlook”은 노동·소득보장·장기분석실(Labor, Income Security,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이 주도적으로 작업하되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
 - (중기전망) 장기전망보다 선행되며 CBO 중기전망의 예산전망이자 장기전망의 기준선을 수립하는 예산분석실(Budget Analysis Division)이 총괄
 - (장기전망) 노동·소득보장·장기분석실에서 분야별 지출 및 국가채무 등 총량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지출 프로그램별 후속보고서 또한 작성
 - (수입 전망) 조세분석실(Tax Analysis Division)에서 분석
 - (거시경제 전망) 거시경제분석실(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에서 분석
 - (인구전망) 예산분석실의 협조를 받아 노동·소득보장·장기분석실에서 분석

- (전망모형) CBO의 자체 장기재정전망 모형인 CBOLT(Congressional Budget Office’s longterm model)를 이용해 각 항목 전망
 - CBO전망은 인구전망부터 장기전망, 그 이후의 경제성장분석까지 모두 CBO내에서 이루어짐

4. 보고서의 구조

- 전반적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전망, 재정수입, 재정수지, 연방부채에 대한 분석내용으로 구성

〈참고 1〉 보고서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2024. 3.) 목차

요약

1장. 재정적자와 부채

2장. 지출과 수입

3장. 장기전망을 위한 인구 및 거시전제

부록 1.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가정

부록 2. 2023년 6월 이후 CBO 거시경제변수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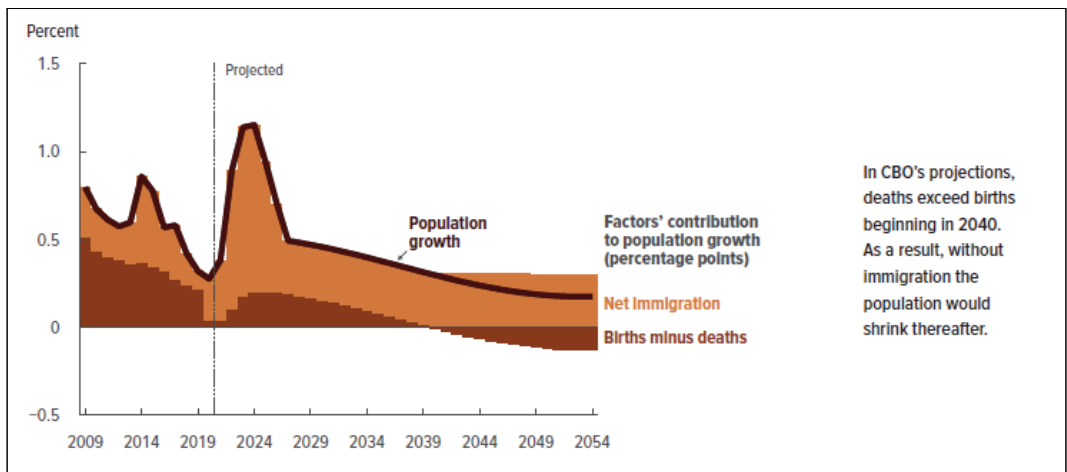
부록 3. CBO의 추가 거시경제변수 전망

부록 4. 2023년 6월 이후 CBO 장기재정전망의 변동사항

5. 전망전제

- (인구전제)⁶⁾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을 통해 노동인구수, GDP, 연방 세입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및 기타 연방프로그램의 수혜자 수와 그에 따른 연방지출을 추정
 - (인구수) 2024년 초 3억 4,200만명에서 2054년 3억 8,300만명으로 연평균 0.4%씩 증가하며 이는 지난 30년 연평균 증가율(0.8%)의 절반 수준
 - 특히 CBO의 예측에 의하면 인구는 출산율보다는 이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2040년에 이르러서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함에 따라 이민이 없을 경우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림 II-1]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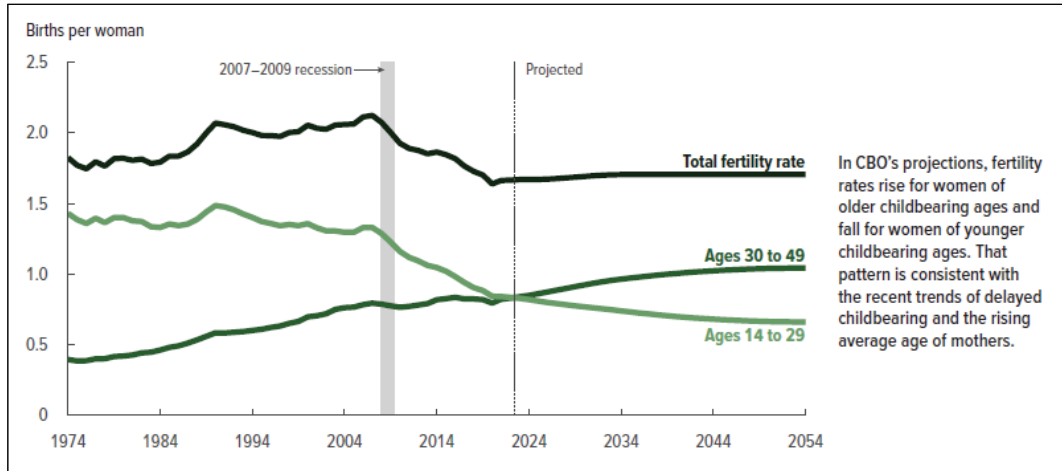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32.

- (합계출산율) 2024년 여성 1인당 1.67명으로 유지된 이후 30~49세 여성들의 출산율 증가로 2034년에는 1.70명으로 상승하고 2054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

6) CBO, "The Demographic Outlook: 2024 to 2054", 2024의 내용을 저자 요약.

[그림 II-2] 합계출산율 전망



출처: CBO, *The Demographic Outlook: 2024 to 2054*, 2024, p. 3.

- (순이민) 2022년 260만명, 2023년 330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순이민은 2010년부터 2019년 기간동안 연평균 90만명이었던 수준보다 높음
 - CBO는 2024년 330만명, 2025년 260만명, 2026년 180만명, 2027~2054년 동안 연평균 110만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것으로 예측
 - 이외 CBO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순이민을 추정
 - 신규 합법 영주권자⁷⁾는 2024~2034년 기간동안 연평균 82만명에서 2045~2054년 기간동안 연평균 87만명으로 증가
 - 법적 지위가 없는 외국 국적자⁸⁾들은 전망 기간동안 연평균 9만명 유지
 - 합법적인 임시거주자⁹⁾의 경우 2024~2026년까지 연평균 170만명, 그 이후에는 20만명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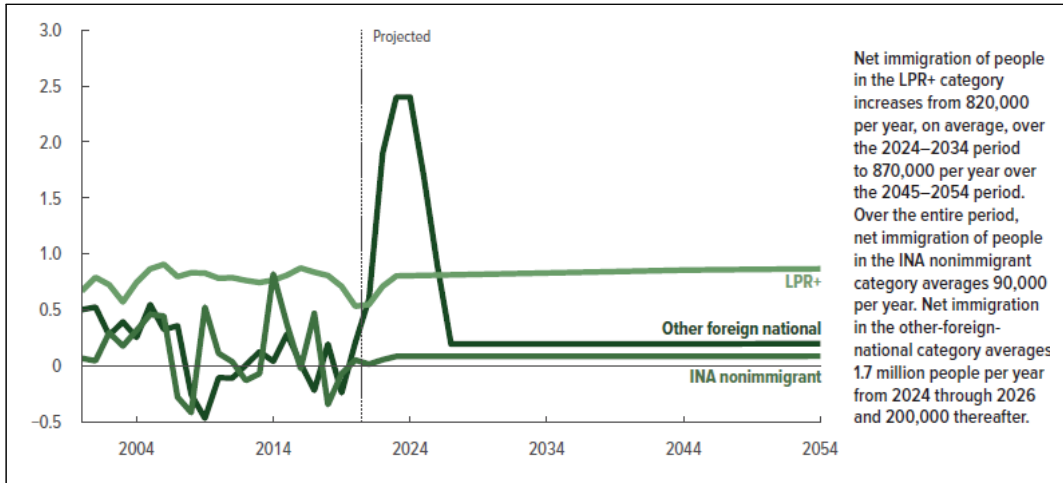
7)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세금납부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대부분 연방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

8) 법적 지위가 없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세금납부 의무는 있으나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될 수 없는 자.

9) 합법적인 임시거주자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한정적인 수혜를 받을수 있는 자.

[그림 II-3] 순이민 전망

(단위: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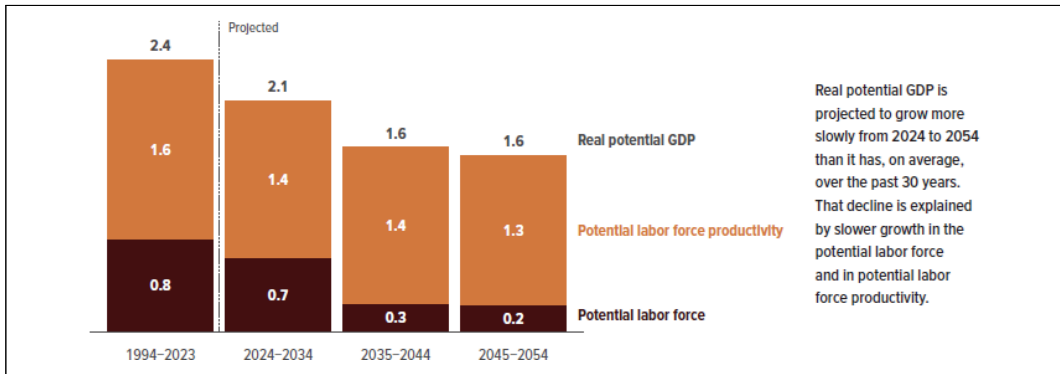
출처: CBO, *The Demographic Outlook: 2024 to 2054*, 2024, p. 6.

- (거시전제) CBO는 향후 30년 기간동안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연방예산의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
 - 2034년까지의 거시전제는 CBO 중기전망의 경제전망과 동일하며, 이후 20년 동안은 장기추세에 대한 CBO의 평가에 따른 거시전제 적용
 -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증가는 지난 30년보다 향후 30년 동안 더 느려질 것이며 이민이 없다면 2040년에는 인구가 줄어들 것
 - 경제성장 또한 지난 30년보다 향후 30년 동안 더 느려질 것이며 이는 노동증가율의 하락과 연방정부의 차입증가로 인한 자본축적이 더딘 결과임
 - 인플레이션은 2026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의 장기목표인 2%와 일치하는 속도로 둔화된 후 2026년부터 2054년까지 목표수준과 일치하는 속도로 유지
 - 금리는 일반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상승하는데 이는 연방정부 차입과 총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증가에서 기인함
 - (실질 잠재 GDP) 실질 잠재 GDP의 성장률은 전망 기간동안 연평균 1.8%씩 증가
 - 2024~2034년 기간동안 연평균 2.1%에서 2045~2054년 기간동안 연평균 1.6%로 하락
 - 실질 잠재 GDP의 성장 둔화는 '잠재노동력'과 '잠재노동력 생산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두 요인 모두 성장 둔화

- (잠재노동력 생산성, Potential Labor Force Productivity) 향후 30년 전망 기간동안 잠재적 노동력 생산성은 연평균 1.4% 성장률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0년 성장률인 1.6%보다 낮은 수준
- (잠재노동력, Labor Force Potential rate) 향후 30년 전망 기간동안 연평균 0.4% 수준으로 느리게 성장하고 이는 매년 평균 0.9%씩 성장했던 지난 30년의 성장률보다 매우 낮은 수준

[그림 II-4] 실질 잠재 GDP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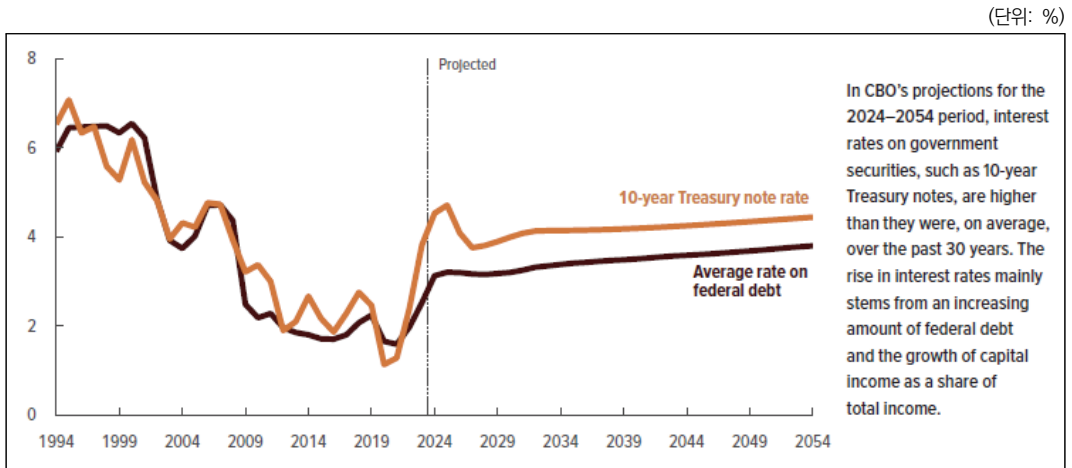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35.

- (1인당 실질 GDP)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24~2054년 기간동안 연평균 1.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1.6%보다 낮은 수치
- (명목 GDP) 2024년 명목 GDP 성장률 3.9%로 예측되며, 2026년까지 4.2%로 상승한 이후 2027년부터 순이민이 과거 수준으로 안정되고 GDP 증가률이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54년 명목 GDP 성장률 3.6% 수준으로 수렴
- (인플레이션) CBO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연방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예측
 - 소비자 물가지수(CPI) 측정의 첫 번째 척도는 개인소비물가지수(PCE)로 연방준비제도는 PCE로 측정되는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명시적으로 2%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BO도 2026년부터 2054년까지 2%로 동일하게 유지
 - 소비자 물가지수(CPI) 측정의 두 번째 척도는 도시지역 소비자물가(CPI-U)로 전망 기간동안 연평균 2.3%로 유지

- (이자율) 2024~2054년 전망 기간동안 금리는 지난 3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측
 - (10년 만기 국채 금리) 2024~2054년 전망 기간동안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평균 4.2%로 1994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3.8%보다 약 3분의 1 수준
 -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실질 이자율) 채권 명목수익률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차감한 값으로 2024년부터 2054년 동안 평균 1.9%로 예상되며 이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 만기 국채의 평균 실질 금리보다 0.6%p 높은 수준
 - (연방부채에 대한 평균 금리) 일반인이 보유한 연방부채 평균 이자율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연방부채의 평균 만기가 1950년대 이후 10년 미만이고, 단기채 이자율이 장기채 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
 - CBO의 예측에 따르면, 연방채무의 평균 이자율은 2024~2054년 동안 3.7%로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보다 0.6%p 낮음

[그림 II-5] 연방부채 및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평균 금리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38.

〈표 II-1〉 거시전제

Average Annual Values for Key Economic Variables That Underlie CBO's Extended Baseline Projections					
Percent	1994-2023	2024-2034	2035-2044	2045-2054	Overall, 2024-2054
Growth of GDP					
Real potential GDP ^a	2.4	2.1	1.6	1.6	1.8
Potential labor force ^b	0.8	0.7	0.3	0.2	0.4
Potential labor force productivity ^c	1.6	1.4	1.4	1.3	1.4
Real GDP	2.5	2.0	1.6	1.6	1.7
Real GDP per person	1.6	1.4	1.3	1.3	1.3
Nominal GDP (fiscal year)	4.7	4.0	3.7	3.6	3.8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d	64.8	62.0	61.1	60.8	61.3
Labor force growth	0.9	0.6	0.3	0.2	0.4
Inflation					
Growth of the PCE price index	2.1	2.0	1.9	1.9	1.9
Growth of the CPI-U	2.5	2.3	2.2	2.2	2.3
Growth of the GDP price index	2.2	2.0	2.0	2.0	2.0
Interest rates					
On 10-year Treasury notes					
Nominal rate	3.8	4.1	4.2	4.3	4.2
Real rate	1.3	1.8	1.9	2.1	1.9
On all federal debt held by the public ^e	3.7	3.2	3.5	3.7	3.5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34.

6. 전망결과

- CBO 예측에 따르면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4년 전망 시점부터 지출이 세입을 초과한 다음 향후 30년 동안 지출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적자 또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가.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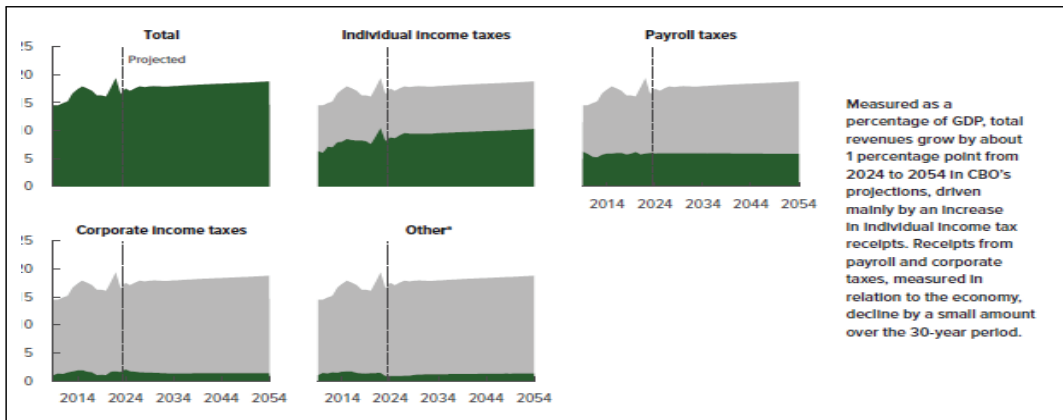
- (수입) 2024년 GDP 대비 17.5%에서 2025년 17.1%로 하락한 후 일몰예정인 「소득세법」 변경으로 2027년 17.9%로 상승하는 등 전망 초기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이후 2034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점차 증가하여 2054년 GDP 대비 18.8%에 이를 것
 - (실질 과표구간 상승) 현행법이 유지될 경우 실질과표구간 상승(real bracket creep)¹⁰⁾ 효과로 전망 기간동안 GDP 대비 1.4%만큼 세수를 늘림

10)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증가함에 따라 소득의 많은 부분이 더 높은 세율을 받게 되는 과정.

- 2034년부터 2054년까지 최고세율 과세 대상 고소득 비중은 2%p 상승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소득비율(대부분 면세 및 공제)은 3%p 하락
- (세법 조항의 변경) 개인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 세법(2017 tax act, P.L. 115-97)의 대부분 조항이 2025년 만료되어 세율인상, 공제규모 축소, 자녀세액공제감소 등 2026년부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여 개인소득세수는 2026년 이후 평균 0.7%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타요인) 인구고령화로 인한 비과세대상 연금 및 퇴직소득의 증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세금 감면, 과세이연 종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정책결정으로 2023년부터 2054년까지 GDP 대비 0.8%만큼 수입을 감소시킴

[그림 II-6] 분야별 수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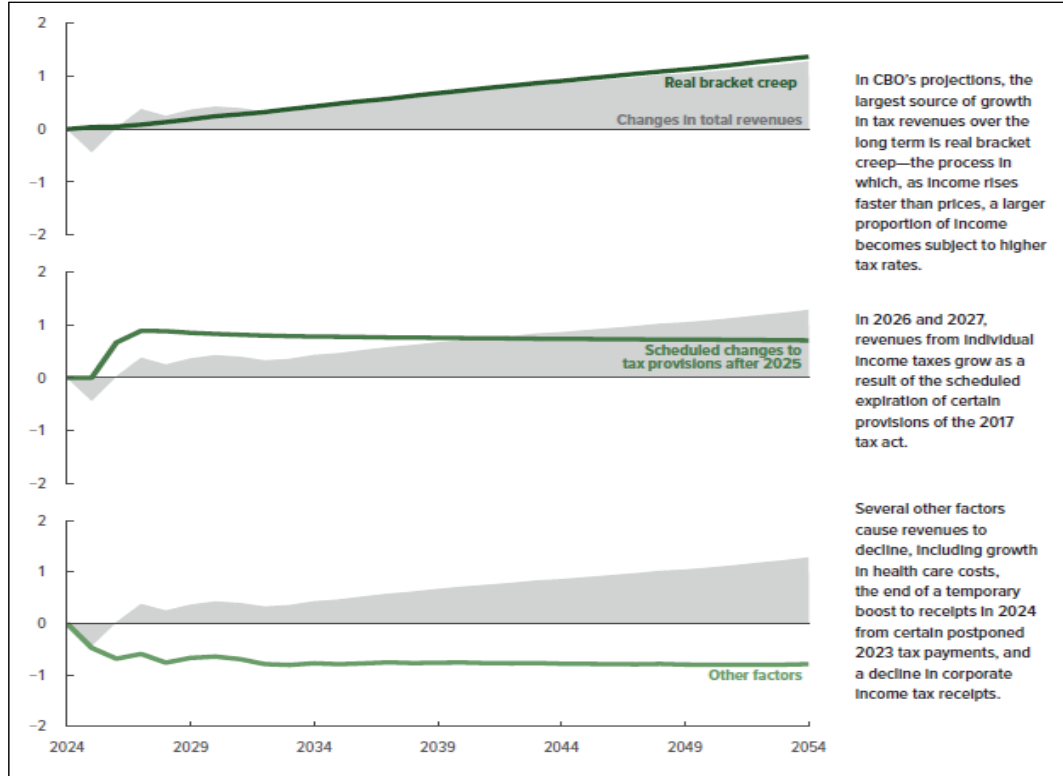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26.

[그림 II-7] 수입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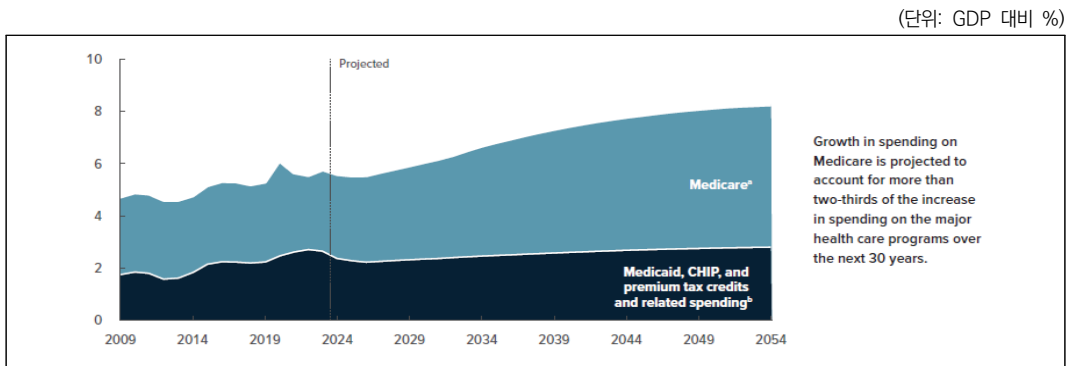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27.

나. 지출

- (지출) 2024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3.1%이며 2028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한 후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54년 27.3%에 이를 것으로 예상
 - 1974년부터 2023년까지 총지출 평균액은 GDP 대비 25% 수준이었으며 향후 30년 기간동안 지출액 증가의 주요 동인은 금리상승과 연방부채의 증가로 인한 순이자비용 증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주요 의료프로그램 특히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 증가로 분석
-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 사회보장지출, 기타의무지출로 전망

-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 Major Health Care Programs)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를 통해 구입한 건강보험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됨
 -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규모는 2024년 GDP 대비 5.6%에서 2054년 8.3%로 급증 예상
 - 65세 이상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증가로 2024년 GDP 대비 3.2%에서 2054년 5.4%로 증가
 - 메디케어를 제외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지출은 2024년 GDP 대비 2.4%에서 2054년 GDP 대비 2.8%로 소폭 증가

[그림 II-8] 의무지출 중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지출 전망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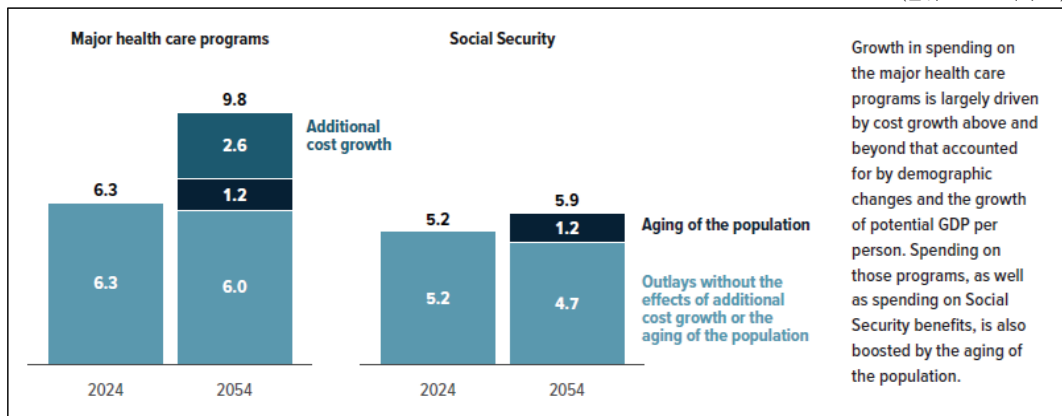
-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은 지난 50년간의 추세를 유지하여 2024년 GDP 대비 5.2%에서 2034년 5.9%로 증가한 이후 전망 기간동안 유지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¹¹⁾의 구성원들이 사망하고 이후 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 구성원들이 사회보험 수혜자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
 - (수혜자 수)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사회보장 수혜자 수는 6,800만명(미국 인구 대비 20% 수준)에서 2034년 8,000만명(미국 인구 대비 25%)으로 증가하다가 2034년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보장 수급 나이인 70세가 되기 때문

11) CBO는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를 1946년에서 1964년으로 한정.

- (재원)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의 약 96%는 급여세(a payroll tax)로부터 징수되고 나머지는 사회보장 급여액(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노인 및 생존자 보험(OASI) 신탁기금과 장애(DI)보험의 신탁기금에 적립
 - 급여세와 소득세 수익은 2024년 GDP 대비 4.6%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54년 4.4%로 전망
- (지출) 현행법에 따르면 OASDI의 신탁기금은 2034년에 소진될 예정이며, 신탁기금 소진 후 다른 재원의 추가지원이 없다면 수지균형 가정하에 2035년 OASDI의 지급액은 현재 급여수준보다 21% 정도 낮아질 것이며 2054년 이르러서는 현재 급여수준 대비 25% 정도 낮아질 것
- (기타, Other Mandatory Programs) 기타 의무지출에는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퇴직군인 지원 프로그램, 추가적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되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기타 의무지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GDP 대비 2~4%를 유지하였고 향후 30년 전망기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2024년 GDP 대비 3.1%에서 2034년 2.5%로 감소한 이후 2054년 2%로 하락
 - 2034년까지 예측되는 감소 추세는 기타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이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이며 CBO 경제전망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인플레이션은 명목 GDP 증가율보다 작음

[그림 II-9]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지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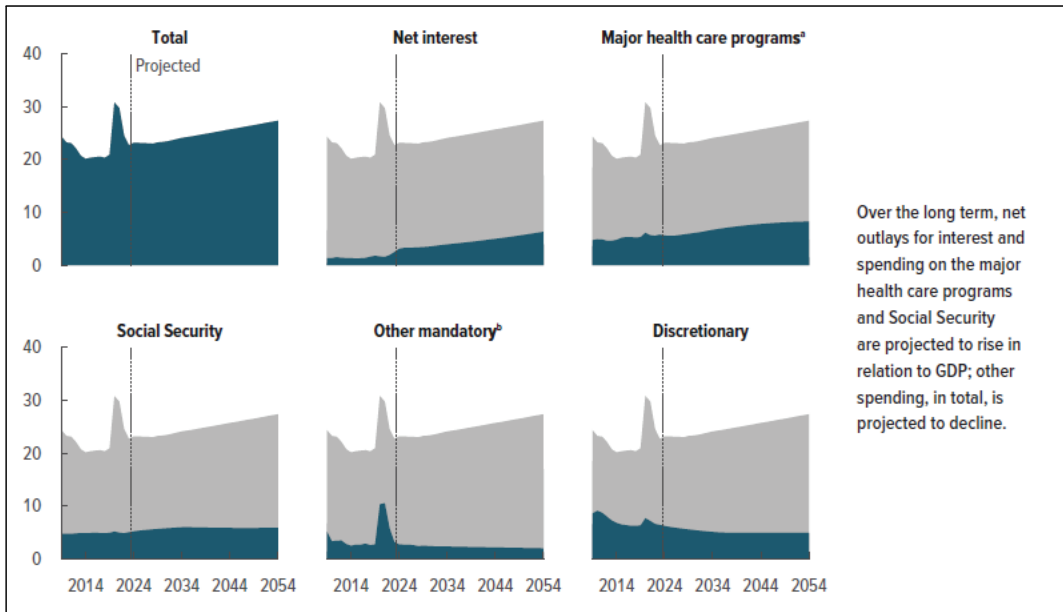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24.

- (재량지출) 2034년까지 CBO 중기예산을 따르는데 이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약 절반이 국방비로 지출
 - 2024년 6.2%에서 2036년 4.9%로 감소하고 2034년 이후 재량지출은 명목 GDP 증가율에 연계되어 2054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

- (순이자지출) 순이자지출은 2024년 GDP 대비 3.1%에서 연방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2034년 GDP 대비 3.9%로 전망되고 이후 폭발적(explode)으로 증가하여 2053년 GDP 대비 6.3%에 도달
 - 2054년의 순이자지출액은 사회보장, 주요 의료 프로그램, 재량지출 이외 어떤 지출항목보다도 높은 지출액을 보일 것이며 1940년 미국 예산관리국이 데이터를 축적한 이래 전망한 최고 지출액이자 GDP 대비 두 배 정도에 이르는 지출규모로 전망

[그림 II-10] 항목별 지출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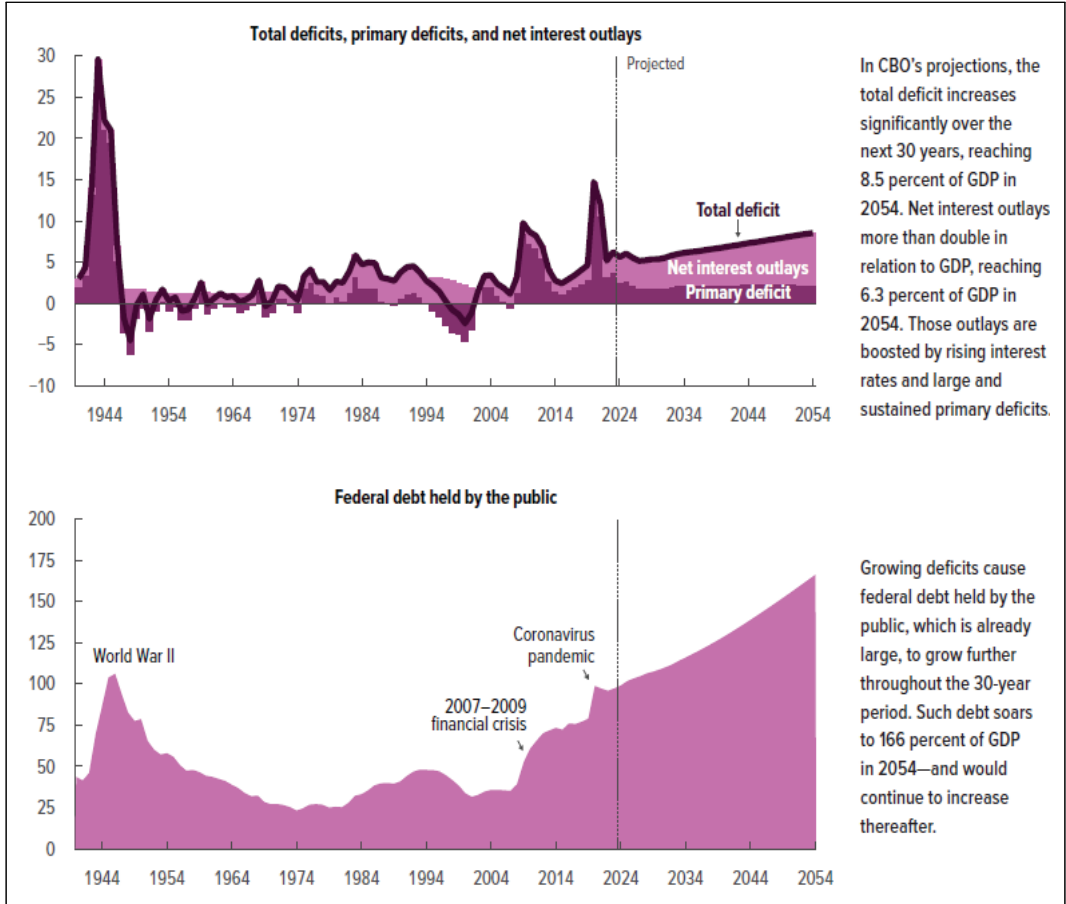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19.

다. 재정수지와 부채

- (재정적자)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5.6%에서 2026년 6.1%로 치솟고 이후 2027~2028년 5.2%로 개선되다가 이후 쪽 악화되어 2054년 GDP 대비 8.5%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50년간 평균의 두 배(GDP 대비 6.7%) 수준임
 - 적자의 원인은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전망 기간동안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며 2054년 순이자비용인 GDP 대비 6.3%는 지난 50년 평균인 2.1% 수준보다 세 배 정도임
 - 전망기간동안 예상되는 순이자비용 상승분의 2/3는 금리인상에 기인하고 나머지 1/3은 재정적자에 의한 것으로 예측
 - (기초재정수지) 이자지출을 제외한 적자는 2024년 GDP 대비 2.5%에서 2030년 1.9% 수준으로 개선되나 이후 악화되어 2054년 GDP 대비 2.2%로 전망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50년 평균 수준은 GDP 대비 1.6%보다 높은 수준
- (연방부채) 대규모 재정적자에 의해 일반인이 보유한 연방정부 부채는 2024년 GDP 대비 99%에서 계속 증가하여 2054년 GDP 대비 166.2%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증가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증가하는 부채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 부채를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이자지불액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것

[그림 II-11] 재정수지 및 연방부채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10.

〈표 II-2〉 CBO 장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2024	2034	2044	2054
Revenues				
Individual income taxes	8.8	9.5	9.9	10.3
Payroll taxes	5.9	5.9	5.9	5.8
Corporate income taxes	2.0	1.3	1.4	1.4
Other ^a	0.8	1.2	1.2	1.3
Total	17.5	17.9	18.4	18.8
Outlays				
Mandatory				
Social Security	5.2	5.9	5.8	5.9
Major health care programs ^b	5.6	6.7	7.8	8.3
Other	3.1	2.5	2.3	2.0
Subtotal	13.9	15.1	15.8	16.2
Discretionary	6.2	5.1	4.9	4.9
Net interest	3.1	3.9	5.0	6.3
Total	23.1	24.1	25.7	27.3
Total deficit (-)^c	-5.6	-6.1	-7.3	-8.5
Primary deficit (-)^{c,d}	-2.5	-2.2	-2.4	-2.2
Debt held by the public at the end of the period	99	116	139	166

출처: CBO,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p. 12.

7. 민감도 분석¹²⁾

- (민감도 분석) The 2024 Long-Term Projection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후속 보고서로 발표되었으며 CBO 장기전망 예측결과를 기준으로 경제적 상황과 예산 등의 변화가 연방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도 분석 실시
- (총요소생산성) 전망 기간동안 기준선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보다 $\pm 0.5\%p$ 만큼 변화하도록 설정
 - (30년 연평균 증가율 GDP 대비 1.1%보다 0.5%p 빠르게 증가): GDP 대비 연방부채 (2024년) 98.6% → (2054년) 124.4%
 - (30년 연평균 증가율 GDP 대비 1.1%보다 0.5%p 느리게 증가): GDP 대비 연방부채 (2024년) 99.4% → (2054년) 211.4%

12)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Under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Economy and the Budget", 2024. 5.

- (이자율) 연방차입금리가 기준선 요율에 비해 높거나 낮게 변화하도록 설정
 - (기준선 금리를 2024년부터 매년 5bp씩 누적으로 인상)¹³⁾: GDP 대비 연방부채(2024년) 99.1% → (2054년) 216.6%
 - (기준선 금리를 2024년부터 매년 5bp씩 누적으로 인하): GDP 대비 연방부채(2024년) 99.0% → (2054년) 12.8.7%

- (재정적자에 대한 민간투자의 민감도 변화) CBO(2024)는 1달러의 재정적자(deficit- financed spending)가 발생할 때 33%의 민간투자가 감소한다고 평가함¹⁴⁾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정부차입이 민간투자에 영향을 미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가정
 - (재정적자에 대한 민간투자의 민감도가 기준선보다 2배일 경우)¹⁵⁾ GDP 대비 연방부채(2024년) 99.0% → (2050년) 236.7% 이후 수치 미제공
 - (재정적자가 민간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연방부채(2024년) 99.0% → (2054년) 129.9%

- (수입과 지출 변화) 재량지출과 수입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전망 기간동안 연방부채를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 가정
 - (GDP 대비 재량지출과 수입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유지) 재량지출과 수익에 대한 비율을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 수준으로 설정
 - 역사적 평균 시나리오하에서 재량지출은 GDP 대비 7.0%이며 이는 기준 시나리오의 재량지출보다 1.9%p 높은 수준임
 - 역사적 평균 시나리오하에서 수익은 GDP 대비 17.2%이며 이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1.0%p 낮은 수준임
 - GDP 대비 연방부채(2024년) 100.0% → (2049년) 244.0% 이후 수치는 미제공
 - (연방부채 수준을 2024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 전망 기간동안 연방부채 수준을 2024년 수준인 GDP 대비 99%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전망 기간동안 GDP 대비 0.4%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기준선에 의한 GDP 대비 기초재정적

13) 2024년 5bp 인상, 2025년 10bp 인상, 2026년 15bp 인상.

14) Jonathan Huntley, "The Long-Run Effects of Federal Budget Deficits on National Saving and Private Domestic Investment", CBO working paper, 2014.

15) 재정적자가 1달러 변화할 때 민간투자는 66% 감소.

자는 연평균 2.3%임에 따라 전망 기간동안 일정수준의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 재정적자를 1.9%p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 (세입증가)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재정적자 개선의 원인이 전적으로 세입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총세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GDP 대비 19.0%, 2050년부터 2054년까지 연평균 GDP 대비 20.9%로 전망
 - 기준선 수입전망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평균 GDP 대비 17.6%, 2050년부터 2054년까지 연평균 GDP 대비 18.7%
- (비이자지출액 감소)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재정적자 개선의 원인이 전적으로 비이자 지출액 감소에 의한 것이라면 비이자지출액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GDP 대비 18.4%, 2050년부터 2054년까지 연평균 GDP 대비 18.9%로 비이자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여야 함을 의미
 - 기준선 비이자지출액 전망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평균 GDP 대비 19.8%, 2050년부터 2054년까지 연평균 GDP 대비 21.0%

〈표 II-3〉 일정한 연방부채 비율 시나리오의 기초재정적자 개선 요인별 전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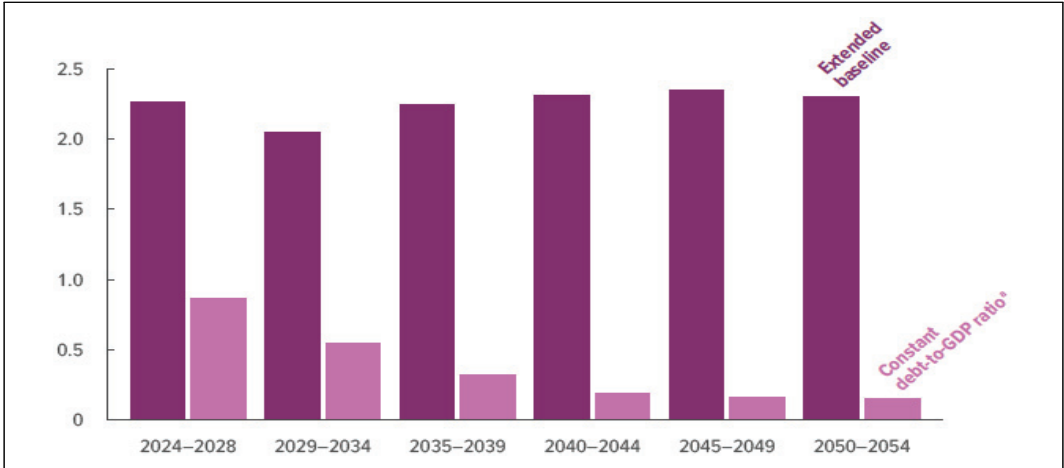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연평균)

구분	기초재정적자		적자 개선 원인 변수별 전망			
			① 세입증가		② 비이자지출	
FY	기준선 전망	일정 부채 유지 시나리오	기준선 전망	일정 부채 유지 시나리오	기준선 전망	일정 부채 유지 시나리오
2024-2028	2.3	0.9	17.6	19.0	19.8	18.4
2050-2054	2.3	0.2	18.7	20.9	21.0	18.9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Under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Economy and the Budget*, 2024, pp. 8-9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그림 II-12] 일정한 연방부채 비율 시나리오의 기초재정적자 전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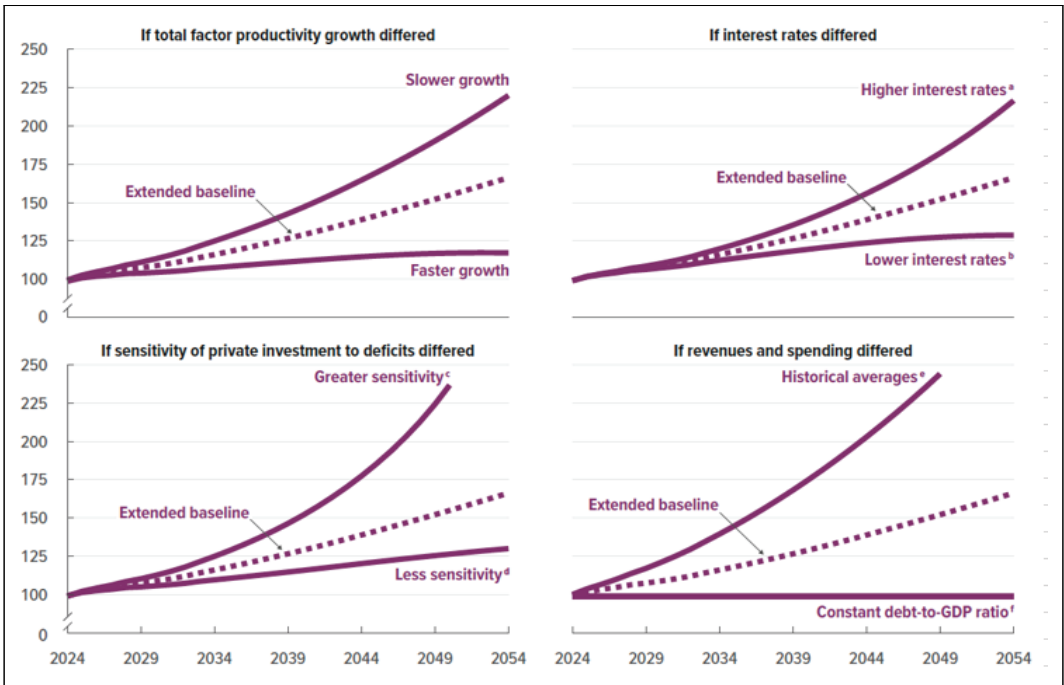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Under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Economy and the Budget*, 2024, p. 8.

[그림 II-13] 연방부채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Under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Economy and the Budget*, 2024, p. 4.

Ⅲ. 일본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 중장기 경제방침인 「기본방침」을 근거로 연 2회 중장기 전망을 시행
-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되어 예산편성 및 재정건전화 달성 방안 논의 등에 활용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향후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¹⁶⁾」(이하 「기본방침 2001」)을 근거로 하여 첫 번째 전망인 「구조개혁과 경제재정 중기전망」(이하 「개혁과 전망」)을 2002년에 실행
 - 「기본방침 2001」은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이 발표한 중장기 경제운영 방침으로 중장기 계획 기반의 경제운영 및 예산결정을 위해 매년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
 - 「개혁과 전망」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망시계가 5년인 중기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구조개혁과 개혁 효과에 대한 전망결과를 포함

〈표 Ⅲ-1〉 「기본방침 2001」 내 재정전망 근거 항목

제5장 경제재정의 중기전망과 정책과정의 개혁

2. 중기 경제재정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의 쇄신

(1) 중기 경제재정 계획의 책정

향후 경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재정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과 일치하는 형태로 **매년 경제 운영과 예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년 중기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재정 동향을 감안하여 **매년 개정**한다.

출처: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hakusyoy/chihou/17data/17czs4-5-5.html(검색일자: 2024. 08. 02.).

16) 2007년부터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으로, 2014년부터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변경.

- (추진추이) 기존 중기계획은 2009년에 전망시계 10년인 중장기 전망으로 확장됐으며, 최신 전망인 2024년 7월까지 매년 2회 발표
 - 중기계획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다른 명칭으로 시행됐으며, 2002~2006년까지는 「개혁과 전망」, 2007~2008년까지는 「진로와 전략」으로 매년 1회 발표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 예측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9년 「경제 재정의 중장기 정책 및 10년 전망」이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기존 중기계획을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이하 중장기 시산)으로 대체하여 매년 2회 발표
 - 중장기 시산은 1월과 7월에 발표하며, 1월 시산은 다음 회계연도¹⁷⁾ 예산안, 7월 시산은 추경이 반영된 당해 최종 예산을 실적치로 활용
 - 2009년부터 중장기 시산은 경제재생·재정건전화의 진행 상황 평가, 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 경제재정정책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경제재정자문회의¹⁸⁾에 제출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전망
 - 중앙정부는 일반회계, 교부세 및 양여세 배부금 특별회계,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
 - (교부세 및 양여세¹⁹⁾ 배부금 특별회계)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 행정서비스 운영 및 지역 간의 재정 격차 감소 등에 활용
 -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의 재건 및 부흥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 복구 및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
 -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 에너지 수요·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특별회계로 GX 전략²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역할을 수행

17)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8) 경제재정자문회의는 내각부 산하 합의제 기구로 2001년 고이즈미 내각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총리와 재무장관, 총무장관 등 정부인사 외 총인원의 40%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중장기경제 운영방침인 「기본방침」을 결정.

19)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이며, 양여세는 자동차세, 주류세 등 특정 세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제로 두 세제 모두 지역 간 재정 격차 감소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며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재정 상황에 따라 재정의 규모 결정.

20) GX(Green Transformation,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에 중점을 둔 대규모

○ 지방정부는 일반회계로 구성

□ (전망분야) 세부 항목은 정부별로 상이하며, 크게 세입은 조세수입, 기타수입, 국공채 발행액, 세출은 사회보장관계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공채비로 구성

〈표 III-2〉 일본 재정전망의 전망 범위 및 분야

구분	세부항목	회계종류
중앙 정부	세입 1) 국세 및 인지수입: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기타 직·간접세, 인지수입 등 2) 기타수입 3) 국채 발행액	1) 일반회계 2) 교부세 및 양여세 배부금 특별회계 3)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4)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 등
	세출 1) 사회보장관계비: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고용보험 등 국가 부담분, 연금관계비 등 2) 투자적 경비: 직할사업비, 지방정부보조금 등 3) 기타 일반세출: 인건비, 의무교육비 국가부담금, 경상보조금, 지방정부보조금 4) 공채비	
지방 정부	세입 1) 지방세 수입: 지방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2) 교부금 등 이전재원 3) 지방채 발행액	1) 일반회계
	세출 1) 사회보장관계비: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 지방정부 부담분 2) 투자적 경비: 국가직할사업 부담금, 보조사업비, 지방정부사업비 등 3) 기타 일반세출: 인건비, 급여관계비, 기타 지방세출 4) 공채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19; 2024)를 활용하여 재가공.

□ (전망방법) 2024년은 실적치, 2025년은 내각부 연앙시산을 적용하며, 이후는 경제재정보델²¹⁾을 활용하여 세입·세출을 전망

○ (인구·거시전제) 외생변수를 투입하여 인구·노동, 거시경제 블록에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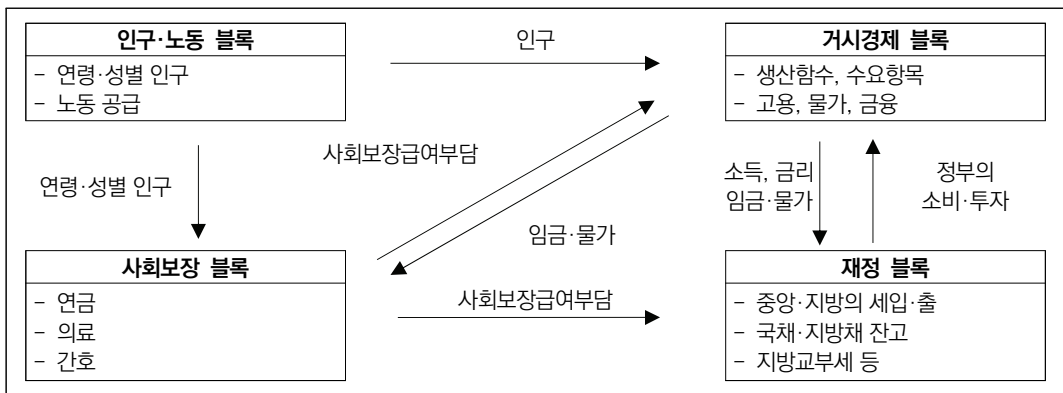
- (인구전제)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활용
- 연령·성별 인구수를 활용하며,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에서 발표한 「노동력 수급 추계」의 노동참여율을 외생적으로 적용하여 노동인구를 산출

모 이니셔티브로 주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탄소가격제 도입, GX 리그 등으로 구성.

21)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 의해 2001년 11월에 개발된 거시계량모형으로 인구, 거시경제, 재정, 사회보장까지 총 4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경제, 재정을 전망함.

- (거시전제) 총요소생산성(TFP) 외 외생변수²²⁾와 인구전제를 활용하여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 주요 거시전제 등을 전망
- (세입) 거시경제 블록에서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활용하여 추계
 - 소득세는 임금·봉급 총액 등의 증가율을 활용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기업 수입 및 경기요인을 반영한 후 실효세율을 곱하여 추계
 - 소비세는 항목별 과세표준율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해 소비세 총액을 추계하며, 담배세 등의 간접세는 과세표준에 실적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세출) 사회보장관계비는 1인당 급여액과 인구전제 및 외부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계하며, 나머지는 거시전제 기반의 가정으로 추계
 - 사회보장관계비는 크게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지출로 구성
 - 공적연금은 1인당 급여액을 산출 후 임금·물가상승률로 추계하며, 후생노동성의 연금수급자 전망치를 활용하여 급여총액 산출
 - 의료·개호보험은 1인당 급여액을 산출 후 임금·물가상승률로 추계하며, 인구전제와 평균 가입률 등 외생변수를 활용하여 급여총액 산출
 -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등은 물가상승률로, 국공채비는 명목금리로 추계하며, 국채는 60년, 지방채는 20년 동안 원리 균등 상환을 가정
- (특별회계) 동일본 대지진 부흥 및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는 법률상의 예산 규모, 실효기간, 기실행된 결산치를 활용하여 선형 증가·감소 가정으로 추계

[그림 III-1] 경제재정모델의 전망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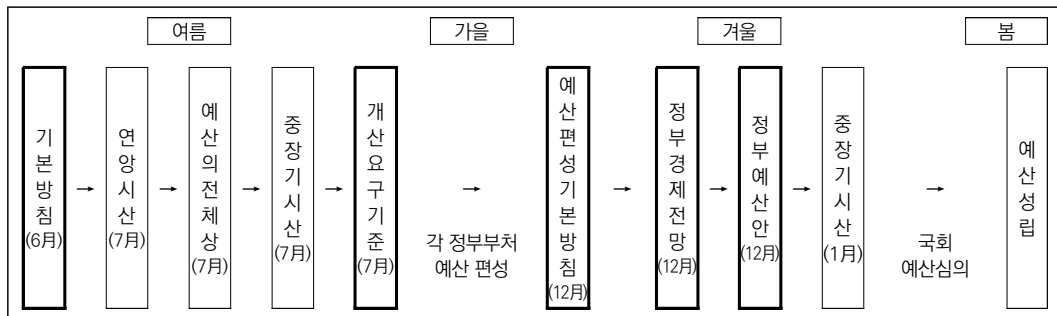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18), 「經濟財政モデル」을 참고하여 재가공.

22) 일본의 주요 수출 10개국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원유가격 등이 해당.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기간)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망
 - 2024년 7월 기준, 2024~2033년까지 전망
- (거버넌스) 중장기 시산은 중장기 경제·재정정책의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을 담당하는 내각부 정책총괄관(경제사회시스템담당)이 총괄
 - 중장기 시산은 정책총괄관 계량분석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계량분석실은 경제재정모델의 운용 및 개선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망절차) 중장기 시산의 절차는 예산 편성 일정에 연동
 - (7월 시산) 당해 4~6월에 결정되는 추경 포함 최종예산, 「기본방침」(6월), 연안시산 및 예산의 전체상²³⁾(7월)을 활용하여 진행
 - (1월 시산) 7월 이후 개산 요구 기준에 따라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며, 그 결과물인 예산편성 기본방침,²⁴⁾ 경제전망, 예산안(12월)을 활용하여 실행

[그림 III-2] 중장기 시산의 전망절차



- 주: 1. 기본방침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의미.
 2. 테두리가 두꺼운 상자는 각의 결정 또는 각의 양해하는 과정을 의미.
 3. 개산 요구 기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안의 기준을 의미.

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구성(<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cabinet-index.html>, 검색일자: 2024. 08. 12).

- 23) 예산 편성의 초기 단계로 거시경제 동향 등을 근거로 하되 「기본방침」에 담긴 내각의 정책 목표 및 의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 지침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결정됨.
 24) 현재 경제상황과 경제재정운영의 큰 틀을 확인한 후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 방향성을 기재한 것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자문 및 회의, 심의 및 답신을 거쳐 각의 결정.

4. 보고서의 구조

- 2024년 7월에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 1장. 서론
 - 전망보고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설명
 - 시나리오 주요 가정 설명
 - 2장.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
 -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전제에 대한 주요 가정 및 결과 설명
 - 잠재·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CPI, 장기금리 등
 - 3장. 재정정책에 대한 주요 가정
 - 시나리오별 재정변수에 대한 주요 가정 및 결과 설명
 -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재정수지, 국공채 등
 - 4장. 리스크와 불확실성
 - 민감도 분석 주요 가정 및 배경 설명
 - 부록: 주요 가정 설명 및 전망 결과 비교
 - 주요 변수의 전망 가정 설명 및 세부 결과 제시
 - 이전 시산 및 민간 부문 시산과의 결과 비교

5. 전망전제

- (시나리오) 2024년 7월 시산은 거시·노동 가정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
 - 첫째는 과거투영(過去投影) 시나리오로 기존 시산의 기준선 시나리오와 동일하며 별도의 정책 가정 없이 최근 거시전제 실적치를 활용
 - TFP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2020년 2/4분기까지의 평균 0.5% 활용
 - 노동참가율은 2023년 「노동력 수급 추계」의 과거투영·점진적 노동 참가 시나리오에 서 여성 및 노인 중심의 전망치인 64.8% 활용
 - 세계 경제·물가성장률은 2029년까지 IMF 세계경제전망(2024년 4월)의 전망치를 활용하며, 이후 2029년 값을 전망 종료 시점까지 유지하는 가정을 활용

- 원유 가격은 내각부 연안시산의 2025년 전망치를 활용하며 전망 내내 고정
- 둘째는 성장이행(成長移行) 시나리오로 디플레이션 탈피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여 성장 기조로 돌아선 상황을 상정
 - TFP 증가율은 1980년 2/4분기~2020년 2/4분기까지, 총 40년간의 평균 1.1% 활용
 - 노동참가율은 2023년 「노동력 수급 추계」의 성장이행·점진적 노동참가 시나리오에서 여성 및 노인 중심의 전망치 65.8% 활용
- 셋째는 고성장실현(高成長實現) 시나리오로 기존 시산의 성장실현 시나리오와 유사하며 디플레이션 탈피 정책이 큰 효과를 보여 고성장을 실현한 상황을 상정
 - TFP 증가율은 1980년 2/4분기~1999년 1/4분기까지, 약 19년간의 평균 1.4% 활용
 - 경제재정모델에서 산출된 TFP 증분에 따른 승수를 잠재성장률, 실질성장률, 완전실업률, CPI 등의 거시전제에 가산하여 조정
 - 명목 임금상승률은 성장이행 시나리오의 명목 임금상승률에 노동생산성 증분을, 명목 장기금리는 성장이행 시나리오의 명목 장기금리에 명목 GDP 성장률 증분을 가산

〈표 III-3〉 2024년 7월 중장기 시산의 시나리오

변수	시나리오	과거투영	성장이행	고성장실현
총요소생산성 (TFP)		- 0.5% - 최근 경기순환 평균	- 1.1% - 지난 40년 평균	- 1.4% - 디플레이션 이전 평균
노동참가율		- 64.8% - 여성 및 노인 중심	- 65.8% - 과거투영보다 상향	- 좌동
주요 거시전제		- 모형의 내생변수	- 좌동	- 거시전제에 TFP 증분에 따른 승수 가산 - 잠재성장률, 실질성장률, 완전실업률 등
세계경제 변수		- 2029년까지 IMF 세계경제 전망 반영 후 유지	- 좌동	- 좌동
기타		- 기존 시산의 베이스 시나리오와 동일	- 신규 시나리오	- 기존 시산의 성장실현 시나리오와 유사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가공.

□ (인구전제) 2023년 장래추계인구 증위 기준으로 2024년 약 1.24억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2033년 1.18억명에 도달

○ 전망 내내 여성의 비중이 약 51.4~51.5% 정도로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남

〈표 III-4〉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결과

(단위: 만명)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남	6,018	5,988	5,958	5,927	5,895	5,863	5,830	5,797	5,763	5,728
여	6,367	6,338	6,308	6,278	6,246	6,214	6,181	6,148	6,114	6,079
합계	12,384	12,326	12,266	12,204	12,141	12,077	12,012	11,945	11,877	11,807

주: 출생률, 사망률 증위 시나리오 기준 전망결과.

출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 2023.

□ (거시전제) 완전실업률 외 나머지 거시전제의 수준은 고성장실현, 성장이행, 과거투영 순으로 높게 추계

○ (과거투영 시나리오) 실질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3%에서 지속 감소하여 2033년 1%에 도달

- 명목 GDP는 2024년 615.4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679.7조엔에 도달

〈표 III-5〉 거시경제전제 전망결과: 과거투영 시나리오

(단위: %, 조엔)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잠재성장률	0.7	1.0	0.7	0.6	0.6	0.5	0.5	0.5	0.4	0.4
실질 GDP 성장률	0.9	1.2	0.7	0.6	0.6	0.5	0.5	0.5	0.4	0.4
명목 GDP 성장률	3.0	2.8	1.5	0.9	0.9	0.9	0.8	0.8	0.7	0.7
명목 GDP	615.4	632.4	641.9	647.9	653.8	659.4	664.8	670.0	675.0	679.7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3	1.6	1.2	1.2	1.1	1.1	1.1	1.0	1.0	1.0
임금성장률	2.8	2.8	1.7	1.1	1.1	1.0	1.0	1.0	1.0	1.0
완전실업률	2.5	2.4	2.4	2.4	2.5	2.5	2.5	2.6	2.6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2	1.4	0.9	0.9	0.9	0.9	0.9	0.9	0.9
GDP 디플레이터	2.2	1.6	0.8	0.3	0.3	0.3	0.3	0.3	0.3	0.3
명목장기금리	1.0	1.2	1.2	1.3	1.3	1.3	1.4	1.4	1.4	1.4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 (성장이행 시나리오) 실질 GDP 성장률이 2029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3%에서 2029년 2.2%까지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33년 2.0%에 도달

〈표 III-6〉 거시경제전제 전망결과: 성장이행 시나리오

(단위: %, 조엔)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잠재성장률	0.7	1.0	1.3	1.5	1.6	1.6	1.5	1.5	1.4	1.4
실질 GDP 성장률	0.9	1.2	1.3	1.5	1.6	1.6	1.5	1.5	1.4	1.4
명목 GDP 성장률	3.0	2.8	2.8	2.9	3.0	3.0	2.9	2.9	2.8	2.8
명목 GDP	615.4	632.4	650.0	669.1	689.0	709.6	730.5	751.6	772.9	794.5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3	1.6	1.8	2.0	2.1	2.2	2.1	2.1	2.0	2.0
임금성장률	2.8	2.8	2.8	2.9	3.0	3.0	3.0	3.0	2.9	2.9
완전실업률	2.5	2.4	2.4	2.4	2.5	2.5	2.5	2.6	2.6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2	2.0	2.0	2.0	2.0	2.0	2.0	2.0	2.0
GDP 디플레이터	2.2	1.6	1.4	1.4	1.4	1.4	1.4	1.4	1.4	1.4
명목장기금리	1.0	1.2	1.3	1.4	1.6	1.9	2.2	2.6	2.8	3.0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 (고성장실현 시나리오) 실질 GDP 성장률이 2029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3%에서 2029년 2.4%까지 증가한 후 유지하다 소폭 감소하여 2033년 2.3%에 도달

〈표 III-7〉 거시경제전제 전망결과: 고성장실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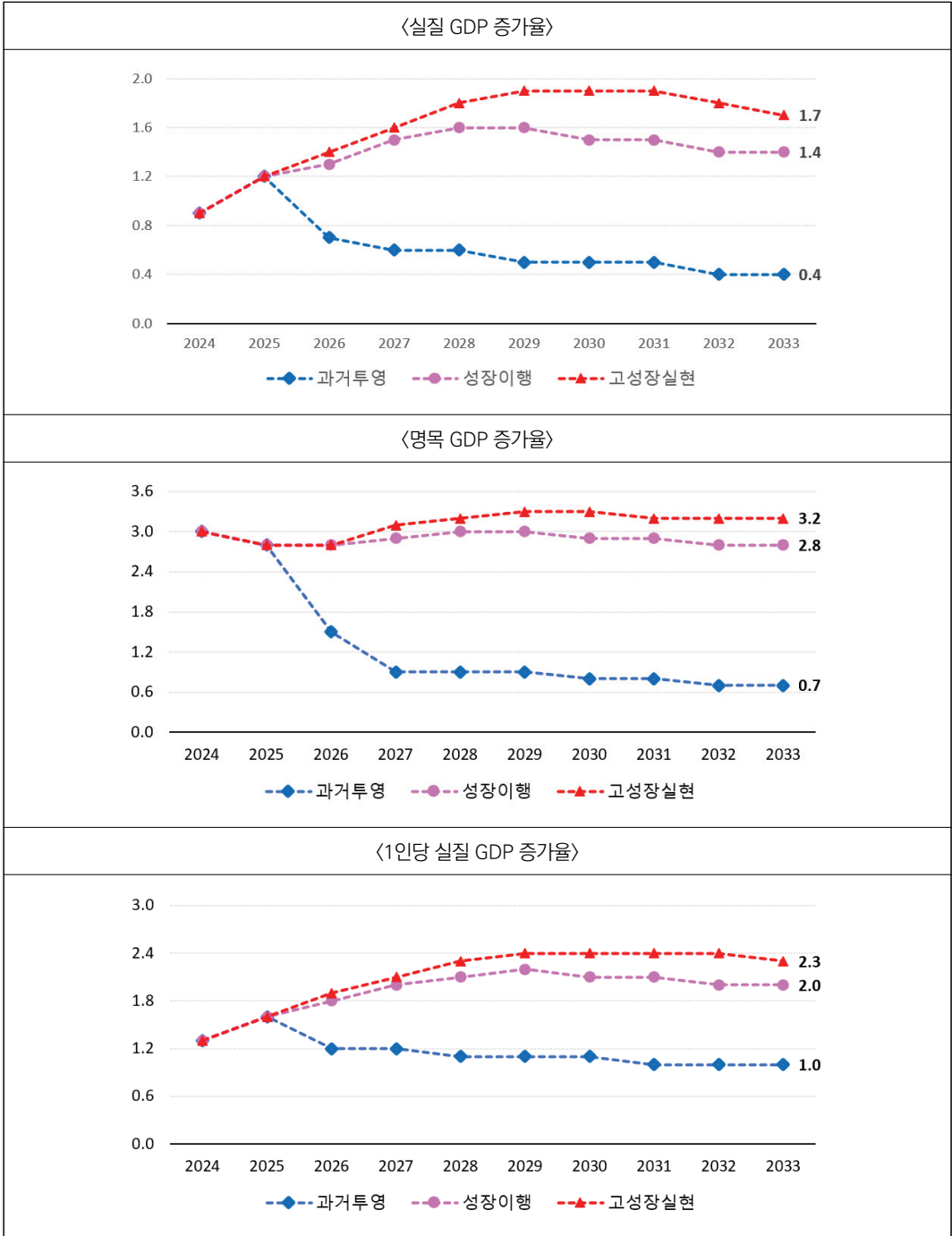
(단위: %, 조엔)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잠재성장률	0.7	1.0	1.4	1.7	1.9	2.0	1.9	1.9	1.9	1.8
실질 GDP 성장률	0.9	1.2	1.4	1.6	1.8	1.9	1.9	1.9	1.8	1.7
명목 GDP 성장률	3.0	2.8	2.8	3.1	3.2	3.3	3.3	3.2	3.2	3.2
명목 GDP	615.4	632.4	650.4	670.4	691.9	714.7	738.0	762.0	786.5	811.4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3	1.6	1.9	2.1	2.3	2.4	2.4	2.4	2.4	2.3
임금성장률	2.8	2.8	2.9	3.1	3.4	3.4	3.4	3.4	3.3	3.3
완전실업률	2.5	2.4	2.4	2.4	2.5	2.5	2.5	2.6	2.6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2	2.0	2.0	2.0	2.0	2.0	2.0	2.0	2.0
GDP 디플레이터	2.2	1.6	1.4	1.4	1.4	1.4	1.4	1.4	1.4	1.4
명목장기금리	1.0	1.2	1.4	1.5	1.8	2.1	2.6	2.9	3.2	3.4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그림 III-3] 주요 거시경제 전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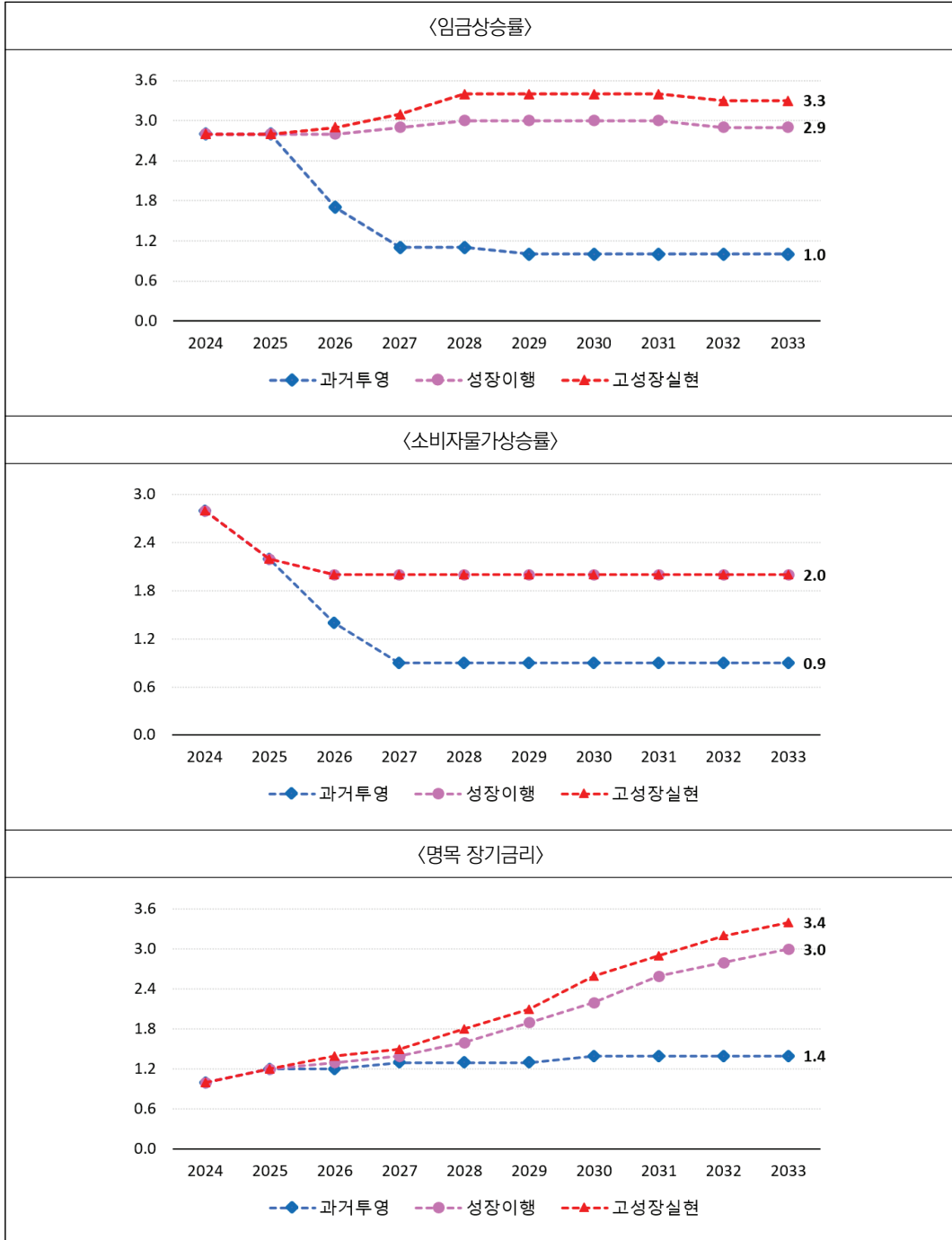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그림 III-3]의 계속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6. 전망결과

- 전망범위·시나리오별로 중앙·지방정부의 세입·세출, 기초재정수지 등을 제시
 - 시나리오는 과거투영 시나리오와 성장이행 시나리오만 제시
 - 전망범위는 일반회계와 중앙·지방정부 재정으로 구분되며, 후자엔 특별회계가 포함되며 동일본 대지진 및 GX 관련 항목의 포함 여부별로 결과 제시

가. 과거투영 시나리오

1) 일반회계 기준

-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8.8조엔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33년 -4.3조엔에 도달
 - 세출은 2024년 112.6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33.2조엔에 도달
 - 이자비용은 전망 내내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다른 세출에 비해 약 6%씩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며, 이는 국가채무 규모와 장기금리 수준에 연동된 결과
 - 세입은 또한 2024년 77.1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92.4조엔에 도달

〈표 III-8〉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단위: 조엔)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세출	112.6	116.3	118.0	120.4	122.8	125.0	126.9	129.0	131.1	133.2
재정수지대상경비	85.9	89.7	89.8	90.9	92.0	93.0	93.8	94.7	95.7	96.7
사회보장관계비	37.7	38.9	39.6	40.4	41.1	41.6	42.1	42.6	43.2	43.8
지방교부세 등	17.8	19.1	19.4	19.6	19.7	19.9	19.9	20.0	20.2	20.3
기타	30.1	31.3	30.4	30.6	30.8	31.1	31.4	31.7	31.9	32.2
공채비	27.0	27.0	28.6	29.9	31.2	32.4	33.5	34.7	35.8	36.9
채무상환비	16.9	17.4	17.9	18.2	18.5	18.7	19.1	19.3	19.7	20.0
이자비용	9.7	9.2	10.3	11.4	12.3	13.3	14.1	14.9	15.8	16.5
세입	77.1	85.8	87.0	88.0	88.8	89.6	90.3	91.0	91.7	92.4
세수	69.6	76.8	77.8	78.5	79.1	79.7	80.3	81.0	81.6	82.2
세외수입	7.5	9.1	9.1	9.5	9.8	9.9	10.0	10.0	10.1	10.2
기초재정수지	-8.8	-3.9	-2.8	-2.9	-3.2	-3.4	-3.5	-3.7	-4.0	-4.3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24년 6.1조엔에서 2026년 9.2조엔까지 증가한 후 지속 감소하여 2033년 8.3조엔에 도달
 - 세출은 2024년 102.5조엔에서 완만히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16.3조엔에 도달
 - 세입은 또한 2024년 92.6조엔에서 완만히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07.2조엔에 도달

〈표 III-9〉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기준

(단위: 조엔)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세출	102.5	109.2	109.4	110.5	111.7	112.7	113.5	114.3	115.4	116.3
공채비	10.9	11.3	11.7	11.7	11.7	11.6	11.3	11.0	10.8	10.6
세입	92.6	100.2	100.6	101.5	102.5	103.4	104.3	105.3	106.3	107.2
세수	46.5	50.2	50.8	51.3	51.7	52.2	52.6	52.9	53.3	53.7
기초재정수지	6.1	8.4	9.2	9.1	8.9	8.8	8.6	8.5	8.4	8.3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2) 중앙·지방정부 재정(특별회계 포함)

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의 경비 및 자원 제외

- 국가채무는 2024년 GDP 대비 202.5%에서 2028년 196.0%까지 감소한 후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99.3%에 도달
 -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GDP 대비 -3%에서 2025년 0.1%로 흑자 전환되나 2026년 0.5%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히 감소하여 2033년 0.1%에 도달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GDP 대비 -4.0%에서 전망 내내 등락을 반복하다 2033년 -1.6%에 도달

〈표 III-10〉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제외)

(단위: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기초재정수지	-18.6 (-3.0)	0.8 (0.1)	3.3 (0.5)	3.2 (0.5)	2.7 (0.4)	2.8 (0.4)	2.3 (0.3)	1.8 (0.3)	1.2 (0.2)	0.5 (0.1)
중앙정부	-23.1 (-3.8)	-8.0 (-1.3)	-6.4 (-1.0)	-6.4 (-1.0)	-6.7 (-1.0)	-6.5 (-1.0)	-6.7 (-1.0)	-6.9 (-1.0)	-7.2 (-1.1)	-7.6 (-1.1)
지방정부	4.5 (0.7)	8.8 (1.4)	9.6 (1.5)	9.6 (1.5)	9.5 (1.4)	9.3 (1.4)	9.0 (1.4)	8.7 (1.3)	8.4 (1.2)	8.1 (1.2)
재정수지	-24.4 (-4.0)	-3.4 (-0.5)	-1.7 (-0.3)	-3.1 (-0.5)	-4.7 (-0.7)	-5.7 (-0.9)	-6.9 (-1.0)	-8.2 (-1.2)	-9.6 (-1.4)	-11.0 (-1.6)
중앙정부	-27.9 (-4.5)	-11.2 (-1.8)	-10.3 (-1.6)	-11.8 (-1.8)	-13.2 (-2.0)	-14.0 (-2.1)	-14.9 (-2.2)	-15.9 (-2.4)	-17.0 (-2.5)	-18.0 (-2.7)
지방정부	3.5 (0.6)	7.8 (1.2)	8.7 (1.3)	8.6 (1.3)	8.5 (1.3)	8.3 (1.3)	8.0 (1.2)	7.7 (1.2)	7.4 (1.1)	7.1 (1.0)
국가채무	1,246.0 (202.5)	1,253.9 (198.3)	1,261.6 (196.5)	1,270.7 (196.1)	1,281.4 (196.0)	1,293.5 (196.2)	1,306.8 (196.6)	1,321.4 (197.2)	1,337.5 (198.1)	1,354.8 (199.3)
중앙정부	1,082.1 (175.8)	1,095.5 (173.2)	1,108.9 (172.7)	1,123.5 (173.4)	1,139.4 (174.3)	1,156.5 (175.4)	1,174.6 (176.7)	1,193.7 (178.2)	1,213.9 (179.8)	1,235.3 (181.8)
지방정부	163.9 (26.6)	158.4 (25.0)	152.7 (23.8)	147.1 (22.7)	142.0 (21.7)	136.9 (20.8)	132.3 (19.9)	127.8 (19.1)	123.6 (18.3)	119.5 (17.6)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나)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의 경비 및 자원 포함

- 국가채무는 2024년 GDP 대비 203.8%에서 지속해 2027년 198.3%까지 감소한 후 지속 증가하여 2033년 202.9%에 도달
 -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GDP 대비 -3.2%에서 2026년 0.2%로 흑자 전환되어 큰 변동 없이 유지하다 2033년 0.1% 도달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GDP 대비 -4.2%에서 2025년 -0.8%로 대폭 감소하나 이후 지속해 증가하여 -1.6%에 도달

〈표 III-11〉 과거투영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포함)

(단위: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기초재정수지	-19.7 (-3.2)	-1.1 (-0.2)	1.4 (0.2)	1.4 (0.2)	1.1 (0.2)	1.2 (0.2)	0.7 (0.1)	0.2 (0.0)	-0.5 (-0.1)	0.9 (0.1)
중앙정부	-24.3 (-3.9)	-9.9 (-1.6)	-8.2 (-1.3)	-8.2 (-1.3)	-8.3 (-1.3)	-8.1 (-1.2)	-8.3 (-1.2)	-8.5 (-1.3)	-8.9 (-1.3)	-7.2 (-1.1)
지방정부	4.5 (0.7)	8.8 (1.4)	9.7 (1.5)	9.6 (1.5)	9.5 (1.4)	9.3 (1.4)	9.0 (1.4)	8.7 (1.3)	8.4 (1.2)	8.1 (1.2)
재정수지	-25.6 (-4.2)	-5.3 (-0.8)	-3.6 (-0.6)	-5.0 (-0.8)	-6.5 (-1.0)	-7.5 (-1.1)	-8.8 (-1.3)	-10.0 (-1.5)	-11.5 (-1.7)	-10.8 (-1.6)
중앙정부	-29.2 (-4.7)	-13.1 (-2.1)	-12.2 (-1.9)	-13.6 (-2.1)	-15.0 (-2.3)	-15.8 (-2.4)	-16.7 (-2.5)	-17.8 (-2.7)	-18.9 (-2.8)	-17.9 (-2.6)
지방정부	3.6 (0.6)	7.8 (1.2)	8.7 (1.3)	8.6 (1.3)	8.5 (1.3)	8.3 (1.3)	8.0 (1.2)	7.7 (1.2)	7.4 (1.1)	7.1 (1.0)
국가채무	1,254.2 (203.8)	1,264.4 (199.9)	1,274.0 (198.5)	1,284.9 (198.3)	1,297.5 (198.5)	1,311.5 (198.9)	1,326.8 (199.6)	1,343.4 (200.5)	1,361.5 (201.7)	1,378.8 (202.9)
중앙정부	1,090.1 (177.1)	1,105.7 (174.8)	1,121.0 (174.6)	1,137.5 (175.6)	1,155.3 (176.7)	1,174.3 (178.1)	1,194.3 (179.6)	1,215.4 (181.4)	1,237.6 (183.4)	1,259.0 (185.2)
지방정부	164.2 (26.7)	158.7 (25.1)	153.0 (23.8)	147.4 (22.8)	142.3 (21.8)	137.2 (20.8)	132.5 (19.9)	128.0 (19.1)	123.9 (18.3)	119.7 (17.6)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나. 성장이행 시나리오

1) 일반회계

-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8.8조엔에서 지속 감소하다 2030년 흑자 전환되며, 이후 증가 추세로 2033년 1.5조엔에 도달
 - 세출은 2024년 112.6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48.4조엔에 도달
 - 이자비용은 전망 내내 연평균 1~3%씩 증가하는 다른 세출에 비해 약 9.5%씩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며, 과거투영에 비해 장기금리가 높아진 것에 기인
 - 세입은 또한 2024년 77.1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07.8조엔에 도달

〈표 III-12〉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단위: 조엔)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세출	112.6	116.3	118.6	122.1	125.9	129.9	134.0	138.5	143.4	148.4
재정수지대상경비	85.9	89.7	90.3	92.4	94.7	97.0	99.2	101.5	103.9	106.3
사회보장관계비	37.7	38.9	39.8	40.8	42.0	43.0	44.1	45.1	46.1	47.3
지방교부세 등	17.8	19.1	19.6	20.3	20.8	21.5	21.9	22.6	23.2	23.9
기타	30.1	31.3	30.5	30.9	31.5	32.1	32.8	33.4	34.1	34.8
공채비	27.0	27.0	28.6	30.1	31.6	33.2	35.2	37.4	39.9	42.4
채무상환비	16.9	17.4	17.9	18.2	18.5	18.8	19.2	19.5	19.9	20.3
이자비용	9.7	9.2	10.4	11.5	12.7	14.1	15.6	17.6	19.6	21.8
세입	77.1	85.8	88.1	90.9	93.6	96.4	99.2	102.0	104.9	107.8
세수	69.6	76.8	79.0	81.4	83.7	86.2	88.7	91.3	93.9	96.5
세외수입	7.5	9.1	9.2	9.5	9.9	10.2	10.5	10.8	11.0	11.3
기초재정수지	-8.8	-3.9	-2.2	-1.5	-1.1	-0.7	0.0	0.6	1.1	1.5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24년 6.1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7.3조엔 도달
 - 세출은 2024년 102.5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32.4조엔에 도달
 - 세입은 또한 2024년 92.6조엔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24.2조엔에 도달

〈표 III-13〉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기준

(단위: 조엔)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세출	102.5	109.2	110.2	112.9	115.7	118.9	122.1	125.4	128.7	132.4
공채비	10.9	11.3	11.7	11.7	11.7	11.5	11.2	11	10.8	10.6
세입	92.6	100.2	101.8	104.5	107.4	110.6	114	117.4	120.8	124.2
세수	46.5	50.2	51.6	53.1	54.7	56.3	58	59.7	61.3	63.1
기초재정수지	6.1	8.4	9.9	10.7	11.6	12.7	13.9	15.1	16.2	17.3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2) 중앙·지방정부 재정

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의 경비 및 재원 제외

- 국가채무는 2024년 GDP 대비 202.5%에서 지속 감소하여 2033년 168.9%에 도달
 -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GDP 대비 -3%에서 2025년 0.1%로 흑자 전환되며,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8%에 도달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GDP 대비 -4.0%에서 2025년 -0.5%로 감소하며, 이후 전망 내내 등락을 반복하며 2033년 -0.2%에 도달

〈표 III-14〉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제외)

(단위: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기초재정수지	-18.6 (-3.0)	0.8 (0.1)	4.7 (0.7)	6.2 (0.9)	7.3 (1.1)	9.2 (1.3)	10.5 (1.4)	11.9 (1.6)	13.2 (1.7)	14.5 (1.8)
중앙정부	-23.1 (-3.8)	-8.0 (-1.3)	-5.9 (-0.9)	-5.1 (-0.8)	-4.8 (-0.7)	-3.9 (-0.5)	-3.2 (-0.4)	-2.8 (-0.4)	-2.3 (-0.3)	-1.9 (-0.2)
지방정부	4.5 (0.7)	8.8 (1.4)	10.6 (1.6)	11.4 (1.7)	12.1 (1.8)	13.0 (1.8)	13.8 (1.9)	14.7 (2.0)	15.5 (2.0)	16.4 (2.1)
재정수지	-24.4 (-4.0)	-3.4 (-0.5)	-0.3 (-0.0)	-0.2 (-0.0)	-0.6 (-0.1)	0.0 (0.0)	0.0 (0.0)	-0.3 (-0.0)	-0.8 (-0.1)	-1.4 (-0.2)
중앙정부	-27.9 (-4.5)	-11.2 (-1.8)	-9.9 (-1.5)	-10.6 (-1.6)	-11.8 (-1.7)	-12.2 (-1.7)	-13.0 (-1.8)	-14.3 (-1.9)	-15.7 (-2.0)	-17.2 (-2.2)
지방정부	3.5 (0.6)	7.8 (1.2)	9.6 (1.5)	10.4 (1.6)	11.2 (1.6)	12.1 (1.7)	13.0 (1.8)	14.0 (1.9)	14.9 (1.9)	15.8 (2.0)
국가채무	1,246.0 (202.5)	1,253.9 (198.3)	1,260.6 (193.9)	1,267.9 (189.5)	1,276.2 (185.2)	1,285.7 (181.2)	1,296.6 (177.5)	1,309.5 (174.2)	1,324.4 (171.4)	1,341.8 (168.9)
중앙정부	1,082.1 (175.8)	1,095.5 (173.2)	1,108.4 (170.5)	1,121.8 (167.7)	1,136.3 (164.9)	1,151.7 (162.3)	1,168.1 (159.9)	1,185.9 (157.8)	1,205.5 (156.0)	1,227.0 (154.4)
지방정부	163.9 (26.6)	158.4 (25.0)	152.2 (23.4)	146.0 (21.8)	139.9 (20.3)	134.0 (18.9)	128.6 (17.6)	123.6 (16.4)	119.0 (15.4)	114.8 (14.5)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나)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의 경비 및 자원 포함

- 국가채무는 2024년 GDP 대비 203.8%에서 지속 감소하여 2033년 172.0%에 도달
 -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GDP 대비 -3.2%에서 2026년 0.4%로 흑자 전환되며 지속 증가하여 2033년 1.9% 도달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GDP 대비 -4.2%에서 2025년 -0.8%로 대폭 감소하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33년 -0.2% 도달

〈표 III-15〉 성장이행 시나리오 결과: 중앙·지방정부 재정(동일본 및 GX 포함)

(단위: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기초재정수지	-19.7 (-3.2)	-1.1 (-0.2)	2.9 (0.4)	4.5 (0.7)	5.6 (0.8)	7.5 (1.1)	8.9 (1.2)	10.2 (1.4)	11.5 (1.5)	14.9 (1.9)
중앙정부	-24.3 (-3.9)	-9.9 (-1.6)	-7.7 (-1.2)	-6.9 (-1.0)	-6.5 (-0.9)	-5.5 (-0.8)	-4.9 (-0.7)	-4.5 (-0.6)	-4.0 (-0.5)	-1.5 (-0.2)
지방정부	4.5 (0.7)	8.8 (1.4)	10.6 (1.6)	11.4 (1.7)	12.1 (1.8)	13.0 (1.8)	13.8 (1.9)	14.7 (2.0)	15.5 (2.0)	16.4 (2.1)
재정수지	-25.6 (-4.2)	-5.3 (-0.8)	-2.2 (-0.3)	-2.1 (-0.3)	-2.4 (-0.3)	-1.9 (-0.3)	-1.9 (-0.3)	-2.3 (-0.3)	-2.8 (-0.4)	-1.5 (-0.2)
중앙정부	-29.2 (-4.7)	-13.1 (-2.1)	-11.8 (-1.8)	-12.5 (-1.9)	-13.6 (-2.0)	-14.0 (-2.0)	-14.9 (-2.0)	-16.3 (-2.2)	-17.7 (-2.3)	-17.3 (-2.2)
지방정부	3.6 (0.6)	7.8 (1.2)	9.6 (1.5)	10.4 (1.6)	11.2 (1.6)	12.1 (1.7)	13.0 (1.8)	14.0 (1.9)	14.9 (1.9)	15.8 (2.0)
국가채무	1,254.2 (203.8)	1,264.4 (199.9)	1,273.0 (195.8)	1,282.2 (191.6)	1,292.4 (187.6)	1,303.8 (183.7)	1,316.8 (180.3)	1,331.7 (177.2)	1,348.9 (174.5)	1,366.4 (172.0)
중앙정부	1,090.1 (177.1)	1,105.7 (174.8)	1,120.5 (172.4)	1,135.8 (169.8)	1,152.1 (167.2)	1,169.5 (164.8)	1,187.9 (162.6)	1,207.9 (160.7)	1,229.6 (159.1)	1,251.3 (157.5)
지방정부	164.2 (26.7)	158.7 (25.1)	152.5 (23.5)	146.3 (21.9)	140.2 (20.4)	134.3 (18.9)	128.9 (17.6)	123.9 (16.5)	119.3 (15.4)	115.1 (14.5)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다.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 두 시나리오 간의 기초재정수지를 비교한 결과, 과거투영 시나리오는 2027년 이후 감소 추세인 반면 성장이행 시나리오는 지속 증가
 - 두 결과 간의 차이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며, 지속 증가하여 2033년 GDP 대비 1.7%p까지 발생

〈표 III-16〉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기초재정수지

(단위: 조엔, GDP 대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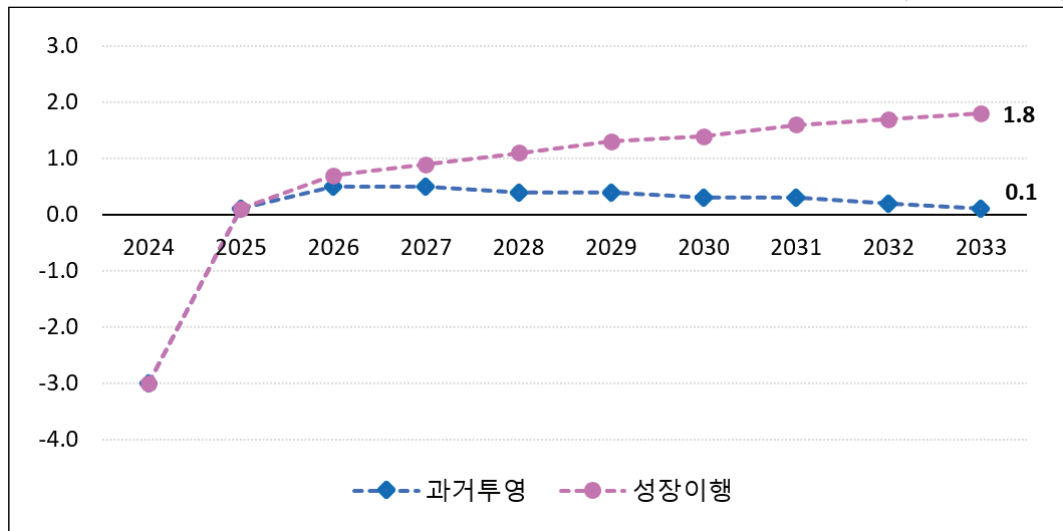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과거투영(A)	-18.6 (-3.0)	0.8 (0.1)	3.3 (0.5)	3.2 (0.5)	2.7 (0.4)	2.8 (0.4)	2.3 (0.3)	1.8 (0.3)	1.2 (0.2)	0.5 (0.1)
성장이행(B)	-18.6 (-3.0)	0.8 (0.1)	4.7 (0.7)	6.2 (0.9)	7.3 (1.1)	9.2 (1.3)	10.5 (1.4)	11.9 (1.6)	13.2 (1.7)	14.5 (1.8)
차이(B) - (A)	0.0 (0.0)	0.0 (0.0)	1.4 (0.2)	3.0 (0.4)	4.6 (0.7)	6.4 (0.9)	8.2 (1.1)	10.1 (1.3)	12.0 (1.5)	14.0 (1.7)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그림 III-4]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 두 시나리오 간의 국가채무를 비교한 결과, 과거투영 시나리오는 2027년 이후 감소 추세인 반면 성장이행 시나리오는 지속 증가
- 두 결과 간의 차이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며, 지속 증가하여 2032년 GDP 대비 -13.1%p까지 발생하며,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33년 -13.0%p 도달

〈표 III-17〉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엔, GDP 대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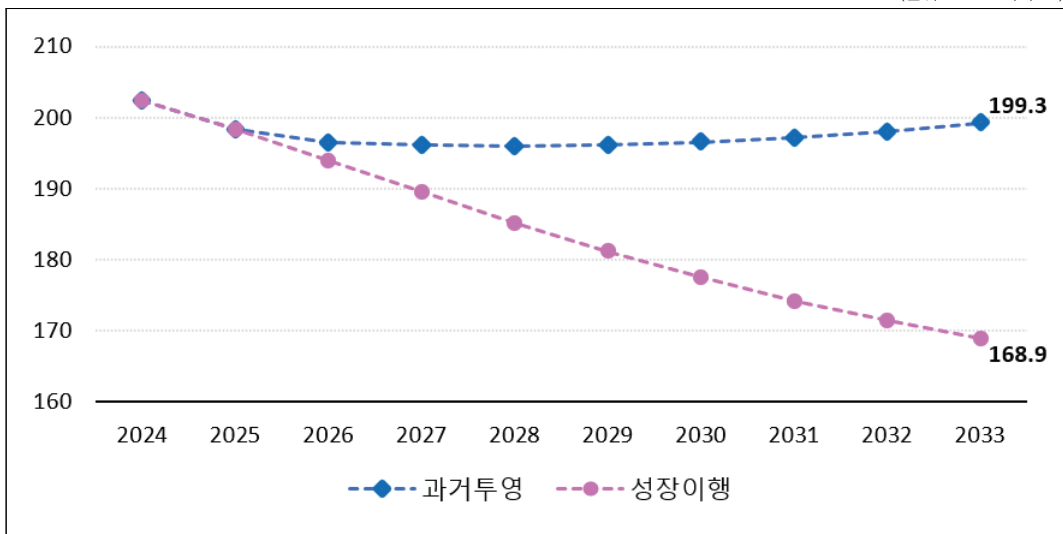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과거투영(A)	1,246.0 (202.5)	1,253.9 (198.3)	1,261.6 (196.5)	1,270.7 (196.1)	1,281.4 (196.0)	1,293.5 (196.2)	1,306.8 (196.6)	1,321.4 (197.2)	1,337.5 (198.1)	1,354.8 (199.3)
성장이행(B)	1,246.0 (202.5)	1,253.9 (198.3)	1,260.6 (193.9)	1,267.9 (189.5)	1,276.2 (185.2)	1,285.7 (181.2)	1,296.6 (177.5)	1,309.5 (174.2)	1,324.4 (171.4)	1,341.8 (168.9)
차이(B) - (A)	0.0 (0.0)	0.0 (0.0)	-1.0 (-2.6)	-2.8 (-6.6)	-5.2 (-10.8)	-7.8 (-15.0)	-10.2 (-19.1)	-11.9 (-23.0)	-13.1 (-26.7)	-13.0 (-30.4)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그림 III-5〕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7. 민감도 분석

- 미국의 고금리 기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정체 등과 같이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민감도 분석 실행
 - 첫째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전망 내내 매년 TFP 증가율을 0.5%p 하향 조정
 - 해외의 지역 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정화, 일본의 임금 인상, 인구구조 변동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상정
 - 둘째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전망 내내 시나리오별로 장기금리를 0.5%p 상향 조정
 - 해외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금리 상승 압박을 고려하여 장기금리 상승이 정부재정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상황을 상정
 - 셋째는 정부지출 증가로, 전망 내내 시나리오별로 GDP 대비 0.5%/p 상향 조정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COVID-19 등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사건으로 경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

가. 잠재성장률 하락

- 잠재성장률이 하락²⁵⁾하면 주요 거시전제도 같이 하락하며 이는 세입 감소로 이어져 기초 재정수지는 2033년 GDP 대비 -0.7%로 과거투영보다 -0.8%p 낮게 전망
 - 수지 악화로 국가채무는 증가하여 2033년 207.6%로 과거투영보다 8.3%p 증가

〈표 III-18〉 민감도 분석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기초 재정수지	과거투영	-3.0	0.1	0.5	0.5	0.4	0.4	0.3	0.3	0.2	0.1
	성장이행	-3.0	0.1	0.7	0.9	1.1	1.3	1.4	1.6	1.7	1.8
	성장률 하락	-3.0	0.1	0.5	0.4	0.2	0.1	-0.1	-0.3	-0.5	-0.7
국가채무	과거투영	202.5	198.3	196.5	196.1	196.0	196.2	196.6	197.2	198.1	199.3
	성장이행	202.5	198.3	193.9	189.5	185.2	181.2	177.5	174.2	171.4	168.9
	성장률 하락	202.5	198.3	197.1	197.5	198.3	199.6	201.2	203.1	205.2	2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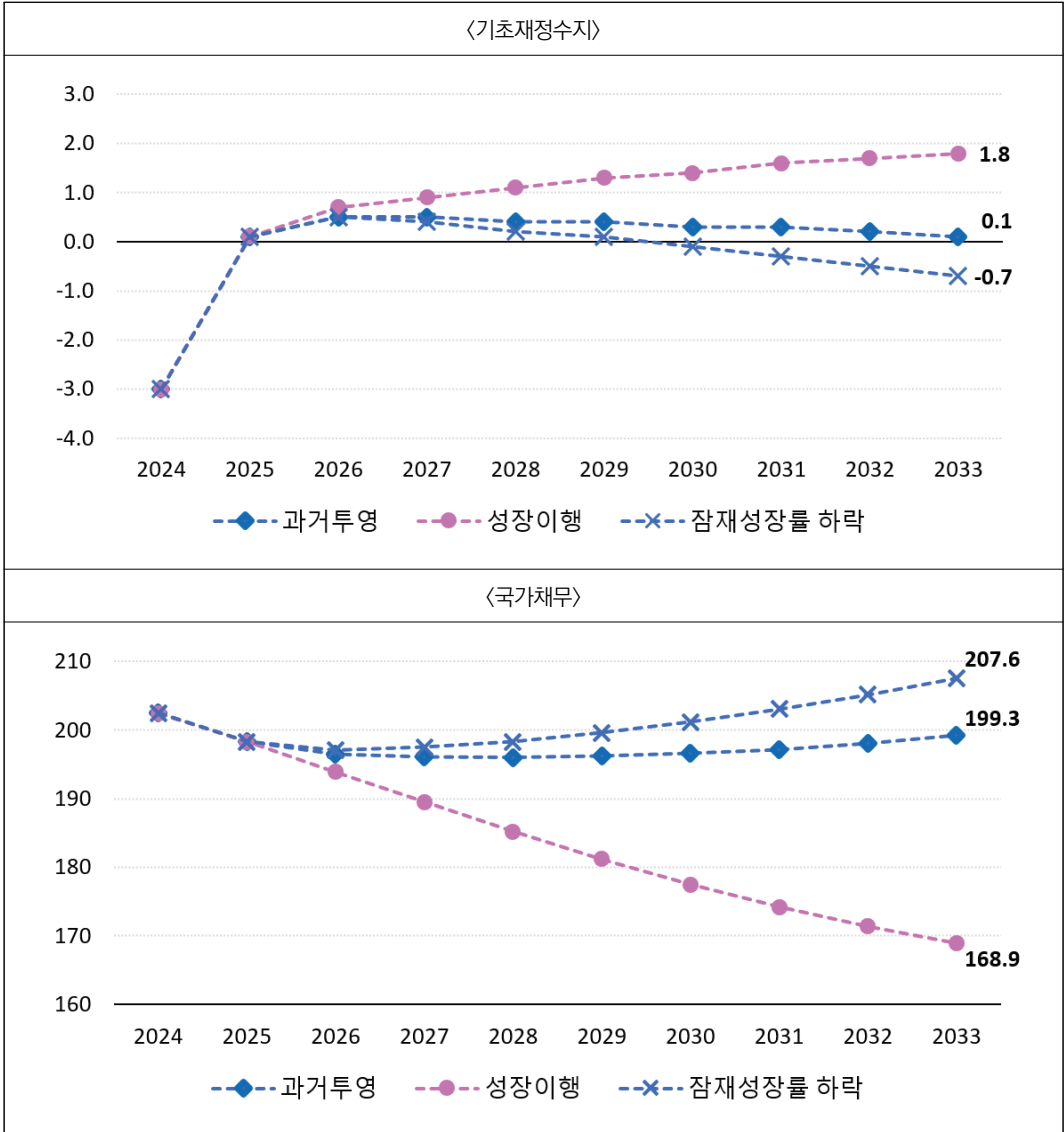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25) 경제재정모델에서 GDP 전망 시 코브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내생화된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그리고 외생변수인 TFP 증가율이 활용되며, TFP 증가율이 감소하면 GDP도 하향 조정됨.

[그림 III-6] 민감도 분석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나. 장기금리 상승

-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공채상환비 및 이자지출 증가로 수지가 악화되며, 그 결과 신규 국채발행 증가로 모든 시나리오의 국가채무가 2033년 GDP 대비 2.8%p씩 증가
- 과거투영·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는 각각 2033년 199.3%, 168.8%로 전망됐으며 장기금리가 상승할 시 각각 2.8%p씩 증가한 202.1%, 171.7%로 전망

〈표 III-19〉 민감도 분석 결과: 장기금리 상승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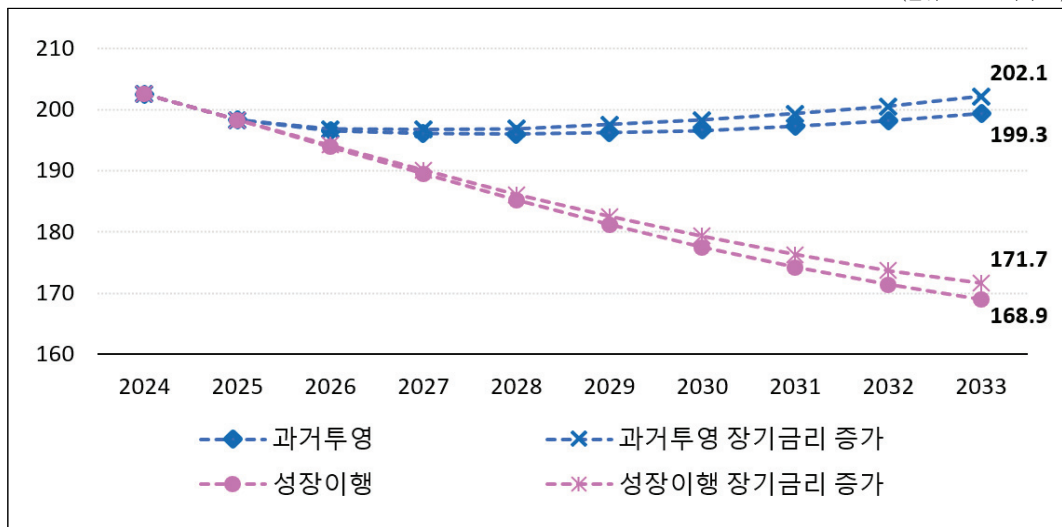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국가 채무	과거투영	202.5	198.3	196.5	196.1	196.0	196.2	196.6	197.2	198.1	199.3
	+ 금리 상승	202.5	198.3	196.8	196.7	196.9	197.5	198.3	199.3	200.5	202.1
	성장이행	202.5	198.3	193.9	189.5	185.2	181.2	177.5	174.2	171.4	168.9
	+ 금리 상승	202.5	198.3	194.2	190.1	186.1	182.5	179.3	176.3	173.7	171.7

주: 1.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2. 기초재정수지는 이자지출을 제외한 수지이기에 본 민감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그림 III-7] 민감도 분석 결과(국가채무): 장기금리 상승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다. 정부지출 증가

- 정부지출을 매년 증가시키면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되며, 그 결과 두 시나리오의 기초재정수지보다 GDP 대비 0.4~0.5%p 수준으로 하락
 - 과거투영은 2033년 0.1%로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정부지출 증가로 203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33년 -0.4%에 도달
 - 성장이행은 2033년 1.8%였으나 정부지출 증가로 2033년 1.4%에 도달

〈표 III-20〉 민감도 분석 결과: 정부지출 증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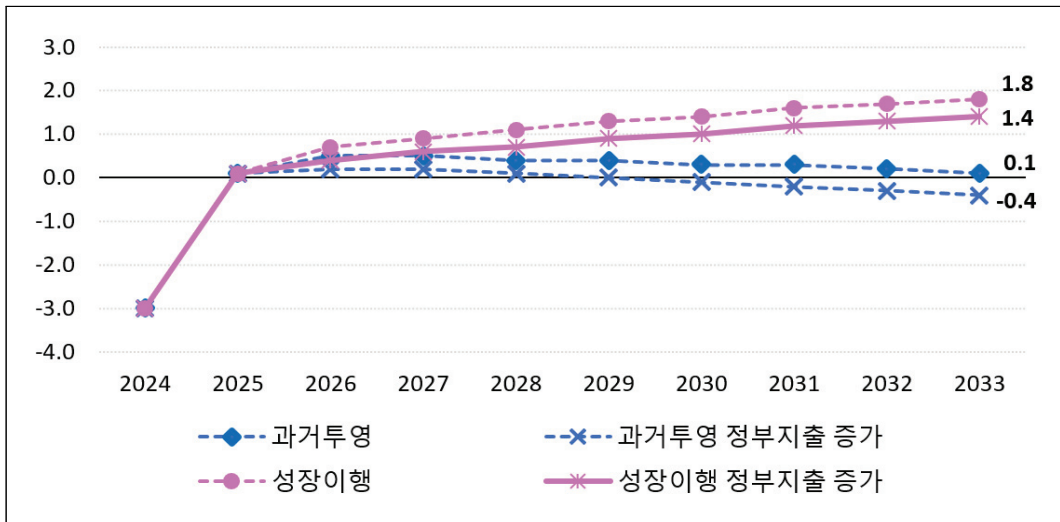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기초재정수지	과거투영	-3.0	0.1	0.5	0.5	0.4	0.4	0.3	0.3	0.2	0.1
	+ 지출 증가	-3.0	0.1	0.2	0.2	0.1	0.0	-0.1	-0.2	-0.3	-0.4
	성장이행	-3.0	0.1	0.7	0.9	1.1	1.3	1.4	1.6	1.7	1.8
	+ 지출 증가	-3.0	0.1	0.4	0.6	0.7	0.9	1.0	1.2	1.3	1.4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그림 III-8〕 민감도 분석 결과(기초재정수지): 정부지출 증가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및 GX 대책 관련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IV. 캐나다

2023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의회 직속기구에서 전망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인 주(州)정부 및 공적연금기금을 구분함
- 자체 전망 거시전제를 통계청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일관성 있는 전망 실시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장기재정전망의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며, 의회예산관실(PBO²⁶)이 OECD 및 Anderson, B. and J. Sheppard(2009)의 권고(〈참고 1〉)와 미국 CBO 및 OECD 국가 사례 등을 참고하여 “Fiscal Sustainability Report”(이하 FSR) 작성

〈참고 1〉 재정전망에 대한 권고

Box 3. Best practices for fiscal projections

- Baseline projections or fiscal gap analysis typically covering 10-40 years;
- published at least every five years, or following major policy changes;
- explicitly present all key assumptions underlying projections;
- illustrate a range of possible projected scenarios; and
- focus of the projections should be more than just on demographic changes.

Sources: Adapted from OECD (2002),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OECD Journal on Budgeting*, 1(3), and IMF (2001, 2007),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출처: Anderson, B. and J. Sheppard,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s,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2009/3, p.15.

- PBO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행 재정정책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을 고려한 장기재정전망의 필요성을 제기

26)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이하 PBO.

- (추진추이) 2010년 2월부터 FSR을 작성 및 발표하였으며 2023년까지 매년 발간해왔으나 2019년에는 미발표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범위)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provincial, territorial, local, and aboriginal gov't)의 세입 및 세출 전망을 포함, 2012년 보고서부터 연금 기금(Canada Pension Plan & Quebec Pension Plan, CPP & QPP)도 포함
 -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 2010년 보고서는 연방정부만 고려하였으나, 이후 보고서에서 (광의의) 지방정부까지 범위 확대
 - 2011년, 2012년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준주정부(provincial-territorial gov't), 주·준주·지방정부(provincial-territorial-local gov't)를 각각 고려
 - 2013년 보고서부터는 원주민 정부(aboriginal gov't)까지 포함한 개념을 (광의의) 지방정부(subnational gov't)로 설정하여 전망
- (전망분야)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인 주(州)정부의 총수입 및 지출, 그리고 연금 수입 및 지출을 전망
 - (연방정부) 총수입 및 지출 프로그램과 함께 순부채(Net debt), 각종 재원이전(Transfer)에 대해 전망
 - (수입) 총수입 외 세목별 전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지출 프로그램)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령수당(Elderly benefits), 아동수당(Children's benefits), 고용지원(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Transfers to subnational government): 의료보조(Canada Health Transfer, CHT), 사회보조(Canada Social Transfer, CST), 형평화교부금(Equalization), 준주교부금(Territorial Financing Formula), 기타이전금(Other transfers)

- (주정부) 자체수입(Own-Source Revenue), 연방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수입(Transfer revenue), 지출 프로그램(Program spending), 순부채(Net debt)를 전망
 - (수입) 총수입 외 세목별 전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지출 프로그램) 의료비(Health spending), 교육비(Education spending), 사회적 지출(Social spending), 기타 프로그램 지출(Other program spending)을 전망
- (공적연금) 순현금흐름(net cash flow), 순자산(net asset position)에 대한 전망과 인구 및 경제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
 - CPP 및 QPP의 전망은 「2021년 발표한 제31차 캐나다 연금 보험수리 보고서(the 31st Actuarial Report of the Canada Pension Plan)」와 「퀘벡 연금 보험수리 보고서(the Évaluation actuarielle du Régime de rentes du Québec)」를 반영함

〈참고 2〉 연방정부 전망방법

- (전망방법)²⁷⁾ 각 수입과 지출 요소는 명목 GDP의 연간성장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수입) 캐나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장기전망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
 - (지출) 프로그램 지출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액 모두 명목 GDP에 연계
 - 분야별 지출전망 계산방법
- $$EXP_t = EXP_{t-1} \cdot \left(\frac{AGE_t}{AGE_{t-1}} \right) \cdot \left(\frac{GDP_t}{GDP_{t-1}} \right) \cdot (1 + X_t)$$
- AGE_t 는 연령구조에 따른 가중치 적용
 - X_t 는 an enrichment factor로 지출 분야별로 설정하되 보건 및 노인복지 지출 분야에만 해당되며 교육, 사회복지, 아동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지출의 경우 an enrichment factor는 장기적으로 0으로 가정
 -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
 - 의료비 분야에서 2016년까지는 '초과의료비용²⁸⁾'에 대한 가정을 따로 설정하여 추계했으나, 2017년부터 1인당 실질 GDP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화시킴

27)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2014), "Annex D. Government fiscal projection methodology". pp. 38~40.

분야별 세부적 전망방법은 FSR(2014)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PBO는 현재까지 해당 전망방법을 유지하고 있음.

28) Excess cost growth란, 명목 GDP 증가율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의 증가율.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기간) 보고서에서의 전망기간은 이전 보고서와 동일하게 75년 시계열이며 2023년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97년까지 전망
 - 전망기간을 75년으로 설정한 것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공적연금 Actuarial Report에서와 동일한 기간임
- (거버넌스) FSR은 의회예산관실(PBO)에서 작성되었으며, 연금부문과 관련하여 캐나다 연방금융감독원(OSFI) 내 연금수리실(OCA)²⁹⁾의 협조를 통해 작성
- (전망절차)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지방정부·연금부문의 수입 및 지출을 전망한 후,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실시
 - (인구전망)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전망(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2021 to 2068)과 주·준주 인구전망(Provinces and Territories, 2021 to 2043)을 인구전제로 사용
 - (거시전망) PBO의 중기 경제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EFO) 자료를 장기전망의 초깃값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경제가 잠재 GDP 수준에 수렴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주요 경제변수를 장기 평균치로 조정
 - (재정전망) 전망전제, PBO 중기 재정전망, 통계청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지방정부·연금부문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전망
 - 수입과 지출 요소는 기본적으로 명목 GDP의 연간성장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분야별 지출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전망
 -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재정갭(Fiscal Gap)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GDP 대비 순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
 - 재정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조정분을 의미
 - (민감도 분석) 인구·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갭을 추정하여 재정여력 평가

29) Office of the Chief Actuary of the Canada pension Plan and Quebec Pension Plan: 이하 OCA.

4. 보고서의 구조

- 2023년 보고서는 연방정부 및 10개의 주정부, 3개의 준주를 합친 준주정부(The Territories)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망 및 결과에 대한 평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민감도 분석)의 항목으로 분류
 - (수입·지출 전망)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연방 및 각 주정부의 수입 및 프로그램 지출, 연금 기여금 및 지출에 대한 기준 시나리오 전망
 -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연방정부·주정부·연금 부문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인구 및 경제학적 시나리오, 재정정책 가정, 순부채 비율 및 시나리오 변경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현재까지 2017년도 보고서에서 제시한 10개의 주 및 3개의 준주정부에 대한 세부적인 계량방법이나 기술적인 전망방법을 그대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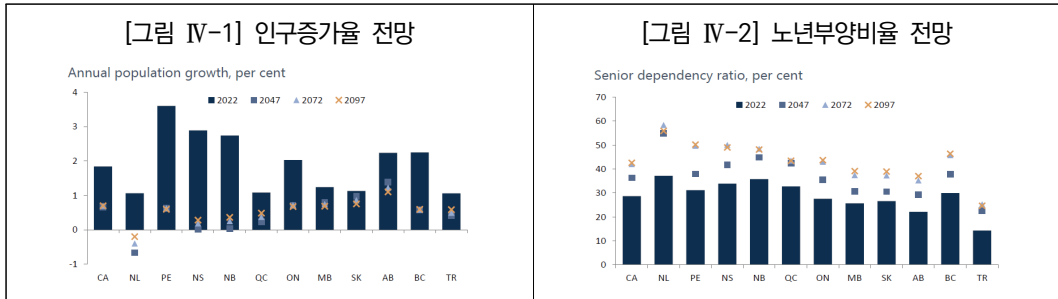
〈참고 3〉 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목차

1. 도입
 2. 인구학적 전망
 3. 경제 전망
 4. 연방정부
 5. 지방정부
 6. 공적 연금
 7. 일반정부 부문
- 부록 1. 민감도분석

5. 전망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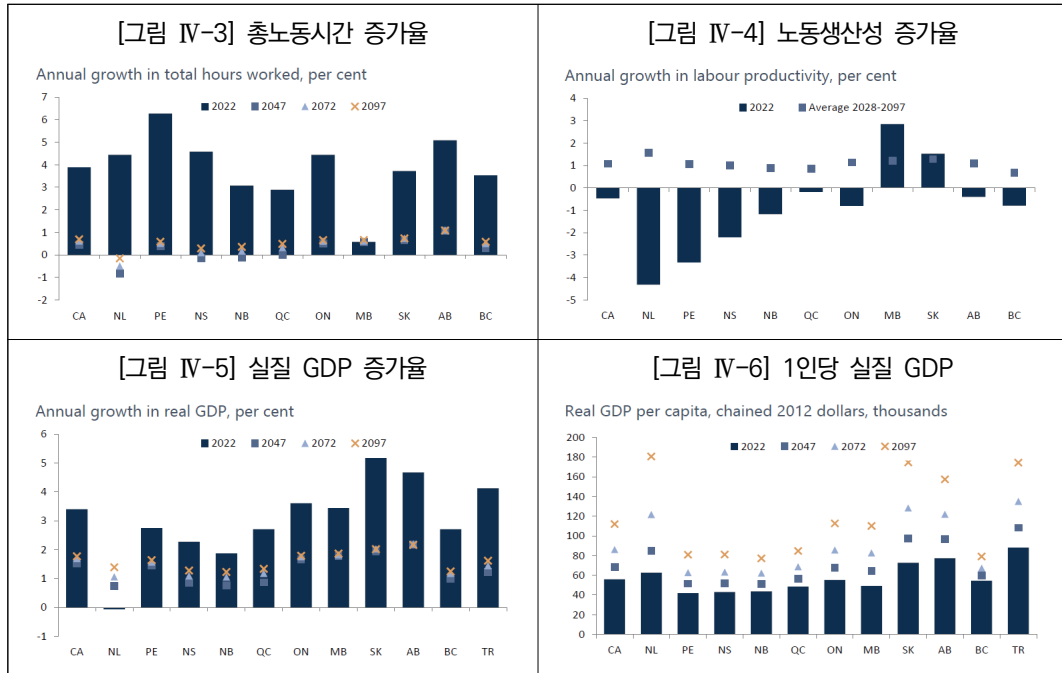
- (인구전제) 인구전제는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2021~2068년)과 지방과 영토 인구 전망(2021~2043년)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는 2022년 8월 22일에 발표
 - (인구증가율) 2022년 1.8%에서 2097년 0.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평균연령) 평균연령은 2021년 41.7세에서 2068년 45.1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율)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율은 2022년 28.7%에서 2097년 4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p. 13~14.

- (거시전제) PBO의 중기 경제전망과 통계청의 주·준주 경제 계정 자료를 장기전망의 초깃값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경제가 잠재 GDP 수준에 수렴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주요 경제변수를 장기 평균치로 조정
 -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는 생산능력(잠재 GDP)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며, 이는 노동투입량(총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GDP)의 추세에 의해 결정
 -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실질 GDP 성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
 -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균제상태 비율인 1.07%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
 - 과거 1982년부터 2019년까지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평균치인 1.12%보다 약간 낮은 수준
 - (GDP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1.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0.9%로 과거 1982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된 평균 성장률보다 0.3%p 낮은 수치임
 - (물가상승률) 2022 assessment(2022)의 가정과 동일하며 중기 이후 물가상승률은 2.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이자율) 3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의 이자율은 2.45%, 10년 만기 국채와 3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은 각각 3.25%, 3.50%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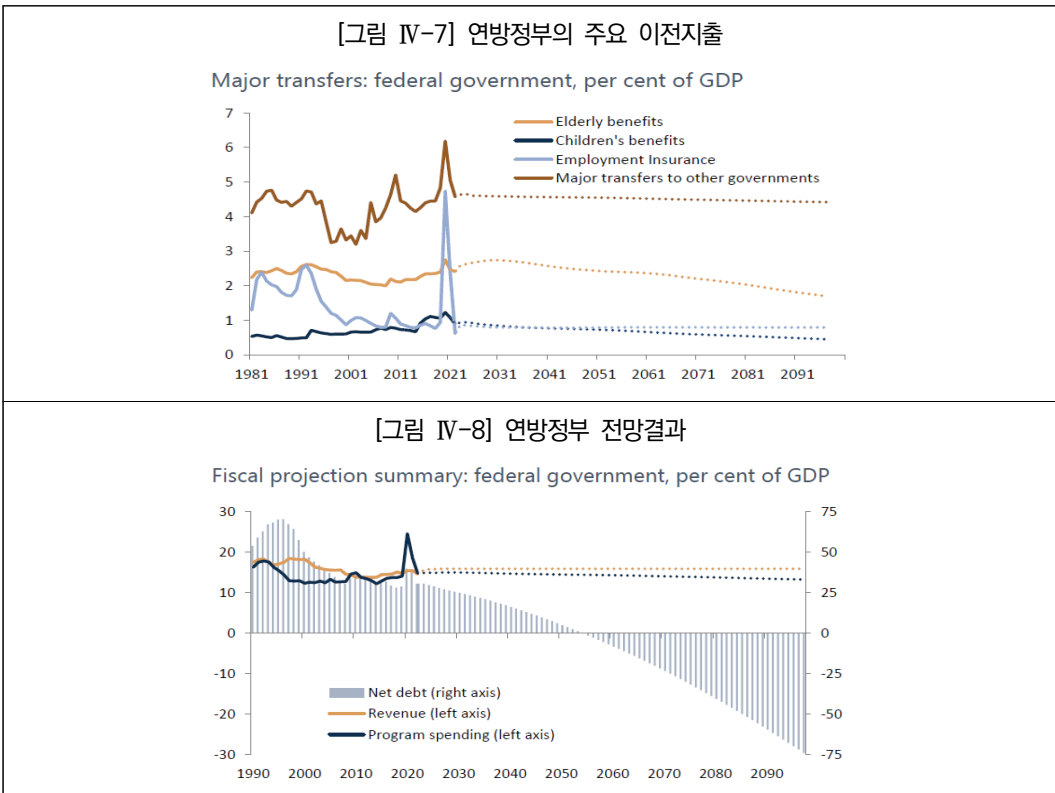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p. 17~21.

6. 전망결과

- (전망결과) 상기 방법론과 절차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결과(수입, 지출, 기초재정수지, 순부채 등)를 연방정부, 10개의 주정부 및 준주정부별로 나누어 제시
- (연방정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결과를 제시하고, 항목별 지출전망을 기반으로 한 기초재정수지와 순부채를 전망
 - (노령수당, elderly benefits) 2022년 GDP 대비 2.4%에 도달한 후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이르면서 2030년 GDP 대비 2.7%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아동수당, Children's benefits) 팬데믹 기간동안 추가로 배정된 아동수당으로 인해 2020년 GDP 대비 1.2%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총인구 중 18세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전망 후기에 이르러서는 GDP 대비 0.4%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금, transfer) 지방정부로의 이전재원은 2022년에서 2097년 사이에 GDP 대비 4.7%에서 GDP 대비 4.5%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의료보조(Canada Health Transfer, CHT)와 형평화교부금(Equalization)은 법적으로 국가경제 성장규모(명목 GDP 성장률)에 연동되어 있음
 - 캐나다 사회보조(Canada Social Transfer, CST)는 매년 3%씩 증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이는 명목 GDP 성장률보다 연평균 0.7%p 낮은 수준임
- (순부채) 연방정부 수입이 전망 기간동안 지출을 초과함에 따라 기초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라 2022년 GDP 대비 30.5%인 연방정부 순부채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54년에 이르러 사라질 전망
- (재정지속성) PBO는 장기적으로 2022년 GDP의 30.5% 순부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지출을 영구적으로 늘리거나 GDP 대비 1.7%(약 495억캐나다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p. 23~25.

- (지방정부) 10개 주와 3개의 준주별 자체수입(Own-source Revenue)과 연방정부 이전금, 프로그램별 지출, 순부채 전망결과와 함께 민감도 분석결과를 제시함
 - (평가) 지방정부의 경우, 연방정부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의료비용과 사회보조금 지출은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향후 연방정부로부터의 이전금은 줄어드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순부채를 살펴보면 4개 주(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Manitoba, British Columbia)와 준주(Territories)의 부채는 2097년까지 GDP 대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나머지 6개 주와 지방정부 부문 전체는 100% 미만을 유지할 것이며 4개 주(Nova Scotia, New Brunswick, Quebec, Saskatchewan)는 2097년까지 순자산 포지션일 것으로 예상

〈표 IV-1〉 주(州)정부별 순부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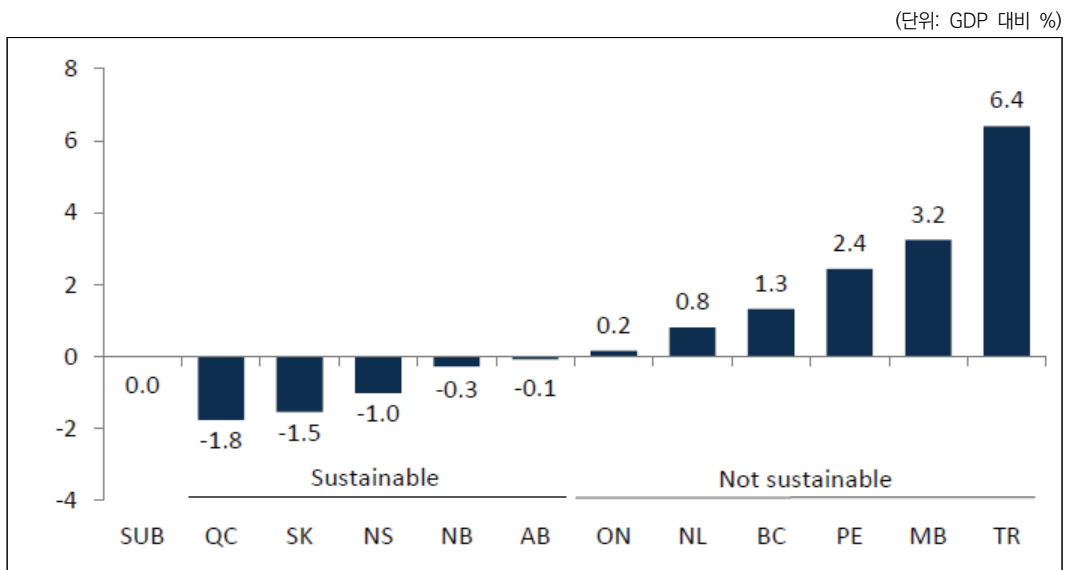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Years	2022	2047	2072	2097
Subnational	20.0	13.8	12.9	18.5
Newfoundland and Labrador	25.4	37.9	70.9	116.3
Prince Edward Island	20.6	46.5	119.6	244.3
Nova Scotia	18.9	-31.3	-71.1	-88.3
New Brunswick	18.1	7.8	-3.3	-12.6
Quebec	29.5	-9.8	-73.3	-146.8
Ontario	28.6	19.8	24.7	41.6
Manitoba	29.8	70.8	154.7	281.7
Saskatchewan	8.1	-33.7	-72.4	-101.8
Alberta	5.6	-4.0	-5.5	0.6
British Columbia	1.5	53.0	104.8	131.3
Territories	-8.1	157.0	362.0	583.0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 37.

- (재정지속성) 전체적으로 지방정부는 현재의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지방정부 부문의 재정갭을 GDP의 0.0%로 추정함(그림 IV-9의 SUB 값 참고)
- 지방정부 부문 전체의 경우, 자체 세입과 연방정부 이전금이 합쳐지면 75년 전망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순부채 비율을 2022년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
 -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5개의 주정부(Quebec, Saskatchewan, Nova Scotia, New Brunswick and Alberta)만이 지출증가 및 세금감축을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다고 분석

[그림 IV-9] 주(州)정부별 재정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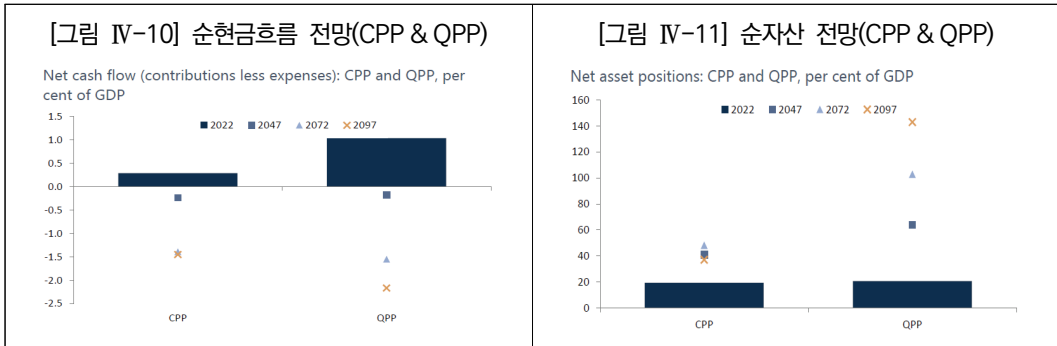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 38.

- (공적연금, public pension plan)³⁰⁾ 공적연금은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 CPP)과 퀘벡 연금(Quebec Pension Plan, QPP)의 기여금과 지출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순현금흐름(net cash flow)과 순자산(net asset)을 전망

30) OCA, *the 31st Actuarial Report of the Canada Pension Plan*, 2021. 12.

_____, *the Évaluation actuarielle du Régime de rentes du Québec*, 202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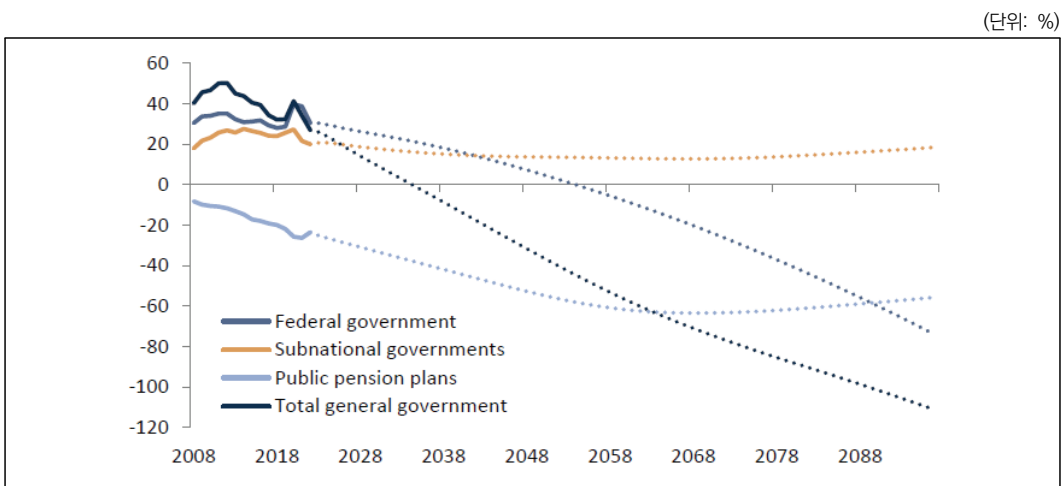
- (기여금, Contributions) 두 연금에 대한 기여금은 수익(earnings)과 기여율(contribution rates)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CPP: 2022년 GDP 대비 2.5% → 2097년 GDP 대비 3.2%
 - QPP: 2022년 GDP 대비 4.1% → 2097년 GDP 대비 4.8%
- (지출, expenditures) 지출은 급여(benefit payments)와 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s)으로 구성됨
 - (급여)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의 증가 및 인구고령화가 퇴직급여를 견인함에 따라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CPP: 2022년 GDP 대비 2.2% → 2097년 GDP 대비 4.6%
 - QPP: 2022년 GDP 대비 3.1% → 2097년 GDP 대비 6.9%
 - (관리비용) CPP와 QPP의 관리비용은 전망 기간동안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1.0%와 동일하다고 가정
- (순현금흐름, Net cash flow) 기여금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현금흐름은 각각의 재무상태에 대비한 5개년 계획들을 반영하여 전망하므로 각 계획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CPP: 2022년 GDP 대비 0.3% → 2097년 GDP 대비 △ 1.5%
 - QPP: 2022년 GDP 대비 1.0% → 2097년 GDP 대비 △ 2.2%
- (순자산, Net asset) 기여금은 장기적으로 예정된 지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두 공적연금의 순자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CPP: 2022년 GDP 대비 19.4% → 2065년 49.3% → 2097년 GDP 대비 37.2%
 - QPP: 2022년 GDP 대비 20.8% → 2097년 GDP 대비 142.9%
- (재정지속성) CPP와 QPP의 재정갭은 장기간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
 - CPP의 경우 캐나다 GDP 대비 -0.1%, QPP의 경우 퀘벡 GDP 대비 -0.5%로 추정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p. 43~44.

- (일반정부) 연방 및 지방정부와 공적연금 전망을 결합한 관점에서 캐나다의 현재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함
 - (순부채) 총 일반정부 순부채는 현상 유지 재정정책에 따른 연방 수준의 재정여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총 일반정부 순부채가 2022년 GDP 대비 27.0%에서 감소하여 2035년 순자산 포지션(net asset position)에 도달
 - 총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가 장기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2097년 총순자산 비율은 GDP 대비 1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IV-12] GDP 대비 정부 순부채 전망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 47.

7. 민감도 분석

- (대안 시나리오 분석) 인구 및 경제전망 변수의 변경에 따른 재정갭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 (정의) 재정갭(fiscal gap)은 현 재정정책과 장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을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정책 간의 격차를 측정하며, 재정갭이 0보다 작을 때 재정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
 - 베이스라인의 재정갭은 전망기간이 끝난 75년 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조정분을 의미
 - (인구전제) 세 가지 인구가정 변경에 따른 시나리오
 - higher population scenario: 높은 출산율, 높은 기대수명, 높은 이주율
 - lower population scenario: 낮은 출산율, 낮은 기대수명, 낮은 이주율
 - interprovincial migration scenario: 과거 인구이동 추세를 반영한 지방 간 이주율
 - (거시전제) 2028년부터 실질 GDP 성장률 $\pm 0.5\%p$ 와 이자율(± 50 basis points)에 대한 시나리오
 - (정책변화) 초과의료비와 순부채 비율에 대한 시나리오
 - 초과의료비: 2028년부터 초과의료비 증가율을 GDP 대비 $\pm 0.25\%p$ 변경한 시나리오
 - GDP 대비 순부채 비율: 전망 끝년도에 이르러 0%일 경우와 100%일 경우의 시나리오
 - (전망결과) 대안 시나리오하에서의 재정갭 추정 결과 연방정부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재정갭이 증가 및 감소

〈표 IV-2〉 대안 시나리오하에서의 재정갭 민감도 분석

(단위: GDP 대비 %)

구분	기준선	높은 인구성장	낮은 인구성장	지역간 이주	높은 GDP 성장률	낮은 GDP 성장률	높은 이자율	낮은 이자율	높은 의료비지출	낮은 의료비지출	목표 부채비율 0 %	목표 부채비율 100 %
Federal	-1.7	-2.4	-1.3	-1.7	-2.5	-1.0	-1.5	-2.0	-1.7	-1.7	-1.2	-2.9
Subnational	0.0	-0.2	0.1	0.1	0.0	0.0	0.1	-0.1	0.8	-0.7	0.2	-1.0
Newfoundland and Labrador	0.8	0.6	0.9	0.9	0.8	0.9	1.0	0.7	1.6	0.1	1.1	0.2
Prince Edward Island	2.4	2.2	2.5	2.7	2.6	2.2	2.4	2.4	3.7	1.3	2.7	1.6
Nova Scotia	-1.0	-1.2	-1.0	-0.7	-0.9	-1.1	-1.0	-1.1	0.0	-1.9	-0.8	-1.8
New Brunswick	-0.3	-0.4	-0.2	-0.1	-0.2	-0.3	-0.1	-0.4	0.8	-1.2	-0.1	-1.0
Quebec	-1.8	-2.1	-1.6	-1.6	-1.9	-1.7	-1.5	-2.0	-0.9	-2.5	-1.4	-2.4
Ontario	0.2	-0.1	0.3	0.1	0.1	0.2	0.3	0.1	1.1	-0.6	0.5	-0.7
Manitoba	3.2	2.8	3.5	3.4	3.3	3.2	3.3	3.2	4.3	2.3	3.7	2.4
Saskatchewan	-1.5	-1.6	-1.5	-1.5	-1.5	-1.6	-1.5	-1.6	-0.8	-2.2	-1.4	-2.8
Alberta	-0.1	-0.2	-0.1	0.1	0.0	-0.1	-0.1	-0.1	0.6	-0.7	0.0	-1.5
British Columbia	1.3	1.0	1.4	1.4	1.3	1.3	1.4	1.2	2.2	0.6	1.4	0.3
Territories	6.4	7.2	6.0	7.0	6.9	5.9	6.4	6.4	6.6	6.3	6.3	5.3
Canada Pension Plan	-0.1	-0.1	-0.1	-0.1	0.0	-0.1	-0.2	0.0	-	-	-	-
Quebec Pension Plan	-0.4	-0.5	-0.4	-0.4	-0.4	-0.5	-0.5	-0.3	-	-	-	-

출처: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pp. 51~53 재가공.

V. 스웨덴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의를 포함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은 국립경제연구원의 지침조례(2007: 759)³¹⁾에 의거하여 장기재정 전망을 수행
 - 조례에 따르면 국립경제연구원이 공공 재정에 대한 장기전망을 수행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것을 명시
- (추진추이) 2012년 처음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계산 보고서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열두 번째 전망 보고서를 출간
 - 2012년 1월에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S2 계산 보고서 발표 후, 같은 해 4월에는 정부가 직전연도에 의뢰한 2035년까지의 공공 재정 전망 보고서를 출간
 - 2014년 3월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 재정의 장기전망과 재정 평가(S2 지표 포함)를 함께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정부는 2015년부터 국립경제연구원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발표하도록 명시, 평가는 정량적이어야 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포함하도록 과제의 틀을 설정
 - 2016년부터 Hållbarhetsrapport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공공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름으로 2024년까지 거의 매년* 발표
 - *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발간

31) Förordning(2007:759) med instruktion för Konjunkturinstitutet(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rordning-2007759-med-instruktion-for_sfs-2007-759/), 검색일자: 2024. 12. 31.

〈표 V-1〉 스웨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발간일	보고서명
2012. 1.	Konjunkturinstitutet, <i>Förstudie: Konjunkturinstitutets beräkning av S2-indikatorn</i>
2012. 4.	Konjunkturinstitutet, <i>Sveriges ekonomi – ett långsiktsscenario fram till år 2035</i>
2014. 3.	Konjunkturinstitutet, <i>Är ett bibehållet offentligt åtagande ett hållbart åtagande?</i>
2014. 4.	Konjunkturinstitutet, <i>An assessment of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wedish public finances</i> (영문 번역본)
2015. 3.	Konjunkturinstitutet, <i>Den långsiktiga hållbarheten i de offentliga finanserna</i>
2015. 5.	Konjunkturinstitutet, <i>Longer working life and improved health strengthens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i> (영문 번역본)
2016. 3.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16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2016. 3.	Konjunkturinstitutet, <i>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6</i> (영문 번역본)
2017. 2.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17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2017. 4.	Konjunkturinstitutet, <i>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i> (영문 번역본)
2018. 2.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18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2019. 2.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19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2019. 4.	Konjunkturinstitutet, <i>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9</i> (영문 요약본)
2020. 2.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20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2021. 2.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2021. 3.	Konjunkturinstitutet, <i>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1</i> (영문 요약본)
2022. 2.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22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2022. 2.	Konjunkturinstitutet, <i>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2</i> (영문 요약본)
2024. 2.	Konjunkturinstitutet, <i>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i>

출처: 저자 작성.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범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을 제공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대안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전망을 수행
- (전망분야) 수입, 지출, 부채를 전망하되, 포함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의 전망은 대부분 미 실시
 -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으며 몇몇 변수에 대한 가정만 제시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기간) 2024년 보고서의 기본 전망기간은 26년(2024~2050년)으로 설정하되 추가적으로 2050~2100년에 대한 결과도 별도로 제공
 - 인구전망과 거시경제 전제 등 전망전제도 2024~2100년까지임

- (거버넌스) 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전망절차) 각 분야별 전망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장기재정전망을 발표
 - (공통 전제) 2023년 4월 발표된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의 인구전망을 사용, 거시경제 전망은 국립경제연구원에서 직접 작업
 - (전망항목) 지출 항목에서는 기본 지출, 공공 소비, 공공 투자, 이전 지출 등을 포함, 수입 항목에서는 세입, 세원 등을 포함
 - (전망결과 종합) 재정수지와 부채 비율을 제시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S2 지표를 계산
 - (시나리오 분석) 대안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하고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전망결과 발표) 보고서를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 이름으로 발간

4. 보고서의 구조

- 전망 보고서는 기본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시
 - 전망전제는 인구와 거시경제 전제를 변수별로 간략하게 설명하되 거시경제 전제는 부록에서 상세하게 제공
 - 전망결과는 2024~2050년까지, 2050~2100년까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변수별로 10년 단위별 수치 및 그래프를 제공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대안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도 제공하며 시나리오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함

〈참고 1〉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요약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기본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지속가능성

인구통계학적 전망과 노동시장

GDP와 공급수지 전망

금융변수 전망

기본 지출

기본 수입

지속가능성 평가

현재 잉여 목표의 전망

거시 전망의 대안 시나리오

낮은 이자율

세원의 다른 구성

낮은 수준의 자원 이용

지속가능성 평가

참고 문헌

부록 1. 기본 시나리오의 거시경제적 가정

부록 2. 기본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가정

부록 3. 이전 연도 지속가능성 계산과의 비교

부록 4.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특정 주요 가정의 민감도 분석

부록 5. 긴 시계하에서의 공공 재정 지속가능성

2050년 이후의 전망

무한한 전망 시계에서의 지속가능성

부록 6. 장기 지속가능성의 정의

부록 7. 표

출처: 보고서를 참고하여 목차 내용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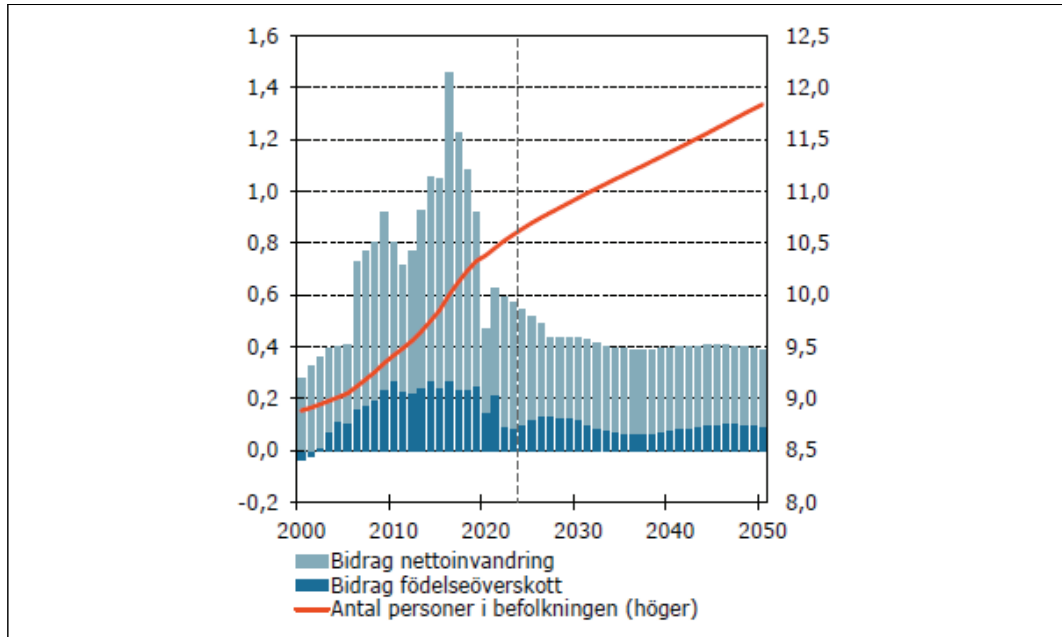
5. 전망전제

□ (인구전제³²⁾) 2023년 4월 발표된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의 인구전망을 활용

- (총인구) 총인구는 2024년 1,064만명에서 향후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1,184만명에 도달
 - 순이민인구 변화율은 2024년 약 0.5% 수준에서 감소해 2020년대 후반부터 2050년까지 0.4% 내외 수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수치보다 낮을 것으로 가정
 - 순출생인구 변화율은 전망 기간동안 0.1% 내외 수준을 유지

[그림 V-1] 총인구 전망

(단위: 각각 백분율 변화 및 백만명)



주: Antal personer i befolkningen(höger)(주황색): 총인구수, Bidrag nettoinvadring(하늘색): 순이민인구 변화율, Bidrag födelseöverskott(파란색): 순출생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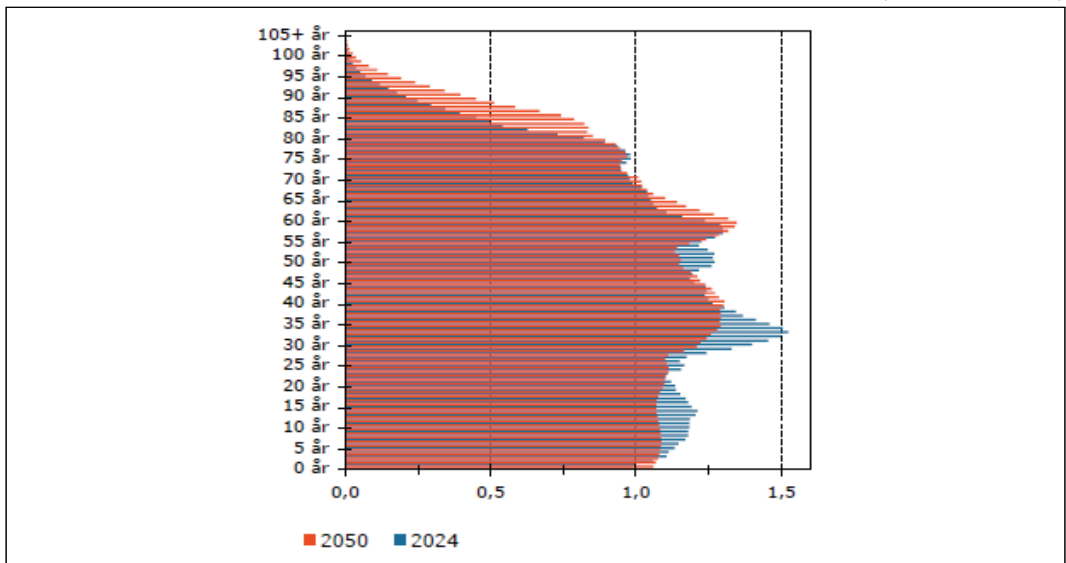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8.

32) SCB, *Sveriges framtida befolkning 2023~2070*, 2023.

- (연령별 인구 분포) 점차적으로 중년이 좁아지고 상단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
 - 2050년까지 주로 8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3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이 특징
 - 2024년 55~75세 대규모 코호트가 2050년이 되면 80세 이상에 해당하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할 전망

[그림 V-2] 인구분포 전망 비교(2024년, 2050년)

(단위: 총인구대비 비율)



주: år은 나이를 의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8.

- (연령그룹별 인구) 0~19세 인구 비율과 20~64세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임
 - (0~19세 인구 비율) 2024년 22.9%에서 2050년 21.6%, 2100년 21.0%로 감소
 - (20~64세 인구 비율) 2024년 56.5%에서 2050년 54.6%, 2100년 51.5%로 감소 전망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4년 20.7%에서 2050년 23.8%, 2100년 27.3%로 대폭 증가할 전망
 - 85세 이상 비율은 2024년 2.7%에서 지속 증가해 2050년 4.9%, 2100년 7.7%로 대폭 확대

〈표 V-2〉 연령그룹별 인구 비율 전망

(단위: 총인구수 대비 비율)

Ålder (år)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0-5	6,4	6,3	6,4	6,5	6,3	6,3	6,4	6,3	6,2
6-19	16,5	15,8	14,8	15,1	15,2	14,9	15,0	15,1	14,8
20-54	44,5	44,1	44,3	42,0	41,9	41,2	40,8	40,7	40,4
55-64	12,0	12,0	11,2	12,6	11,0	11,7	11,2	11,0	11,1
65-74	10,0	10,2	10,8	10,1	11,5	10,1	10,8	10,4	10,3
75-84	8,0	8,0	8,2	8,8	8,5	9,9	8,8	9,6	9,3
85-99	2,7	3,5	4,3	4,8	5,6	5,8	7,0	6,8	7,6
100-	0,0	0,0	0,0	0,1	0,1	0,1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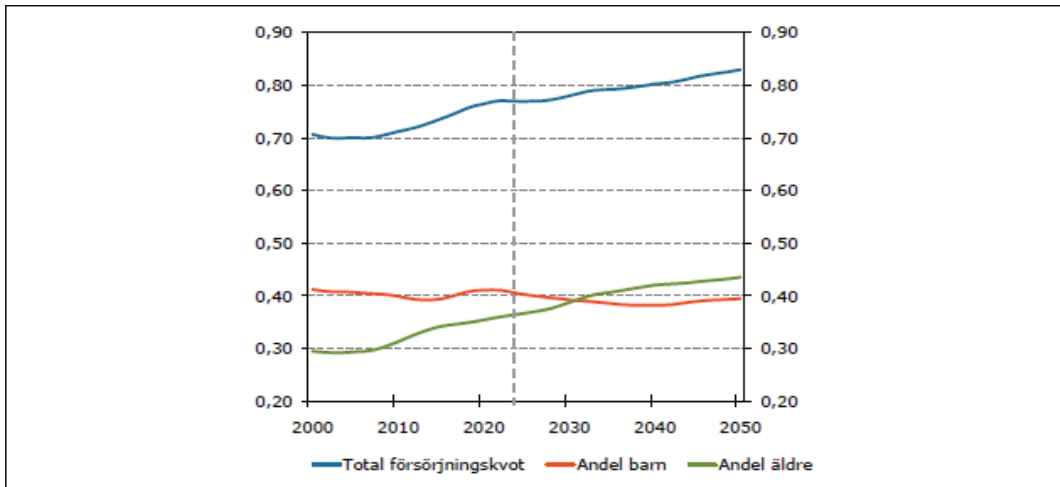
주: Ålder(år)은 나이를 의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2.

- (부양비) 총부양비는 노인 부양비 증가로 인해 2024년 0.8 미만의 수준에서 2050년 0.8 이상으로 완만히 증가
 - 유소년 부양비는 2024~2050년까지 0.4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노인부양비는 2024년 약 0.35 수준에서 2050년 약 0.45로 증가 전망

[그림 V-3] 총부양비(유소년, 노인) 전망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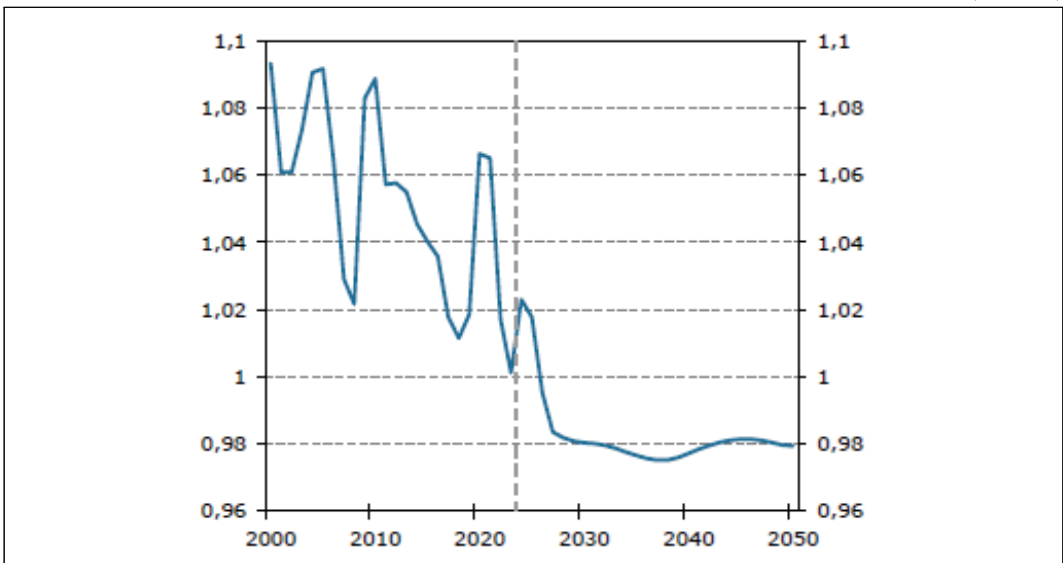
주: Total försörjningskvot(파란색): 총부양비, Andel barn(주황색): 유소년 부양비, Andel äldre(초록색): 노인 부양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9.

- (경제적 부양비)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 비율로 정의되는 경제적 부양비 전망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취업자 수 비율이 실업자 수 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취업자 수 비율은 인구 연령별 구성과 건강 수준에 따라 달라짐
 - 향후 20~64세 인구 비중 감소는 취업자 수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민 건강이 향후 개선된다는 전망은 취업자 수 비율에 긍정적으로 작용

[그림 V-4] 경제적 부양비 전망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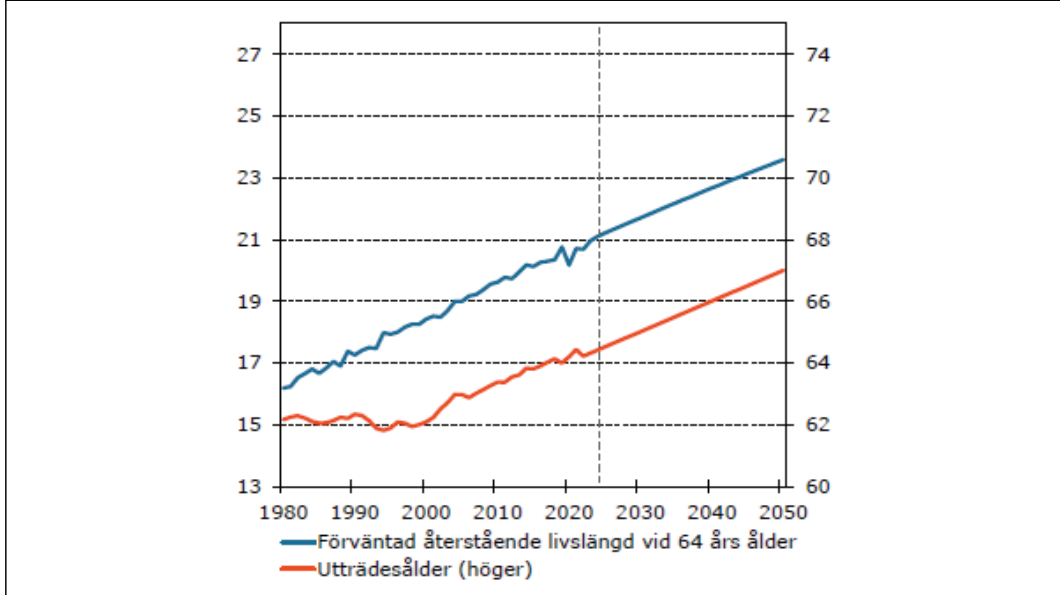
주: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 비율을 경제적 부양비(Ekonomisk försörjningskvot)라고 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8.

- (기대수명) 65세의 잔여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 약 21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까지 23년을 초과할 전망
 - 65세의 잔여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여성 약 21.5년, 남성 약 19년에서 2050년 기준 여성 약 24.5년, 남성 약 23년으로 증가할 전망
 - 퇴직연령은 2024년 약 64.5세에서 2050년 67세로 지속 증가할 전망
 -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노동수명도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65세의 잔여 기대수명과 평균 은퇴연령이 2050년까지 비슷한 속도로 증가
 - 2050년에는 노동수명의 연장이 평균 수명 증가의 2/3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그림 V-5] 기대여명 및 퇴직연령 전망

(단위: 년, 세)



주: Förväntad återstående livslängd vid 64 års ålder(파란색): 64세 기대여명, Utträdesålder(주황색): 퇴직연령.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9.

□ (거시전제)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에서 직접 전망하였으며 2100년까지 전망 하되 방법론상 중기(2024~2033년)와 장기(2034~2100년)로 구분*하여 전망

* 2033년까지는 국립경제연구원의 2023년 12월 경제상황 중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2033년 이후에는 거시경제적 가정을 바탕으로 전망

○ (고용률) 2024년부터 2100년까지 15~7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약 4%p 증가할 전망

- 15~74세 고용률은 2024년 68.6%에서 지속 증가하여 2050년 70.7%, 2100년 72.2%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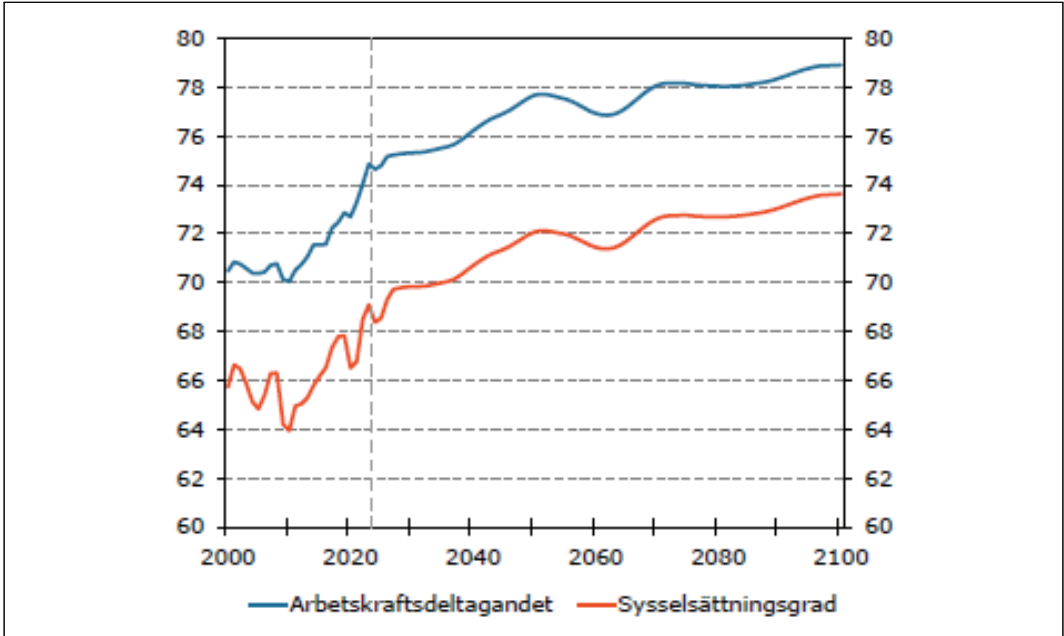
- 이러한 증가는 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평균 수명이 증가할수록 노동수명도 늘어난다는 가정에서 기인

- 65~74세 고용률은 2024년 20.3%에서 지속 증가하여 2050년 32.7%, 2100년 42.7%에 도달하며 다른 연령그룹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

- 노동 시간은 1993~2023년 기간에 비해 2050년까지 더 더디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됨

[그림 V-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15-74세 인구 대비 비율)



주: Arbetskraftsdeltagande(파란색): 경제활동참가율, sysselsättningsgrad(주황색): 고용률.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33.

<표 V-3>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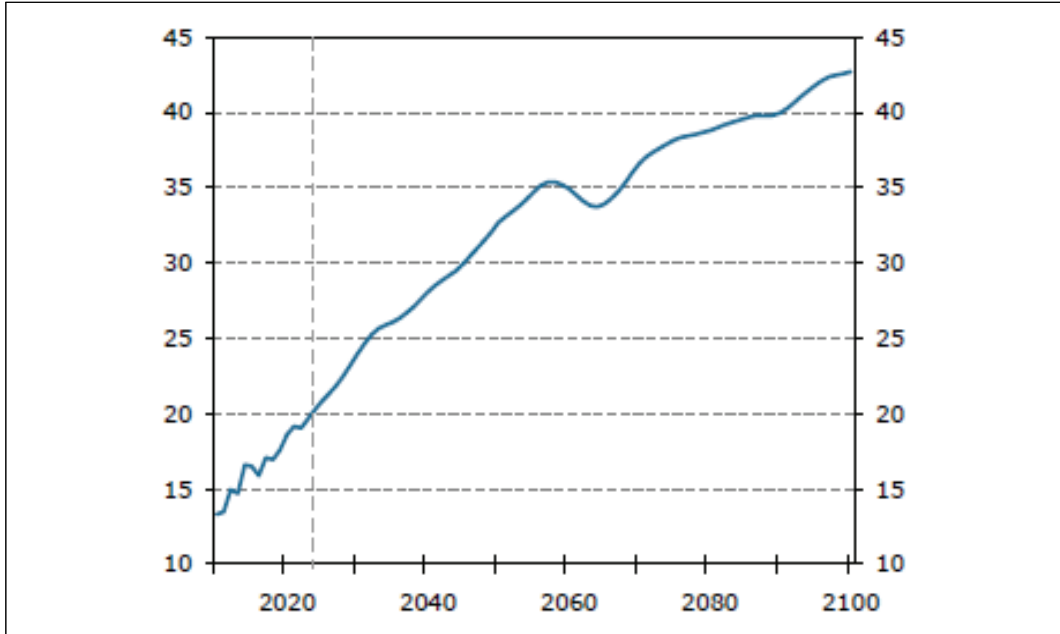
(단위: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비율)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15-74	68,6	68,5	69,3	70,7	70,0	71,2	71,3	71,6	72,2
15-19	26,6	27,0	27,3	27,0	27,0	27,1	27,0	27,0	27,1
20-54	82,6	81,9	81,9	82,1	82,4	82,4	82,6	82,8	82,8
55-64	77,2	77,6	78,8	81,4	81,2	81,8	82,2	82,4	82,7
65-74	20,3	23,9	28,1	32,7	34,9	36,6	38,8	40,0	42,7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1.

[그림 V-7] 65~74세 인구의 고용률

(단위: 65~74세 인구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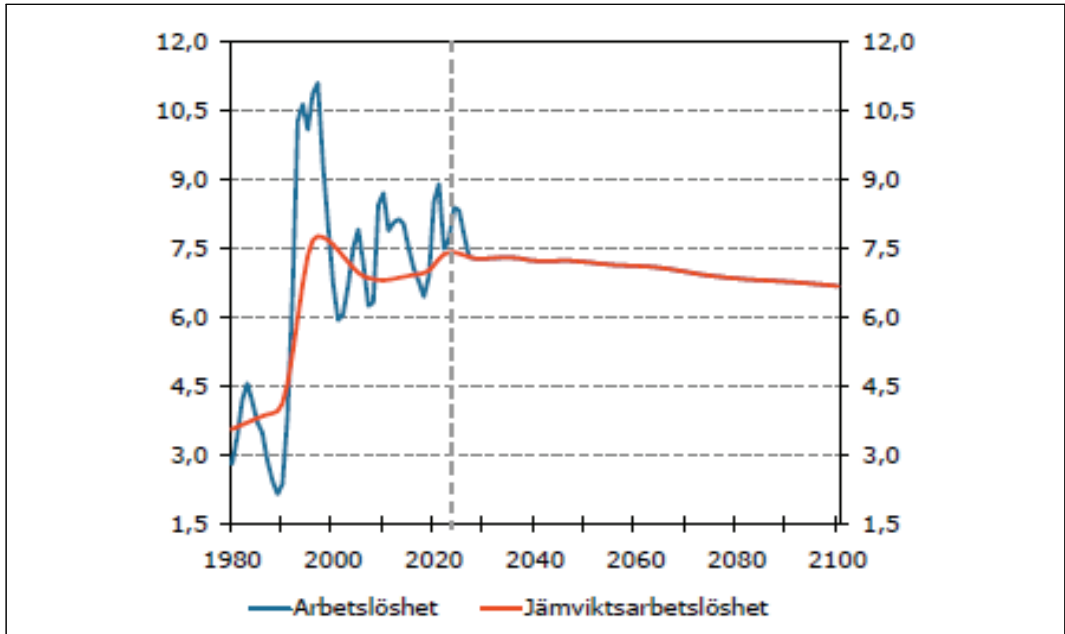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33.

- (실업률) 15~7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은 2024년 약 8% 수준에서 2026년까지 급감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100년까지 6.3% 전망
 - 2024년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있으나 향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2026년에는 균형 실업률로 수렴되는 것으로 가정
 - 2033년 이후에는 인구통계학적 전망을 기반으로 하여 2100년 6.3%까지 감소

[그림 V-8] 실업률 전망

(단위: 15~7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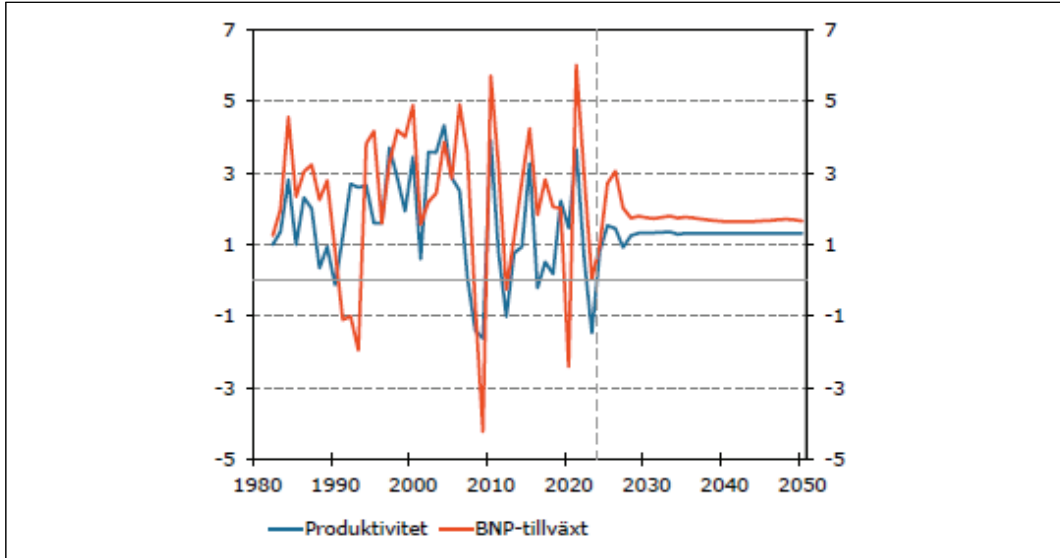
주: Arbetslöshet(파란색): 실업률, Jämviktsarbetslöshet(주황색): 균형실업률.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9.

- (성장률 및 생산성) 스웨덴은 2025년까지 불황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는 경제가 잠재력에 맞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GDP는 생산 측면에서 결정되며 GDP 성장은 인구통계학적으로 결정되는 노동 공급 전망과 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됨
 - 생산성 증가율은 2020년대 후반부터 연평균 1.3%로 가정되었으며 이는 1993~2023년까지의 평균보다 증가 속도가 느림
 - 결과적으로 GDP는 연간 1.4~1.7% 성장을 이룰 전망

[그림 V-9] GDP 성장률 및 생산성 증가율

(단위: 백분율 변화, 고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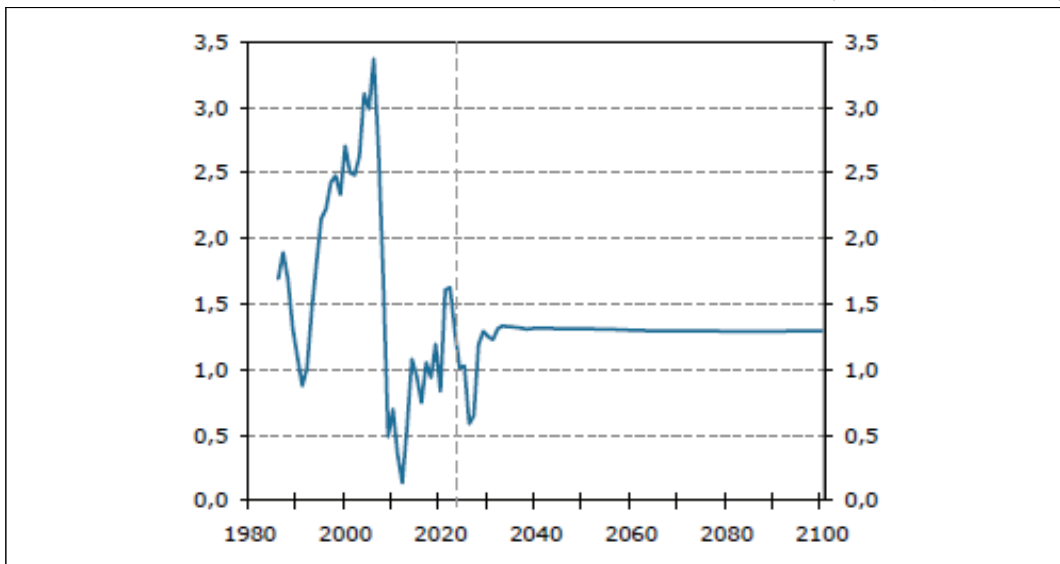


주: Produktivitet(파란색): 생산성, BNP-tillväxt(주황색): GDP 성장.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0.

[그림 V-10] 생산성 전망

(단위: 변화율, 5년 이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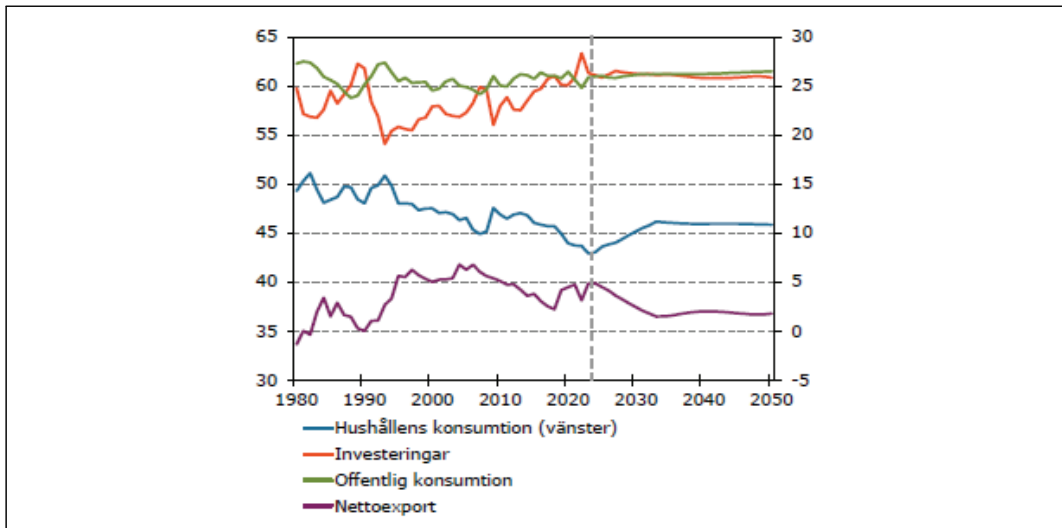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34.

- (공공 소비³³) 인구 전망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직원 밀도 유지(Bibehållen Personaltätet) 가정에 따라 2024년 24.8%에서 2050년 26.5%로 GDP 대비 비중이 소폭 증가 전망
- (가계 소비) 경기 침체로 인해 2024년 GDP 대비 43%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나 이후 회복해 2033년 46%로 실적치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
- (총저축) 가구의 총저축은 2024년 가구 가처분소득의 14% 미만에서 2033년 이후에는 약 6.5%로 감소할 전망
- (투자)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다시 감소해 전망 기간동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2050년 약 26%로 전망
 - 2033년 이후 현재 가격 기준의 자본스톡이 GDP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GDP 대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순 수출) 장기적으로 GDP 대비 순 수출은 약 1%로 감소 가정
- (임금) 생산성과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GDP 대비 임금은 약 39%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그림 V-11] 공급 균형 전망

(단위: 현재 가격의 GDP 대비 비율)



주: Hushållens konsumtion(파란색, 왼쪽): 가계소비, Investeringar(주황색): 투자, Offentlig konsumtion(초록색): 공공소비, Nettoexport(보라색): 순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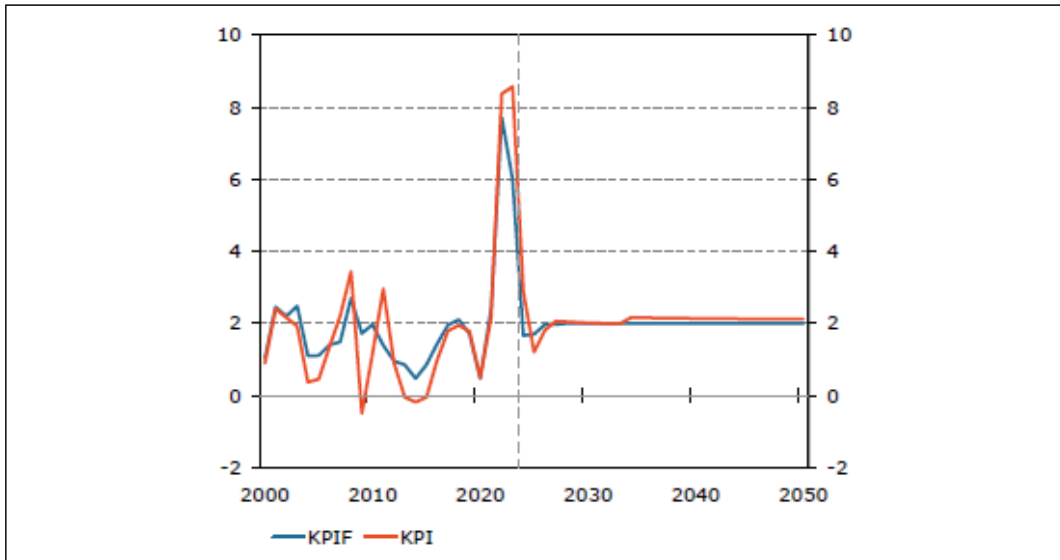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0.

33) 6. 전망 결과 절에서 공공 소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

- (소비자 물가지수) 고정이자율을 사용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F(Consumer Price Index with fixed interest rate)는 장기적으로 연 2%로 전망
 - 2033년까지는 국립경제연구원의 2023년 12월 경제 상황 중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함
 - 2033년 이후는 스웨덴 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의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향해 점차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
 - 초반에 CPI와 CPIF는 최근 몇 년간의 높은 수준에서 감소해 일시적으로 2% 미만을 나타내나 장기적으로는 약 2% 수준을 유지

[그림 V-12] CPI 및 CPF 물가상승률

(단위: 백분율 변화)



주: KIPF(파란색): CPIF 물가상승률, KPI(주황색): CPI 물가상승률.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0.

〈표 V-4〉 기본 시나리오의 거시경제 변수 전망

(단위: 평균 백분율 변화)

구분	1993~2023	2024~2030	2031~2040	2041~2050
인구(Befolkning)	0.6	0.5	0.4	0.4
노동력(Arbetskraft)	0.8	0.6	0.4	0.4
고용(Sysselsättning)	0.9	0.8	0.4	0.4
노동시간(Arbetade timmar)	0.9	0.9	0.4	0.4
시급(Timlön)	3.4	3.8	3.5	3.5
임금(Lönesumma)	4.5	4.7	3.9	3.8
CPI 물가상승률(KPI)	1.7	1.9	2.1	2.1
생산성(Produktivitet)	1.6	1.3	1.3	1.3
GDP, 고정가격(BNP, fast pris)	2.5	2.2	1.7	1.7
1인당 GDP, 고정가격(BNP fast pris per invånare)	1.8	1.7	1.3	1.3
GDP, 현재가격(BNP, löpande pris)	4.6	4.3	3.9	3.8
GDP 디플레이터(BNP-deflator)	2.1	2.1	2.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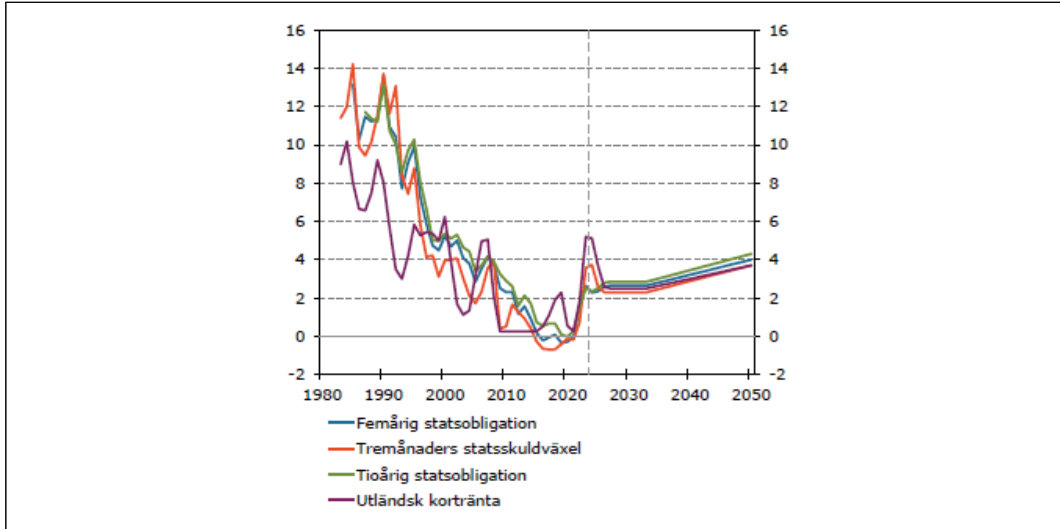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1 번역.

○ (금리) 장기적으로 금리가 균형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전망 초기에 정부 채권에 대한 단기 이자율은 과거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반면 국채 이자율은 여전히 과거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
- 2024년부터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단기 및 장기 시장 이자율이 모두 장기 균형 수준을 향해 상승해 2050년 명목 이자율이 3.7~4.3%에 이를 전망
- 공공 부문의 부채와 자산에 대한 암묵적 이자율은 2050년에 각각 균형 수준의 시장 이자율을 따름
-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무이자 자산의 배당수익률이 이자부 자산의 암묵적 이자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

[그림 V-13] 금리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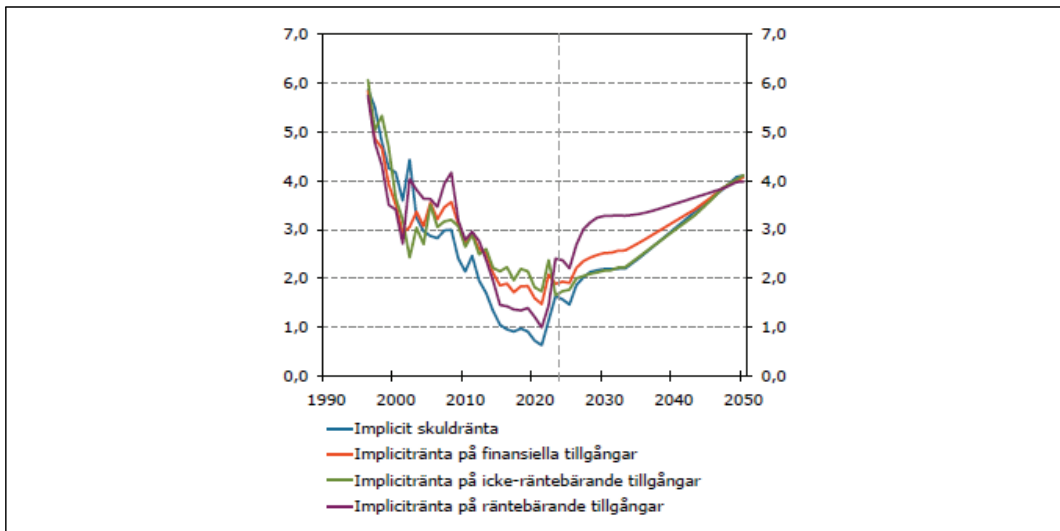


주: Femårig statsobligation(파란색): 5년 국채 금리, Tremånaders statsskuldväxel(주황색): 3개월 국고채 금리, Tioårig statsobligation(초록색): 10년 국채 금리, Utländsk korränta(보라색): 외국 단기 금리를 의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0.

[그림 V-14] 암묵적 이자율

(단위: %)



주: Implicit skuldränta(파란색): 암묵적 부채 이자, Implicitränta på finansiella tillgångar(주황색): 금융자산에 대한 암묵적 이자, Implicitränta på icke-räntebärande tillgångar(녹색): 무이자 자산에 대한 암묵적 이자, Implicitränta på räntebärande tillgångar(보라색): 이자부 자산에 대한 암묵적 이자.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2.

〈표 V-5〉 이자율 및 수익률

(단위: 백분율, 해당 기간의 평균)

구분	1993~2023	2024~2050	2051~2100
시장이자율(Marknadsräntor)			
10년 만기 국채(Tioårig statsobligation)	3.7	3.3	4.3
5년 만기 국채(Femårig statsobligation)	3.2	3.1	4.0
3개월 국고채(3-månaders statssskuldväxel)	2.5	2.8	3.7
암묵적 이자율/직접수익률(Implicitränta/direktavkastning)			
부채(Skulder)	2.6	2.8	4.1
금융자산(Finansiella tillgångar)	2.9	3.0	4.1
무이자부 자산(Icke räntebärande tillgångar)	3.0	2.8	4.1
이자부 자산(Räntebärande tillgångar)	2.9	3.4	3.9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2 번역.

〈표 V-6〉 거시경제 변수 전망

(단위: 평균 백분율 변화)

구분	2024~29	2030~39	2040~49	2050~59	2060~69	2070~79	2080~89	2090~99	2100
인구(Befolkning)	0.5	0.4	0.4	0.4	0.3	0.3	0.3	0.3	0.3
노동력(Arbetskraft)	0.6	0.4	0.4	0.2	0.2	0.3	0.3	0.3	0.3
고용(Sysselsättning)	0.7	0.4	0.4	0.3	0.3	0.3	0.3	0.4	0.4
노동시간(Arbetade timmar)	0.8	0.4	0.3	0.2	0.3	0.3	0.3	0.3	0.3
생산성(Produktivitet)	1.2	1.3	1.3	1.3	1.3	1.3	1.3	1.3	1.3
GDP, 고정가격(BNP, fast pris)	2.1	1.7	1.7	1.5	1.6	1.6	1.6	1.6	1.6
- 가계 소비(Hushållens konsumtion)	2.8	2.1	1.8	1.7	1.7	1.7	1.7	1.7	1.7
- 공공 소비(Offentlig konsumtion)	1.2	0.7	0.7	0.7	0.6	0.7	0.5	0.5	0.6
- 투자(Investeringar)	2.6	1.9	1.9	1.4	2.0	1.7	1.9	1.8	1.8
- 수출(Export)	2.8	2.5	2.1	2.0	2.0	2.1	2.1	2.4	2.4
- 수입(Import)	3.4	2.4	1.9	1.7	1.8	1.8	1.8	1.9	1.9
1인당 GDP, 고정가격 (BNP fast pris per invånare)	1.6	1.3	1.3	1.2	1.2	1.2	1.3	1.3	1.3
GDP, 현재가격(BNP, löpande pris)	4.0	4.0	3.8	3.7	3.8	3.8	3.7	3.8	3.8
시급(Timlön)	3.7	3.5	3.5	3.5	3.5	3.5	3.5	3.5	3.5
CPI 물가상승률(KPI)	2.0	2.1	2.1	2.0	2.0	2.0	2.0	2.0	2.0
5년 만기 국채이자율 (Ränta femårig statsobligation)(%)	2.5	2.8	3.6	4.0	4.0	4.0	4.0	4.0	4.0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1 번역.

6. 전망 결과

- (기본 공공지출) 기본 공공지출(primära offentliga utgifterna)은 공공 소비, 공공 투자, 공공 이전 지출로 구성
 - 공공 지출의 전망은 2024년 예산 연도의 지출을 기준으로 함
 - 지출 전망의 기본 가정은 공공 지출 규모가 유지된다는 것임
 - 지출 규모가 유지된다는 것은 인구통계의 변화에 맞추어 지출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성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받음

- (공공 소비) 인구 고령화로 인해 GDP 대비 공공 소비(offentliga konsumtion) 지출은 2024년 24.8%에서 증가하여 2050년 기준 GDP 대비 26.5%로 증가할 전망
 - 공공 소비는 특성에 따라 개별 소비와 집단 소비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소비는 교육, 의료, 노인 요양, 개인 보조 등 개개인이 요구하고 소비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주로 지방정부 부문에서 발생
 - 전망시 개별 복지서비스 사용자당 서비스 수준을 유지(사용자당 직원 밀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인구 연령 구조의 영향을 받음
 - 집단 소비는 국방, 소방, 사법 시스템, 도로 및 철도 유지보수, 연구 및 개발 등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국가 부문에서 발생
 - 전망시 인구 연령 구조보다는 총인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
 - 항목별 공공 소비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젊은 층에서 노년층으로 소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재분배될 전망
 - 무엇보다도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돌봄, 일반 의료 또는 전문 의료, 병원 진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전망
 - 고령인구의 건강이 향상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요양에 대한 공공 소비 비율이 2040년경까지 가장 높은 증가치를 보일 전망
 - 초등학교에 대한 공공 소비 비중은 2040년까지 감소할 전망
 - 고등학교의 경우 지출 비중은 기본적으로 2035년경까지 변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교육 분야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압박은 다소 감소

-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공공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국방력 확대, 경찰·사법부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해 주 정부의 소비는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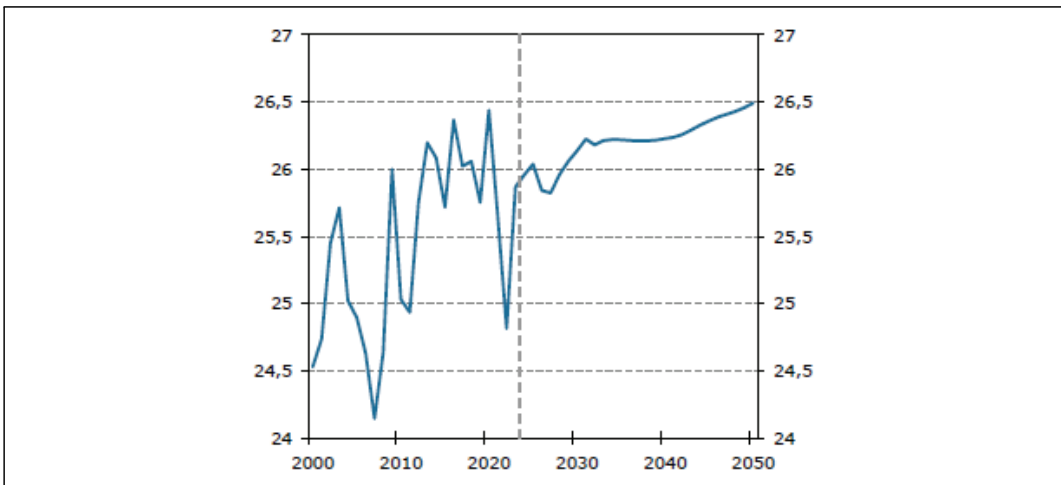
〈참고 2〉 공공 소비 전망 시 필요 개념

1. 직원 밀도 유지(Bibehållen Personaltäthet) 개념
 공공 소비는 복지 유지 약속의 가정에 따라 전망. 복지서비스 내 직원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 즉 복지서비스 사용자 한 명당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함. 따라서 공공 소비 전망 시 인구 전망에 영향을 받음. 또한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성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받음. 개인의 복지서비스 요구는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유소년 인구는 교육을, 고령 인구는 사회 보호 및 건강 보험 등을 주로 소비
2. 표준적 향상 개념
 복지서비스 소비 및 생산에 있어 임금, 소비, 자본의 비용 비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것으로 가정. 또한 일반적으로 자본 및 투입 소비의 가격은 임금보다 느리게 상승. 따라서 일정한 비용 비율의 가정은 소비량이 노동시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 더 나은 소비재가 구매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소비의 표준이 추세적으로 상승. 표준 상승의 크기는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의 생산성에 달려 있으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0.3%의 표준 상승으로 설정

출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V-15] 공공 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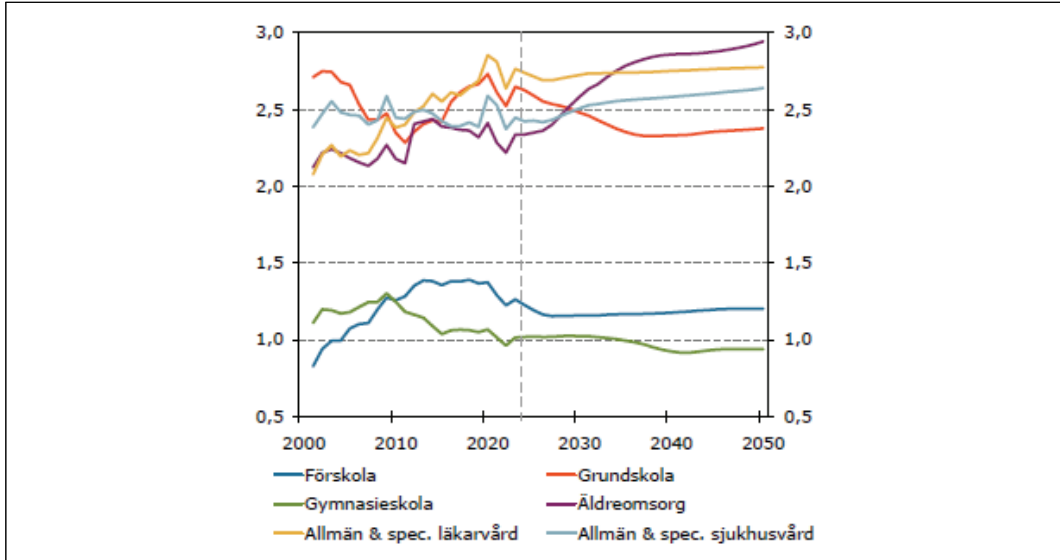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3.

[그림 V-16] 항목별 공공 소비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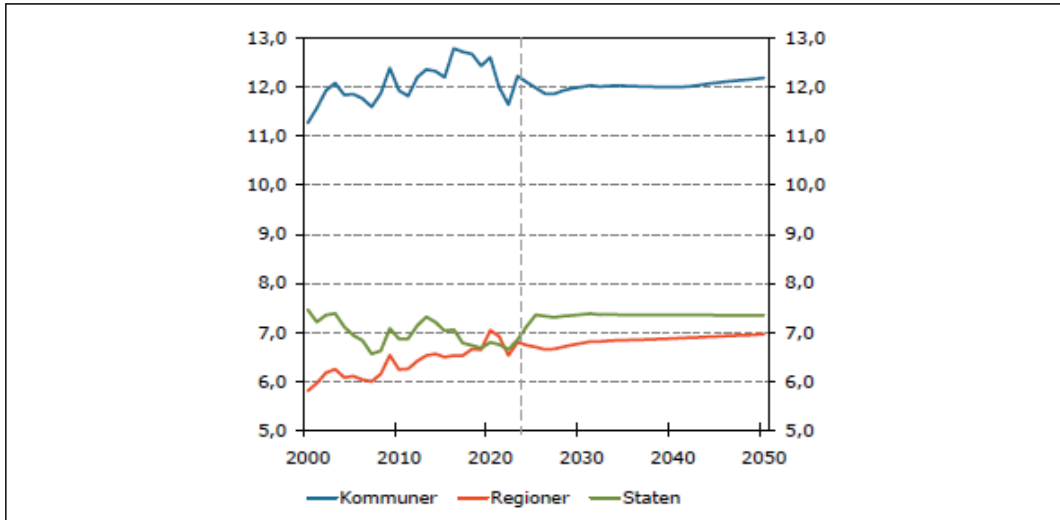


주: Förskola(파란색): 취학 전, Grundskola(주황색): 초등학교, Gymnasieskola(초록색): 상급학교, Äldreomsorg(보라색): 노인 요양, Allmän & spec. läkarvård(노란색): 일반 및 전문 치료, Allmän & spec. sjukhusvård(하늘색): 일반 및 전문 병원 진료.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3.

[그림 V-17] 정부 단위별 공공 소비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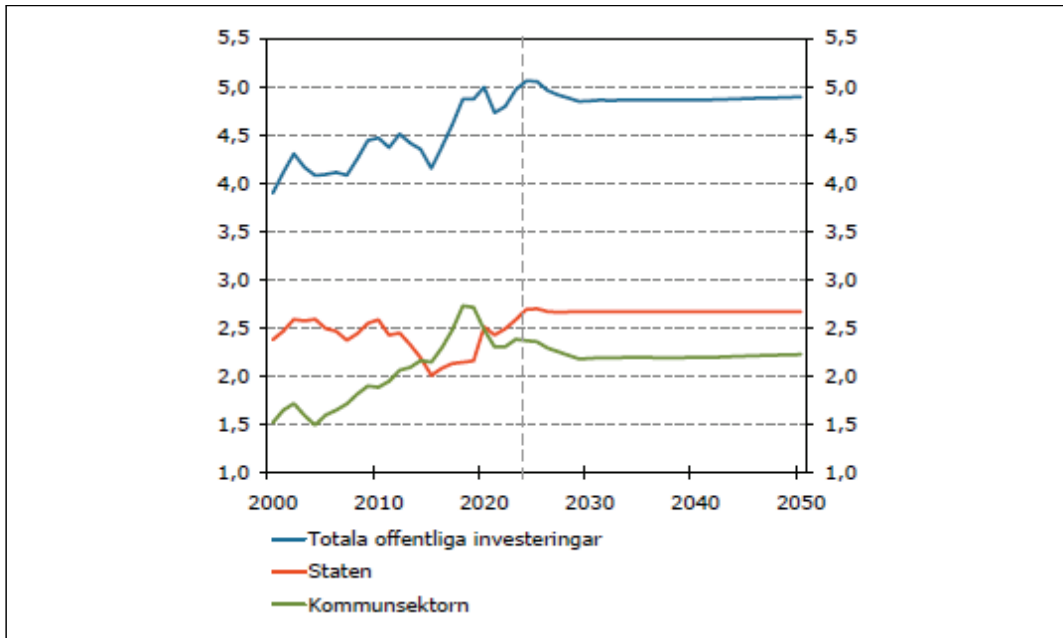
주: Kommuner(파란색): 지방자치단체, Regioner(주황색): 지역, Staten(초록색): 주 정부.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3.

- (공공 투자) 공공 투자(offentliga investeringar)는 대략적으로 GDP에 따라 증가해 GDP 대비 비중이 2024년 4.8%에서 2050년 4.9%로 전망
 - 지방정부 투자와 주정부 투자는 전망 가정이 상이
 - 지방정부의 투자는 지방정부 소비와 동일하게 증가하므로 대체로 인구통계학적 전망을 따름
 - 주 정부 투자는 주로 국방력 향상 및 새로운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인구통계학적 전망과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GDP 증가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 전망 초기에 GDP 대비 공공 투자 비중은 다소 감소하다가 2027년 이후에 회복

[그림 V-18] 정부 단위별 공공 투자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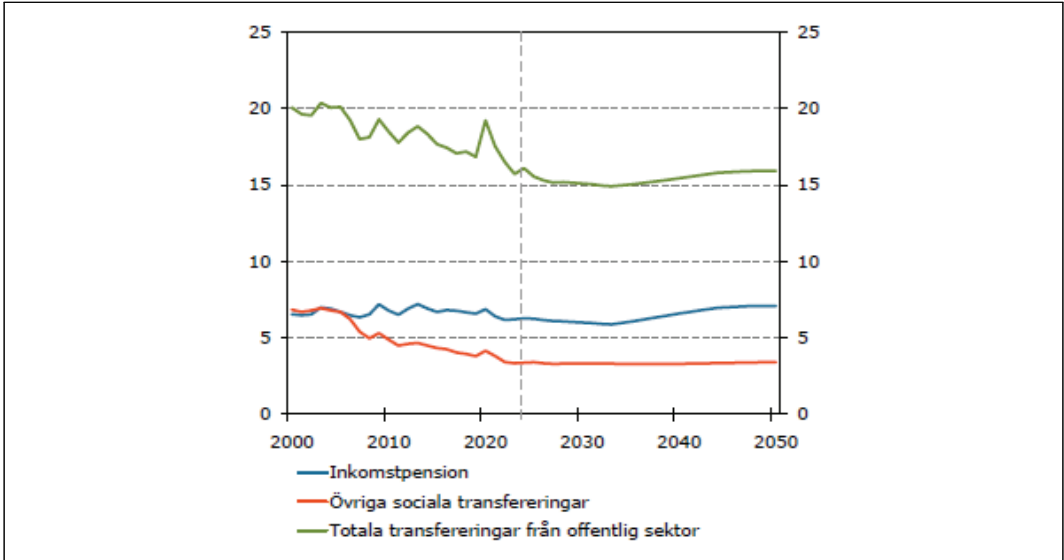


주: Totala offentliga investeringar(파란색): 총공공투자, Staten(주황색)는 주 정부, Kommunsektorn(초록색): 지방자치단체.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5.

- (공공 이전 지출) 연금 시스템의 재정적 잉여금으로 연금을 인상함으로써 공공 이전 지출 (transfereringar från offentlig sektor)이 증가해 2050년 GDP 대비 약 16%로 전망
 - 공공 이전 지출은 소득연금과 소득연금을 제외한 이전지출로 구분하여 전망
 - 공공 이전 지출(소득연금 제외)은 평균 시급 대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임금 총액은 현재 가격 기준의 GDP와 동일한 속도로 증가
 - 따라서 GDP 대비 이전지출 비율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동, 즉 이전 지출 대상자 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 소득연금은 연금관리청의 연금 모형을 기반으로 전망
 - 코로나19 기간에 특히 기업 지원으로 2020~2021년에 이전 지출 규모가 증가
 - 이후 전기요금 보조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계와 기업에 지급됐으나 임시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전 지출이 감소
 - 2030년대 이후 소득연금 증가로 인해 이전 지출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
 -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이 2033년부터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연금 시스템의 잉여금에 대한 가정에 따른 것임
 - 연금 완충 기금의 자산이 GDP의 일부로 안정화되도록 하는 가정이며 수급자에게 연금의 형태로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임
 - 이러한 배분이 없다면 노령연금의 재정적 저축은 늘어나고 균형비(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 사이의 비율)는 증가할 것임

[그림 V-19] 공공 이전 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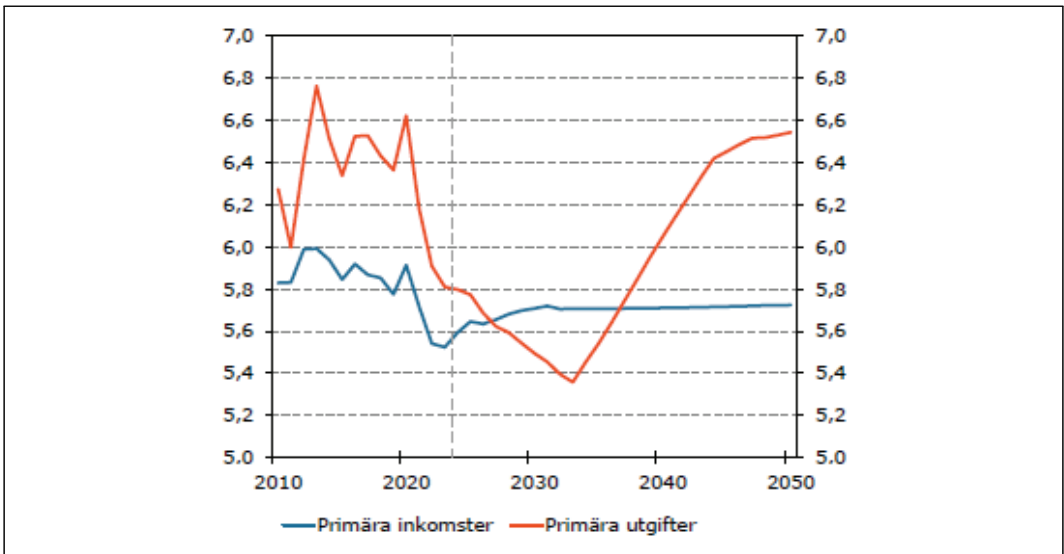


주: Inkomstpension(파란색): 소득연금, Övriga sociala transfereringar(주황색): 기타 사회적 이전, Totala transfereringar från offentlig sektor(초록색): 총공공 이전 지출.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5.

[그림 V-20] 노령연금제도의 수입 및 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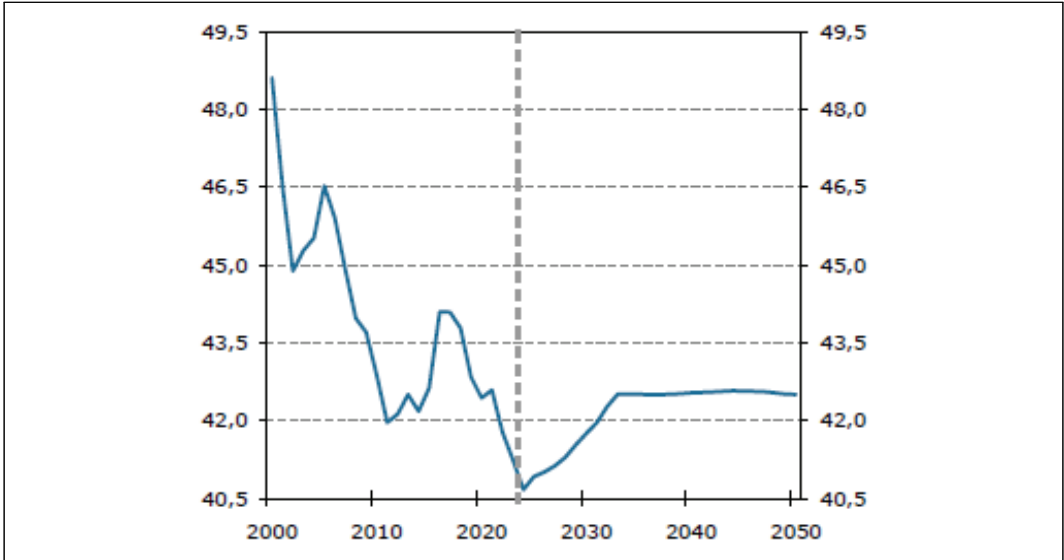
주: Primära inkomster(파란색): 기본 수입, Primära utgifter(주황색): 기본 지출.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5.

- (기본 소득) GDP 대비 기본 소득(Primära inkomster)은 2024년 46.3%에서 2050년 46.9%로 상승 전망
 - 지출의 조달은 세금 및 수수료로 이루어지며 이는 기본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
 - 세금 및 수수료는 2024년 41.8%에서 증가해 2050년 42.5%로 전망
 - 전망 시 2024년도 세금 규정은 전망 기간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세금 및 수수료는 세원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고정이어도 GDP 대비 임금 총액이 증가하거나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등 세원이 증가하면 조세 수입은 증가할 수 있음
 - GDP 대비 임금은 2030년대 초까지 증가 후 일정 비율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0년부터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코로나19의 여파와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감소
 - 이후에 가계 저축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입 비중이 증가
 - 2033년 이후에는 가계 소비가 GDP보다 다소 느리게 증가하면서 세입 비중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과세 대상 이전금은 2033년부터 다소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 증가세는 과세 연금에 따른 것임
 - 소득 연금 시스템 내에서 기금의 잉여금을 배분하는 고소득 연금을 가정한 결과이며 2050년에는 연금 증가율이 둔화할 전망

[그림 V-21] 세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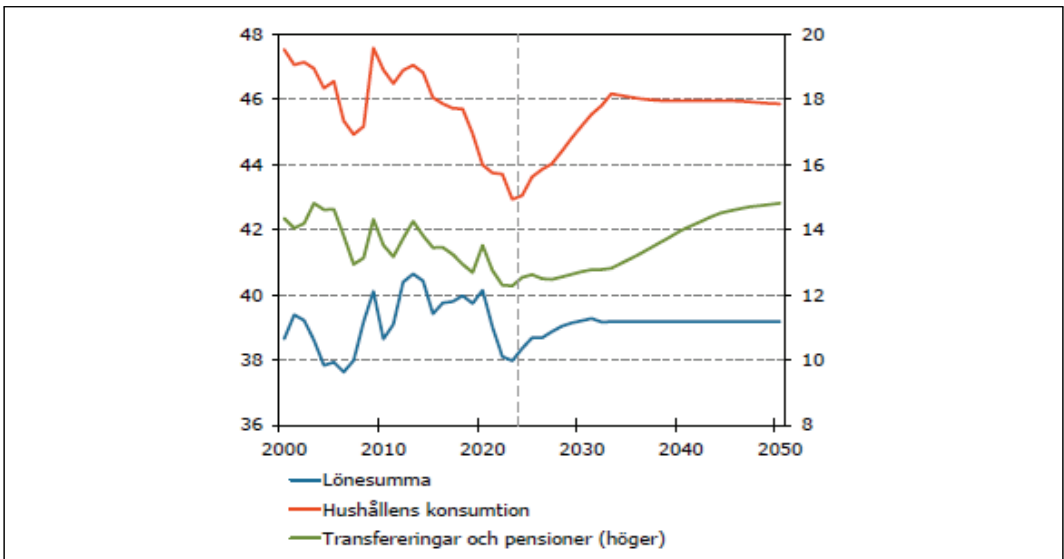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세금 및 수수료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6.

[그림 V-22] 세원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Lönesumma(파란색): 임금, Hushållens konsumtion(주황색): 가계 소비, Transfereringar och pensioner(초록색): 이전 및 연금(오른쪽).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6.

- (재정수지) 기본 소득과 기본 지출의 차이인 기초재정수지(Primärt finansiellt sparande)³⁴⁾는 2024년 GDP 대비 0.2%에서 2033년 1%까지 증가 후 감소해 2050년 -0.3%로 전망
 - 기본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24년 46.1%에서 소득 연금과 공공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50년 47.2%에 도달
 - 기본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은 2024년에 일시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2033년 47% 미만까지 증가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기초재정수지가 2033년 최대치인 1%까지 증가함에 따라 순 재정 상태(Finansiell nettoställning)가 강화되고 공공 부문의 순 자본 소득(nettokapitalinkomster)이 증가함
 - 기초재정수지에 자본수익을 합한 재정수지(Finansiellt sparande)는 기초재정수지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기초재정수지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3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50년 1.5%로 전망

[그림 V-23] 기본 지출 및 기본 소득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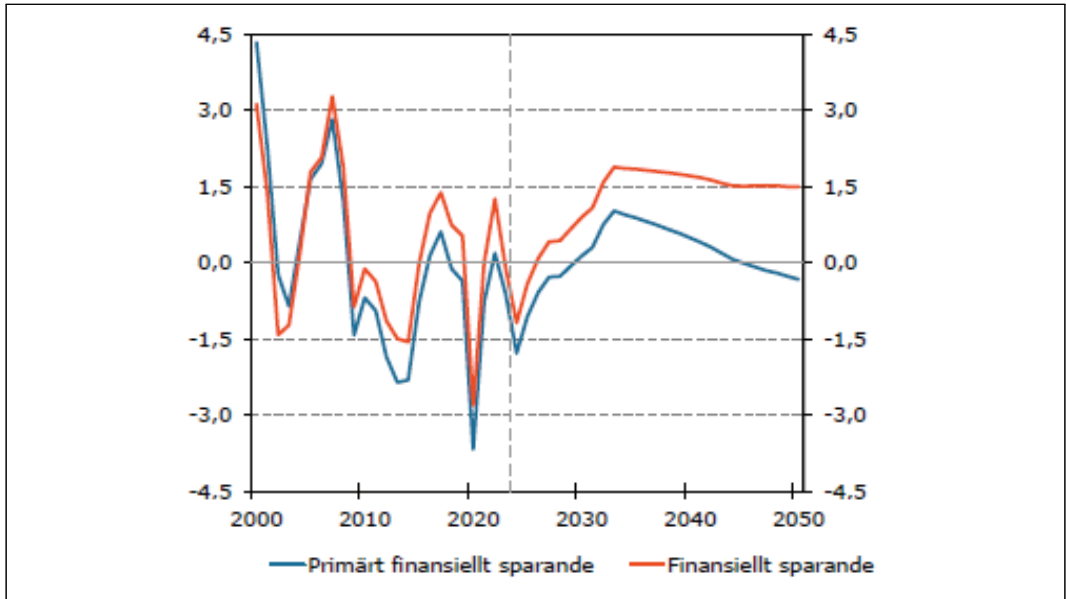
주: Primära utgifter(파란색): 기본 지출, Primära inkomster(주황색): 기본 소득.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6.

34)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기초 재정적 절감’이나 개념상 기초재정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그림 V-24]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파란색): 기초재정수지, Finansiellt sparande(주황색):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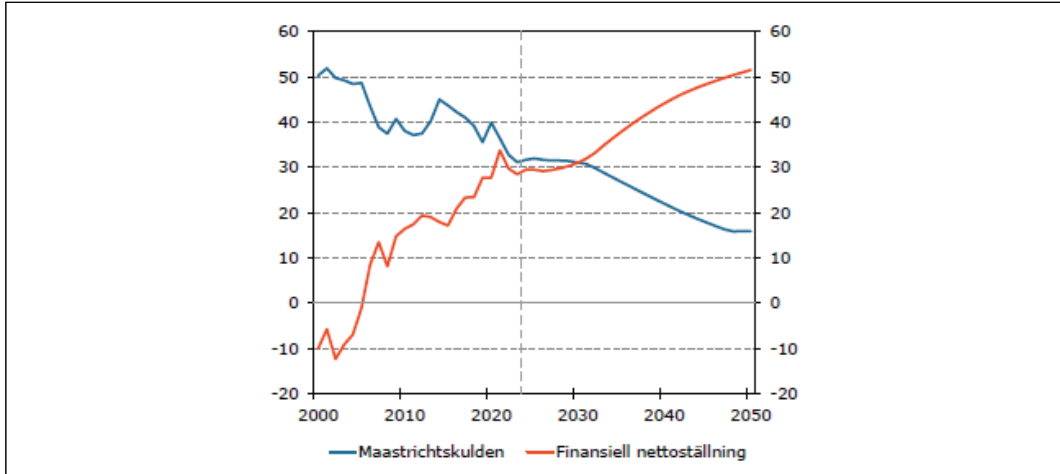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7.

- (순 재정 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순 재정 상태(Finansiell nettoställning)³⁵⁾가 강화되면서 마스트리히트 부채(Maastrichtskulden)는 감소할 전망
 - 2030년대에 재정수지 흑자가 쌓이면서 순 재정 상태의 GDP 대비 비중은 2024년 29.8% 수준에서 2050년 51.6%로 증가할 전망
 - 순 재정 상태가 강화되면서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2024년 GDP 대비 32.8%에서 2050년 GDP 대비 15.9%로 감소할 전망
 - 스웨덴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준값(debt anchor)은 GDP 대비 35%이며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 기준인 60%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판단

35) 순 재정 상태(finansiella nettoställning, net financial position)는 금융자산(finansiella tillgångarna)과 일반정부 총부채(offentliga sektorns bruttoskuld)를 합한 것으로 금융자산이 일반정부 총부채보다 값이 크면 순 자산이 존재하고, 금융자산이 일반정부 총부채보다 값이 작으면 순 부채가 존재.

[그림 V-25] 순 재정 상태 및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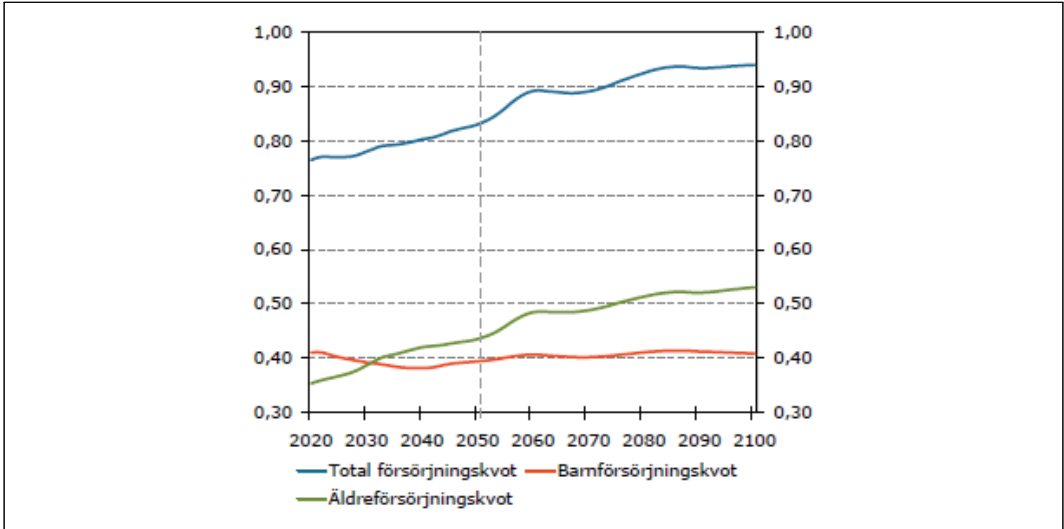
주: Maastrichtskulden(파란색): 마스트리흐트 부채, Finansiell nettoställning(주황색): 순 재정 상태.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17.

- (2100년 전망) 2050~2100년 지속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경제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공공 재정이 210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함
 - 2050년 이후에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구학적 필요성은 지속 증가하며 특히 노인 부양비가 주로 증가
 - 2050년대에 1985~1995년에 태어난 대규모 코호트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점진적으로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노인 부양비가 급격히 상승
 - 유소년 부양비는 205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2080년대에 다소 증가
 -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경제적 부양비는 2050년 약 0.98에서 2100년 1.03까지 상승
 - 2050년 이후에도 재정수지는 흑자이나 경제적 부양비가 상승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2050년 1.5%에서 2100년 0.4%로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순 재정 상태는 2050년 51.6%에서 2100년 40.0%로 2050년에 비해 낮은 수치이고 GDP 대비 마스트리흐트 부채는 2050년 15.9%에서 2100년 21.5%로 2050년에 비해 높은 수준
 - 그러나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에서 설정한 60% 수준은 초과하지 않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므로 2100년까지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V-26] 인구통계학적 부양비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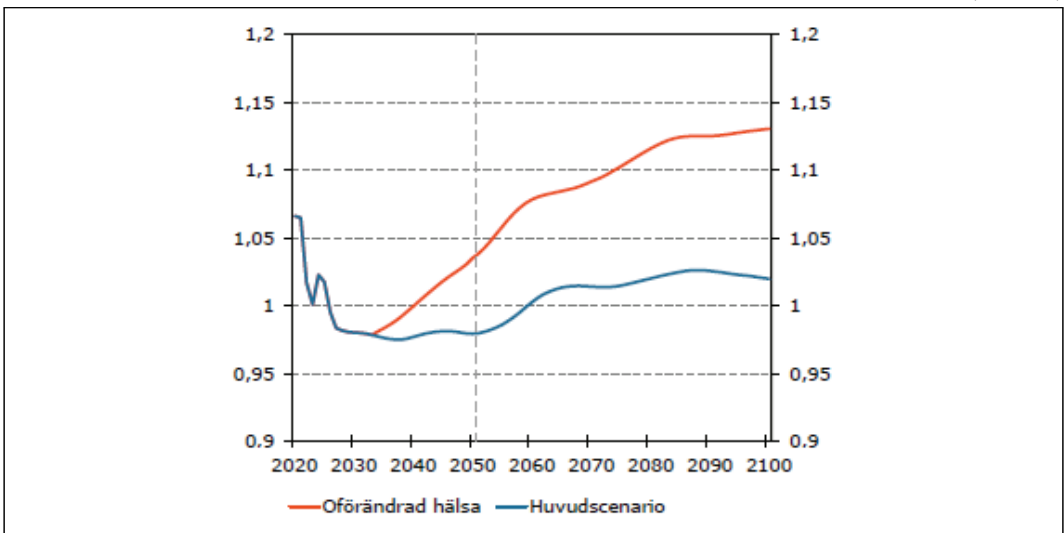
주: Total försörjningskvot(파란색): 총부양비, Barnförsörjningskvot(주황색): 유소년 부양비, Äldreförsörjningskvot(초록색): 노인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20~64세 대비 0~19세 인구수, 노인 부양비는 20~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에 해당.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4.

[그림 V-27] 경제적 부양비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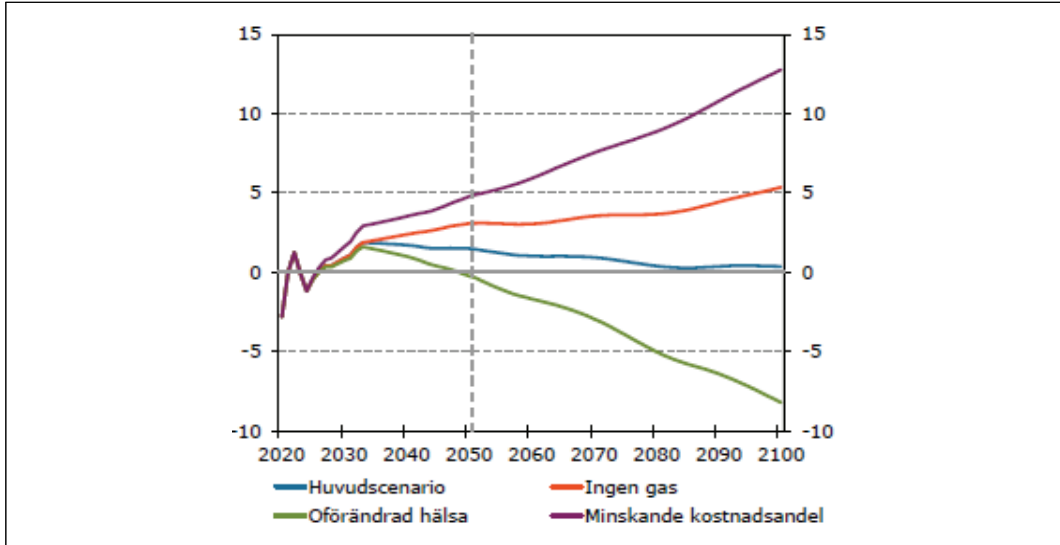


주: Oförändrad hälsa(주황색): 변함없는 건강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경제적 부양비는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로 정의.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4.

[그림 V-28] 장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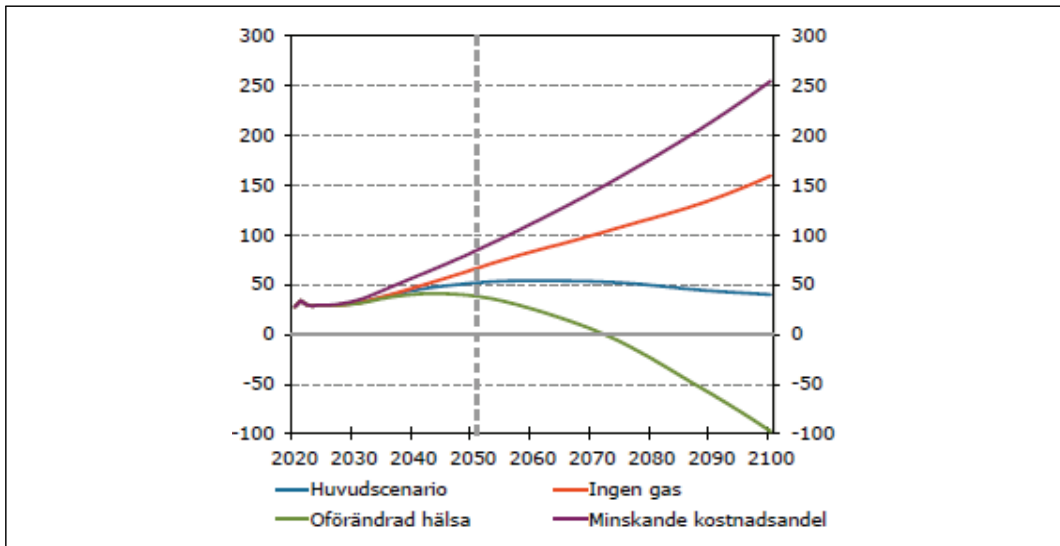


주: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Ingen gas(주황색):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Oförändrad hälsa(초록색):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보라색):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4.

[그림 V-29] 장기 순 재정 상태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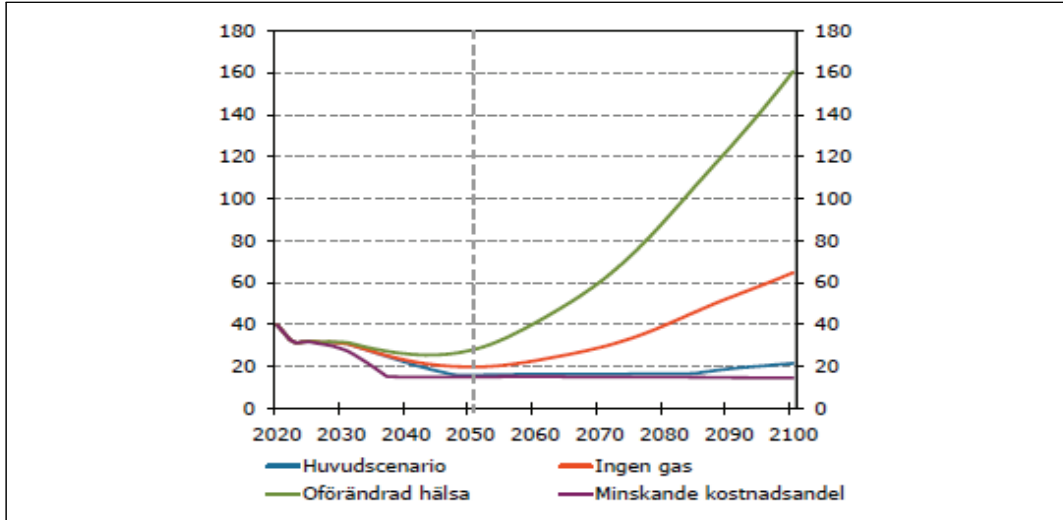


주: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Ingen gas(주황색):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Oförändrad hälsa(초록색):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보라색): 비용 점유율 감소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5.

[그림 V-30] 장기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Ingen gas(주황색):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Oförändrad hälsa(초록색):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보라색):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를 의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5.

<표 V-7> 기본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기본 소득(Primära inkomster)	46.3	46.2	46.9	46.9	47.0	46.9	46.9	46.8	46.8
세금 및 수수료(Skatter och avgifter)	41.8	41.7	42.5	42.5	42.6	42.5	42.5	42.4	42.4
기본 지출(Primära utgifter)	46.1	46.0	46.4	47.2	47.9	47.8	48.3	48.0	47.8
소비(Konsumtion)	24.8	26.1	26.2	26.5	27.1	27.1	27.4	27.3	27.1
소득연금(Inkomstpensioner)	5.8	5.3	5.9	6.4	6.5	6.4	6.4	6.4	6.4
사회이전(소득연금 제외) (Sociala transferingar (exkl inkomstpensioner))	5.7	5.8	5.6	5.6	5.6	5.6	5.6	5.6	5.6
투자(Investeringar)	4.8	4.9	4.9	4.9	4.9	4.9	5.0	5.0	4.9
기초재정수지(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0.2	0.1	0.5	-0.3	-0.9	-1.0	-1.4	-1.2	-1.0
순 자본소득(Kapitalinkomster, netto)	1.1	0.8	1.2	1.8	1.9	1.9	1.8	1.5	1.4
재정수지(Finansiellt sparande)	1.3	0.9	1.7	1.5	1.0	0.9	0.4	0.4	0.4
순 재정 상태(Finansiell nettoställning)	29.8	31.1	44.2	51.6	54.1	53.2	49.4	43.7	40.0
마스트리흐트 부채(Maastrichtskuld)	32.8	31.1	22.0	15.9	16.3	16.4	16.6	18.9	21.5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2.

7.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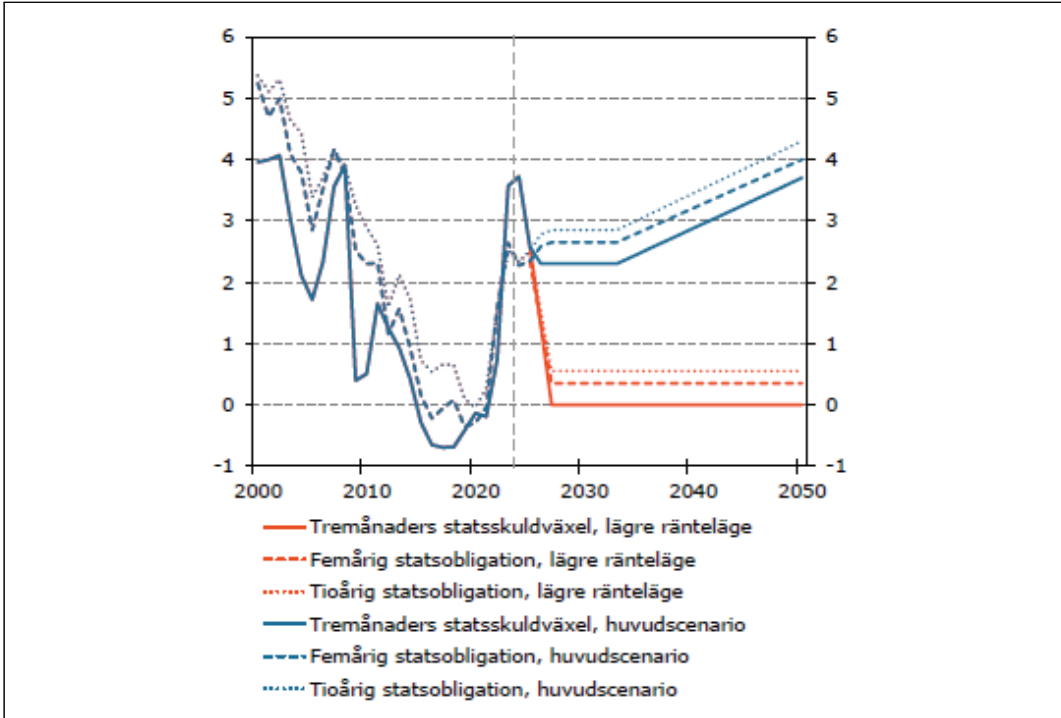
가. 거시경제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

- (요약) 거시경제에 대한 세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기본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거시경제 변수가 공공 재정 전망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줌
 - ① 이자율이 하락하는 시나리오, ② 투자비율 증가 시나리오(덜 유리한 공급 균형의 구성을 전제), ③ 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자원 활용이 감소하는 시나리오

-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대 중반부터 이자율이 상승해 2050년에는 약 4%에 도달하는 반면,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후반부터 이자율이 0%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낮은 이자율로 인해 연금 시스템에서 지급되는 소득 연금이 낮아지면서 2030년대 초~2040년까지 GDP 대비 기본 지출 비율이 감소해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음
 - 또한 낮은 이자율은 자본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금 등 과세 소득이 낮아지면서 기본 소득과 GDP 대비 세입 비율도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은 수준
 - 이자-성장 차이가 -4%가 되면서 GDP 대비 순 재정 상태가 부정적으로 전망됨
 - 공공 부문의 순 자산이 대부분 연금의 기금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자-성장 차이는 연금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림 V-31] 이자율 전망 비교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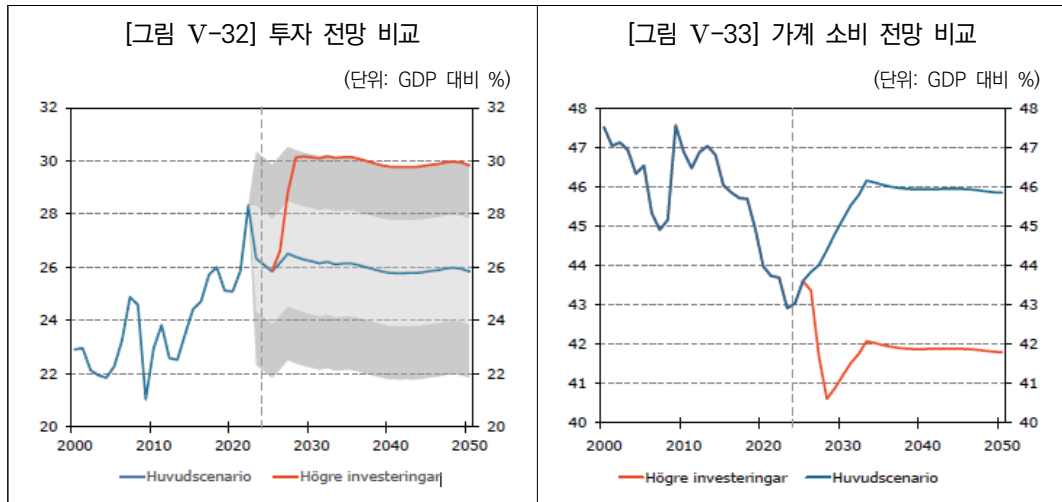
주: Tremånaders statsskuldväxel, lägre ränteläge(주황색 실선):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의 3개월 국채 이자율, Femårig statsobligation, lägre ränteläge(주황색 굵은 점선):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의 5년 만기 국채 이자율, Tioårig statsobligation, lägre ränteläge(주황색 얇은 점선):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Tremånaders statsskuldväxel, huvudscenario(파란색 실선): 기본 시나리오의 3개월 국채 이자율, Femårig statsobligation, huvudscenario(파란색 굵은 점선): 기본 시나리오의 5년 만기 국채 이자율, Tioårig statsobligation, huvudscenario(파란색 얇은 점선): 기본 시나리오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21.

□ (높은 투자비율 시나리오) 과세 측면에서 기본 시나리오보다는 불리한 구성을 가정하여 가계 소비보다 기업 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정

- 투자 비율이 2026~2028년에 크게 증가 후 기본 시나리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50년 기준 GDP 대비 4%p 차이 존재
 - 가계 소비 비율은 높은 투자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로 낮게 가정함으로써 과세 측면에서 불리하게 설정
-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가계 소비에 대한 세율보다 낮으므로 공공 부문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할 전망

- 이 외에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공급 균형이나 거시 변수에서 큰 차이 없음
- 높은 투자비율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GDP 대비 세입과 기본 소득은 장기적으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다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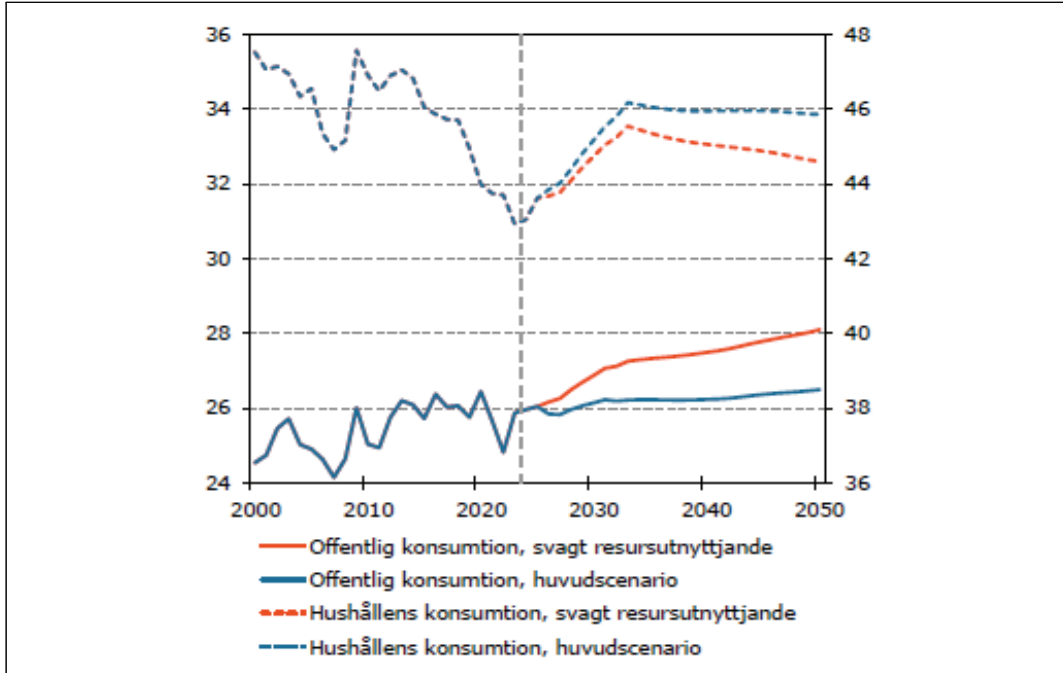


주: Högre investeringar(주황색): 높은 투자비율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24.

-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이후 자원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더 길고 심하게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낮은 자원 활용을 가정
 - 2026년 이후 깊은 불황으로 GDP는 전 기간에 걸쳐 기본 시나리오 대비 낮고 실업률은 높아져 현재 가격 기준의 GDP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음
 - 인플레이션은 스웨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낮은 것으로 가정하고 이자율은 평균적으로 0%가 되어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와 유사
 - 공공 소비는 인구통계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GDP와 독립적이므로 GDP 대비 공공 소비 비율은 증가하고 가계 소비 비율과 이전지출 비율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감소
 - 소득 연금의 경우 자원 활용 감소와 낮은 이자율 상황이 결합하여 연금 시스템에 자산이 축적되지 않으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감소할 전망
 - 낮은 연금은 낮은 세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GDP 대비 세입 비율과 기본 소득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감소할 전망

[그림 V-34] 공공 및 가계 소비 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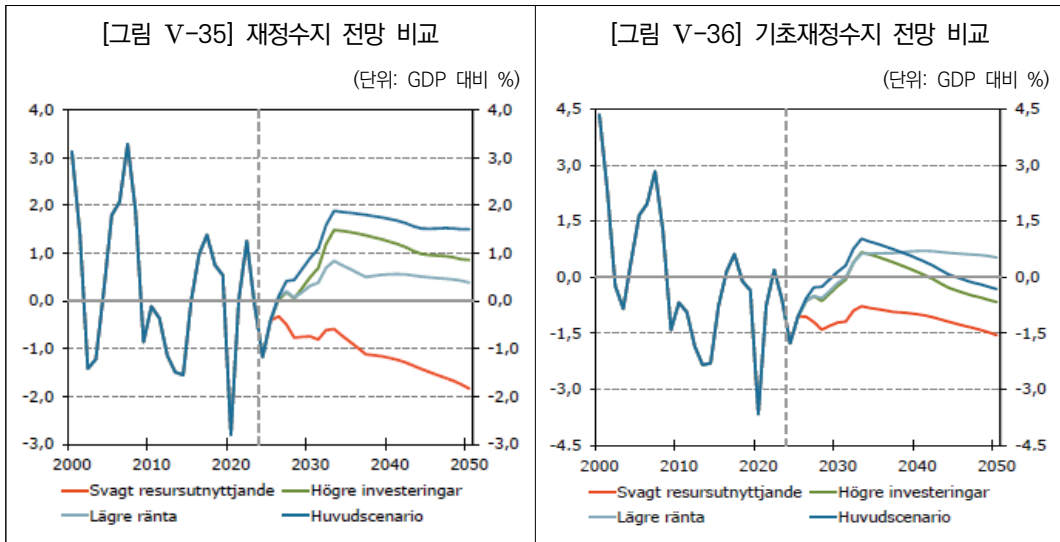
주: Offentlig konsumtion, svagt resursutnyttjande(주황색 실선):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의 공공 소비, Offentlig konsumtion, huvudscenario(파란색 실선): 기본 시나리오의 공공 소비, Hushållens konsumtion, svagt resursutnyttjande(주황색 점선):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의 가계 소비, Hushållens konsumtion, huvudscenario(파란색 점선): 기본 시나리오의 가계 소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26.

□ (재정수지 전망 비교) 대안 시나리오들의 재정수지 전망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악화됨

-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초기에 기초재정수지가 기본 시나리오 대비 더 낮고 이후 2030년대 말부터는 높아지면서 2050년 기준 GDP 대비 0.5%로 전망
 - 반면 재정수지는 순 자본수익 악화로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2050년 기준 GDP 대비 0.4%로 전망
- 높은 투자비용 시나리오에서는 가계 소비가 감소하고 세입 및 기본 소득이 감소하므로 기초재정수지와 재정수지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다소 낮을 전망
 - 2050년 기준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1.1%로 전망,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로 전망

-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기본 지출 비율이 더 높고 세입 비율과 기본 소득 비율이 더 낮으므로 기초재정수지와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됨
 - 2050년 기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1.6%, GDP 대비 재정수지는 -1.8%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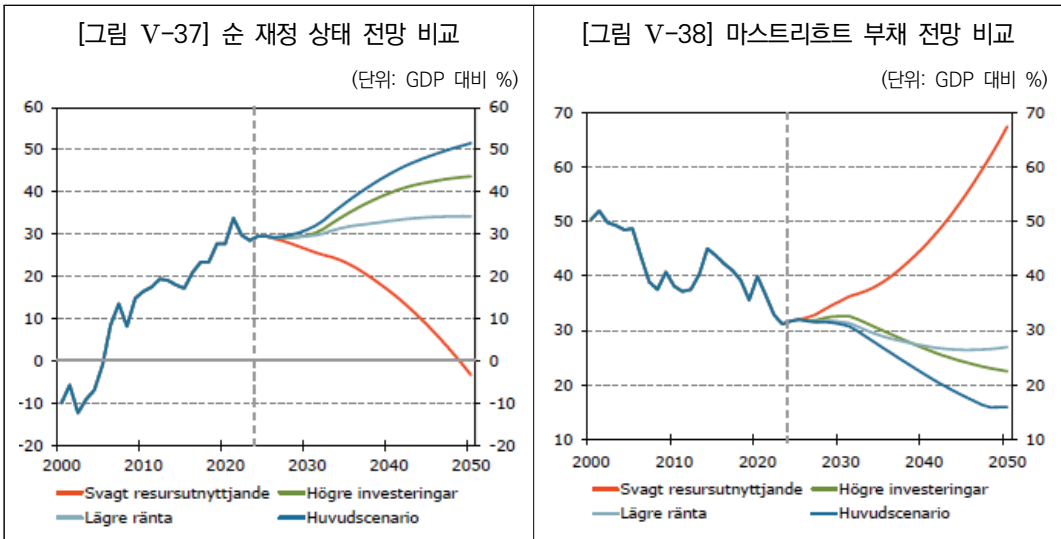


주: Svagt resursutnyttjande(주황색):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 Högre investeringar(초록색): 높은 투자 비율 시나리오, Lägre ränta(하늘색):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28.

- (순 재정 상태와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비교)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순 재정 상태와 마스트리흐트 부채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망
 - 이자율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기초재정수지는 긍정적이나 이자-성장 차이가 부정적임에 따라 순 재정 상태 증가가 제한적이며 마스트리흐트 부채도 기본 시나리오 대비 증가할 전망
 - 2050년 기준 GDP 대비 순 재정 상태 비율은 34.2%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낮은 수준이며 마스트리흐트 부채는 26.9%로 전망
 - 투자비율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재정수지 감소로 인해 2050년 기준 GDP 대비 순 재정 상태는 34.2%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악화
 - 2050년 기준 GDP 대비 마스트리흐트 부채 비율은 악화되어 32.0%로 전망

-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세 가지 대안 시나리오 중에서 재정이 가장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부정적인 기초재정수지와 이자-성장 차이로 인해 순 재정 상태는 빠르게 감소해 2050년 기준 GDP 대비 -3.3%로 전망
 - 이에 따라 마스트리흐트 부채 비율은 2050년까지 GDP 대비 67.4%로 상승



주: Svagt resursutnyttjande(주황색):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 Högre investeringar(초록색): 높은 투자 비율 시나리오, Lägre ränta(하늘색):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28.

〈표 V-8〉 거시경제 변수 전망 비교

(단위: 2024~2050년 평균 GDP 대비 비율 변화분)

구분	기본 시나리오	이자율 하락 시나리오	높은 투자비율 시나리오	자원 활용 감소 시나리오
인구(Befolkning)	0.4	0.4	0.4	0.4
노동력(Arbetskraft)	0.4	0.4	0.4	0.4
고용(Sysselsättning)	0.5	0.5	0.5	0.4
시급(Timlön)	3.6	3.6	3.6	3.1
임금(Lönesumma)	4.0	4.0	4.0	3.6
CPI 물가상승률(KPI)	2.1	2.0	2.1	1.5
GDP, 고정가격(BNP, fast pris)	1.8	1.8	1.8	1.7
생산성(Produktivitet)	1.3	1.3	1.3	1.3
노동시간(Arbetade timmar)	0.5	0.5	0.5	0.4
1인당 GDP, 고정가격 (BNP fast pris per invånare)	1.4	1.4	1.4	1.3
GDP, 현재가격(BNP, löpande pris)	3.9	3.9	3.9	3.5
GDP 디플레이터(BNP-deflator)	2.1	2.1	2.1	1.7
GDP 대비 비율(Andel av BNP)				
가계 소비(Hushållens konsumtion)	45.5	45.5	41.9	44.7
공공 소비(Offentlig konsumtion)	26.2	26.2	26.3	27.2
투자(Investeringar)	26.0	26.0	29.5	25.8
이자율/수익률(Ränta/avkastning)				
5년 만기 국채 이자율(Femårig statsobligation)	3.1	0.5	3.1	0.5
암묵적 부채 이자율(Implicit skuldränta)	2.8	0.9	2.8	0.8
암묵적 자산 이자율(Implicit tillgångsränta)	3.4	0.8	3.4	0.7
직접 수익률(Direktavkastning)	2.8	1.0	2.8	1.0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29.

〈표 V-9〉 이자율 감소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기본 소득 (Primära inkomster)	46.3	45.9	46.3	46.1	46.2	46.1	46.1	46.1	46.0
세금 및 수수료 (Skatter och avgifter)	41.8	41.5	41.9	41.7	41.8	41.7	41.7	41.7	41.6
기본 지출 (Primära utgifter)	46.1	46.0	45.6	45.6	46.3	46.3	46.7	46.5	46.2
소비 (Konsumtion)	24.8	26.1	26.2	26.5	27.1	27.1	27.4	27.3	27.1
소득연금 (Inkomstpensioner)	5.8	5.3	5.0	4.7	4.9	4.8	4.9	4.9	4.8
사회이전(소득연금 제외) (Sociala transferingar (exkl inkomstpensioner))	5.7	5.8	5.6	5.6	5.6	5.6	5.6	5.6	5.6
투자 (Investeringar)	4.8	4.9	4.9	4.9	4.9	4.9	5.0	5.0	4.9
기초재정수지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0.2	-0.2	0.7	0.5	-0.1	-0.1	-0.6	-0.4	-0.3
순 자본소득 (Kapitalinkomster, netto)	1.1	0.5	-0.1	-0.1	-0.2	-0.2	-0.2	-0.2	-0.2
재정수지 (Finansiellt sparande)	1.3	0.3	0.6	0.4	-0.3	-0.3	-0.8	-0.6	-0.5
순 재정 상태 (Finansiell nettoställning)	29.8	29.5	33.1	34.2	31.2	25.9	20.0	14.2	11.9
마스트리히트 부채 (Maastrichtskuld)	32.8	31.6	27.2	26.9	31.7	36.8	42.9	48.2	49.8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3.

〈표 V-10〉 높은 투자비율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기본 소득 (Primära inkomster)	46.3	45.9	45.3	45.5	45.5	45.4	45.4	45.6	45.9
세금 및 수수료 (Skatter och avgifter)	41.8	41.2	40.7	40.9	41.0	40.9	41.0	41.2	41.5
기본 지출 (Primära utgifter)	46.1	46.5	47.0	46.6	46.1	45.9	46.0	46.1	46.1
소비 (Konsumtion)	24.8	25.9	26.0	26.0	25.9	25.9	26.0	26.1	26.2
소득연금 (Inkomstpensioner)	5.8	5.7	5.6	5.6	5.5	5.5	5.5	5.4	5.4
사회이전(소득연금 제외) (Sociala transferingar (exkl inkomstpensioner))	5.7	5.8	6.0	6.0	5.9	5.8	5.8	5.8	5.8
투자 (Investeringar)	4.8	5.0	5.1	5.1	5.0	4.9	4.9	4.8	4.9
기초재정수지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0.2	-0.6	-1.8	-1.1	-0.6	-0.5	-0.6	-0.4	-0.2
순 자본소득 (Kapitalinkomster, netto)	1.1	0.5	0.6	0.6	0.7	0.7	0.7	0.7	0.7
재정수지 (Finansiellt sparande)	1.3	-0.1	-1.2	-0.4	0.0	0.2	0.1	0.3	0.5
순 재정 상태 (Finansiell nettoställning)	29.8	28.5	29.5	29.5	29.2	29.2	29.2	29.4	29.7
마스트리흐트 부채 (Maastrichtskuld)	32.8	31.2	31.7	32.0	31.8	31.9	32.3	32.5	32.6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3.

〈표 V-11〉 자원활용 감소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기본 소득 (Primära inkomster)	46.3	45.8	46.1	46.0	46.2	46.1	46.3	46.3	46.3
세금 및 수수료 (Skatter och avgifter)	41.8	41.3	41.6	41.5	41.5	41.4	41.4	41.4	41.3
기본 지출 (Primära utgifter)	46.1	47.0	47.1	47.6	48.8	49.2	50.2	50.4	50.6
소비 (Konsumtion)	24.8	26.9	27.5	28.1	29.1	29.4	30.1	30.3	30.5
소득연금 (Inkomstpensioner)	5.8	5.4	5.1	4.8	5.0	4.9	5.0	4.9	4.9
사회이전(소득연금 제외) (Sociala transferingar (exkl inkomstpensioner))	5.7	5.9	5.7	5.7	5.6	5.7	5.7	5.7	5.6
투자 (Investeringar)	4.8	4.9	5.0	5.1	5.3	5.4	5.6	5.7	5.8
기초재정수지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0.2	-1.2	-1.0	-1.6	-2.6	-3.1	-3.9	-4.1	-4.4
순 자본소득 (Kapitalinkomster, netto)	1.1	0.5	-0.2	-0.3	-0.4	-0.5	-0.7	-0.9	-1.1
재정수지 (Finansiellt sparande)	1.3	-0.7	-1.2	-1.8	-3.0	-3.6	-4.6	-5.0	-5.4
순 재정 상태 (Finansiell nettoställning)	29.8	26.4	16.6	-3.3	-35.1	-74.2	-119.3	-168.5	-215.9
마스트리히트 부채 (Maastrichtskuld)	32.8	35.4	45.4	67.4	102.2	142.1	188.7	238.4	286.1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4.

나. 특정 가정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

- (요약) 공공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기본 시나리오의 가정을 변화하여 3개의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각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
 - 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더 건강해지지 않고 그들의 노동시장 행동을 바꾸지 않는 시나리오

- ② 공공서비스의 소비의 비용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가정하여 복지 서비스의 표준 향상³⁶⁾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나리오
- ③ 연금 시스템의 큰 흑자가 연금으로 배분되지 않는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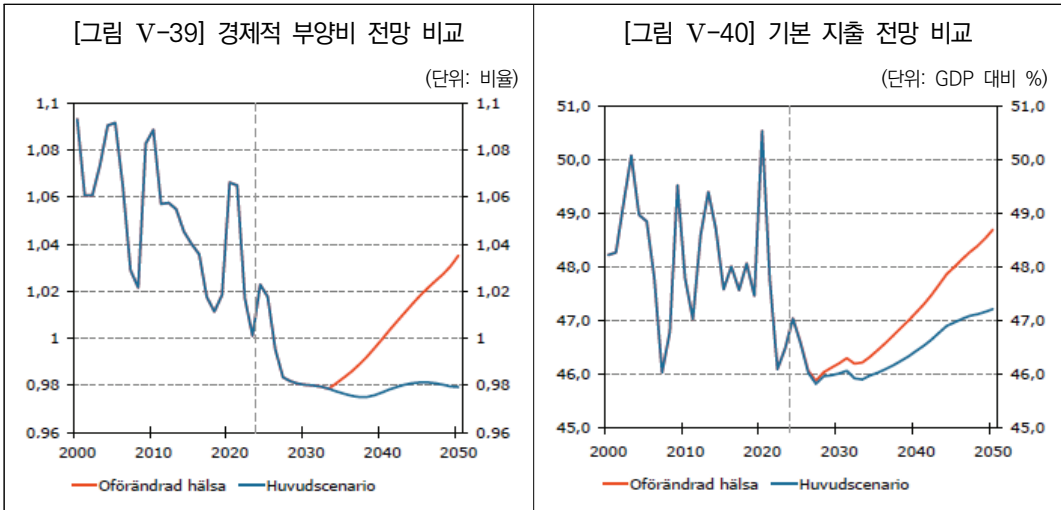
〈표 V-12〉 기본 및 대안 시나리오의 가정 비교

구분	기본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건강 및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 (Oförändrad hälsa och utträdesål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화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요는 감소하고 퇴직 연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의 비율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의 평균 수명이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지 않으며, 퇴직 연령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음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 för förbruk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격의 소비 지출이 급여 총액에 따라 증가 • 소비는 공공 서비스 비용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 가격의 소비 지출이 노동 시간에 따라 증가 • 소비는 공공 서비스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
연금 시스템에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Ingen gas i pensions-system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제도의 잉여금은 순 자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금으로 배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제도의 잉여금은 자산으로 축적되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47 번역.

- (건강 및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 설명) 노인이 더 건강해지지 않으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시장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양비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상대적으로 일정한 반면, 본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 노인을 위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져서 더 많은 공공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기본 지출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더 빠르게 증가
 - 은퇴연령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동력 참여 감소와 근무시간 감소로 이어져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GDP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짐

36) 〈참고 2〉 공공 소비 전망 시 필요 개념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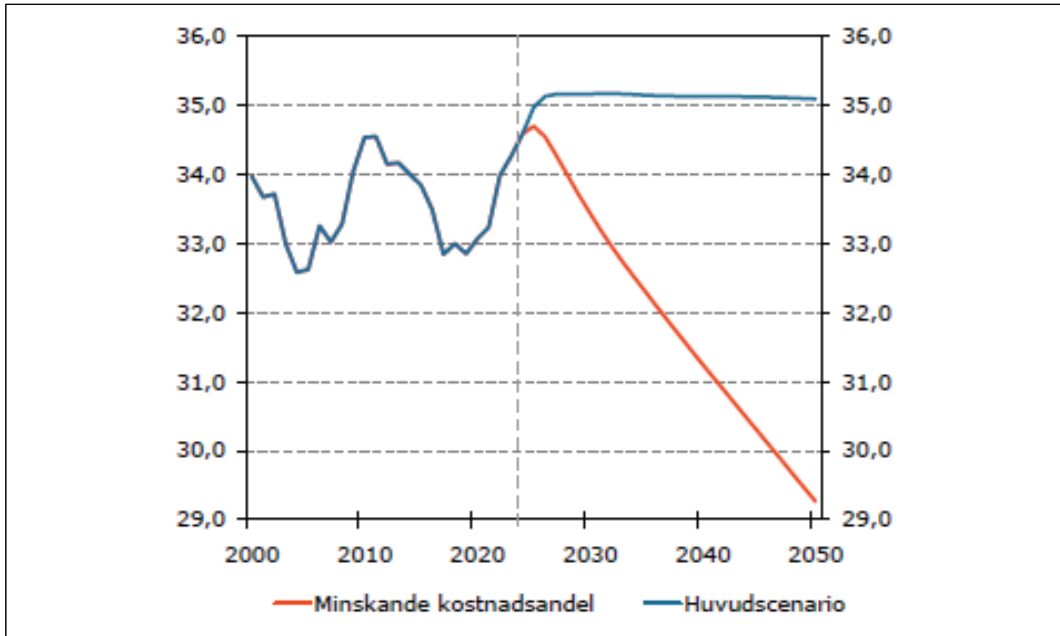


주: Oförändrad hälsa(주황색):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48.

-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설명) 소비의 비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가정
 -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소비, 임금, 자본의 비용 비율이 복지서비스 생산에서 일정하고 소비 가격은 일반적으로 임금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복지서비스의 표준적 소비 향상이 발생)
 -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복지서비스의 표준적 인상이 없음을 의미
 - 소비 지출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임금 비용과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며 대신 노동시간에 따라 고정가격 기준으로 증가
 - 소비 가격이 시간당 임금보다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에 대한 비용 비율이 감소
 - 소비에 대한 지출이 낮다는 것은 공공 소비의 비용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공공 소비 감소는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져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림 V-41] 공공부문의 소비 지출 전망 비교

(단위: 총생산 대비 비중)



주: Minskande kostnadsandel(주황색):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49.

-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설명) 연금 시스템의 자산이 축적되어 기본 시나리오에서처럼 연금 형태로 배분되지 않는 시나리오
 - GDP 대비 소득연금 지급 비율이 하락하고 연금 시스템의 순 자산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증가
 - 연금 시스템의 재정수지와 순 자산은 공공 부문의 재정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다른 부문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가계 소비는 가계 소득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변하지 않으며 가계의 저축은 감소하게 됨

[그림 V-42] 노령연금 순 자산 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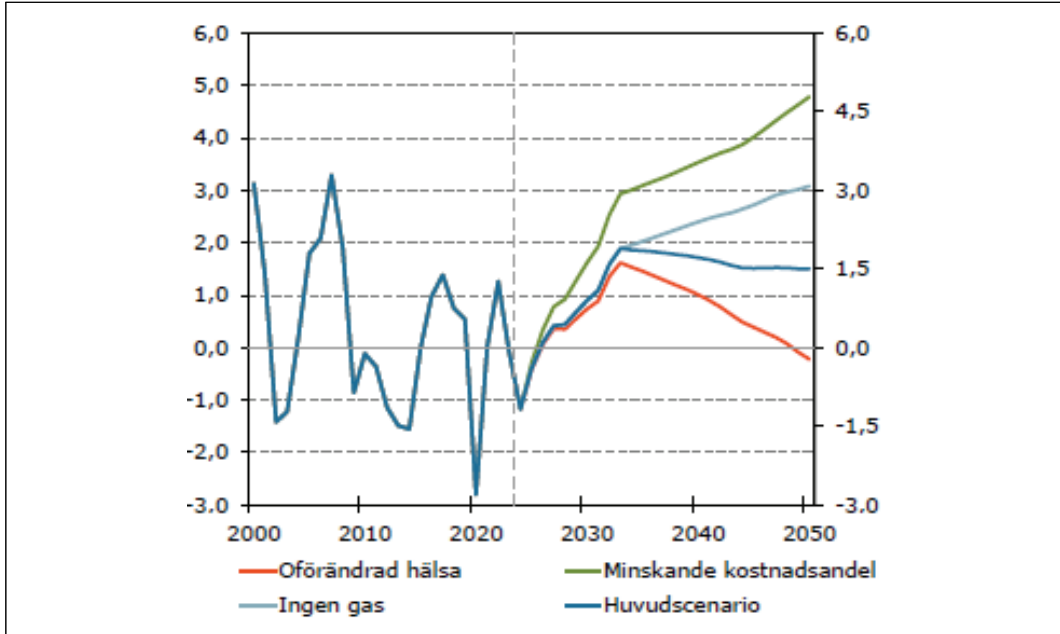


주: Ingen gas(주황색):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49.

- (재정수지 전망 비교) 2050년 기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와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며 건강과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재정수지가 악화 전망
 - 2050년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가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4.8%,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3.1%로 전망
 - 기본 시나리오에서 1.5%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개선
 -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높은 지출로 인해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2050년 직전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그림 V-43] 재정수지 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Oförändrad hälsa(주황색):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초록색):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Ingen gas(하늘색):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0.

- (순 재정 상태 전망 비교) 2050년 기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와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더 높게 나타나며 건강과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더 낮을 전망
 -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와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재정수지 증가로 인해 순 재정 상태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게 상승
 - 건강과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순 재정 상태가 초기에는 기본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증가하다 2040년대 초부터 하락해 기본 시나리오보다 감소할 전망

〈표 V-13〉 순 재정 상태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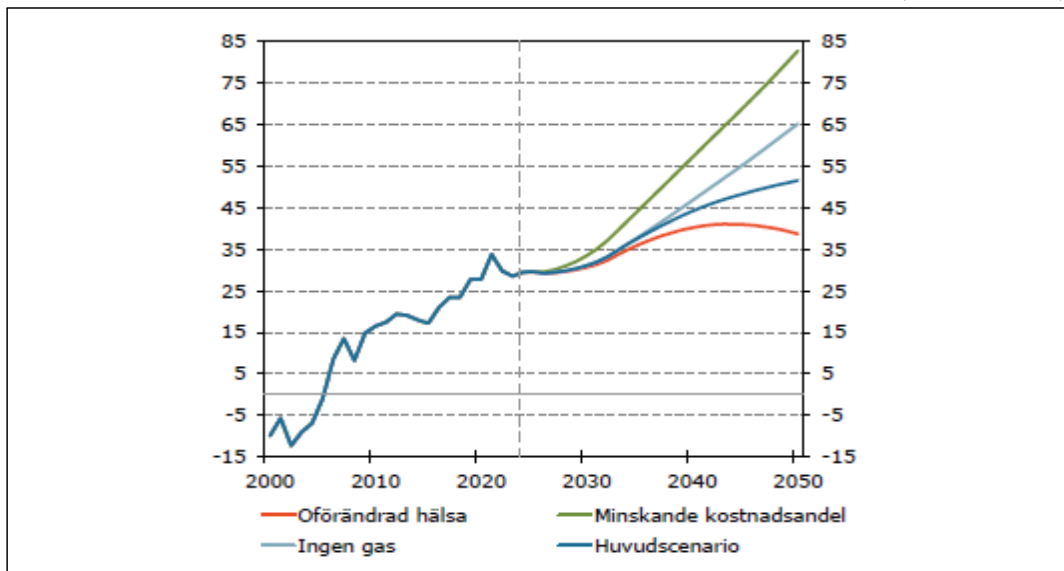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2030	2040	2050
기본 시나리오(Huvudscenario)	28.5	31.1	44.2	51.6
건강 및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 (Oförändrad hälsa och utträdesålder)	28.5	30.6	40.2	38.7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 för förbrukning)	28.5	33.4	57.1	82.8
연금 시스템에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Ingen gas i pensions-systemet)	28.5	31.1	46.7	65.2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0.

[그림 V-44] 순 재정 상태 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Oförändrad hälsa(주황색):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초록색):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Ingen gas(하늘색):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0.

□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비교) 2050년 기준 기본 시나리오 대비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와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높게 나타나고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더 낮을 전망

○ 건강과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부채가 전망 초기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느리게 감소하다가 2040년대 중반부터는 상승하나 2050년에는 2024년보다 낮을 전망

-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높은 재정수지로 인해 2030년대 말까지 기본 시나리오보다 부채비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며 2050년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전망
-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본 시나리오와 비슷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세가 줄어들어 기본 시나리오보다는 높게 전망

〈표 V-14〉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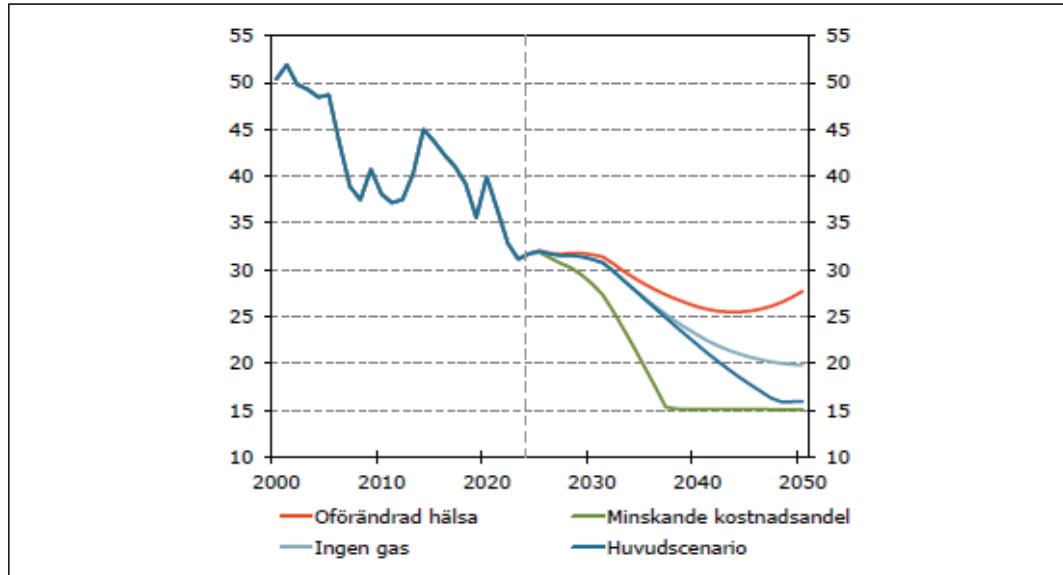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2030	2040	2050
기본 시나리오(Huvudscenario)	31.2	31.1	22.0	15.9
건강 및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 (Oförändrad hälsa och utträdesålder)	31.2	31.6	26.1	27.7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 för förbrukning)	31.2	28.5	15.1	15.1
연금 시스템에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Ingen gas i pensions-systemet)	31.2	31.1	23.1	19.8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1.

[그림 V-45] 마스트리흐트 부채 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Oförändrad hälsa(주황색): 건강과 은퇴연령 유지 시나리오, Minskande kostnadsandel(초록색):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 Ingen gas(하늘색):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Huvudscenario(파란색):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0.

〈표 V-15〉 건강과 은퇴 연령 유지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기본 소득 (Primära inkomster)	46.3	46.2	47.1	47.1	47.3	47.2	47.4	47.4	47.4
세금 및 수수료 (Skatter och avgifter)	41.8	41.8	42.6	42.6	42.7	42.6	42.7	42.7	42.7
기본 지출 (Primära utgifter)	46.1	46.2	47.2	48.7	49.8	50.2	51.3	51.3	51.8
소비 (Konsumtion)	24.8	26.3	26.8	27.6	28.7	29.0	29.9	30.0	30.4
소득연금 (Inkomstpensioner)	5.8	5.4	5.9	6.5	6.4	6.4	6.5	6.4	6.4
사회이전(소득연금 제외) (Sociala transferingar (exkl inkomstpensioner))	5.7	5.8	5.7	5.8	5.8	5.8	5.9	5.8	5.8
투자 (Investeringar)	4.8	4.9	4.9	5.0	5.1	5.1	5.2	5.3	5.3
기초재정수지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0.2	0.0	-0.1	-1.6	-2.5	-3.0	-3.9	-4.0	-4.4
순 자본소득 (Kapitalinkomster, netto)	1.1	0.8	1.1	1.3	0.8	0.1	-1.0	-2.4	-3.8
재정수지 (Finansiellt sparande)	1.3	0.7	1.0	-0.2	-1.7	-2.9	-5.0	-6.4	-8.2
순 재정 상태 (Finansiell nettoställning)	29.8	30.6	40.2	38.7	25.4	5.1	-24.3	-59.7	-97.3
마스트리히트 부채 (Maastrichtskuld)	32.8	31.6	26.1	27.7	40.8	60.2	89.1	123.6	160.6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5.

〈표 V-16〉 소비의 비용 비율 감소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기본 소득 (Primära inkomster)	46.3	46.2	47.0	46.9	46.9	46.7	46.6	46.4	46.2
세금 및 수수료 (Skatter och avgifter)	41.8	41.8	42.6	42.6	42.6	42.4	42.3	42.2	42.0
기본 지출 (Primära utgifter)	46.1	45.4	45.0	45.1	45.0	44.4	44.2	43.5	42.9
소비 (Konsumtion)	24.8	25.5	24.9	24.5	24.4	23.9	23.7	23.2	22.6
소득연금 (Inkomstpensioner)	5.8	5.3	5.9	6.4	6.4	6.4	6.4	6.4	6.4
사회이전(소득연금 제외) (Sociala transferingar (exkl inkomstpensioner))	5.7	5.8	5.6	5.6	5.6	5.6	5.6	5.6	5.6
투자 (Investeringar)	4.8	4.8	4.8	4.8	4.8	4.7	4.7	4.7	4.6
기초재정수지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0.2	0.8	2.0	1.8	1.9	2.3	2.3	2.9	3.3
순 자본소득 (Kapitalinkomster, netto)	1.1	0.8	1.6	3.0	4.1	5.2	6.5	7.9	9.5
재정수지 (Finansiellt sparande)	1.3	1.6	3.5	4.8	5.9	7.5	8.9	10.8	12.8
순 재정 상태 (Finansiell nettoställning)	29.8	33.4	57.1	82.8	111.7	142.6	176.5	213.1	254.4
마스트리흐트 부채 (Maastrichtskuld)	32.8	28.5	15.1	15.1	15.2	15.0	15.0	14.8	14.5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5.

〈표 V-17〉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기본 소득 (Primära inkomster)	46.3	46.2	46.7	46.4	46.4	46.2	46.2	46.0	45.8
세금 및 수수료 (Skatter och avgifter)	41.8	41.7	42.3	42.0	42.0	41.8	41.8	41.6	41.4
기본 지출 (Primära utgifter)	46.1	46.0	45.6	45.6	46.3	46.2	46.7	46.5	46.2
소비 (Konsumtion)	24.8	26.1	26.2	26.5	27.1	27.1	27.4	27.3	27.1
소득연금 (Inkomstpensioner)	5.8	5.3	5.0	4.7	4.9	4.8	4.9	4.9	4.8
사회이전(소득연금 제외) (Sociala transferingar (exkl inkomstpensioner))	5.7	5.8	5.6	5.6	5.6	5.6	5.6	5.6	5.6
투자 (Investeringar)	4.8	4.9	4.9	4.9	4.9	4.9	5.0	5.0	4.9
기초재정수지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0.2	0.1	1.1	0.8	0.1	0.0	-0.5	-0.4	-0.4
순 자본소득 (Kapitalinkomster, netto)	1.1	0.8	1.3	2.3	3.0	3.6	4.2	4.9	5.8
재정수지 (Finansiellt sparande)	1.3	0.9	2.4	3.1	3.0	3.5	3.7	4.4	5.4
순 재정 상태 (Finansiell nettoställning)	29.8	31.1	46.7	65.2	83.2	99.4	116.5	135.0	159.2
마스트리히트 부채 (Maastrichtskuld)	32.8	31.1	23.1	19.8	22.8	29.0	39.5	52.6	64.7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66.

8. 평가

□ (S2 지표) 스웨덴은 무한한 시계에 대한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2 지표를 사용

- S2는 순 재정 상태(finansiella nettoställningen)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기초재정수지 조정 폭을 의미

- 예를 들어 S2가 1.0이면 기초재정수지가 GDP의 1.0%만큼 직접적이고 영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S2 지표가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 공공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2100년 기준으로 계산된 S2 지표는 1.03이며 이는 현재의 화폐 가치로 650억크로나(SEK)의 절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S2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첫 번째는 초기 재정 상태와 초기 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스웨덴은 초기 순 자산이 있으므로 -0.01의 음수(-) 값을 가짐
 - 두 번째 요소는 2100년까지 기초재정수지에 대한 영향에 관한 것이며 단기적으로 긍정적이거나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면서 0.01의 값을 가짐
 -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가 서로 상쇄되어 S2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 번째 요소는 2100년 이후에 대한 기초재정수지의 영향에 관한 것임
 - 2100년 기준 기초재정수지가 약 -1.0%로 이러한 적자가 무한히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세 번째 구성요소는 S2 지표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에 해당
- S2 지표는 공공 재정이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는 도구임

〈표 V-18〉 기본 시나리오의 S2 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값
(1) 초기 순 부채에 대한 이자(Ränta på initial nettoskuld)	-0.01
(2) 210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영향(Effekt av primära underskott till och med 2100)	0.01
(3) 2100년 이후의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영향(Effekt av primära underskott efter år 2100)	1.02
S2 = (1) + (2) + (3)	1.03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p. 56.

VI. 체코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 예산책임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며, 기준 시나리오 분석과 더불어 당해 발생하는 이슈에 따른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추가로 시행함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2017년에 발효된 「예산책임규칙에 관한 법률(Act No. 23/2017 Coll., Act on the Rules of Budgetary Responsibility)」 제23항에 따라 재정위원회(The Czech Fiscal Council, CFC)를 설립하여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재정위원회는 타 기관과 독립된 기관으로 타 기관의 지시가 아닌 법령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수행함
 - 동법 제2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는 경제 및 사회 발전, 고용 및 세대 간 화합을 고려한 재정 장기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하월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정부 정책이 재정 장기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참고 1〉 「예산책임규칙에 관한 법률(Act on the Rules of Budgetary Responsibility)」

§ 21

(1) The Council is an independent expert body working in the field of fiscal and budgetary policy.

(2) Advice

a) assesses the fulfilment of numerical fiscal rules, which are, in particular, the debt limit rule, the determination of the total expenditure of the public sector under Section 10, the derivation of the expenditure framework of the state budget and state funds under Section 12 and the management of the territorial self-governing unit, and prepares and submits to the Chamber of Deputies a report on their implementation;

b) ascertains the amount of debt and announces it in the Collection of Laws and International Treaties within 1 month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amount of debt of the

- public institutions sector for the previous calendar year by the Czech Statistical Office,
- c) monitors the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institutions sector,
 - d) taking into accoun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mployment and intergenerational cohesion, prepares and submits to the Chamber of Deputies a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which includes an assessment of how planned government policies are likely to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through their direct long-term impacts;
 - e) prepares an opinion on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corrective component pursuant to § 11.
- (3) The opinions and reports shall be published by the Council on its website without undue delay.

§ 22

The Council may request information and cooperation from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within its competence and these are obliged to provide cooperation and information to the Council within the limits of their competence.

§ 23

- (1)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Council is a public office.
- (2)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perform their duties in person and shall not take or seek instructions from any other institution or person in order to carry them out.
- (3) Each year, the Council prepares and publishes a programme of its activities on its website.
- (4) The Council approves the draft budget of the Office of the Council, including its amendments, the medium-term budget outlook for the next 2 financial years and the final account of the state budget chapter.
- (5) The Council approves the Council's Rules of Procedure.

출처: 체코 전자 법령(<https://www.e-sbirka.cz/sb/2017/23?zalozka=text>) 영문 번역, 검색일자: 2024. 05. 24.

- (추진추이) 2018년 처음 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CFC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23년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함
 - 2018년 첫 보고서에서는 부채에 영향을 끼치는 재정정책 및 기타 경제정책들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50년 동안 재정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함
 - 2019년 보고서부터는 기준 시나리오 분석과 더불어 정년 및 기대수명,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다양한 버전의 인구통계 예측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함

- 2020년 보고서부터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장기재정전망분석에 반영하였으며, 연금제도의 세대간회계(generational accounts) 분석도 시행함
- 2022년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으로 인한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추가함
- 2023년에는 강화 정책에서 수입 부문 조치(revenue measures of the consolidation package), 연금 연동제 조정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추가함

〈표 VI-1〉 체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발간일	보고서명
2018. 10.	ZPRÁVA O DLOUHODOBÉ UDRŽITELNOSTI VEŘEJNÝCH FINANČÍ
2019. 6.	ZPRÁVA O DLOUHODOBÉ UDRŽITELNOSTI VEŘEJNÝCH FINANČÍ
2020. 6.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영문 번역본)
2021. 6.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영문 번역본)
2022. 9.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영문 번역본)
2023. 9.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영문 번역본)

출처: 저자 작성.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범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재정을 기준으로 분석하며, 기준 시나리오와 대체 시나리오 및 여타 분석 방법으로 전망을 시행함
- (전망분야) 거시전제 및 인구구조, 연금, 의료, 연금 이외의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및 장기요양보험, 교육, 소득수렴과 관련된 지출 및 기타 지출, 수입(세목별 세입)에 대해 분석하며 이후 대체 시나리오를 분석함
 - 거시전제와 인구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이하 세부 분야별 지출 및 수입 부문을 전망함
 - 위의 분석으로 기준 시나리오를 전망하며, 이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체 시나리오를 전망함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기간) 2023년부터 2073년까지를 전망함

- (거버넌스) 2017년에 발효된 「예산책임규칙에 관한 법률(Act No. 23/2017 Coll., Act on the Rules of Budgetary Responsibility)」 제23항에 따라 재정위원회(The Czech Fiscal Council, CFC)를 설립하여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함

- (전망절차) 거시전제 및 인구 추세를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하여 분야별 수입 지출에 대한 전망을 실시함
 - (공통 전제) 소득수준 수렴(converging economy)을 가정하여 거시전제를 도출하고 2018년 11월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 CZSO)에서 발표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 수를 고려하여 인구 추세를 분석함
 - (전망 항목)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연금제도, 건강보험, 연금 이외의 현금성 사회적 지원제도 및 장기요양보험, 교육제도 등의 지출 항목과 수입에 대한 장기 전망을 시행하며, 기초재정수지, 투입 및 총수지 등 일반재정수지, 부채,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함
 - (시나리오 분석) 기본시나리오를 분석한 후 당해연도 발생 이슈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함께 시행함
 - (전망 결과 발표) 매년 전망 결과를 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4. 보고서의 구조

- 동 보고서는 전년도 공공부문에서의 변화 분석 및 현재 상황 분석을 시작으로 거시경제, 수입·지출에 대한 장기 전망 분석과 일반재정에 대한 분석, 대안 시나리오 분석 및 추가 분석 내용을 포함함
 - 소득수준수렴 효과, 인구 변화, 임금 및 소득 분배 등 거시전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후, 거시전제 및 인구 추세를 바탕으로 연금,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 지출 세부 항목과 세목별 세입에 대한 전망을 분석함

- 세부 지출 항목 및 세입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수지 및 부채에 대한 기준 시나리오 전망을 분석하며, 이후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대체 시나리오에 대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함

〈참고 2〉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서론 및 주요 추세 요약

도입

- 1.1 2022년 공공부문 발전 및 2023년 전망
- 1.2 분야별 재정정책 변화 분석
2. 장기 거시경제 전망
 - 2.1 소득수준 수렴
 - 2.2 인구 전망
 - 2.3 실질임금과 소득분배
3. 지출 수입의 장기 전망
 - 3.1 연금
 - 3.1.1 노령연금
 - 3.1.2 장애연금
 - 3.1.3 유족연금
 - 3.1.4 연금제도의 총수입, 지출, 수지
 - 3.2 의료제도
 - 3.3 연금 이외의 현금성 사회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
 - 3.4 교육
 - 3.5 소득수준 수렴과 관련된 지출 및 기타 지출
 - 3.6 장기전망에서의 수입
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 4.1 기초 재정 수지
 - 4.2 투입 비용 및 총수지
 - 4.3 부채
 - 4.4 재정 지속 가능성 지표
5. 대안 시나리오 및 추가 분석
 - 5.1 강화 정책에서의 수입 부문 조치
 - 5.2 연금 연동제도 조정
 - 5.3 정년과 기대수명의 연결
 - 5.4 공공재정개혁의 전반적인 영향
 - 5.5 다양한 인구통계 예측 변형
 - 5.6 연금제도의 세대간회계 분석

- 5.6.1 세대별 지출 및 수익
- 5.6.2 연금제도와 세대간회계
- 5.7 이전 보고서와의 비교

결론

부록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2023),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2023)*를 참고하여
목적 내용을 재작성.

5. 전망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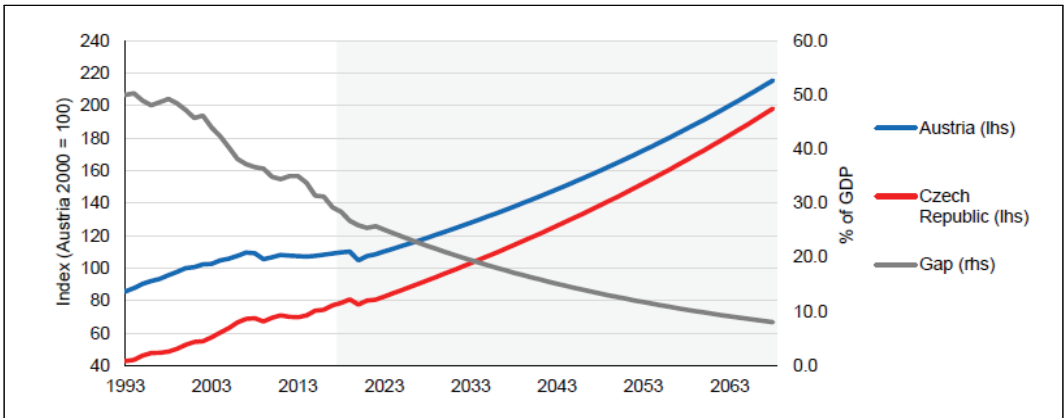
가. 소득수준 수렴

- 소득수준 수렴이론을 기반으로 체코 경제가 오스트리아의 경제 수준에 가깝게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함
 - 오스트리아는 체코와 마찬가지로 EU 회원국이면서 경제 규모와 구조가 비슷해 소득수준 수렴 타깃 국가로 설정함
 - 노동생산성의 수렴이 소득수준 수렴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며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노동생산성 갭이 줄어드는 모형을 상정함
 -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근로자 1인당 실질 GDP 갭은 2022년 오스트리아를 기준으로 산출시 25.7% 수준이었으며, 2023년부터 매해 평균 약 2.3%씩 갭이 줄어들도록 모형을 구성함
 - 2.3%는 지난 20년간의 평균 갭 수렴 수치와 일치함
 - 노동생산성 수렴과 함께 자동기술성장(autonomous technology growth)에 의한 수렴도 고려함
 - 매년 1.5% 성장을 가정하며, 이는 선진국(advanced country)의 기술성장 평균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경제발전에 자동적으로 반영됨
 - 기술성장에 대한 추산에서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은 제외함

- 각 부문의 성장률이 서서히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은 2023년 2.4%로 시작해 전망 마지막에는 1.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2073년에는 오스트리아 노동생산성의 93%까지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VI-1] 오스트리아 기준 체코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 수렴 전망

(단위: %, GDP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나. 인구 전망

- 2018년 11월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 CZSO)에서 발표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중위, 상위, 하위, 그리고 이주를 제외한 중위로 나누어 분석함
 - 기준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중위 전망치를 이용하며, 다른 분위들은 대안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 관측 자료로 인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통계청의 2100년까지 인구 전망 자료에서 출산율, 사망률, 이주율을 이용하여 인구 전망을 분석하였으며, 2023년부터 2033년까지의 경우 예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함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약 30,000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구 조정이 필요함
 -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난민이 점진적으로 우크라이나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인구추계를 시행함

- Eurostat 분석 결과³⁷⁾에 따라 10년간 난민 중 67%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기준으로 70%를 하위, 60%를 고위로 두고 분석함
- 2020년과 2021년은 COVID-19 팬데믹으로 사망률이 급증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영향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여파가 남아 있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망률이 예측치보다 약 9.4% 높게 나타났고, 출산율의 경우 2022년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2021년 출산율이 높았던 영향으로 판단됨
- 위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2022년 인구성장률을 추계하였을 때 기존 추정치보다 약 2.7% 높게 나타남
- 이렇게 분석된 인구 전망을 바탕으로 연령별 일정한 경제활동률과 고정 자연실업률을 가정하여 노동력 증가율을 추산하고, 이를 1인당 GDP 전망에 연결하여 총 GDP 성장률 도출함
 - 노동가능인구는 21세 이상 인구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와 3급 장애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수로 추산하며, 연금 수혜자는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함

〈표 VI-2〉 체코 통계청의 인구 전망(2020~2022년)

(단위: ‰)

	2020 and 2021 (average)			2022		
	projection	reality	difference	projection	reality	difference
Net migration (first variant)*	2.433	3.638	1.204	2.426	3.520	1.094
Net migration (second variant)				2.426	30.647	28.220
Natural growth	-0.437	-2.230	-1.793	-0.796	-1.893	-1.098
gross mortality rate	10.543	12.702	2.160	10.598	11.173	0.575
gross birth rate	10.106	10.473	0.367	9.802	9.415	-0.388
GROSS OVERALL GROWTH RATE	1.996	1.408	-0.588	1.630	28.753	27.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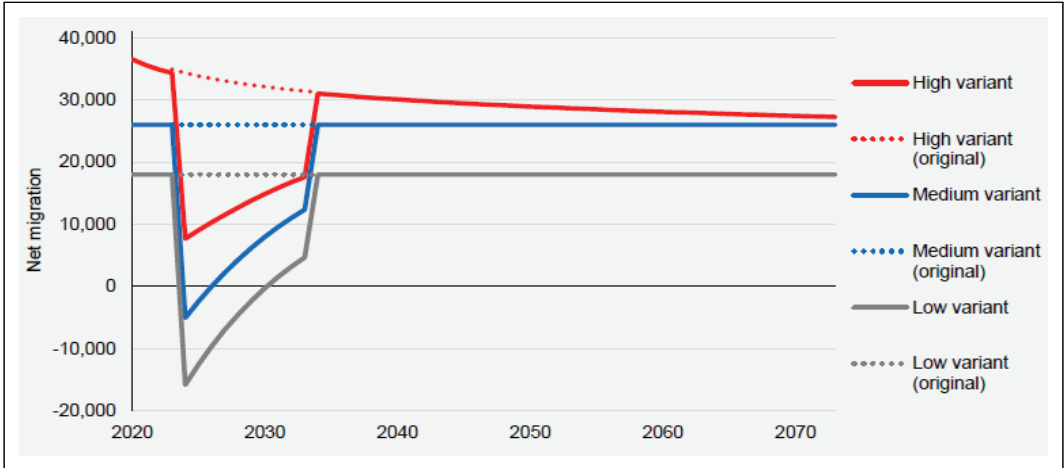
Source: CZSO (2023); CFC calculations.
 Note: *Net migration shown in two variants. In the first variant, the net migration is given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of the Czech Statistical Office (2023): Stav a pohyb obyvatelstva v ČR – rok 2022 [The State and Movement of the Population in the Czech Republic – Year 2022, available in Czech only]. In this publication, persons who were granted temporary prot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armed conflict in Ukraine (i.e. the "normal" net migration) were not included. The second option includes this migration wave.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37) 유럽연합통계국, 인구추계방법(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Population_projections_in_the_EU_-_methodology#Assumptions_for_migration), 검색일자: 2024. 05. 29.

[그림 VI-2] 체코 통계청의 순이주 전망(2020~207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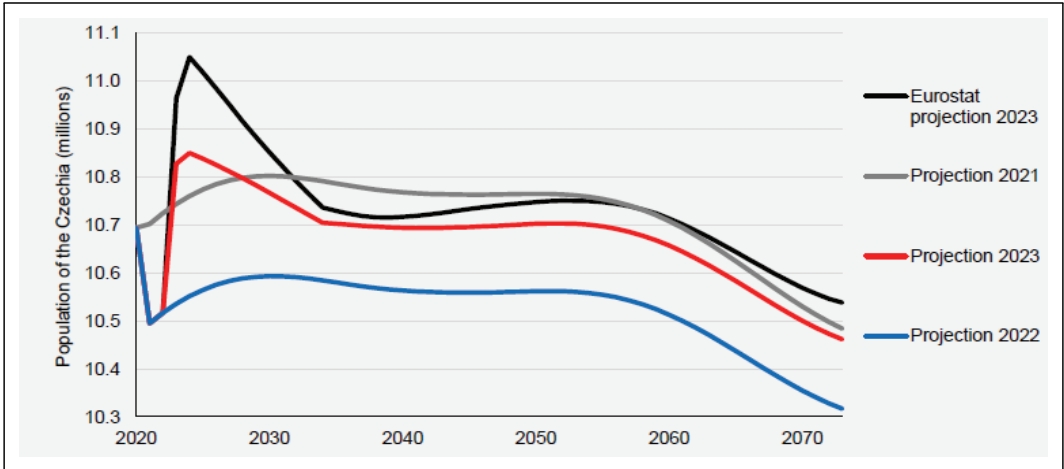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그림 VI-3] 인구 전망(2020~2073년)

(단위: 백만명)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다. 실질임금과 소득분배

- 실질임금 변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을 통해 도출하나, 소득수준수렴 효과에 의해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에서 근로자 보상(compensation of workers) 비중이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함

- 체코의 경우 총부가가치에서 근로자 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 부문에도 소득 수렴효과를 가정하여 여타 선진국에서의 비율과 연간 2.3%씩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함
- 총부가가치에서 근로자 보상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총임금 및 급여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기업의 영업이익여분은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함
- 2022년도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한 총부가가치에서 근로자 보상분을 균형상태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임금이 연간 평균 2.1% 인상될 것으로 가정함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근로자 보상분이 급격하게 상승(5년간 약 5%p)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실질임금이 급격하게 떨어져(2년간 약 1.9%p) 상승했던 근로자 보상분이 일부 다시 낮아짐
 - 실질임금의 연간 평균 인상률 2.1%는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보다 0.2%p 높음
- 본 전망에서는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성장률)을 연 2%로 가정함
 - 2022년에는 해당 수치에서 상당히 벗어났으나, 앞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빠르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함

〈표 VI-3〉 장기재정전망에서의 평균 한 해 성장률

(단위: %)

	2023-2033	2034-2043	2044-2053	2054-2063	2064-2073	Entire period
GDP per capita	2.3	1.4	1.4	1.8	2.0	1.8
GDP per worker	2.2	2.0	1.9	1.8	1.7	1.9
GDP total	2.2	1.4	1.4	1.7	1.8	1.7
Average real wage	2.5	2.2	2.0	1.9	1.8	2.1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6. 전망 결과

- 앞서 분석한 거시전제 및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지출과 수입을 전망하며, 이와 관련된 현 정책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망함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정부가 시행할 긴축재정정책과 연금제도 개혁이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부분들은 대안 시나리오에서 분석함

가. 연금제도

- 체코 사회보장국(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SSA)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관리함
 - 군인연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국이 아닌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에서 관리하나 연금 지급 조건은 사회보장국이 승인하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므로 총연금제도 추계 시 군인연금도 포함하여 하나의 제도에 대한 추계로 진행함³⁸⁾

1) 노령연금

- 연금 수급자 수, 연령별 은퇴율, 남녀의 연금 격차, 신규(新舊) 연금제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2~4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GDP 대비 연금 지출은 점차 증가하여 2059년경 GDP의 11.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됨
 - 연금제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령연금의 수혜자는 현재 약 240만명으로 추산되며, 정년의 변화 및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 등의 영향으로 2058년 가장 많은 수급자(현재 대비 약 32%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법정 정년의 지속적인 상승 영향으로 2019년 말부터 2023년 1사분기까지 연금 수급자는 55,500명(약 2.3%)이 줄어들
 - 「연금법(Act No. 155/1955 Coll., on Pension Insurance)」 개정에서는 남녀의 정년이 다른 속도로 연장되며, 2030년에 남녀의 정년이 65세로 같아지므로 이때부터 기준 시나리오에 법정 정년 변화를 반영함
 - 1936년부터 1971년 사이 출생자의 경우 성별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있어 이 차이를 매년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으며, 1971년 이후 출생자는 성별 및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65세로 정년이 고정됨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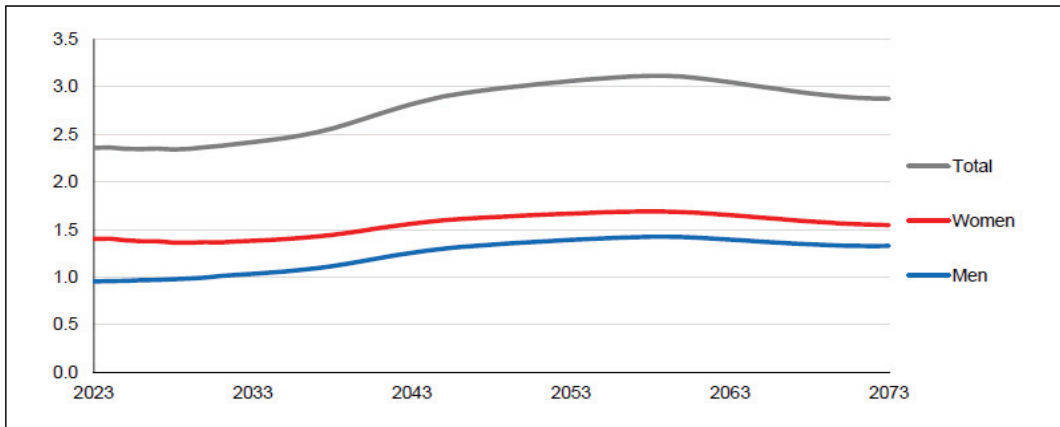
38) 이전 보고서에서는 과거 15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GDP에서 군인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0.2%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GDP 대비 군인연금 지출 비중과 GDP 대비 체코 사회보장국이 지급하는 연금 지출 비중이 매우 유사한 추세(상관계수 0.845)를 보이고 평균적으로 군인연금 지출이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연금 지출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비중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군인연금 지출 비중을 GDP 대비 0.2%에서 0.3%로 증가시킴.

39) EU 홈페이지, 체코 노령연금 설명(<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6&langId=en&intPageId=4478>), 검색일자: 2024. 06. 04.

- 은퇴 비율(각 연령 집단의 은퇴자 비율)을 사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전망하고, 장애 연금과 동시에 수급받는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 연금은 이후에 따로 추계하므로 노령 연금 추계에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제외함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초반에 정년 연장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폭 감소하였다가, 2030년에 정년 연장이 65세로 고정되고 7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루어지면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58년 가장 많은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됨(현재 대비 32% 증가)
-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40.5%에서 2073년 46.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남녀의 기대수명이 비슷해지는 부분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VI-4] 노령연금 수급자 전망(중위 인구 전망 기준)

(단위: 백만명)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과거에 부여된 노령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에 연동하여 책정했으나 새롭게 부여되는 노령연금은 명목임금과 연동하므로, 일반적으로 새롭게 부여되는 연금 수준이 과거에 부여된 연금 수준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 두 유형의 연금을 가중평균하여 총 연금 수준을 계산함
- 새로 부여되는 연금은 명목임금의 10%인 정률(flat-rate)로 계산되는 부분과 소득과 연계되어 변동되는 부분으로 나뉘며,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은 수급자의 과거 임금과 연금 납입 연수에 따라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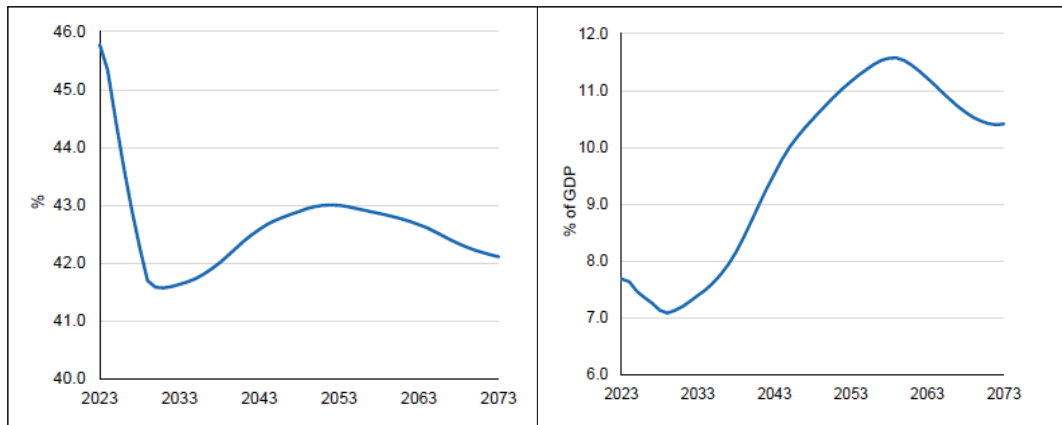
- 새롭게 부여되는 노령연금의 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을 전망하기 위해, 최근 수준인 남성 46.2%, 여성 41.1%를 기준으로 전망을 실시함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평균임금이 적고 정년이 낮으며 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 현 상황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발생함
 - 2030년에는 법정 정년이 같아지므로 이 차이는 줄어들 것이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2030년 이후에도 남녀의 격차가 유지될 것임
- 본 분석에서는 지수연동 연금제도(indexation scheme)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며, 「연금 보험법(Pension Insurance Act)」 제67조에 따라 실질임금 증가율 절반과 물가상승률이 연금 인상에 반영된다고 가정함
 - 물가연동 연금제도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은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의 증가율이나 연금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지수(living index) 중 더 높은 것으로 측정함
 -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연금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지수가 0.3%p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의 물가 목표인 2%에 맞춰질 것으로 가정함
- 체코에서는 학업, 병역, 아동의 양육 기간도 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하나,⁴⁰⁾ 2050년 이후부터는 학업의 경우 더 이상 납입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2050년부터 2055년까지의 평균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약간 감소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부여되므로(child-rearing bonus),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 한 명당 월 500코루나씩(2024년 6월 기준, 한화 약 3만원) 노령연금이 증가함
- 2022년과 2023년 연금 인상이 물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 비정형적인 연금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동 기간동안 평균 연금이 4,103코루나(2024년 6월 기준, 한화 약 24만 6,590원) 증가함(약 26.4%)
 -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연금은 상승하면서 2021년 소득대체율이 40.2%에서 2022년과 2023년 45.8%까지 증가함

40) 체코 사회보장국(<https://www.cssz.cz/starobni-duchod>), 검색일자: 2024. 06. 04.

- 위의 모든 가정을 인구통계 전망과 연결하여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산하면 2022년과 2023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인상된 후 2030년경 41.6%로 하락 전망
 - 2030년대와 2040년대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새로 지급되는 명목임금 연계 연금이 많기 때문이며,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2~43% 수준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연금 지출을 살펴보면 2059년경 GDP 대비 1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현재와 비교하여 지출이 증가한 것은 주로 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초기 노령연금 수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그림 VI-5] 평균 임금 대비 평균 노령연금 비율(좌) 및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 비율(우)

(단위: %, GDP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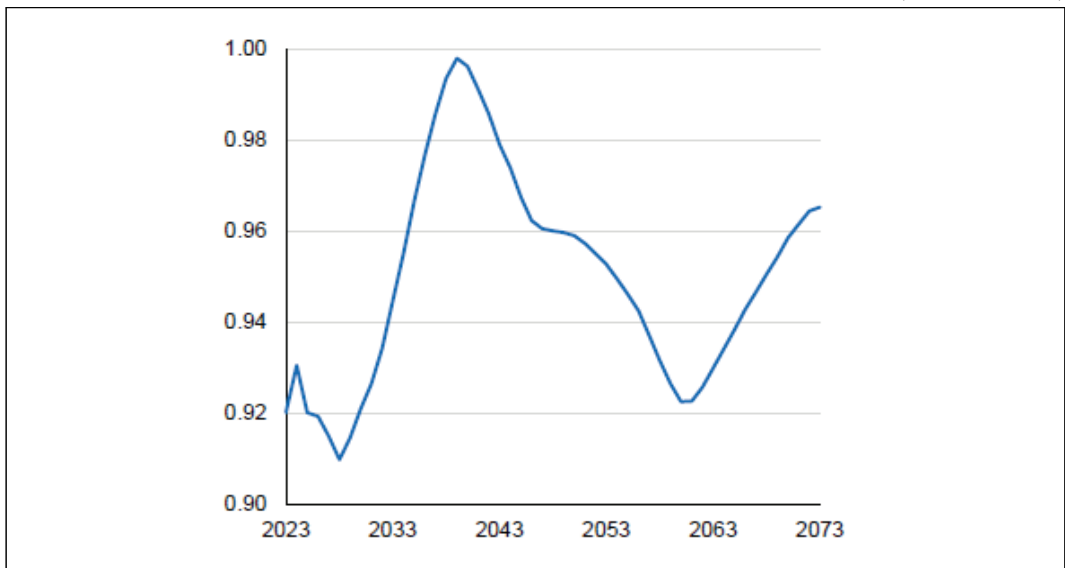
2)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수급자 수의 변화에 따라 GDP 대비 장애연금 지출 비율이 결정되며, 2023년 0.9%에서 2039년 1.0%까지 증가했다가 2060년 0.92%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됨
 - 장애연금은 과거 일반적으로 남성은 60세에서 61세, 여성은 56세에서 58세 연령의 수급자가 가장 많았음
 -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대체되며,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64세까지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65세부터는 자동으로 노령연금으로 대체됨(65세 이상의 경우 장애율이 0에 수렴함)

- 장애연금은 각 연령대별 장애율(disability rate)을 이용하여 전망하며, 장애율은 55세 미만은 과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55세 이상의 경우 수급자가 가장 많은 나이까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일정하게 하락하여 65세에 0에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인구 노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6년에 최고 수준(약 10.2% 증가)에 달하고, 2037년부터 2060년까지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으로 옮겨가면서 약 8.9% 하락했다가 이후 전망 기간동안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노령연금과 평균 장애연금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애연금을 전망하였으므로, 평균 장애연금의 등락이 노령연금의 등락과 유사한 형태를 보임

[그림 VI-6] GDP 대비 장애연금 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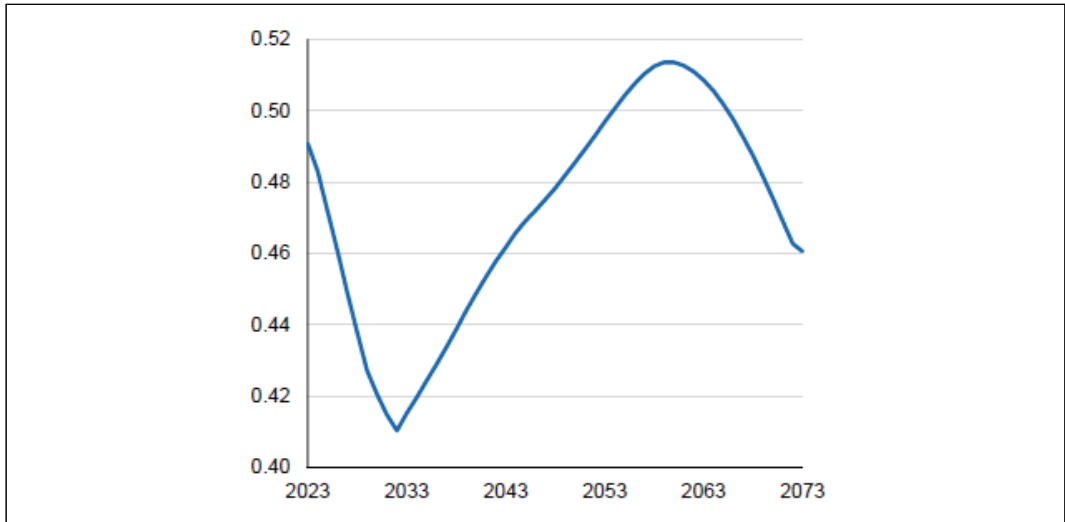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3)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미망인들(widows, widowers)에 대한 연금과 고아에 대한 연금으로 구성되며, 아래의 가정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유족연금 지출 비율은 0.40%에서 0.51% 사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됨
 - 고아(0세부터 21세까지)에 대한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미망인들에 대한 연금 수급자를 추산함
 - 미망인의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수급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야 하며, 노령·장애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미망인(21세 이상)에 대한 인구 대비 유족연금 수급자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본 전망에서 전체 고령층 수가 증가했으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연금수급자 수는 줄어들
 - 2030년까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증가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여타 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줄어들어 두 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연금 수급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
 - 기대수명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유족 지위를 얻게되는 연령대가 상승하여 수급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망함
 - 유족연금이 노령연금에 고정 비율로 계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GDP 대비 유족연금 지출 비율은 0.40%에서 0.51% 사이로 큰 변화 폭을 보이지 않음
 - 2032년에 2023년 대비 약 0.08%p 하락하였다가 2059년에 2032년 대비 약 0.1%p 상승함

[그림 VI-7] GDP 대비 유족연금 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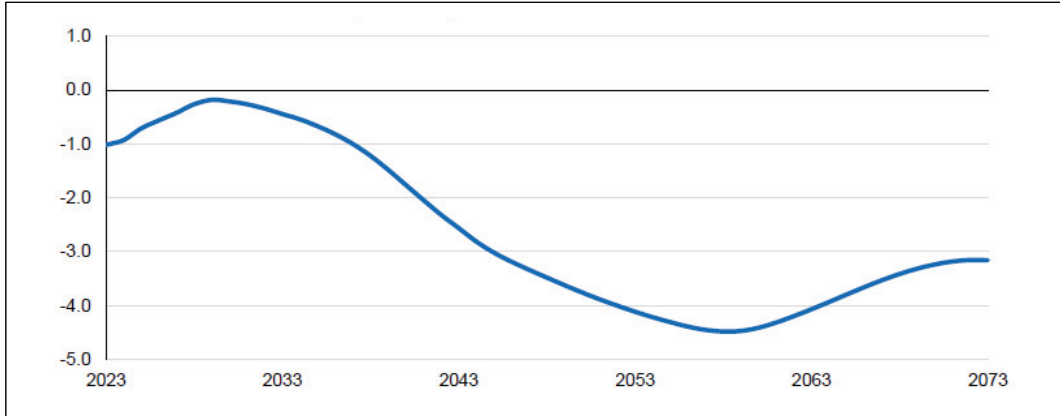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4) 연금제도의 총수입·지출 및 수지

- 연금제도는 전망 기간 전반에 걸쳐 적자를 보이며, 2030년까지는 약간 개선되었다가 이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가 증가해 2059년에는 GDP 대비 연금 적자의 비율이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연금 수입은 근로자의 수입에 기반하여 추정하며 앞선 거시 전제 추정에서 근로자 보상분이 소득수준 수렴에 따라 증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정하였고, 2023년 GDP 대비 연금수입이 8.3%에서 2073년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연금수입이 증가하기는 하나 2030년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2022년 물가 연동에 따른 연금 지출 증가와 2023년 자녀 양육에 대한 추가 지급분(child-rearing bonus) 도입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연금 수지가 적자로 나타남

[그림 VI-8] 연도별 연금제도 수지

(단위: GDP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표 VI-4> 연금제도 전망 요약(10년 단위)

(단위: GDP 대비 %)

	2023	2033	2043	2053	2063	2073
old-age pensions	7.9	8.2	10.1	11.5	11.5	10.7
disability pensions	0.9	1.0	1.0	1.0	0.9	1.0
survivors' pensions	0.5	0.5	0.5	0.5	0.5	0.5
Total expenditure	9.3	9.7	11.5	12.9	12.9	12.1
Total revenue	8.3	8.5	8.7	8.8	8.9	9.0
BALANCE	-1.0	-1.2	-2.9	-4.1	-4.0	-3.1

주: 본 표에서 노령연금은 군인연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값만 표시하여 개별항목들의 합과 총합이 다를 수 있음.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나. 의료제도(health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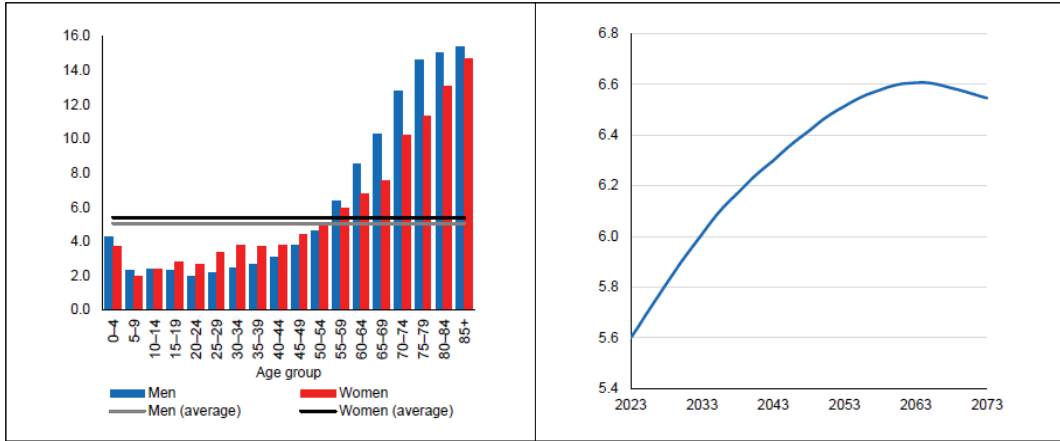
- 오랫동안 의료비 지출의 대부분은(약 85%) 공적 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이 기금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건강보험회사 납부금임
 -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며 세입 측면에서도 공공 의료 시스템만을 분석함
 - COVID-19 팬데믹 상황을 예외로 두어 이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고 의료비 지출이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일정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지출은 2023년 GDP 대비 5.6%에서 2063년 6.6%까지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고 수입은 2023년

GDP 대비 6.3%에서 2073년 GDP 대비 6.2%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59년부터 약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지출)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GDP 대비 5.6%이며, 중위 인구전망 가정하에 2060년대 중반까지 6.6%까지 상승했다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stable cost curve)
 - 앞서 분석한 거시 전제에서의 GDP 대비 실질임금 비율에 대한 현재 의료급여(health care wage)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GDP 대비 임금이 상승하면 의료급여비용도 같이 상승하고 의료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건강보험 지출 곡선이 상승하게 됨
 - 임금과 무관한 의료비(수입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는 소득수준 수렴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소득수준 수렴에 따라 실질환율이 변동하여 수입품의 가격 수준과 국산품의 가격 수준이 맞춰지는 등에 의해 임금과 무관한 의료비 지출 상승이 낮춰질 수 있음
 - 위의 가정들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로 도출한 건강보험 지출 곡선이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가정함
 - COVID-19 팬데믹에 의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하므로 2019년 이후의 자료는 의도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일정한 지출 곡선(stable cost curve)은 연령별 건강보험 지출이 1인당 GDP에 따라 증감하는 것을 가정하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연령별 건강보험 지출이 일정한 경우 GDP가 증가하고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게 됨
 -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GDP 대비 5.6%이며, 중위 인구전망 가정하에 2060년대 중반까지 1%p까지 상승했다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그림 VI-9] 연령대별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지출(좌) 및 GDP 대비 공공의료 (public health care) 지출 비율

(단위: 1인당 GDP 대비 %, GDP 대비 %)



주: 연령대별 건강보험 지출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값.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수입) 건강보험 수입은 고용인, 피고용인, 자영업자, 면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contributions)와 주정부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됨

- 주정부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주정부 보험자(state insurees)로 지칭하는 영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을 위해 주정부가 납부하는 분을 지칭하며, 정부가 보험료를 받는 입장이자 내는 입장이므로 전체 수지 관점에서는 중립적임
- 주정부 이외의 부류로부터 납부되는 부분은 근로자 보상(compensation of workers)에 일정 비율로 계산하며, GDP 대비 급여 증가 전망에 따라 해당 납부분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공공 의료보험제도의 수입 감소를 완화하고 지출을 늘리기 위해, 주정부 보험자의 건강보험 납부기준(reference base for the payment of health insurance)을 2019년 평균임금의 22%에서 2021년 평균임금의 약 35%로 증가 시킴
 - 2022년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3년 「건강보험료에 관한 법률 592/1992 (the amendment of the Act of the Czech National Council No. 592/ 1992 Coll., on Public Health Insurance Premiums)」 개정에 따라 기준을 14,074 코루나(한화 약 83만 7,400원, 2024년 7월 기준)로 설정함

- 건강보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 인상 체계(the automatic valorisation)에 따라 2024년부터 주정부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는 물가 상승분과 실질임금 상승분의 절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인상됨
 - 이 자동 연동제도는 본 전망에 반영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 기준이 자동으로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보험의 수입은 현재 GDP 대비 약 2%에서 2073년에는 GDP 대비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도 주정부 보험 수준에 영향을 끼칠 것임
- 주정부 보험의 자동 인상 체계 가정하에 건강보험제도의 총수입은 2023년 GDP 대비 6.3%에서 전망 마지막 시기 GDP 대비 6.2%로 점차 감소하므로, 중위 인구 전망을 가정할 때 건강보험제도는 2059년 이후부터 약간의 적자를 보임
 - 이 시나리오에서도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증가했던 단위원가(unit costs)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하나, 높아진 비용이 낮아지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음

다. 연금 이외의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및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⁴¹⁾

- 연금 이외 사회보장제도의 GDP 대비 총금액은 3.0%에서 2030년대 3.1%로 증가하고 2073년 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가로 전망하는 지원 제도들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0.1% 이상이고,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는 제도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지원 대상자 중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함
- 출산수당(maternity benefit)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평균 수급비에 수급기간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출생률 전망에 따른 출산수당 지출을 예측하였으며, 전망 기간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됨

41) 체코의 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차이가 있으며, 고령층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에서 장기적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지원함.

- 부모급여(parental allowance) 지출은 4세까지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지급되며, 급여 지원 대상 아이들의 나이별 부모급여 수급 비율 및 평균 수급액을 산출하여 수급 비율과 평균 임금 대비 평균 월별 수급액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망함
 - 현재 GDP 대비 비율(0.6%에서 0.8% 사이)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2030년까지 현재 대비 하락했다가 2050년대 초반까지 다시 상승하고 이후 약간의 등락을 반복함
 - 부모급여는 2020년까지 300,000코루나(한화 약 1,795만원, 2024년 6월 기준)로 증가되며, 2023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함

- 돌봄급여(care allowance)의 경우 연령별 돌봄급여 수급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인구 전망에 따른 의존도별 수급자와 총수급자를 예측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한 결과, 현재 GDP 대비 0.6%에서 206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증가률이 낮아지면서 2073년 GDP 대비 1.3%까지 증가함
 - 체코 노동청 자료(Czech Labour Office data)에서 연령별 의존도별 돌봄급여 수급 비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수급 연령은 18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약간 도움이 필요한 정도부터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까지 총 네 단계로 의존도를 분류하여, 연령과 의존도에 따라 돌봄급여를 3,300코루나(18세 이상의 경우 880코루나)부터 19,200코루나(가장 높은 단계는 연령별 금액 차이가 없음)까지 지급함⁴²⁾

- 주거보조금(housing allowance)도 인구전망과 연계되어 변동되는 부분으로, 체코 통계청 과거 자료에 따라 추계하였으며 전망 기간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됨
 - 총보조금 지급 중 25%가 65세 이상, 나머지 75%가 18세에서 64세의 수급자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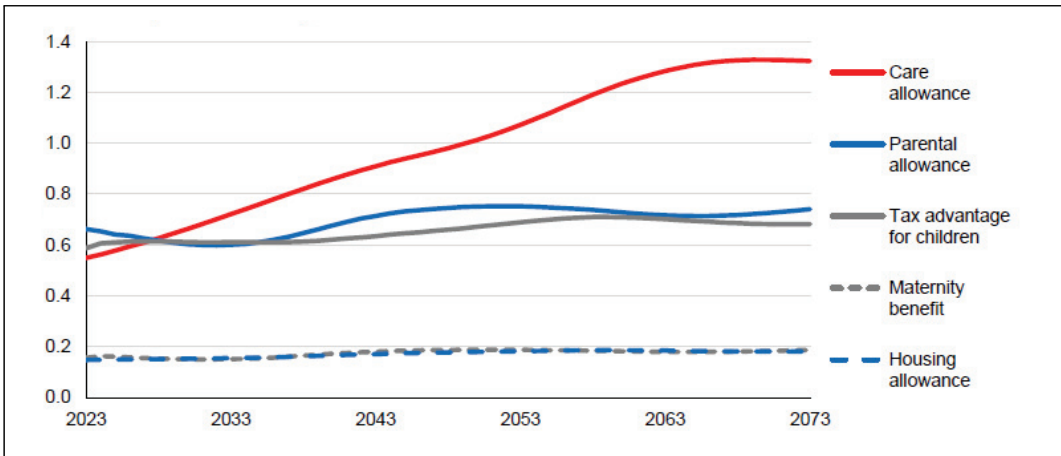
- 자녀특례세제(the tax advantage for children)는 GDP 대비 0.6%로 시작해서 2060년까지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73년 GDP 대비 0.7%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자녀특례세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26세 미만 학생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직업 훈련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함

42) 체코 정부 홈페이지, 돌봄급여 안내(<https://portal.gov.cz/en/sluzby-vs/care-allowance-S500>), 검색일자: 2024. 07. 10.

- 2023년 기준, 첫째 자녀에게는 15,204코루나, 둘째 자녀에게는 22,320코루나, 셋째 자녀부터는 각각 27,840코루나만큼의 세제 특례를 부여하며, 전망에서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세제특례의 중간값인 18,762코루나(약 111만원, 2024년 7월 기준)를 사용하고 해당 금액은 임금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함
- 연금 이외의 사회보장제도 GDP 대비 총금액은 3.0%에서 2030년대 3.1%로 증가했다가 2073년 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대까지 돌봄급여는 상승하나 부모급여가 하락하여 총금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가, 돌봄급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60년대까지 총금액이 상승하고 이후 조금 더 서서히 상승하면서 2073년 연금 이외 사회보장제도의 GDP 대비 총금액은 4%까지 증가함

[그림 VI-10] 연금 이외의 현금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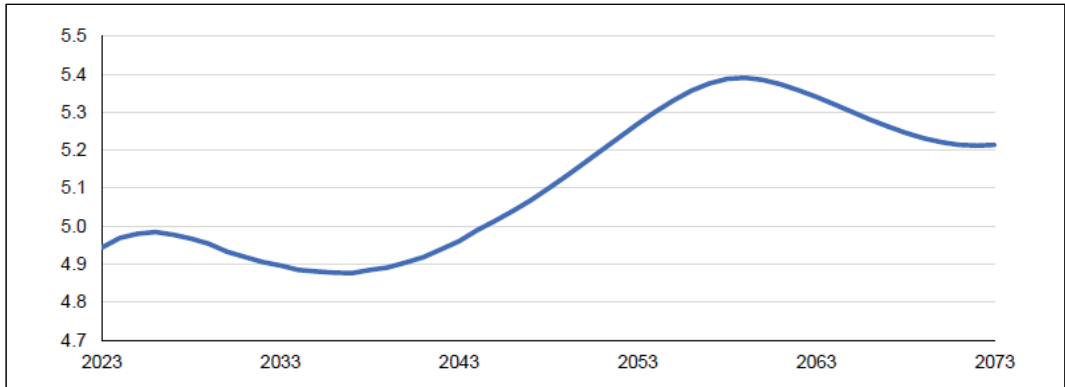
라. 교육

- GDP 대비 교육부문 지출은 현재부터 첫 3년 동안 증가하였다가 이후 11년 동안 인구변화(대학을 제외한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학생 수 감소)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대략 2040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50년대 후반에는 5.4%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13년 동안 다시 인구변화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체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MEYS) 기준 교육부문 지출은 2022년 GDP 대비 4.8%로 산출됨
 - 교육부가 교육부문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 정도이며, 이외의 부분은 지역의 학교 설립, 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등에서 발생한 지출임
- 교육부문 지출에서는 교직원들의 임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연령당 학령인구 비율이 변하지 않으며 학생 1,000명당 교사 및 행정 직원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망함
 - 교직원 임금이 상승하면 교육부문 지출이 상승할 수 있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육부문 지출이 감소할 수 있음
 - 2030년 이후 인구변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므로 2030년 이후 교육부문 지출 변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교육부문 지출은 주로 교직원의 임금에 영향을 받으며, 본 분석에서는 기본 경제에서의 임금 변화와 교직원 임금 변화가 유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함
- 교육부의 지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2013년 교육부의 교육부문 지출 중 1/3 규모에서 2022년 기준 1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임금 상승 등으로 앞으로 이 수준이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인구 대비 동 연령의 대학생 인구 비율은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며, 인구 전망에 따라 2030년까지 대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 대학 운영으로 발생하는 지출의 대부분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와 같은 학생 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며 인구 전망에 따라 향후 10년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위의 인구 전망과 연관된 지출 이외의 설비투자 및 기타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지출이 GDP 대비 1.5%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GDP 상승률과 연계하여 전망에 포함함
 -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연구개발 비용의 2/3는 임금 상승, 1/3은 실질 GDP 상승과 연계되어 변동될 것으로 가정함

[그림 VI-11]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마. 소득수준 수렴과 관련된 지출 및 기타 지출

- 앞선 지출 분석들이 인구변화에 따라 변동된다는 가정하에 전망했다면 나머지 공공부문 지출은 GDP 대비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망하며, 소득수준수렴 효과의 영향과 총지출 증감(GDP 대비 비율)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고, 2023년 GDP 대비 17%에서 2073년 GDP 대비 1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부문은 소득수준수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체코 경제발전예 따라 GDP 대비 비율이 0.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통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자본재의 가격이 높으며, 공공 행정 수준이 낮아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소득수준수렴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줄어들어 GDP 대비 공공투자의 비율이 줄어들음
- 국방비(defence spending)의 경우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조약 및 「국방자금법(Defence Financing Act)」에 따라 2024년부터 GDP 대비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2023년에는 GDP 대비 약 1.5% 수준이었으므로 0.5%p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remuneration of public sector employees)에 대한 지출은 점차 증가하여 GDP 대비 0.4%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준이 수렴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임금이 상승하면 해당 영향이 공공부문의 임금에도 영향을 끼쳐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이 상승함
- EU 분담금(payments to the EU)은 EU의 2021년부터 2027년 기간에 대한 다년간지출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에 따라 국민총소득의 1.4%를 상한으로 지불해야 하나,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상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분담 수준을 기준으로 2028년부터 GDP 대비 0.1%(현재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의 GDP 대비 17.1%의 기타 지출에 대해서는 인구변화, 소득수준수렴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전망 마지막 기간까지 현재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 GDP 대비 17.1%의 규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일반재정부문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함

〈표 VI-5〉 소득수준수렴 관련 지출 및 기타 지출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2023	2033	2043	2053	2063	2073
Other expenditure – baseline scenario	17.1	17.1	17.1	17.1	17.1	17.1
Convergence-related changes in other expenditure	0.0	0.6	0.6	0.6	0.6	0.7
<i>public investment</i>	0.0	-0.1	-0.2	-0.3	-0.3	-0.3
<i>defence expenditure</i>	0.0	0.5	0.5	0.5	0.5	0.5
<i>growth in general government costs</i>	0.0	0.1	0.2	0.3	0.3	0.4
<i>growth in payments to EU</i>	0.0	0.1	0.1	0.1	0.1	0.1
OTHER EXPENDITURE INCLUDING CHANGES	17.0	17.7	17.7	17.7	17.7	17.8

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하여 개별 항목들의 합과 총합이 다를 수 있음.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바. 장기전망에서의 수입(Revenue in the long-term projection)

- 장기전망 시 일반재정수입에서는 인구변화와 소득수준수렴의 효과가 뒤얽혀 나타나며, 2023년 기준 일반재정수입은 GDP 대비 39.8%이며 2053년 40.1%까지 증가하였다가 2073년 39.9%로 감소함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는 소득수준수렴 효과에 의해 2023년 GDP 대비 3.5%에서 2073년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개인소득세가 주로 근로자에 대한 보상(임금)에 의해 변동된다고 가정하면, 앞서 거시전제 분석에 따라 GDP 대비 근로자 보상분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증가함
 - 인구변화에 따라 노동인구가 감소하나 소득수준수렴 효과에 따른 GDP 대비 근로자 보상분 증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는 2023년 GDP 대비 3.7%에서 2073년 GDP 대비 2.8%로 감소함
 - 소득수준수렴 효과에서 GDP 대비 근로자 보상분이 커짐에 따라 순영업이익(net operating surplus)은 감소하는데 GDP 대비 고정자본 소비의 비중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근로자 보상분 증가보다 더 빠르게 순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됨

- 기타 세제(other current taxes)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GDP 대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함

- 사회보험료(mandato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는 연금, 건강보험료, 주정부의 의료보험료, 기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이 모든 기여금(contributions)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보상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소득수준수렴 효과에 의해 GDP 대비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보상분 증가에 따라 증가함
 - 주정부의 의료보험료는 주정부 측에서는 지출로, 의료보험회사 측에서는 수입으로 책정되어 총수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일반정부 규모 및 구조에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전망함

- 소비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하며 해당 세목들은 GDP 대비 가계최종소비지출 비율을 이용하여 규모를 추정하는데, 앞서 분석한 거시전제 전망에 따라 이 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GDP 대비 소비세도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함

- 주정부 재산(property income)은 주로 배당금과 주정부 소유 기업의 영업 분배금을 의미하며, 주정부가 주요 소유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므로 이 부분은 GDP 대비 0.6%의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함
- 기타 소득(other revenue)은 재화나 서비스 판매 및 EU로부터의 수익금을 포함하는데, 이 부분 또한 GDP 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함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포함하지 않음

〈표 VI-6〉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수입(10년 단위)

(단위: GDP 대비 %)

	2023	2033	2043	2053	2063	2073
Personal income taxes	3.5	3.6	3.7	3.7	3.8	3.8
Corporate income taxes	3.7	3.4	3.2	3.0	2.9	2.8
Other current taxes	0.2	0.2	0.2	0.2	0.2	0.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5.8	16.1	16.3	16.5	16.5	16.5
<i>pension insurance</i>	8.3	8.5	8.7	8.8	8.9	9.0
<i>public health insurance (excluding SIs)</i>	4.4	4.5	4.6	4.7	4.7	4.8
<i>payments for state insurees (SIs)</i>	1.9	1.8	1.8	1.8	1.6	1.5
<i>other</i>	1.2	1.2	1.3	1.3	1.3	1.3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11.2	11.2	11.2	11.2	11.2	11.2
Property income	0.6	0.6	0.6	0.6	0.6	0.6
Other revenue	4.8	4.8	4.8	4.8	4.8	4.8
TOTAL REVENUE	39.8	39.9	40.0	40.1	40.0	39.9

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하여 개별 항목들의 합과 총합이 다를 수 있음.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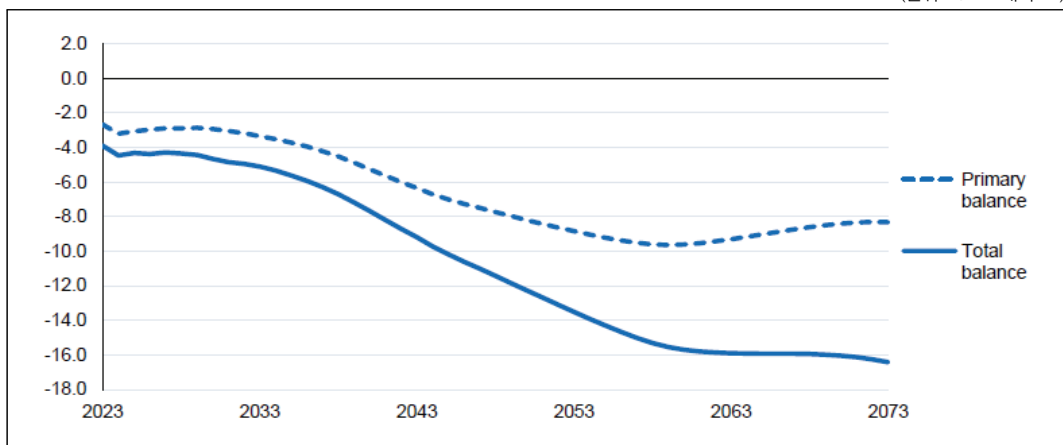
사. 일반재정 수지 및 부채

- 일반재정수지는 전망기간 전체에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인구변동에 의해 연금, 건강 보험, 돌봄급여와 같은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2030년부터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다가 2060년부터 출생률이 급락했던 시대의 인구(baby bust cohorts)가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초재정수지 적자 심화가 멈추기는 하나 마지막 전망 시점까지 큰 폭의 재정적자는 유지됨
 - 재정수입은 전망 기간동안 거의 일정하고 지출 상승효과를 상쇄하지 못함

- [그림 VI-12]는 2060년 이후 기초재정수지는 개선되나 통합재정수지는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줌
 - 2030년대부터 2050년대까지 발생한 기초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60년 이후 기초재정수지는 적자가 더 심화되지 않으나 통합재정수지는 이전 이자 비용 상승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악화됨

[그림 VI-12] 기초재정수지 및 통합재정수지(기준 시나리오)

(단위: GDP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표 VI-7> 이자비용 및 재정수지(10년 단위)

(단위: GDP 대비 %)

	2023	2033	2043	2053	2063	2073
Interest costs (baseline scenario)	1.2	1.8	2.8	4.7	6.6	8.1
Total balance (baseline scenario)	-3.9	-5.1	-9.2	-13.5	-15.9	-16.4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1) 이자비용 및 수지

-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명목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므로, 물가상승률은 명목이자율을 통해 GDP 대비 이자비용과 GDP 대비 전체 공공부문 지출에 영향을 끼침
 - 물가상승률은 2%로 가정하며, 이는 중앙은행 금리밴드 중간값에 상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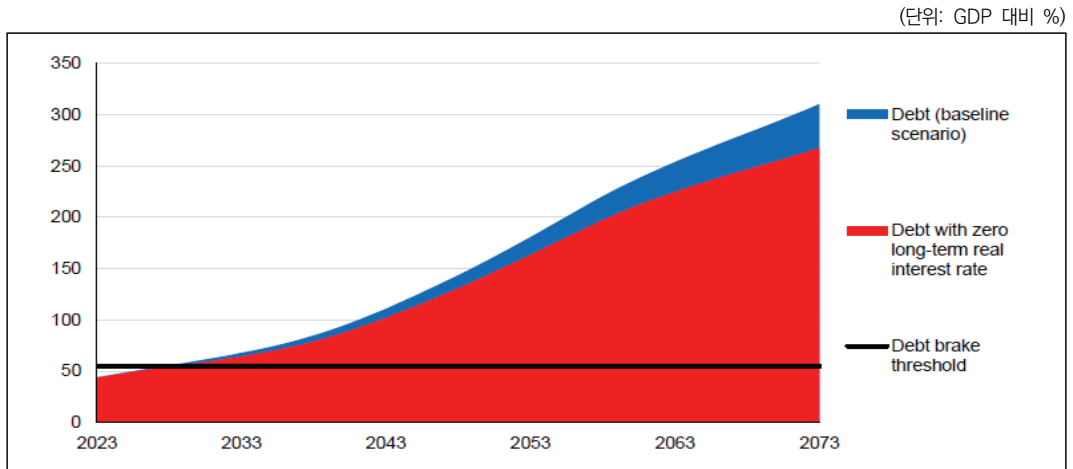
- 공공부문 부채는 대부분(장기적 관점에서 90% 이상) 정부부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자체 부채(municipal debt)와 같은 여타 부채들에 대한 이자비용도 정부부채와 유사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함
- 실제 국가채무는 다양한 수단으로 조달되나 전망을 위해 이를 단순화하여 10%의 단기 부채와 90%의 장기부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단기부채의 경우 매년 당해 이율로 차환되고 장기부채의 경우 10년물 국채금리 및 10년물 명목이표채로 가정함
- 총이자비용은 일반정부 부채와 장단기 부채 명목 내재이자율(장단기 부채 명목이자율의 가중평균)로 계산함
 - 장단기 이자율이 내재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장단기 부채 비중(장기 90%, 단기 10%)과 동일함
 - 단기 이자율은 1.8%p.a.로 실질단기이자율 -0.2%p.a.(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3개월 이자율 평균)와 물가상승률 2%의 합으로 도출함
 - 장기 이자율은 10년물 이자율의 10년 이동평균과 같다는 가정하에, 실질이자율이 0.8%(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이고 물가상승률 2%이므로 기준 시나리오에서 10년물 명목이자율이 연 2.8%p.a.로 수렴한다고 가정함
- 위의 가정하에 내재이자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1년에는 3%p.a.에 도달함

2) 부채

- 이자비용은 일반정부 수지 계산에 지출로 포함되므로 부채를 심화시키는데, 공공부문 누적 부채는 2073년 GDP 대비 약 3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기준 시나리오)
 - 이 부채는 대부분 기초재정수지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망 기간동안 장기 실질이자율을 0(비현실적 가정)으로 가정하더라도 2073년 누적 부채는 GDP 대비 약 26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기준 시나리오 전망과 더불어, GDP 대비 부채 수준과 이자율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임계치인 55%에서 1%p 초과할 때마다 현재 10년물 실질이자율이 0.039%p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분석함
 - 대안 시나리오 전망에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28년(본 전망에서 부채 임계치를 넘는 시점)부터의 부채 증가율이 더 가속화되고, 2039년부터 내재이자율이 명목 GDP 성

장률보다 커지면서 부채가 지속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며 빚의 함정(debt trap)에 빠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VI-13] 일반정부 부채(general government debt)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3)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 현재 재정지출 지속가능지수는 6.22로, 2023년부터 전망 기간동안 기초재정수지가 매년 GDP 대비 6.22%만큼 개선된다면 2073년에는 부채 수준이 GDP 대비 5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적으로 S1 지표가 재정 지속가능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는 마지막 전망 시기에 특정 수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도달하기 위해 전망 기간동안 증감(매년 같은 GDP 대비 비율)되어야 하는 기초재정수지 변화 폭(GDP 대비 비율로 표시)을 나타냄
 - 본 분석에서는 55%의 부채 임계치를 넘지 않기 위해 50년 동안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얼마만큼 증감해야 하는지를 분석함
 - 현재 재정지출 지속가능지수는 6.22(2022년에는 6.04, 2021년에는 6.98)로, 2023년부터 전망기간 동안 기초재정수지가 매년 GDP 대비 6.22%만큼 개선된다면 2073년에는 부채 수준이 GDP 대비 5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부채가 임계치인 55%를 넘지 않으므로 앞서 대안 시나리오에서 분석했던 부채 수준과 이자율이 서로 영향을 끼쳐 발생하는 추가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음

- 현재 장기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들의 시행이 부채 임계치에 도달하는 2028년까지 늦춰진다면, 재정 지속가능지표는 6.88%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무한 시계 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폭인 S2 지표도 사용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체코 재정 지속가능지수는 2022년 기준 5.5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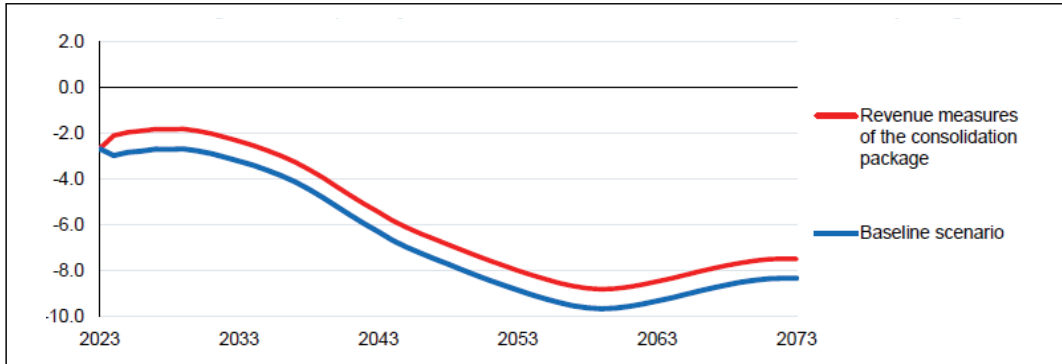
7.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가. 강화 정책에서의 수입 부문 조치

- 2022년 5월 발표된 「재정 강화 예산안(Bill on Consolidation of Public Finance)」에서는 재정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63개 법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여기 수입 부문에 대한 개정을 분석함
 - 지출 부문은 법 개정이 아닌 개별 부처의 결정으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법 개정을 기준으로 분석한 본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음
 - 연금 개혁도 정부의 강화 조치(government's consolidation effort) 중 한 부문이나 이로 인한 연금 부문 지출 변동의 경우 이후에 따로 분석함
 - 수입 부문 개정이 전망 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함
- 기준 시나리오보다 기초재정수지가 전망 기간동안 매년 GDP 대비 0.85%에서 0.88%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도 6.22에서 5.38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됨
 - 단기적으로 상당한 개선 효과는 있으나 여전히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는 주로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하므로 수입 부문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여전히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

[그림 VI-14]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 강화 정책에서의 수입 부문 조치
(revenue measures of the consolidation package)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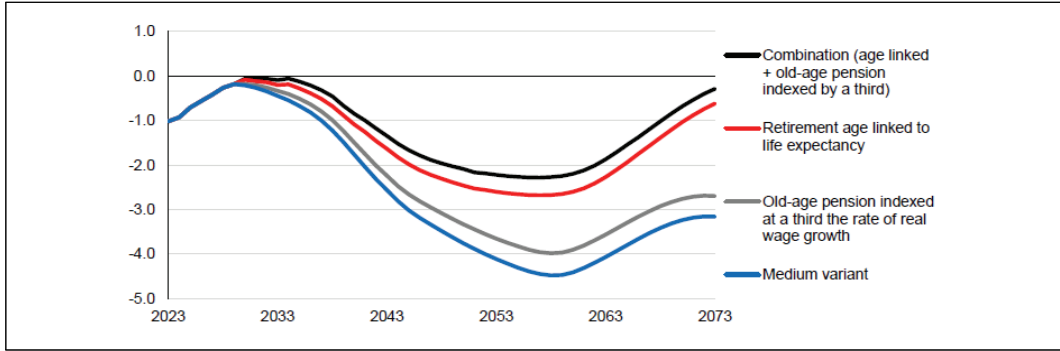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나. 연금 연동 제도 조정

- 2023년 7월 「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 연동제도 규정(statutory) 및 특별 지침(extraordinary terms)이 수정되었으며, 본 분석에서는 정기적인 인상(statutory)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함
 -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특별 지침이 시행될 만큼(물가상승률 5%) 높아지지 않는다고 가정함(물가상승률 목표 2%를 준수한다고 가정)
 - 연금은 일반적으로 매해 1월에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데 기본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음
 - 기존 제도에서는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 index)와 연금 수급자의 생활물가(cost-of-living index) 중 더 높은 값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정했으나, 개정 후 연금 수급자의 생활물가(소비자물가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0.4%p 높음)만을 고려하도록 바뀌었고 이 변화는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실질임금과 연관된 부분에서 더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는데, 실질임금 상승률의 절반이 연금상승률에 반영되는 대신 1/3만큼만 반영되도록 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제도 적자를 감소하게 할 것으로 분석됨

[그림 VI-15] 연도별 연금제도 수지-중위 수준에서의 대안 시나리오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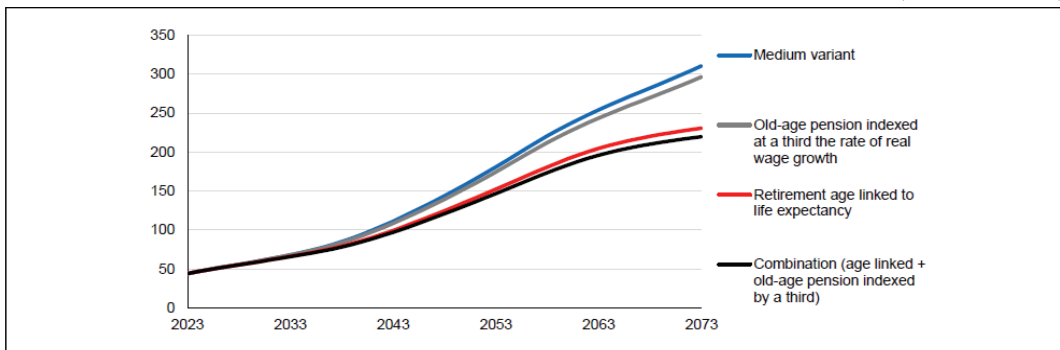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2022년과 2023년에 실질임금이 크게 줄어들었고 실질임금 상승률에 대한 연금의 추가 연동은 실질임금이 2021년 수준을 초과할 때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연금제도 개혁의 효과는 2030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중위 수준(medium variant) 시나리오에서 연금 물가연동 제도에 실질임금 상승률의 1/3을 반영하는 변화는 2050년 이후 연금 적자를 GDP 대비 약 0.5%p만큼 감소시키고, 정년 변동 시나리오에서는 그 영향이 약간 더 낮아질(0.4%p) 것으로 나타남
 -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연금 적자는 감소하고 부채는 줄어들며, 2073년 전망 종료 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16] 일반정부 부채-중위 수준에서의 대안 시나리오 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다. 정년과 기대수명의 연결

- 현재 개혁안에서 현 정년은 65세이나 1965년 이후 출생지들에 대해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도 점차 높이는 것을 제안함
 - 체코 통계청의 50세 인구 기대수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정년을 결정할 것이며, 이 적정 정년은 미래 세대에게도 은퇴 후 남은 시간(약 21.5년)이 동일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정년은 두 번 연속으로 최대 2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어 현재 정년 증가 속도보다 느리게 조정될 것이며, 기대수명이 늘어나지 않으면 정년 연장도 중단됨
- 새로운 정년 결정 체계는 기대수명 통계가 가능한 50세 이상의 사람들만 정년을 알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사회보장법(Section 4(a) of Act No. 582/1991 Coll)」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정년과 기대수명을 연결하는 규정에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함
 - 현재 법령에 따르면 정년(남녀 동일)에 도달할 때 남은 기대수명(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이 총기대수명의 1/4이 되도록 정년을 설정하고, 새로운 인구통계 예측 발표 직후에 정년을 갱신함
-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체코 통계청의 정년 예측 자료를 2073년까지 확장하여 분석하고 다음 가정들의 전제하에 분석함
 - 1965년부터 1971년까지의 출생자 경우 체코 노동사회부(MoLSA)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그들의 정년을 가정하며, 1972년부터 1974년까지의 출생자의 경우 65세 7개월을 정년으로 고정함
 - 1975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사회보장법(Section 4(a) of the 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기대수명을 고려한 정년 연장(현재 버전의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을 정하는 방법)을 가정하며, 2040년 이후부터 전망 마지막 시점까지는 정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68세에 도달하도록 함
- 정년의 점진적인 증가는 다양한 경로로 적자 감소와 부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정년이 늦춰짐에 따라 경제 내 근로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예상 GDP 수준이 소폭 증가하고(전망 종료 시점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5% 증가), 이에 비례하여 공공 부문 수입이 증가할 것임
- 수입 부문에서의 변화도 있으나 주된 변화는 지출 부문에서 일어나는데, 정년 연장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하여 장애연금 지출이 소폭 증가하고 평균 노령연금도 증가하겠지만, 정년 연장은 주로 노령연금 지급건수 감소에 영향을 끼쳐 연금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노령연금 수급 시 장애연금이 노령연금으로 대체되므로, 정년이 연장되어 노령연금을 늦게 수급하면 장애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짐⁴³⁾
 - 2073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13% 줄어 들고 노령연금에 대한 총지출은 1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유족연금도 기준 시나리오보다 감소하는데, 미망인(남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소폭 증가하나 전체 유족연금 수의 감소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됨
- 정년의 점진적인 연장으로 인해 2045년부터 전망이 끝날 때까지 연금수지는 GDP 대비 약 1.0~2.5% 개선됨[그림 VI-15]
- 연금제도 적자 감소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감소로 이어지고, GDP 수준이 다소 높아지고 이자 지급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보다 2073년 부채 수준이 GDP 대비 80% 낮아짐[그림 VI-16]
- 65세 이상의 정년 증가와 연금의 실질임금 증가율의 1/3 연동을 함께 고려하면 부채 수준은 GDP 대비 91%만큼 낮아질 것이며 미래 부채 수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그림 VI-16]

라. 공공재정개혁(public finance reform)의 전반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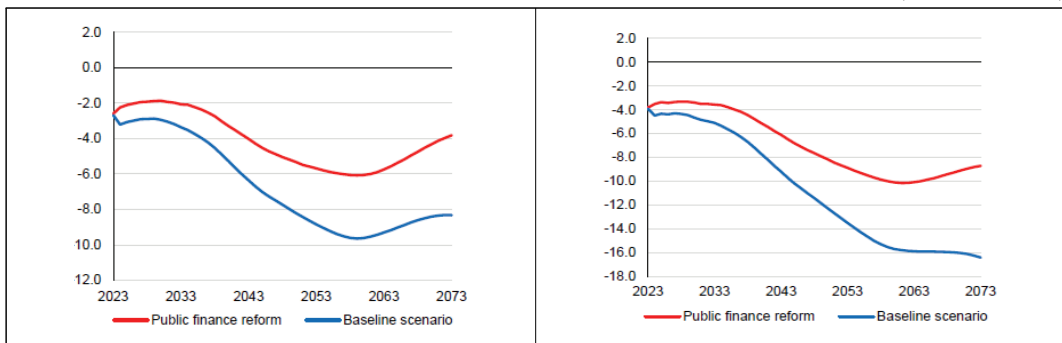
- 본 분석에서는 앞서 분석한 세 개의 시나리오(정년 연장, 연금제도의 실질임금 상승률의 1/3 연동, 강화 정책에서의 수입 부문 조치)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함

43) 저자 해석.

- 위의 세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한 분석에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관련된 모든 재정전망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적자가 가장 심한 2050년대의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연간 GDP 대비 3% 이상 개선되고(그림 VI-17의 왼쪽 도표), 연간 일반재정적자가 전망 기간동안 거의 GDP 대비 8%까지 개선되며(그림 VI-17의 오른쪽 도표), S1 지표는 6.22에서 3.42까지 감소함
 -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각각 다른 전망 주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 강화 정책에서의 수입 부문 조치는 단기와 중기에 주로 영향을 끼치며, 연금제도 변화(연동제도 및 정년 연장)는 중기와 장기에 영향을 끼치므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망 기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됨

[그림 VI-17]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좌) 및 통합재정수지(우) - 기준 시나리오와 공공재정개혁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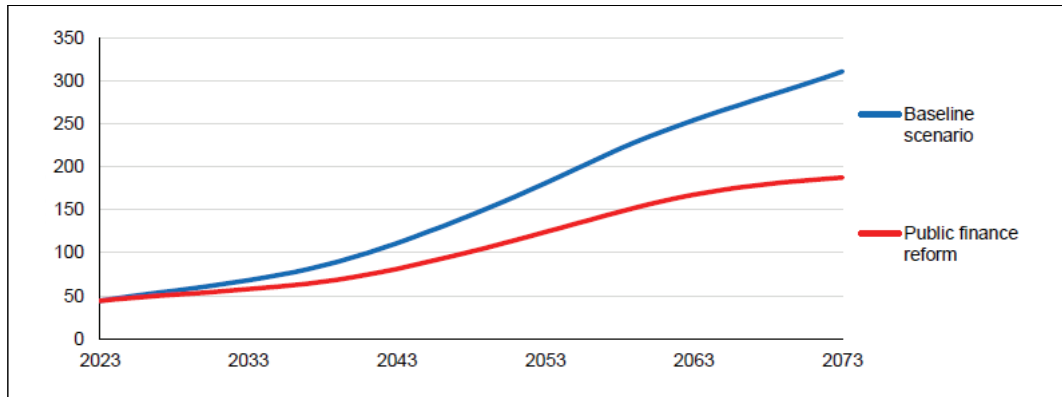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기준 시나리오에서 2060년 이후 기초재정수지는 개선되었으나 통합재정수지는 계속 악화되었던 것과 달리, 여러 개혁을 반영한 본 대안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6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됨(그림 VI-18)
- 기초재정수지가 전 기간에 걸쳐 개선되면서 재정적자에 따른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2060년 이후 기초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자비용을 구축(驅逐, 'crowd out')하게 됨
 - 전망 종료시점인 2073년 기준 총부채는 GDP 대비 123%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VI-18)

- 위의 분석은 대체 시나리오에서 고려된 정책들이 단순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효과성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로, 조치들의 유효성이 감소한다면 재정 개선의 영향도 줄어들

[그림 VI-18] 일반정부 부채 - 기준 시나리오와 공공재정개혁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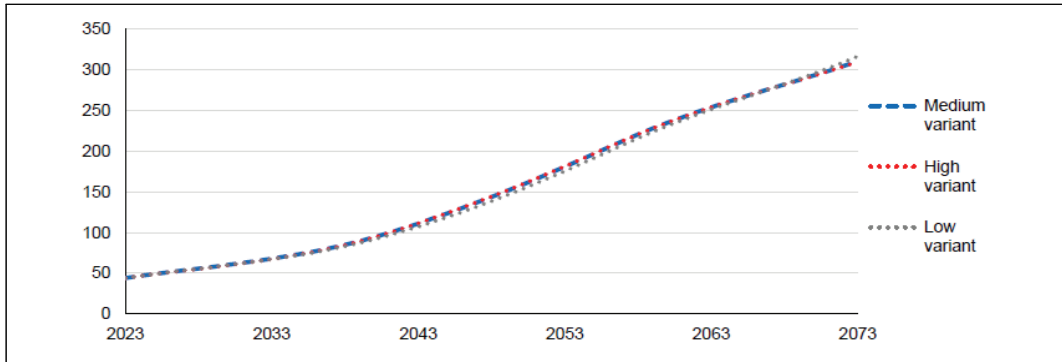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마. 다양한 인구통계 예측 변형

- 인구통계를 저위, 중위 고위로 나누어 시나리오 분석을 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VI-19)
 - 전체 인구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인구 연령구조 및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근로가능인구(21세부터 64세) 비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저위 시나리오를 예로 들면, 낮은 출산율과 낮은 이주율은 고령인구 대비 근로가능인구 비율을 낮추지만, 높은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은 이 비율을 다시 높이므로 결국 비율에 대해서는 중위 시나리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됨
 - 체코 통계청에서 새로 발표할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한 인구추계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난민 송환율이나 COVID-19 팬데믹 동안 상승한 사망률이 장기적으로 기대수명 전망에 끼친 영향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를 반영한다 해도 기준 시나리오보다 2055년부터 2073년 사이 연금지출을 GDP 대비 약 1%p 낮추는 수준일 것으로 분석됨

[그림 VI-19] 일반정부 부채-인구 전망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비교

(단위: GPD 대비 %)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바. 연금제도에서의 세대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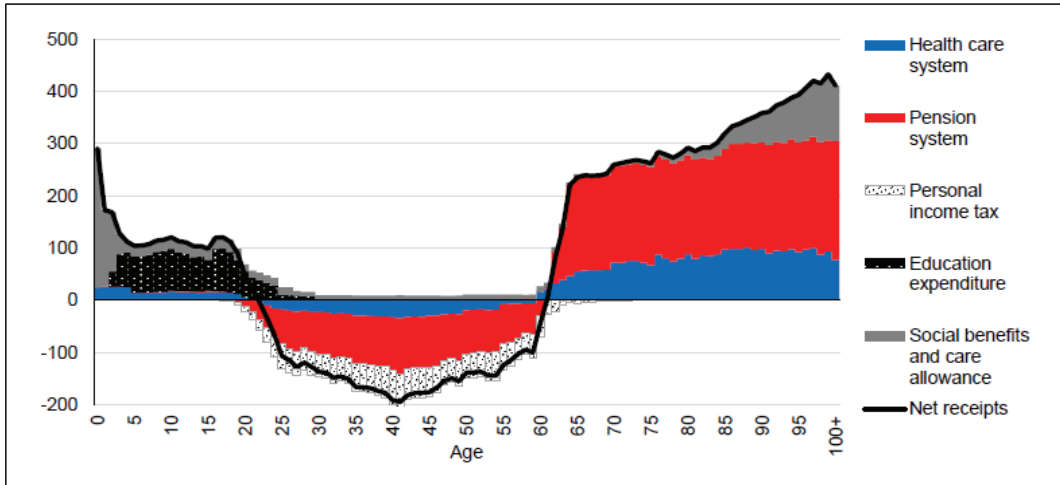
1) 세대 특정(generation-specific) 지출 및 수입

- 연령별 연도별 지출 및 수입을 분석함으로써 세대별 재정부담 분포를 분석함
 - 본 분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의 수입과 지출임
 - 고령화와 출생률 급락 시점 출생자들(baby-bust cohort)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영향은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 및 특정 세대(generation-specific) 기타 사회보험에도 영향을 끼침
 - 2021년 기준 약 41%의 수입과 45%의 지출이 특정 세대 부문으로 분석됨
- [그림 VI-20]은 각 연령에서의 인당 재정 수입 및 지출을 나타냄
 - 출생 후 첫 3년간은 사회보험 순 수혜자(net recipients of benefits)로서 주로 건강보험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특혜를 받음
 - 2세부터 18세까지는 교육으로 인한 수혜가 주를 이루며 아동 및 학생과 연관된 개인소득세 감면(사회보험과 같이 취급)으로 인한 조세특례로 인한 수혜도 발생함
 -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연령대는 평균적으로 사회보험 순 기여자(net contributors)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수준이 수혜 수준보다 높으며, 평균적으로 현재 사회보험 기여자는 22세에서 60세 사이의 연령대로 분석됨

- 경제활동 이후 세대(post-working age generation)는 사회보험 순 수혜자로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는 세대임

[그림 VI-20]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연금 납부(payments)및 수급(receipts) 금액 비교

(단위: 천코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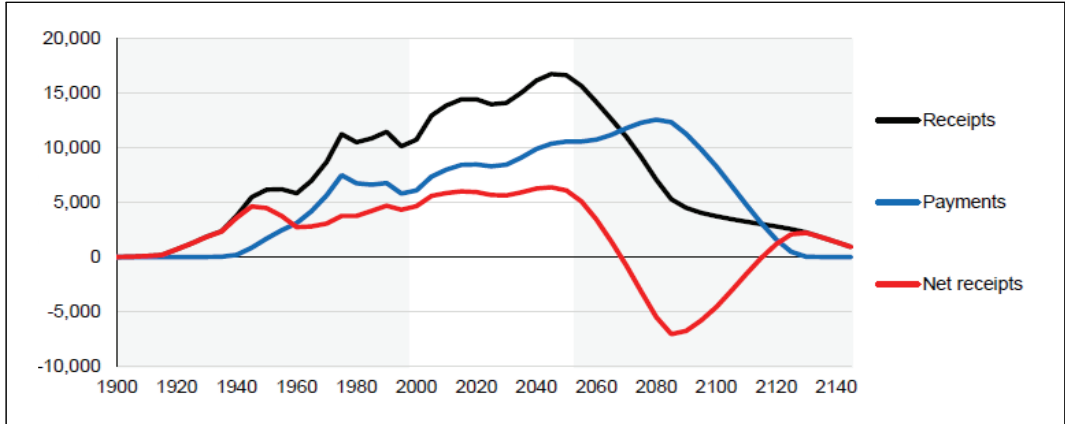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세대간회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자(전체 생애주기를 전망한 첫 세대)는 전체 생애 동안 본인의 재정 기여금보다 약 1,020만코루나(한화 약 6억 608만원, 2024년 7월 기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년 후에 태어난 각 세대는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약 1,170만코루나(한화 약 6억 9,509만원, 2024년 7월 기준)를 더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림 VI-21]에서 알 수 있듯이, 2065년까지 태어난 세대는 공공재정의 순 수혜자로 볼 수 있으며 206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경제활동을 이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순 기여자가 되었다가 2150년 출생자부터는 다시 순 수혜자로 전환됨

[그림 VI-21] 세대별 공공 재정 납부 및 수급액 금액 비교

(단위: 10억코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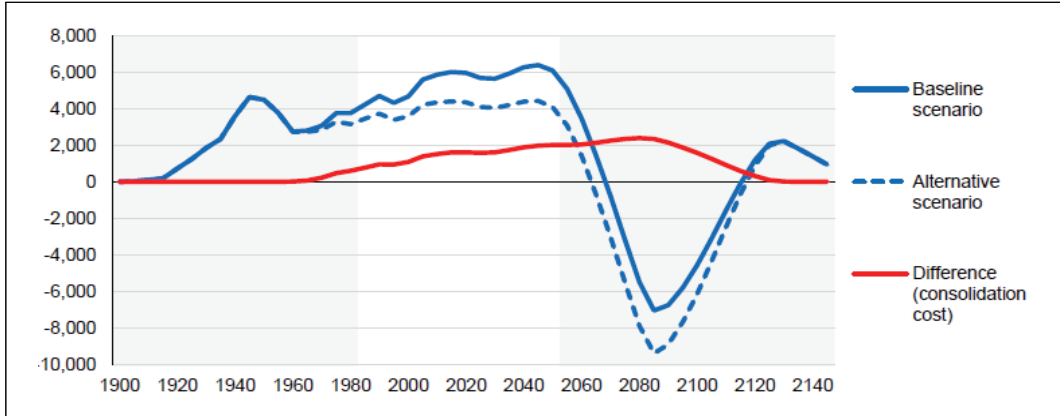
주: 2021년 실질(real term)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질이자율 1%.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그림 VI-22]는 2073년 부채비율을 임계치(GDP 대비 55%)로 유지하면서 세율을 높이는 경우 기준 시나리오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나타냄
-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부채 임계치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해의 차년도인 2029년에서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1950년생 이후의 순 수혜자는 증가하게 되나 1990년 이후 출생세대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총세부담 증가는 약 19%로 분석됨
 - 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다른 정책변화가 없다면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가며, 특히 2040년대 이후 세대에게 가장 큰 부담이 지워질 것으로 분석됨

[그림 VI-22] 각 세대별 순 수급분(net receipts) - 기준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 비교

(단위: 10억코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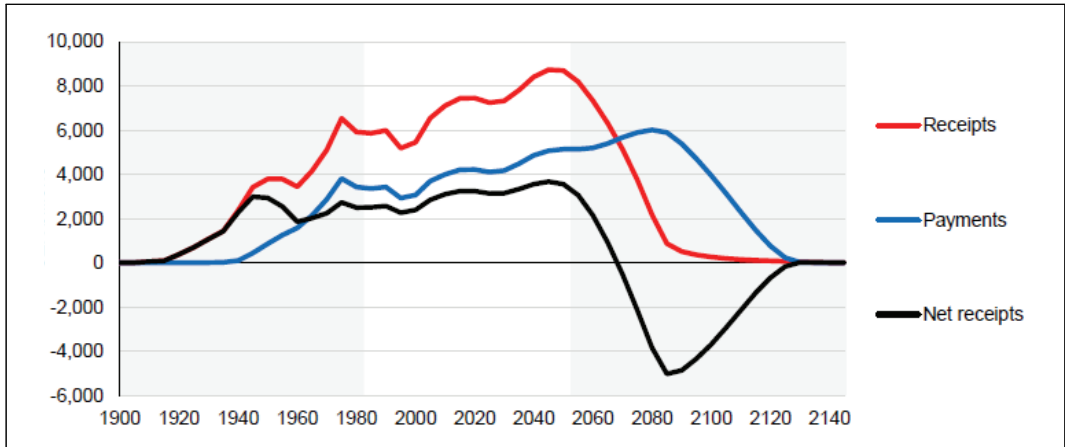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2) 세대간회계와 연금제도

- 체코 연금제도는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기존의 연금 지급에 직접 사용되는(페이그 원칙) 세대 간의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본 분석에서는 근로 인구의 연금 납입금(연금제도의 수익)을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연금 지급금과 비교 분석함
 - 세대 간의 연금 지출 및 수입 예측은 본 보고서 앞 장에서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에 대한 지출 및 수입 예측을 사용함
 - 세대별 임금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분배하였으며, 경제 전체의 평균임금 대비 특정 연령대의 임금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및 집단별 실업률(주기 조정)을 일정하게 유지함 (constant overtime)
 - 각 세대의 연금 순 수령액(연금 지급액에서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은 연금 수급자 당 연금액에 의해 결정되며, 상대적 세대별 규모(relative size of the generation), 기대수명 및 정년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함
 - 2000년부터 2150년의 기간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그림 VI-23] 왼쪽 부분)는 더 이상 이 제도에 기여하지 않고 연금만 받아 가는 반면(순 수혜자),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전망 기간동안 정년에 도달하지 않을 세대([그림 VI-23] 오른쪽 부분)는 이 제도에 기여만 함(순 기여자, 장애 및 고아 연금 제외)

[그림 VI-23] 세대별 연금제도 납부 및 수급분 비교

(단위: 10억코루나)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1980년부터 2050년대 세대까지는 경제활동 시기부터 정년까지의 주기 전체를 전망하는 세대로, 이 세대는 연금 기여금보다 수급분이 더 많으며, 2022년도 보고서에서의 분석보다 순 수급분(net take-up)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이 세대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받으며,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65세 상한이 순 수급분 증가에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이고 실질소득이 더 높은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함
 - [그림 VI-23]에서의 분석은 현재 연금제도 설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하며 공공부문 부채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으로, 연금 개혁 지연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임
- 2073년에 연금제도 누적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대체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료율을 높이는 수입 부문 조정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을 낮추는 지출 부문 조정 혹은 이 둘을 함께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정년을 조정하는 방법(연금을 줄이는 방법과 유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방법들을 조합하여 두 가지 옵션으로 나누어보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은 기준 시나리오와 같이 평균임금 대비 일정하게 유지되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반대로 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나 임금 대비 연금 수급분이 줄어들거나 소득대체율이 감소함
- 위의 두 가지 대체 시나리오에 대하여 세 가지 세부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세부 시나리오에서는 연금제도가 매년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매년 연금제도의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도록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조정됨⁴⁴⁾
- 이 대안에서 중앙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때까지 (2040년경) 제도개혁을 시행하지 않음
 - 연금보험료율이 30%(현재 28% 대비 약 2%p 증가)까지 증가하였다가 2030년 29%로 떨어지나, 이후 연금수급자 증가로 2059년 4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함
 -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당시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세대보다 2059년에 12%p 더 높은 연금보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현재의 연금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경우 연금이 현재 평균임금의 45.8% 내외 수준에서 2059년경 29.6%로 하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현재의 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을 수급하게 될 현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게 될 것임
- 다른 세부 시나리오로는 연금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어 점진적으로 연금제도가 2073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할 수 있음
- 대안 2와 대안 3은 각각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증감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안 2에서는 채무 임계치(debt brake threshold)에 도달한 다음 해인 2029년부터 금리가 인상되며, 대안 3에서는 2039년부터 금리가 인상됨
 - 2039년에는 금리가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부채가 지속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 인상이 지연될수록 더 확실한 대응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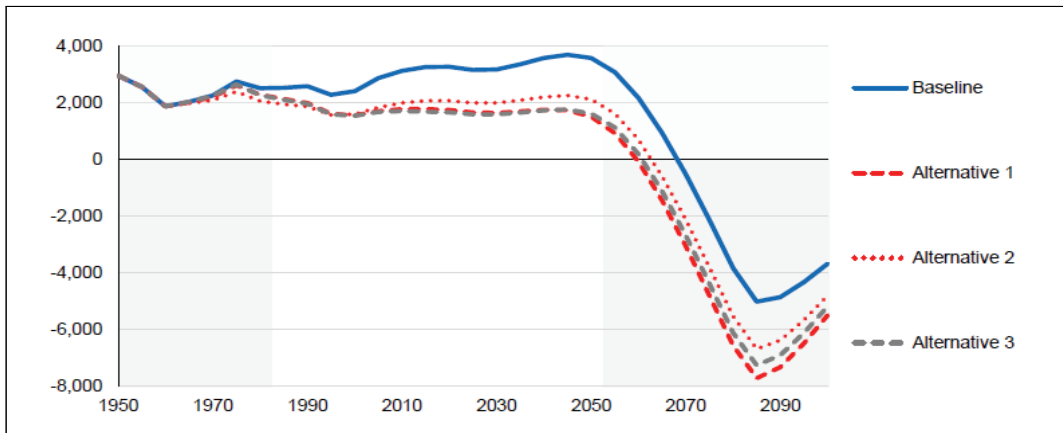
44) 여기서의 균형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2023년부터 2073년까지의 연금제도 수입과 연금제도 지출이 같아지는 지점으로, 2150년까지의 전망 기간동안 연금제도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는 대안 1과 달리 대안 2와 3은 2073년 이후 연금제도가 반드시 안정될 필요는 없음.

- 현재 소득의 28%인 보험료율이 대안 2에서는 35.9%로 증가하는 반면 대안 3에서는 38.6%로 증가함
 - 다만 이러한 보험료율의 극적인 인상이 노동비용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이지 않아 체코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 [그림 VI-24]는 연금보험료율의 인상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임을 나타냄
 - 이러한 영향은 세부 대안 1과 세부 대안 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여기서 밀레니엄 전환 이전에 태어난 세대보다 최근에 태어난 세대와 미래 세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음
 - 요율 인상 시기를 앞당긴다면 연금제도 안정화 비용을 더 많은 세대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보다 세대간 공평성이 약간 증가함

[그림 VI-24] 보험료율 증가 시나리오 - 수지 기준(net balance)

(단위: 10억코루나)



주: 각 세부 대안시나리오에서 2073년 연금제도 균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은 증가하며, 세부 대안 1에서는 매년 연금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부 대안 2에서는 2029년 이후 세부 대안 3에서는 2039년 이후(부채 임계치를 벗어나고 1년 후) 요율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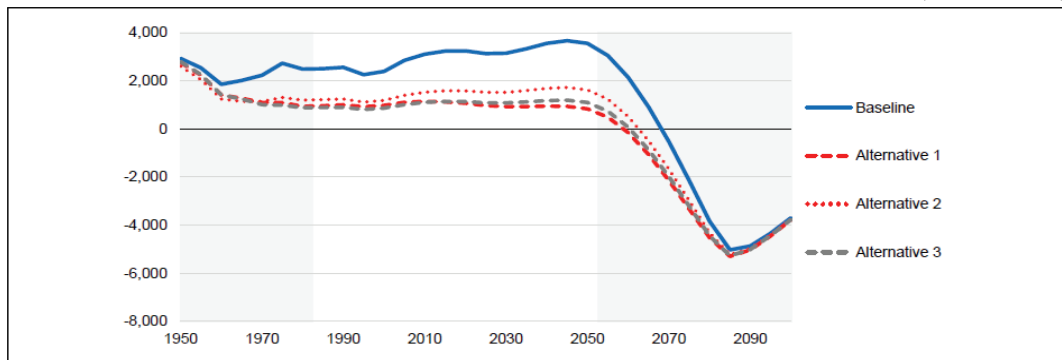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 현재 연금보험료율 28%를 유지하고 정년이 변하지 않을 때 연금제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인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그림 VI-25]는 연금이 줄어들 때 기성세대(older generation, 1960년대생 세대부터)와 젊은 세대 모두 적게 받게 되므로(worse off) 연금제도 강화(consolidation)의 영향이 같은 시점에서의 연금보험료율 인상 영향에 비해 세대 간에 더 고르게 분포될 것으로 예측됨
 - 연금 삭감이 더 일찍 시작되면 그 부담이 세대 간에 더 균등하게 분담되나, 연금 삭감이 더 늦게 시작되면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기성세대는 더 적은 부담을 지게 됨
 - 연금 물가 연동 수준을 낮추고 2030년경부터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현재의 연금 개혁은 세부 대안 2에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함
 - [그림 VI-25]에 제시된 대안 2에 비해 현재 연금개혁은 1965년 이후 출생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대부분의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진 영향을 끼치게 됨(개혁 이후에도 연금제도는 적자가 지속됨)
- 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본 전망 분석은 단순하지만, 연금제도 개혁을 연기하는 것이 밀레니엄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에게 비대칭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남
- 동시에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금제도 변화가 수입 측면의 변화에 비해 세대 간에 더 고르게 영향을 끼치며, 더 '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그림 VI-25] 소득대체율 하락 시나리오 - 수지 기준(net balance)

(단위: 10억코루나)



주: 각 세부 대안 시나리오에서 2073년 연금제도 균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은 증가하며, 세부 대안 1에서는 매년 연금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부 대안 2에서는 2029년 이후 세부 대안 3에서는 2039년 이후(부채 임계치를 벗어나고 1년 후) 요율이 증가함.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사. 이전 보고서와의 비교

- 2022년 보고서와 비교하여 2023년 보고서가 조금 더 회의적인 전망 결과를 보이며, GDP 대비 부채 수준이 296%에서 311%로 증가함
 - 2022년 물가상승률 충격에 의해 초기 전제가 변동된 부분이 영향을 끼침
 - 명목 GDP 값이 11.1% 상승했고 이는 2022년 체코 재무부의 예측보다 2.5% 높은 값임
 - 예상보다 높은 명목 GDP는 GDP 대비 정부 세입 및 지출 비율을 낮추었고,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러 정부 지출(지수연동 연금 지출 및 주정부 보험 제외)의 실질 가치가 하락함
 - 고물가상승과 이와 관련된 통화 긴축은 부채 상환 비용을 증가시켜 부채를 증가시켰고, 예상 이자 비용은 향후 몇 년 동안 GDP 대비 최대 4분의 3까지 증가함
- 2022년 보고서와 비교하여 부채 증가가 둔화되었는데 교육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총지출이 낮았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지수연동 연금 지출은 향후 몇 년간 GDP 대비 비율이 더 높아짐
 -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출은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인구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초기 연령구조를 반영하는데, 체코의 경우 난민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초기 인구 증가는 이후 높은 연금 수급자 증가와 같은 부문에 반영됨
 - 2023년부터 주정부 보험이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물가 연동 대상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지출 예측이 2022년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주정부 보험의 경우 지출과 수입에 대칭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전체 공공 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나타남
- 느슨한 지출 정책(loose spending policies)은 계속해서 부채 증가시킴
 - 노령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주로 2023년 기본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함
 - 2022년과 2023년, 높은 물가상승률과 2022년 6월과 9월, 2023년 6월에 시행된 세 번의 특별 지수연동 연금 인상(extraordinary pension indexation)으로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임금보다 연금이 더 빠르게 인상됨
 - 2023년 자녀 양육에 대한 추가 지급분(child-rearing bonus) 도입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영향을 끼침

- 이러한 인상은 앞으로 수년간 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28년에 기초재정수지 부채 임계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됨
 - 기초재정수지 적자, 이자 비용 및 부채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 지표(sustainability gap)는 2022년 GDP 대비 6.04%에서 2023년 6.22%로 증가함
 - 지속가능지표는 2073년에 부채가 부채 한도 미만이 되려면 2023년부터 2073년까지 매년 재정수지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나타냄

8. 평가

- 전망 분석 결과는 2022년의 중장기 분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전망 기간 마지막의 부채 값은 이전 대비 약간 높았으나 부채 임계치를 넘기는 시점(2028년)은 2022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여 경제 분석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2022년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여 향후 몇 년간의 기본 부채 전망이 약간 개선되게 분석되었으나, 이자율이 상승하여 부채 상황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수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나타나는 지출 항목들(연금 등)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항목들에 비해 더 상황이 안 좋게 분석되었으며, 기준 시나리오 전망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적자가 개선되지 않음
- 2023년에는 공공 재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강화 정책(consolidation package)과 연금제도 개혁으로 장기 재정수지 개선을 도모함
 - 본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대안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함
 - 2030년 이후에야 실질연금 대비 연금 지표 조정과 정년 증가가 연금제도 지출 감소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구조적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재정의 수입 부문 조치와 연금제도 변화를 복합적으로 검토함
 - 실제로 여러 조치들이 중장기 불균형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망 기간 동안 부채가 GDP 대비 최대 12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26]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전망에 대한 요약 - 중위 인구전망 기준

(단위: GDP 대비 %)

	2023	2033	2043	2053	2063	2073
REVENUE						
Personal income taxes	3.5	3.6	3.7	3.7	3.8	3.8
Corporate income taxes	3.7	3.4	3.2	3.0	2.9	2.8
Other current taxes	0.2	0.2	0.2	0.2	0.2	0.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5.8	16.1	16.3	16.5	16.5	16.5
<i>pension insurance</i>	8.3	8.5	8.7	8.8	8.9	9.0
<i>public health insurance (excluding state insurees)</i>	4.4	4.5	4.6	4.7	4.7	4.8
<i>payments for state insurees</i>	1.9	1.8	1.8	1.8	1.6	1.5
<i>other</i>	1.2	1.2	1.3	1.3	1.3	1.3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11.2	11.2	11.2	11.2	11.2	11.2
Property income	0.6	0.6	0.6	0.6	0.6	0.6
Other revenue	4.8	4.8	4.8	4.8	4.8	4.8
TOTAL REVENUE	39.8	39.9	40.0	40.1	40.0	39.9
EXPENDITURE						
Pensions	9.3	9.0	11.2	12.9	13.0	12.1
Health car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only)	5.6	6.0	6.3	6.5	6.6	6.5
Other social benefits in cash	3.0	3.2	3.5	3.8	4.0	4.0
Payments for state insurees	1.9	1.8	1.8	1.8	1.6	1.5
Long-term care outside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0.6	0.7	0.8	0.9	1.0	1.0
Education	4.9	4.9	5.0	5.3	5.3	5.2
Other expenditure – baseline scenario	17.1	17.1	17.1	17.1	17.1	17.1
Changes related to convergence	0.0	0.6	0.6	0.6	0.6	0.7
<i>public investment</i>	0.0	-0.1	-0.2	-0.3	-0.3	-0.3
<i>defence expenditure</i>	0.0	0.5	0.5	0.5	0.5	0.5
<i>growth in general government costs (wages)</i>	0.0	0.1	0.2	0.3	0.3	0.4
<i>growth in payments to EU</i>	0.0	0.1	0.1	0.1	0.1	0.1
Total expenditure excluding interest	42.5	43.2	46.4	48.9	49.3	48.2
Primary balance	-2.7	-3.4	-6.4	-8.8	-9.3	-8.3
Interest (no interest rate feedback)	1.2	1.8	2.8	4.7	6.6	8.1
TOTAL EXPENDITURE (no interest rate feedback)	43.8	45.0	49.2	53.6	55.9	56.3
TOTAL BALANCE (no interest rate feedback)	-3.9	-5.1	-9.2	-13.5	-15.9	-16.4
DEBT (no interest rate feedback)	44.0	67.9	111.0	180.9	254.1	310.6

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하여 개별 항목들의 합과 총합이 다를 수 있음.

출처: The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VII. 싱가포르

2023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재무부가 중기재정전망을 수행하여 수시 보고서 형태로 최초 발표

1. 추진근거 및 추이

- (법적 근거) 싱가포르 재무부(MOF)의 예산안을 위한 단년도 전망은 「재정절차법(Fiscal Processor Act)」에 따라 이루어지나 중·장기재정전망의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 (추진추이)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3년 2월 중기재정전망(Medium-Term Fiscal Projections)을 수시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
 - 중기적 과제의 재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FY2026-2030의 정부 지출과 수입을 전망
 - 예산안을 위한 단년도 수입·지출 전망은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되나, 중기재정에 대한 전망은 수시 보고서 형태로 첫 발간
- (추진배경)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23년 예산을 위해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 재무부는 정부 지출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시스템을 유지할 위해 재정전략을 검토하고 조정함
 -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공공 지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의 철저한 평가가 필요

2. 전망의 분야 및 방법

- (전망분야) 싱가포르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재정 지출 및 수입, 재정수지에 대해 전망
 - (재정지출) 보건 지출, 인프라 지출, 기타 지출 요소로 구분
 - (재정수입) 세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수익, 투자수익기여금의 영향을 분석
 - (재정수지) 지출 및 수입 항목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전망
 - 2022년 수입 증대 조치 유무에 따른 재정수지를 비교하여 전망결과를 제시

- (전망기간) 중기재정전망으로 FY2026-2030 전망

- (전망방법) 과거 추세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지출 및 수입 항목을 전망하고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제시
 - 지출 및 수입 전망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서술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부록에서 수입 전망에 사용되는 수입부양성 추정방법에 대한 설명

3. 보고서의 구조

- 2023년 보고서는 싱가포르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중기전망 및 결과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

〈참고 1〉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목차

1. 도입
2. 정부 지출 및 수입 전망
 - 정부 지출의 역사적 추세
 - 의료비 지출
 - 인프라 지출
 - 기타 지출 요소
 - 정부 지출 전망
 - 운영수익의 역사적 추세

- 운영수익 전망
- 투자수익기여금
- BEPS 2.0 조치의 영향
- 전반적인 재정 상황

3. 결론

- 부록 A 싱가포르 수입부양성 추정치
- B 통계 부록

4. 전망전제

- (전망전제) 전망에 활용되는 인구 및 거시전제 수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싱가포르가 중기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인구 및 경제 측면의 과제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재정전략을 대략적으로 제시함
 - 다만, 지출 및 수입의 과거 추이 변화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합계출산율 등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음
- (국내 과제 및 추세) 싱가포르 인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화)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관리 및 은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소득세원 감소에 따라 각 노인이 근로연령 납세자로부터 받는 지원이 감소할 것
 - 싱가포르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
 -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1명으로 낮은 수준이며, 노인부양비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
 - (사회적 지원 강화)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지위 향상, 교육,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특히 중견 및 노년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취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

- (외부환경의 어려움) 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 성장이 장기적인 둔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
 - (세계 노동생산성 저하) 선진국의 고령화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노동생산성 성장은 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
 -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의 리쇼어링은 더 많은 국가들이 더 큰 규모로 산업 정책에 의존하게 되어 글로벌 투자 경쟁이 심화될 것
 - 산업 리쇼어링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방해받을 가능성 등 어려움 직면
 - (지정학적 환경)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 안보에 상당한 투자를 유지할 필요
 - 안보에 대한 투자는 다음 팬데믹에 대한 대비 강화, 식량·에너지와 같은 중요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포함됨
 - 외부 환경의 어려움과 세계 경제의 역풍은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및 세수입 증가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전략) 싱가포르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반복적인 지출 항목은 수입원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균형예산을 운영
 - 비교적 적은 지출로 더 나은 정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인 지출에 집중
 - 다양한 수입 기반, 비교적 낮은 세율 및 누진세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으며, 공정한 수입 시스템을 유지
 - 저소득 가구가 납부한 세금에 비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누진적인 세금 및 이전지출 체계 보장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공평한 균형을 추구
 -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대응적인(countercyclical) 재정 기조를 유지

5. 전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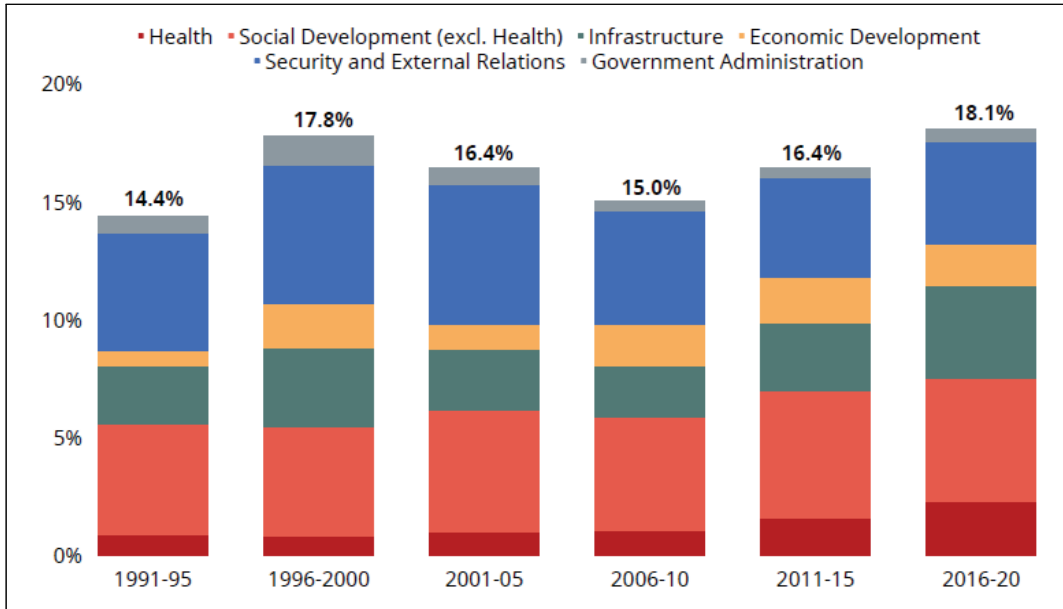
- 역사적 추세 분석을 바탕으로 FY2026-2030까지의 정부 지출, 수입, 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실시
 - 미래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주요 지출 및 수입을 전망

가. 지출

- (정부 지출의 역사적 추세) 싱가포르 GDP 대비 정부 지출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보안, 인프라, R&D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안 관련 지출은 해군기지 재개발 프로젝트 등에 따라 증가
 - 인프라 지출은 주룽섬(Jurong Island) 개발, 폐기물 매립지, 지하철 노선 개설 및 부동산 개발 등에 따라 크게 증가
 - 2010년도 이후 정부 지출은 주로 사회 개발 및 인프라 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2010~2019년 동안 사회 지출은 두 배로 증가하여 연간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택 및 교통, 차세대 인프라 발전을 위한 인프라 지출도 증가

[그림 Ⅶ-1] 정부 지출 구성요소(FY1991-2020)

(단위: GDP 대비 %)



주: 1. 시기별 비교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제외되었으며, 코로나19 지출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대신하여 2020년 2월 통합예산의 정부 지출의 수치를 사용하였음.

2. 특별 이전지출은 포함되었음.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5.

1) 의료비 지출

□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 정부 지출 중 의료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은 고령화, 연령표준화이용률 증가, 단위당 의료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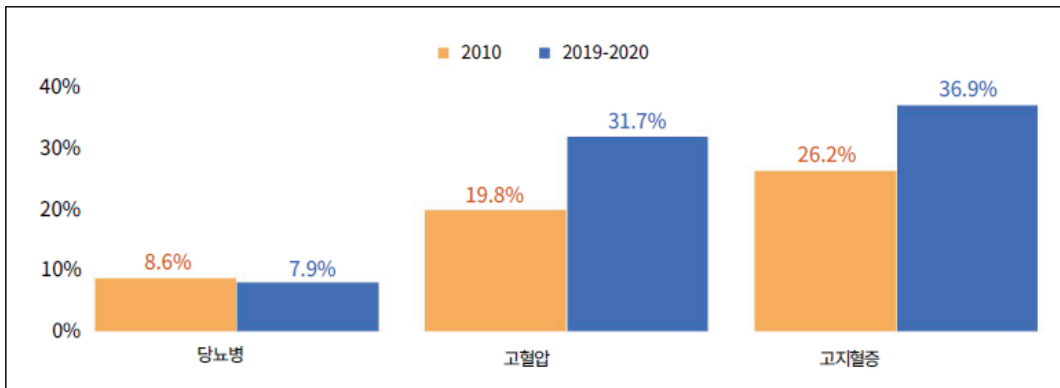
○ (고령화) 고령 환자는 동반질환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의 치료와 입원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 지출이 증가

-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장기요양 부문에 대한 지출은 2013년 2억 9,600만싱가포르달러에서 2018년 7억 2,300만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약 20%를 기록함

-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공공병원 평균 입원기간은 6.9일로 65세 미만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인 3.9일의 두 배 수준에 달함

- (연령표준화이용률 증가) 연령 구조의 차이를 표준화한 후의 의료 이용률을 나타내는 연령표준화이용률(Age-standardised utilisation rates)의 증가에 따라 보건 지출 증가
 - 생활방식의 변화와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의 증가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증가에 기여하였음
 - 소득 증가 및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의료 이용률도 높아짐
 - 지난 2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건수는 1999년 187건에서 2019년 499건으로 2.7배 증가
- (의료단위당 비용 증가)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의료단위당 비용 역시 증가함에 따라 보건 지출 증가
 - 예를 들어, 의학 종양학 분야에서 공공 부문의 항암제 지출은 2016년 1.1억싱가포르 달러에서 2021년 2.7억싱가포르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또한 의료 종사자의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VII-2] 만성질환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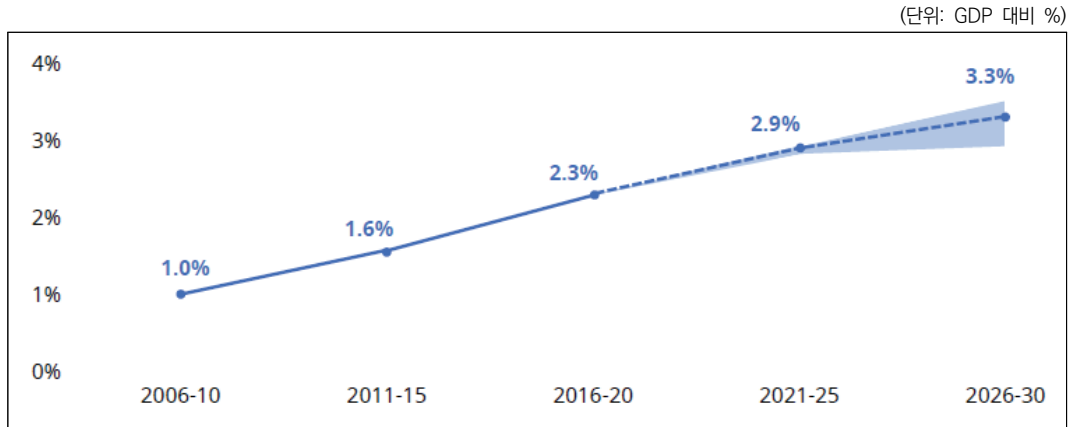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6.

- (의료비 지출 증가 완화 방안)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 의료 서비스 정착, 국민 건강 보건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 대비 가치 보장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에 노력
-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정착)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1차 의료와 중장기 의료 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실시

- 정부의 1차 의료 및 증장기 진료 부문에 대한 총지출은 FY2007-2011 동안 13억싱가포르달러에서 FY2012-2016 동안 51억싱가포르달러로 증가
 - (국민 건강 보건 프로그램 운영) 보건부는 의료시스템의 중점을 예방진료로 전환하는 전략인 국민 건강 보건 프로그램으로 Healthier SG 프로그램을 실시
 - Healthier SG는 질병이 생긴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대신 사전 건강 증진 및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건강 악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의료 지출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비용 대비 가치 보장) 보건부는 케어효과청 설립 및 의료보험 체계 개정을 통해 의료 비용은 절감하고 보장 항목은 확대하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에 노력
 - 2015년 설립된 케어효과청(The Agency for Care Effectiveness)은 신약 및 치료 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제약업체와의 공정한 조달 가격 협상을 통해 현재까지 4억싱가포르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
 - 2022년 메디실드라이프 의료보험(MediShield Life), 메디세이브(MediSave) 및 민관통합의료보험(Integrated Shield Plans)에 따른 항암제 치료에 대한 보장을 확대 개정
 -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건부는 의료 서비스에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하고 더 많은 항암제에 대한 보조금 확대, 항암제 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비 지출 전망) 의료비 지출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9~3.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정부 의료비 지출(GHE)은 현재 GDP의 약 2.3% 수준에서 FY2026-2030 기간동안 GDP의 약 2.9~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하여 상한, 하한 시나리오의 가정을 다르게 설정
 - 미래의 고령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확실하지만, 의료 서비스의 연령표준화이용률 변화, 비용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
 - 의료 서비스의 비용은 정부의 예방 및 1차 의료 전략의 효과, 미래 의학 발전, 운영 비용 절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상한(upper bound) 시나리오: 의료비 증가율이 지난 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하한(lower bound) 시나리오: 비용 관리 전략이 의료 비용의 상승을 완화하는 것으로 가정

[그림 VII-3] 정부 의료비 지출(GHE)의 추이와 전망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8.

2) 인프라 지출

- (인프라 지출 요소) 싱가포르의 인구의 연결성, 거주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대적 인프라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인프라 지출에는 지속가능환경부, 국토개발부, 교통부 등 인프라 부처의 지출뿐만 아니라 철도인프라기금, 공항개발기금과 같은 대형 인프라 기금에 대한 보충금이 포함됨
 - 주요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의 예로는 새로운 MRT 노선 건설, 창이 공항(Changi Airport) 개발, 대심도 터널 하수도 시스템(Deep Tunnel Sewerage System) 공사 등이 있음

- (인프라 지출 전망) 주요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따라 인프라 지출은 현재 연간 GDP의 약 4.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FY2026-2030 기간동안 연간 GDP의 약 4.4%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인프라 사업 자금 차입법(SINGA)」을 통해 인프라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FY2026-2030 기간의 인프라 지출은 연간 GDP의 약 4.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인프라 사업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인 「정부 인프라 사업 자금 차입법(Significant Infrastructure Government Loan Act, SINGA)」을 도입
 - SING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인프라는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인프라 비용을 세대 간에 보다 공정하게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중기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차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지출 전망이 증가할 수 있는 불확실성 존재

3) 기타 지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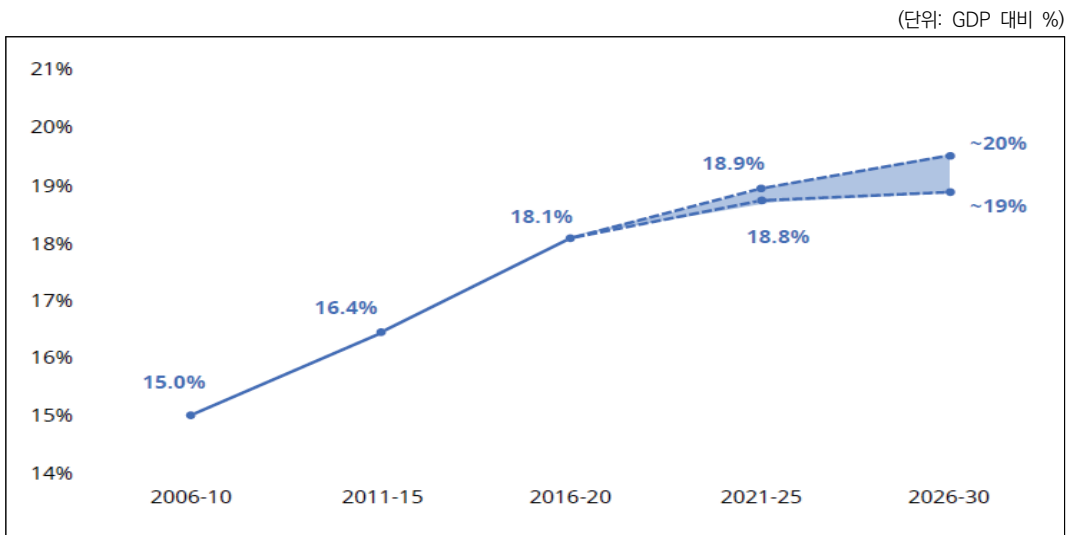
- (기타 지출 전망) 의료 및 인프라를 제외한 기타 지출 요소가 최소한 GDP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기 전망을 위해 COVID-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기타 지출 요소가 FY2016-2020 기간 동안의 GDP 비율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음
- (정책 반영 항목) 정부 발표를 통한 보조금 등 향후 예정된 정책으로 야기되는 추가 지출의 재정적 영향은 전망에 반영되었으며, 연간 GDP의 0.2% 수준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22-2026 기간동안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진보적 임금 지원 제도(Progressive Wage Credit Scheme) 및 강화된 워크페어 소득 보조금(Workfare Income Supplement)에 90억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
 - 조기 아동 교육에 대한 연간 지출을 2018년의 약 10억싱가포르달러에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4) 정부 지출 전망

- (정부 지출 전망) 각 지출 요소 전망치를 바탕으로, FY2026-2030 기간동안 정부 지출은 GDP의 약 19~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지출 전망은 정부가 2030년까지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음
- 싱가포르의 경제 및 사회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하거나 기존의 지출 항목의 일부를 축소하고 새로운 우선순위 분야에 자금을 재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

[그림 VII-4] 정부 지출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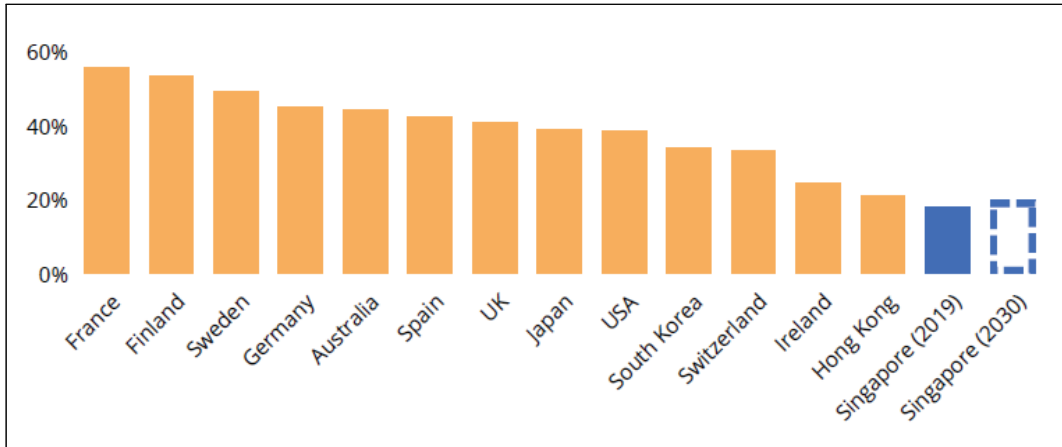
주: 비교를 위해 COVID-19 관련 지출은 제외되었으며, 특별 이전지출은 포함되었음.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10.

- (정부 지출 국제 비교) 2019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지출을 비교하면 싱가포르의 정부 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정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 신중성과 비용 효율적인 지출에 중점을 두는 재정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Ⅶ-5] 총정부지출(2019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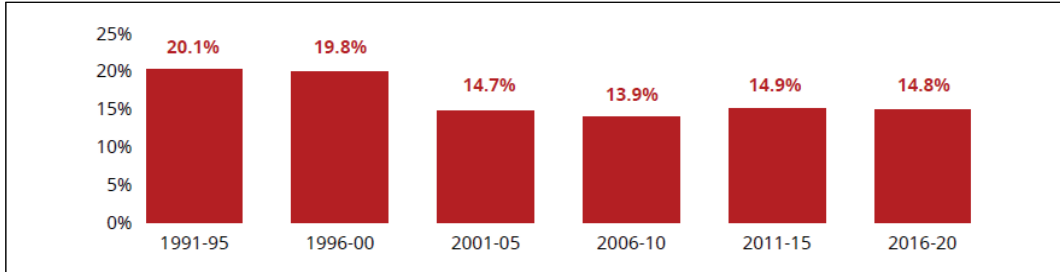
나. 수입

1) 운영수익

- (운영수익 추이) 1990년대~2000년대에는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세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GDP 대비 운영수익(Operating Revenue) 비율이 감소함
 - 경기침체 극복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장기 성장을 유지하고자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음
 - 법인소득세(CIT) 세율은 1991년 31%에서 2010년 17%로 9단계에 걸쳐 인하
 - 개인소득세(PIT) 최고세율은 1991년 33%에서 2007년 20%로 6단계에 걸쳐 인하
 - 해당 기간 싱가포르의 명목 GDP는 연평균 약 8% 증가하였으나 세수 측면에서 GDP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GDP 대비 운영수익이 감소
 - 소득세율 인하는 다른 선진국들도 소득세를 대폭 인소한 시기에 싱가포르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수입원 다각화를 위해 1994년 상품서비스세(GST)를 시행하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나 GDP 대비 운영수익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

[그림 VII-6] 운영수익 추이(FY1991-2020)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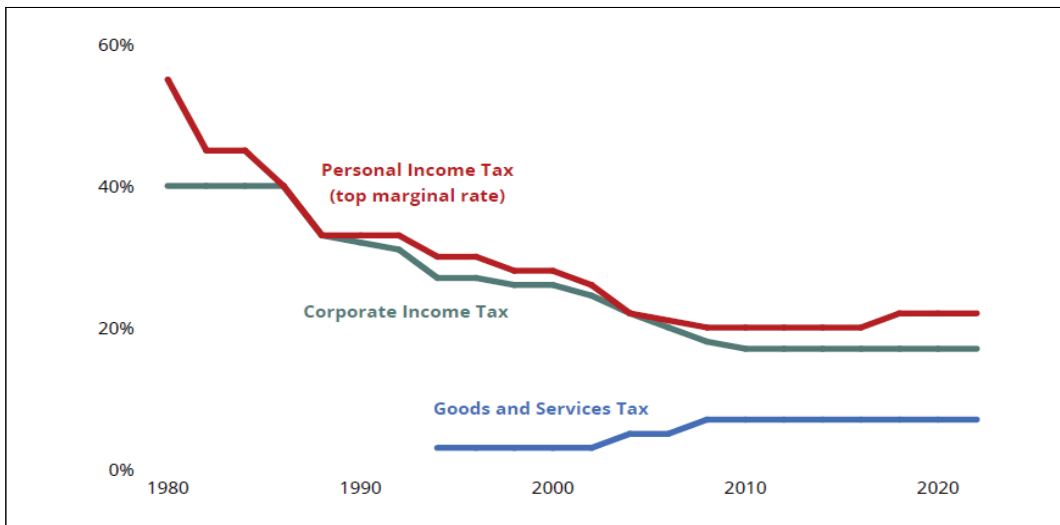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12.

□ (운영수익 추이) 2010년도 이후 정부의 수익 증대 조치로 인해 GDP 대비 운영수익 증가

- 정부는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수 증대 조치를 취하였음
 - 예컨대, 2017년에 개인소득세(PIT) 최고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하였음
- 향후 세수 정책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운영수익은 GDP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운영수익의 장기 수익 부양성을 0.8~1.0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지출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주기적인 수익 증대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함

[그림 VII-7] 싱가포르 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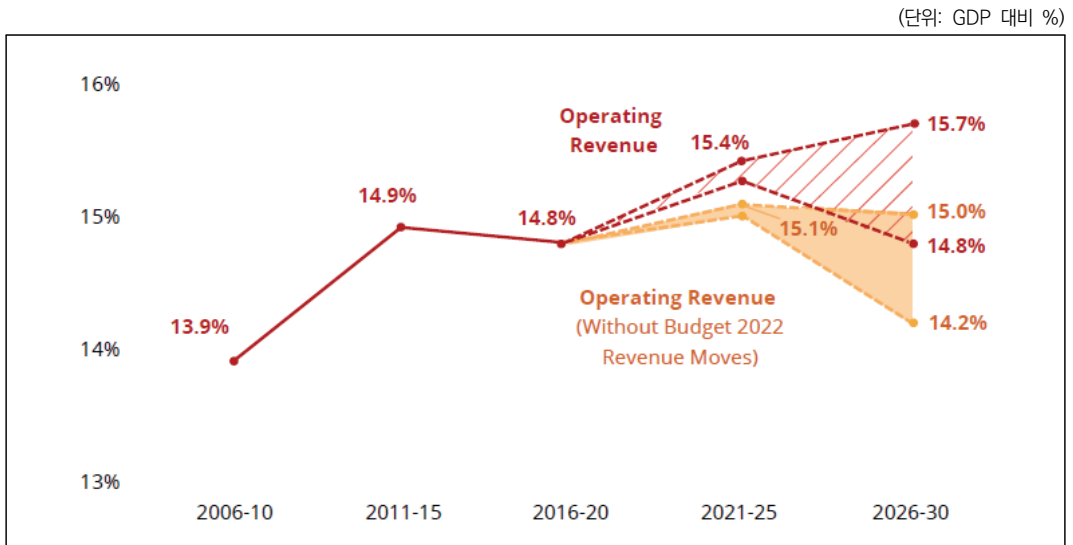
(단위: %)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27.

- (운영수익 전망) 세수 증대 조치의 영향으로 FY2026-2030 기간동안 GDP 대비 운영수익은 약 14.8~1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예상되는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여러 수익 증대 조치를 발표함
 - 상품서비스세(GST) 세율을 7%에서 9%로 인상하여 연간 GDP의 약 0.7%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 예상
 - 개인소득세(PIT) 최고세율 인상, 고급·비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상
 - 고급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추가 등록비 도입
- 2022년 예산안의 수익 증대 조치가 없었을 경우, FY2026-2030 기간의 GDP 대비 운영수익은 약 0.7%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Ⅶ-8] 운영수익의 추이 및 전망



주: 운영수익은 명목 GDP 성장을 4~6%에 수입부양성 추정치 0.8~1.0을 적용하여 전망함.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13.

2) 투자수익기여금(NIRC)

- (투자수익기여금) 투자수익기여금(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 NIRC)은 투자기관들이 투자한 순자산에서 발생한 순투자수익(Net Invest Returns, NIR)과 과거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한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 NII)으로 구성됨

- 투자수익기여금의 지출 체계는 정부가 현재 지출을 위해 투자수익의 일부를 사용하면서도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재와 미래 국민에게 균형잡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나타냄
- (투자수익기여금 전망) 지난 5년 동안 투자수익기여금은 연간 GDP의 약 3.5%를 차지해왔으며, 현재 지출 준칙 및 경제성장 속도에 기반하여 GDP의 3.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수익기여금은 정부 수입의 가장 큰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현재 정부 지출의 약 20%를 충당하는 수준
 - 전반적으로 GDP 대비 투자수익기여금 비율은 중기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도별로 다소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함
 - 미래 투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경제 및 생산성 성장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및 무역 긴장 증가 등 투자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추세보다는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3) BEPS 2.0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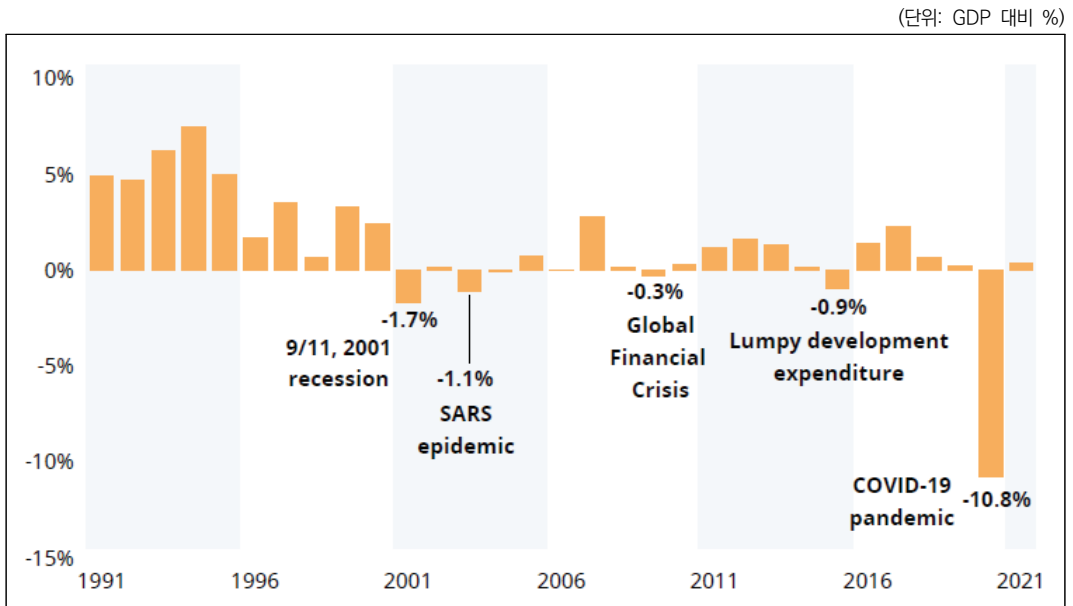
- (BEPS 2.0) BEPS 2.0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이슈에 대한 OECD의 대응 방안(Action Plan)인 2-Pillar 접근법을 의미하며, 싱가포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에 반영하지 않음
- (BEPS 2.0 영향) BEPS 2.0 조치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하며, 싱가포르는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수익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추가 수익을 경제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
 - Pillar 1에서는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MNEs)의 이익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재배분되므로 싱가포르는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것임
 - Pillar 2에서는 대형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므로 장기적인 수익 영향은 불확실하며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

- 보조금과 같은 비세금 조치를 통해 질 높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Pillar 2에서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 수익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정수지

- (재정수지 추이) 1990년대 싱가포르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신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흑자를 기록하여 유보금을 축적하며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였음
 - 싱가포르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
 - 유보금을 활용하여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정부 지출의 약 20%를 충당하는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등 재정성과를 달성하였음
 - 앞으로 199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과 큰 재정흑자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Ⅶ-9] 싱가포르 재정수지(FY199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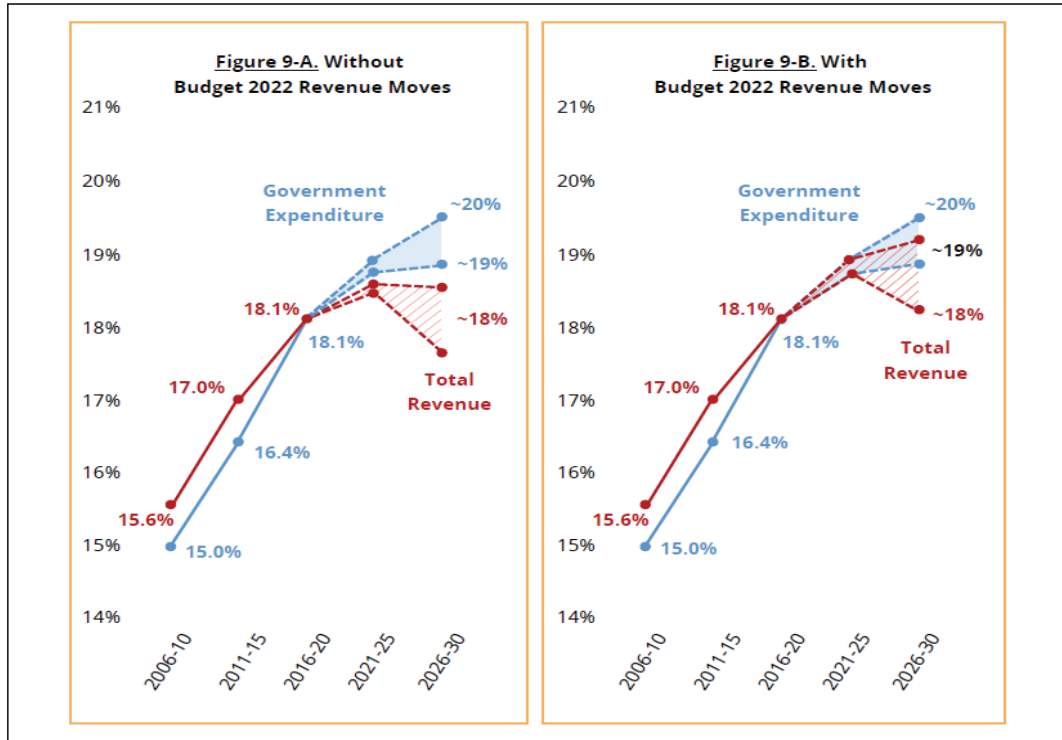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2.

- (중기 재정수지 전망) 정부 지출과 운영 수익, 투자수익기여금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향후 중기 시계 동안 정부 지출과 수입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여력(fiscal space)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경향을 보임
 - 2022년 예산안에서 세수 증대 조치가 없었다면, 총수입은 이번 10년 내에 예상되는 정부 지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지출 증가분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30년까지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
 - 이번 전망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책 변화에 필요한 최종 설계와 규모에 따라 중기적으로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수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VII-10] 중기 정부 지출 및 수입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1. 비교를 위해 코로나19 지출은 제외함.

2. 총수입(Total Revenue) = 운영 수익(Operating Revenue) + 투자수익기여금(NIRC).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16.

6. 수입부양성 추정

- 싱가포르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수입부양성(revenue buoyancy) 추정방법과 FY1997-2021 기간동안의 추정결과를 부록에 제시하고 있음

가. 수입부양성 정의

- (정의) GDP 변화에 따른 수입원들의 변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입부양성(revenue buoyancy)을 추정
 - 수입부양성은 GDP의 일정 비율 변화에 따른 수입의 백분율 변화를 의미
 - 부양성이 1인 경우, GDP가 1% 증가하면 수입도 1% 증가하여 GDP 대비 수입 비율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함
 - 부양성이 1을 초과하는 경우, GDP 변화보다 수입이 더 많이 변동함을 의미

나. 추정방법

- (추정방법) 싱가포르의 주요 수입 항목들에 대한 장기(LR) 및 단기(SR) 부양성(FY1997-2021)을 추정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⁴⁵⁾을 사용
 - 1) 수입과 GDP 간의 장기적 관계인 β_{LR} 을 추정

$$\ln(\text{Revenue}_t) = \mu + \beta_{LR} \ln(\text{GDP}_t) + \text{TaxRate}_t + \varepsilon_t$$

- 2) 계수 θ_{SR} 은 GDP 변화가 수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측정함(단기 부양성)
- 조정 속도 λ 는 부양성이 장기 균형 값에 얼마나 빨리 수렴되는지를 측정함

$$\Delta \ln(\text{Revenue}_t) = \mu + \lambda(\ln \text{Rev}_{t-1} - \beta_{LR} \ln \text{GDP}_{t-1}) + \theta_{SR} \Delta \ln(\text{GDP}_t) + \text{TaxRate}_t + \varepsilon_t$$

- Revenue_t 는 t 년도에 해당하는 수입, GDP_t 는 t 년도 명목 GDP를 의미함

45)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ECM)은 IMF 워킹페이퍼 Belinga et al.(2014), Dudine and Jalles(2017)에서 장기 및 단기 부양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음.

- $TaxRate_t$ 는 t 년도 특정 수입의 세율 변화를 통제하는 변수(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한계세율)이며, μ 는 상수항, ε_t 는 오차항을 의미함

다. 주요 결과

- (장기 부양성) 운영수익과 세수의 장기 부양성 추정치는 각각 0.86, 0.94로 나타남
 - 운영수익의 장기 부양성이 세수 부양성보다 낮은 이유는 수수료 및 요금, 차량 쿼터제 (Vehicle Quota Premiums)와 같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지 않은 수입원들의 영향일 수 있음
 - 장기 부양성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GDP보다 다소 느리게 성장했음을 의미하고 있음
 -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출 증가가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증가한 지출에 맞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추정 결과) 운영수익과 세수의 단기 부양성 추정치는 각각 0.88, 0.86으로 세수가 GDP 변동에 비해 다소 느리게 변동할 수 있음을 의미
 - 이러한 결과는 경기 사이클 동안 세수의 자동안정화 효과와 같은 경제충격 완화 역할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
 - 예를 들어, 경기침체 시 징수되는 세금의 감소가 GDP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계 및 개인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경기침체 동안 가계 및 기업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은 세금만이 아니며, 이전지출을 통한 보완이 필요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전지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 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와 개인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

〈표 VII-1〉 주요 수입의 부양성 추정치(FY1997-2021)

구분	장기 부양성 추정치	단기 부양성 추정치
운영수익	0.86	0.88
세수	0.94	0.86

주: 1. 운영수익의 장기 및 단기 부양성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각각 0.05, 0.26임.

2. 세수의 장기 및 단기 부양성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각각 0.03, 0.23임.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20.

□ (세원별 추정 결과) 주요 세수인 법인세(CIT), 개인소득세(PIT), 상품서비스세(GST)에 대한 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비교적 높은 부양성을 보임

- 법인세(CIT)의 단기 부양성이 1 미만인 이유는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로 인해 GDP 변화에 대한 세수의 반응성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음
- 개인소득세(PIT)의 장기 부양성이 1을 초과하는 이유는 누진세 구조 때문일 수 있음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누진세의 부양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이 임금 상승에 따라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소득세(PIT)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임
- 반면, 개인소득세(PIT)의 단기 부양성이 1보다 낮은 이유는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CoE) 비중이 낮고, GDP와의 상관관계가 약하기 때문일 수 있음
 - 싱가포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4~2019년 노동소득분배율의 평균을 비교하면, 싱가포르 노동소득분배율은 48%였으나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홍콩 등 일부 선진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58%로 나타남

〈표 VII-2〉 주요 세원의 부양성 추정치(FY1997-2021)

구분	장기 부양성 추정치	단기 부양성 추정치
법인세(CIT)	1.00	0.84
개인소득세(PIT)	1.36	0.56
상품서비스세(GST)	0.92	1.40

주: 1. 장기 및 단기 방정식에 세율 변화를 통제하는 변수를 포함하였음.
 2. 소득세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목 GDP의 과거 값(lagged)을 기준으로 사용.

출처: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 p. 21.

- (결론) 종합적으로, 싱가포르의 장기 운영수익 부양성은 약 0.86으로 추정되어 장기적으로 운영수익이 GDP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성장함을 시사
 - 부양성 추정치를 사용하여 중기 수입을 전망할 때,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부양성의 점 추정치(point estimates) 주변 범위 값을 채택하였음
 - 만약 지출이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증가하는 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단기 부양성 또한 1보다 약간 낮으며, 싱가포르의 낮은 소득세 부담으로 경기침체 시 완충효과가 적을 수 있음을 반영함
 - FY2019 GDP 대비 세수는 싱가포르가 13.2%로 OECD 평균인 21.9%에 비해 낮음
 - 대신, 싱가포르는 정부 이전지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을 충격으로부터 보호

VIII. 호주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 인구 고령화, 디지털 기술 전환, 기후 변화 및 순 제로 전환,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지정학적 위험 등 호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재정을 전망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정직예산헌장법⁴⁶⁾(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따라 장기재정전망보고서를 발간⁴⁷⁾
 - 「정직예산헌장법」에 재정전략보고서(Fiscal strategy statement), 예산서(Budget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s), 반기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s), 결산보고서(Final budget outcome reports), 장기재정전망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s), 선거전보고서(pre-election report), 선거전 정책비용산출(policy costings)을 발표하도록 명시
 -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은 제6편(세대간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의 재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40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현 정부정책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법령 시행 후 5년 이내에 첫 번째 보고서를 발행하며 적어도 5년마다 전망하도록 규정
- (추진추이) 1998년에 법령 시행 후 2023년 여섯 번째 장기전망 보고서 발간
 - (2002, 2007) 의료, 노인요양, 교육, 연금, 기타(국방, 환경) 분야의 장기재정전망을 중심으로 전망 전제, 결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

46)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foreignIndexView.do?countPerPage=10&cn=TLAW1201200187>(검색일자: 2024. 05. 21.).

47)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https://www.legislation.gov.au/C2004A05333/latest/text>(검색일자: 2024. 05. 21.).

- (2010) 고령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료, 노인요양, 교육, 연금, 소득보장급여, 국방과 환경 분야를 따로 분리해 전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항목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성격
- (2015)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중요하게 보고, 과거 정책에 따른 재정 전망과 현재 입법화된 정책, 제안된 정책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40년간의 재정을 전망
- (2021) 정책이 유지될 경우 경제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칠 기본적인 추세를 포착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 등 향후 40년간 경제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포착하고자 민감도 분석을 실시
- (2023) 인구 고령화, 기술 및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및 순 제로 전환,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지정학적 위험 및 파편화 등 다섯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재정전망 실시

〈표 VIII-1〉 호주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행연도	보고서명	전망기간
2002	<i>Intergenerational Report 2002-03</i>	40년
2007	<i>Intergenerational Report 2007</i>	40년
2010	<i>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i>	40년
2015	<i>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i>	40년
2021	<i>2021 Intergenerational Report</i>	40년
2023	<i>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i>	40년

출처: 저자 작성.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범위) 호주의 장기재정전망은 연방정부(Commonwealth)에 국한되며 지방정부 예산은 포함하지 않음
- (전망분야) 아래와 같이 수입과 지출 분야를 구분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지출) 보건의료(Health), 노인요양(Aged care), 장애연금(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퇴직연금(Retirement income)

system), 소득 및 가족 지원(Income support and family assistance payments), 교육(Education and training),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기타 지출(Other payments)로 구분

- (수입)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간접세(Indirect tax), 법인 및 기타 소득세(Company and other income taxes), 세외 수입(Non-tax receipts)으로 구분

- (전망방법) FY2023-2024 예산안의 증기 경제 및 재정 전망에 기반을 두고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FY2062-2063년까지 확장하며 재정 전망은 재무부의 재정 총량 및 시나리오 분석 모형(MFASA)을 사용
 -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주요 정부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전망할 때 가상의 반사실적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추정하며, 다른 지출 항목들은 비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
 -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전망한 지출 항목으로는 노령연금, 보건의료, 노인 요양, 돌봄제공(간병인) 지원, 장애연금, 구직자 급여, 양육수당, 청년수당, 교육훈련 지원금, 육아보조금, 가족 세제 지원, 유급 육아 휴가, 고등 교육, 학교 및 직업 교육 훈련이 있음
 -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 주요 지출 항목으로 정부 사회기반시설 지출, 국방 및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전망이 있음
 - (보건의료) FY2033-2034년까지 공공 병원, 의약품 및 의료 혜택,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에 대한 개별 구성 요소 모델을 기반으로 전망하며,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FY2034-2035년부터 정부 총보건지출을 전망하는 데 총량 모형을 사용
 - 보훈 건강, 공중 보건 프로그램 및 의료 연구와 같이 구성 요소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은 명목 GDP의 백분율로 일정하게 유지
 - (노인요양) 향후 40년 동안의 노인요양 지출은 인구변화 전망, CPI 증가, 비인구통계학적 요인 추산과 함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인구 1인당 노인 간호 서비스 비용의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전망
 - (장애연금) FY2023-2024년 예산안을 따르며, 증기까지 제도가 성숙할 것이라 가정함에 따라 NDIS 지출은 FY2043-2044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후 명목 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NDIS에 대한 주(州)정부의 자금 지원 분담금은 호주 정부와의 양자 간 협정에 따라 전망 기간동안 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소득보장급여) 노령연금, 연금세 감면, 기타 추세적 급여로 분류하여 전망
 - (노령연금) 재무부의 호주 퇴직 소득 및 자산 모델(MARIA)을 사용하여 산출
 - (연금세 감면) 연금 세금 감면 비용은 MARIA를 사용하여 매년 독립적으로 추산하며 FY2033-2034년부터는 여러 개인소득세 기준과 감면액이 임금상승률에 연동된다고 가정
 - (기타 추세적 급여) 지출이 수혜자 수 및 수혜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가 상승률이 물가지수와 연관되는 경우 추세 모형을 사용하며 장애지원연금, 양육수당, 구직 자금, 청년수당 및 교육훈련지원금, 돌봄제공(간병인) 지원 등 지출 전망에 사용
- (교육) 학교 기금 전망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공 자금이 필요한지 추정하는 학교 자원기준에 근거하며, 학생 수 증가는 연령별 인구 전망을 따르고 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임금지수에 연동
- (국방) 국방지출은 FY2023-2024 예산안의 중기 전망을 따르며, FY2033-2034년부터 FY2062-2063년까지는 GDP 대비 2.3%라고 가정
- (기타지출) 호주 정부 재무제표 추정치와 모델링된 총지출의 잔차로 계산되며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에 연동됨
 - 호주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개발 및 관광에 대한 지출을 포함
- (수입) FY2033-2034년 이후의 중기 전망 기간 말부터 GDP 대비 조세 비율이 24.4%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기술적 가정을 적용
 - GDP 대비 세수 비율이 지난 3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안정성이 선진국에서 널리 관찰되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가정임

3. 전망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주기) 최소 5년마다 전망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 2002년을 시작으로 2~6년마다 보고서를 발간

- (전망기간) FY2022-2023⁴⁸⁾부터 FY2062-2063까지 향후 4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망
- (중기전망과의 연계성) 중기까지는 예산안의 중기전망과 연계, 이후 전망은 장기 모형으로 추계
 -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FY2023-2024 예산안(2023-24 Budget⁴⁹⁾)을 기준으로 FY2022-2023년부터 FY2026-2027년까지는 경제 및 재정 추정치(Economic forecasts and Budget estimates)를, FY2027-2028년부터 FY2033-2034년까지는 중기전망(Economic and Budget medium-term projections) 결과를 반영
- (거버넌스)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재무부(The Treasury)의 주도하에 각 분야별 전망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종합

4. 보고서의 구조

- (보고서 구조) 2023년 발간된 호주 장기전망보고서는 총 2개 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경제 전망을, 제2장에서는 재정 전망에 대해 서술
 - 세부 항목별 전망 결과, 경제 및 인구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방법론 및 가정, 이전 전망과의 결과 비교 등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기술

48) Commonwealth of Australia, "Noting that 2022-23 is a forecast year", 2023, p. 46.

49)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23-24 Budget Paper No. 1: Budget Strategy and Outlook*, 2023. 5.

〈참고 1〉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목차

Part 1 호주 경제 전망(The economy over the next 40 years)

- 경제 전망
- 인구 전망
- 참여율 전망
- 노동생산성 전망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망

Part 2 호주 재정 전망(The budget over the next 40 years)

- 재정 전망
- 지출 전망
- 세입 전망
- 자산 및 부채 전망

부록(Appendix)

- 전망 결과 요약
- 주요 개념
- 방법론 및 가정
- 경제 및 인구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 기후 변화 모델링
- 2002 세대간보고서 전망과 실적치 비교
- 2023 세대간보고서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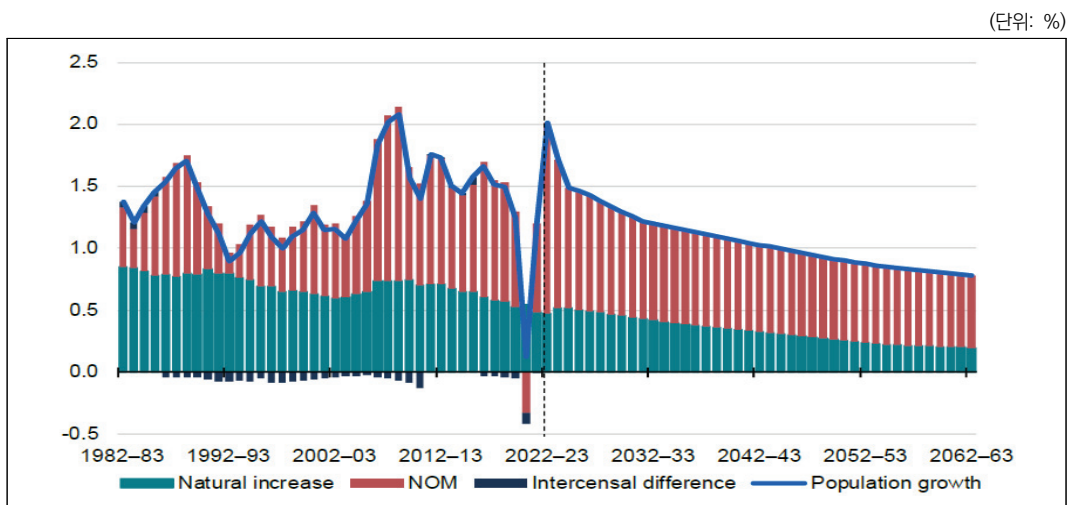
5. 전망전제

- (인구전제) 2022 인구보고서(2022 Population Statement)⁵⁰⁾ 및 FY2023-2024 예산안에 서술된 코호트 요인법을 사용하여 FY2062-2063년까지 확장
-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은 FY2022-2023년 연 2.0% 수준에 이르렀다가 인구의 자연 증가 및 순 해외 이민 등의 기여도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둔화해 FY2062-2063년 연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 호주의 인구증가율은 FY2020-2021년 해외 이주를 제한하는 국제 국경 제한 때문에 둔화하였다가 국경 제한이 완화되면서 빠르게 회복됨

50) Centre for Population, *2022 Population Statement*, The Australian Government, Canberra, 2022.

- 향후 4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1% 수준으로, FY1982-1983년부터 FY2022-2023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인 1.4%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인구 증가는 해외 이주와 자연 증가에 따라 계속 유지되겠지만, 둘 다 인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순 해외 이민자 수는 장기적으로 23만 5,000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가정하며, 자연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감소하고, 사망자는 출생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인구는 FY2022-2023년 2,650만명에서 FY2062-2063년 4,0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구 전망 결과는 2010년 이후 세대간 보고서들의 전망과 유사하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는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를 견인한 이민 환경이 지속될 것임을 반영

[그림 VIII-1] 호주 인구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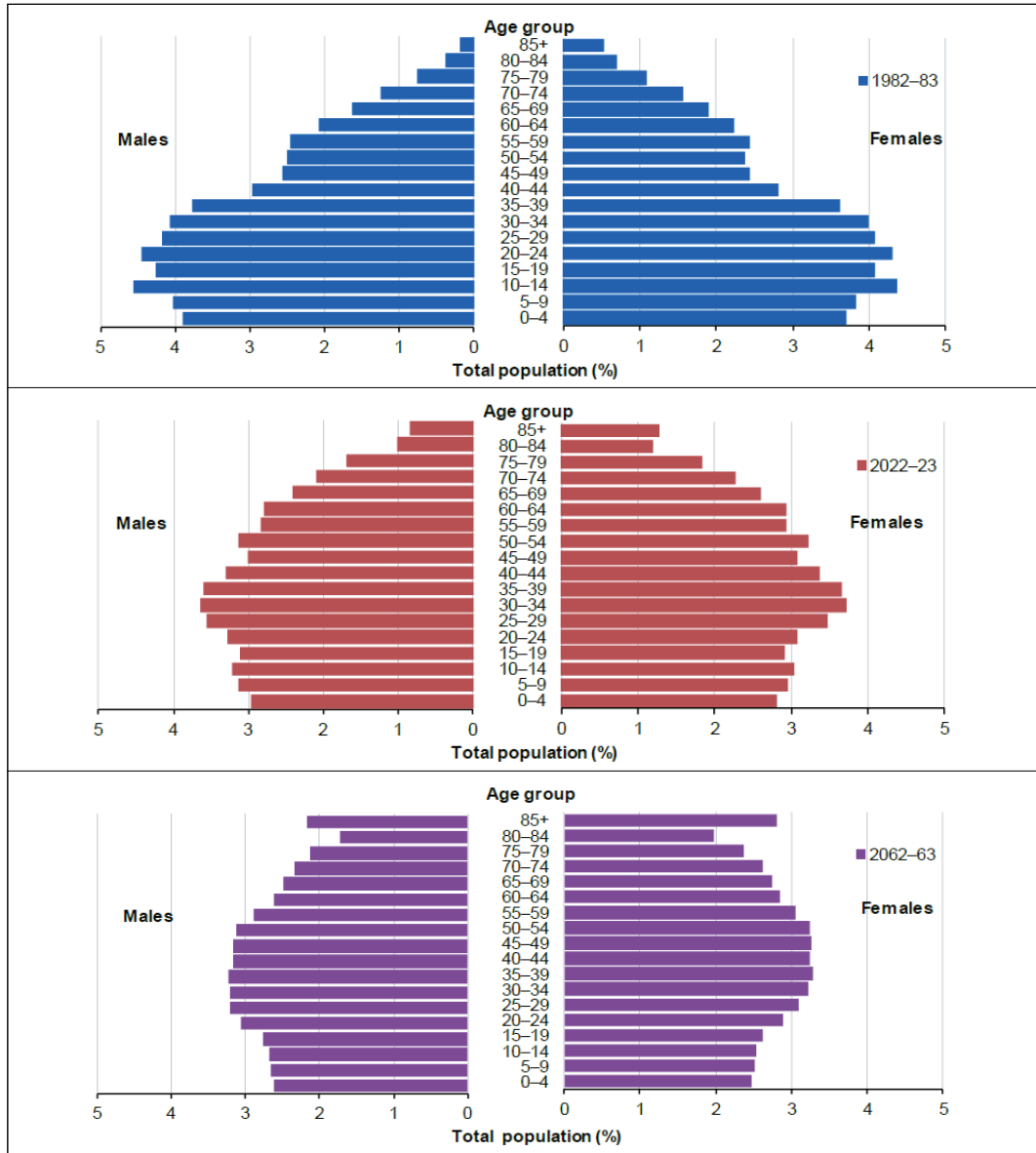


주: NOM은 Net Overseas Migration의 약자로 이민 순 유입을 나타냄.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38.

- (고령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FY2022-2023년과 FY2062-2063년을 비교하면 6.1%p 증가하여 23.4%에 이를 전망이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인구가 젊은 편이며 향후 40년간 OECD에서 가장 낮은 중위 연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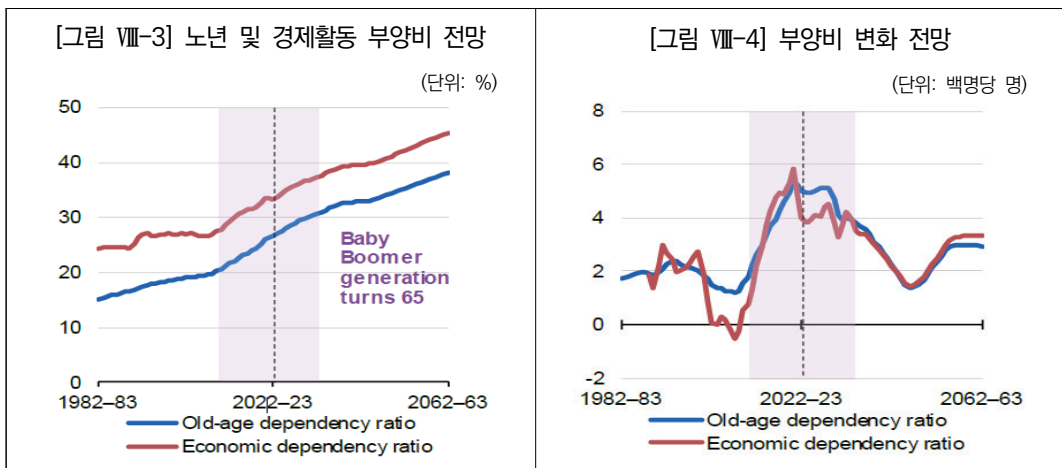
[그림 Ⅷ-2] 시대별 호주 인구 연령 피라미드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47.

- (노년부양비)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FY2022-2023년 26.6%에서 FY2062-2063년 38.2%로 전망되었고 고령인구 규모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 코호트가 2010년대 초반부터 65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년부양비가 특히 급격하게 증가
-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2030년대에 둔화하다가 2040년대부터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짧은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청년층의 고령화와 2008년경부터 증가한 이민의 영향 때문
- 이후 노년부양비는 지속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더딜 전망
- (경제활동부양비⁵¹⁾) 모든 연령대의 취업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FY2022-2023년 33.2%에서 FY2062-2063년에는 4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모든 생산가능인구가 고용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에 포함되는 피부양자 비율은 노년부양비보다 높음
- 노년부양비와의 차이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경제활동부양비 증가 추세가 둔화함에 따라 줄어들었으며, 이는 호주 여성과 노년층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남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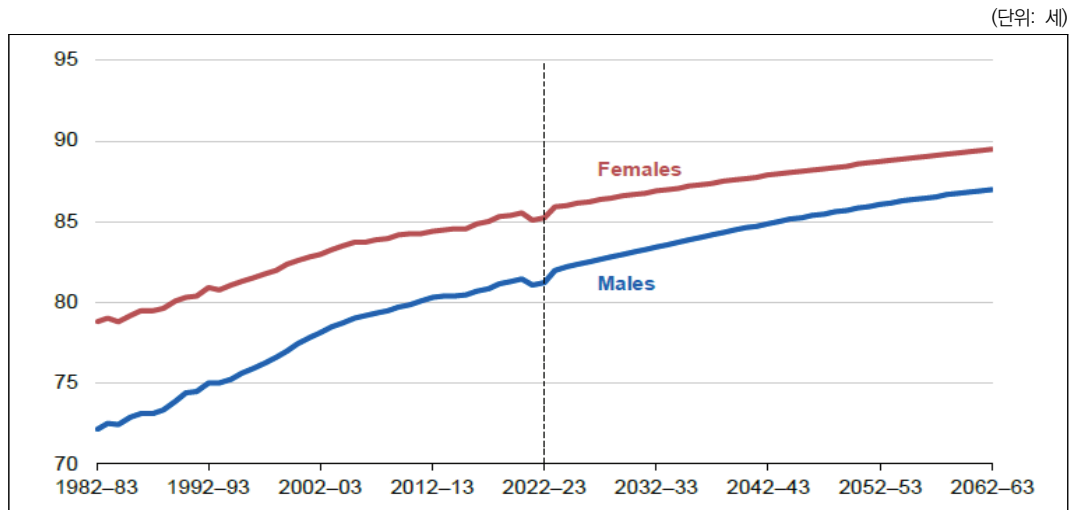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48.

51) 원문에는 economic dependency ratio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보다 나은 건강 상태와 더 많은 직업 선택권을 반영하여 취업한 호주 노인 인구를 포함하며 풀타임 및 파트타임 고용을 모두 포함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3, p. 49).

- (기대수명) 호주의 기대수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어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증가 속도는 더디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함
 - 출생 시 기대수명은 FY2022-2023년 남성 81.3세, 여성 85.2세이며, FY2062-2063년에는 남성 87.0세, 여성 89.5세가 될 전망
 - FY2021-2022년과 FY2022-2023년에 코로나19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인해 기대수명이 감소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
 - 다만 코로나19가 사망률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

[그림 VIII-5] 출생 시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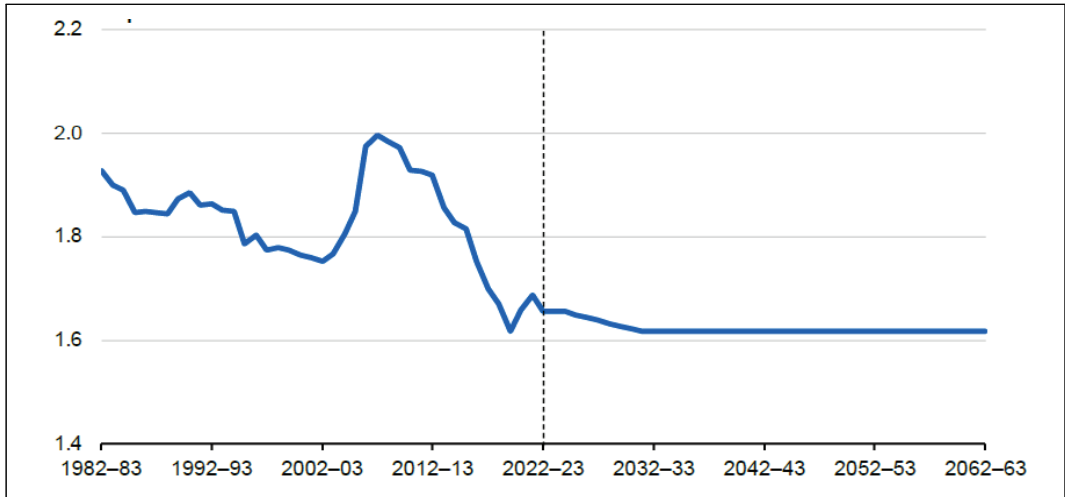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42.

- (출산율) 호주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 이하로 계속 유지되는데, FY2022-2023년 여성 1명당 1.66명에서 더 감소한 후 FY2030-2031년 1.62명에서 안정되어 FY2062-2063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10대와 20대 여성의 미래 출산율은 안정화되기 전에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이미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며, 기술의 향상과 건강한 생활로 인해 40대 여성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VIII-6] 호주의 출산율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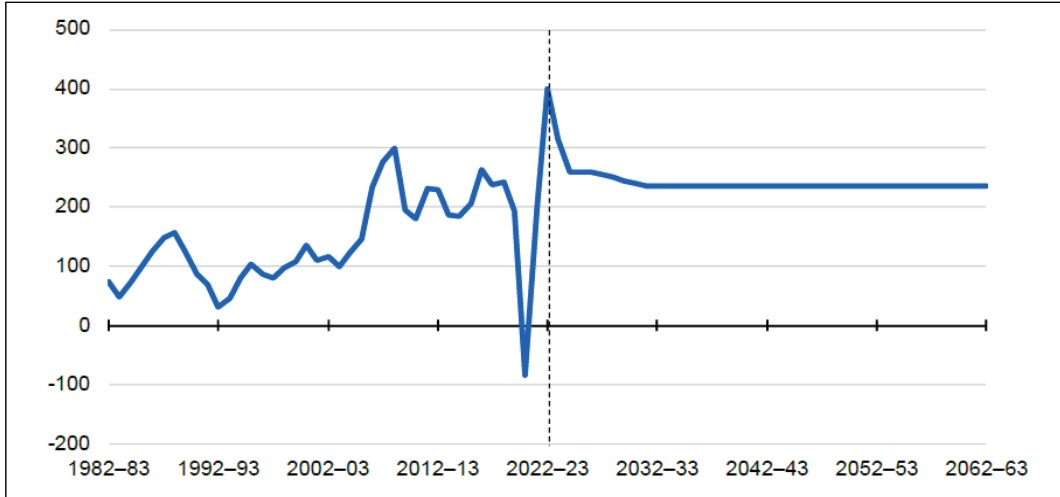
(단위: 여성 1명당 명)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44.

- (순 이민) 순 해외 이민은 인구 증가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인구 대비 비율로는 감소한다고 가정
 - 지난 10년 동안 호주 인구 증가의 60% 이상이 순 해외 이민에 의한 것으로 이민은 호주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
 - FY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제 여행 제한으로 인해 순 해외 이민은 8만 5,000명 순유출을 기록
 - FY2023-2024 예산안에서 팬데믹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회복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순 해외 이민 수준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FY2024-2025년에는 대체로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
 - 현재 전망에 따르면 단기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누적 순 해외 이주는 FY2029-2030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것
 - 일시적인 회복이 진정되면 장기적으로 연간 순 해외 이주는 23만 5,00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40년 동안 순 해외 이민은 호주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0.7%p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24-2025년 1.0%p에서 FY2062-2063년 0.6%p까지 감소할 전망

[그림 VIII-7] 순 해외이민자 추이와 전망

(단위: 천명)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40.

- (자연 증가) 특정 연도의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증가도 인구 증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나 FY2022-2023년 123,000명에서 FY2062-2063년 80,000명까지 감소할 전망
 -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는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 자녀와 해외 이주자 등 20~30대 여성 코호트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빠르게 증가해 자연 증가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증가에 대한 자연 증가의 기여는 줄어들지만 플러스로 유지될 것
 - 자연 증가는 1990년대에 연간 인구 증가의 0.7%p, 2010년대에는 0.6%p를 차지했으며, 향후 40년 동안 인구 증가에 평균 0.3%p 기여할 것으로 전망

〈표 VIII-2〉 호주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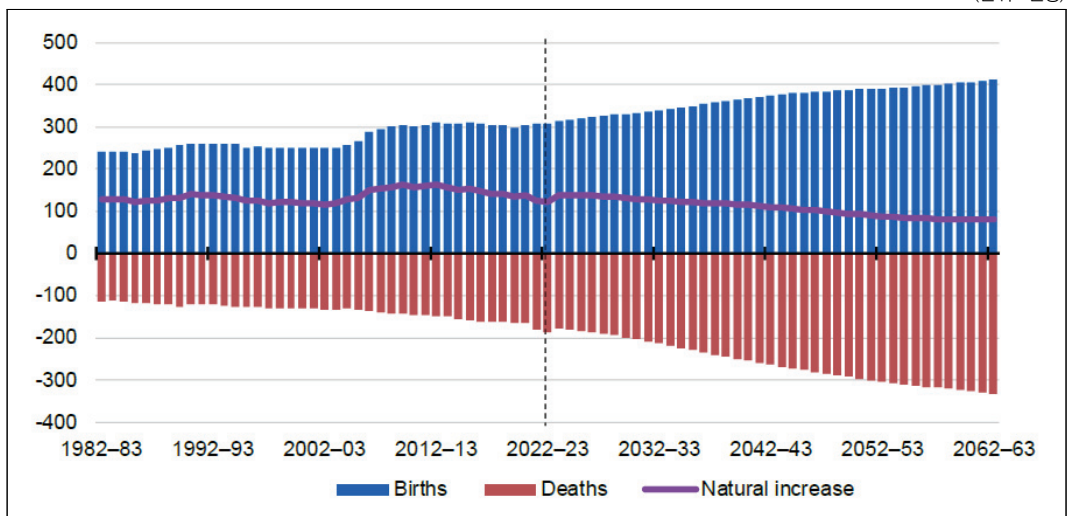
	FY2022-2023	FY2032-2033	FY2042-2043	FY2052-2053	FY2062-2063
인구(백만명)	26.5	30.4	33.9	37.3	40.5
0~14	4.8	5.1	5.5	6.0	6.3
15~64	17.2	19.4	21.4	23.1	24.8
65~84	4.0	5.0	5.7	6.4	7.4
85+	0.6	0.9	1.4	1.7	2.0
출생 시 기대수명(년)					
남성	81.3	83.5	84.9	86.1	87.0
여성	85.2	86.9	87.9	88.7	89.5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명)	1.66	1.62	1.62	1.62	1.62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26.6	30.6	32.9	35.2	38.2
인구성장률(%)	2.0	1.2	1.0	0.9	0.8
순 해외 이주(인구증가에 대한 기여도, %p)	1.5	0.8	0.7	0.6	0.6

주: 노년부양비는 인구 내 생산가능연령(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20.

[그림 VIII-8] 호주 인구의 자연 증가 추이와 전망

(단위: 천명)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41.

□ (거시전제) FY2023-2024 예산안을 기반으로 인구, 참여율 및 생산성의 궤적에 대한 정보와 가정을 사용하여 전망하며 물가상승률은 장기전망 기간 연간 2.5% 유지, 명목 임금 상승률은 국내 인플레이션 전망 및 장기 노동생산성 증가 가정과 일치하는 연간 3.7%로 수렴함을 가정

○ (실질 GDP 성장률) FY2022-2023년부터 FY2062-2063년까지 실질 GDP는 연평균 2.2% 성장할 전망이며, 지난 4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보다 0.9%p 낮은 수준

- 이번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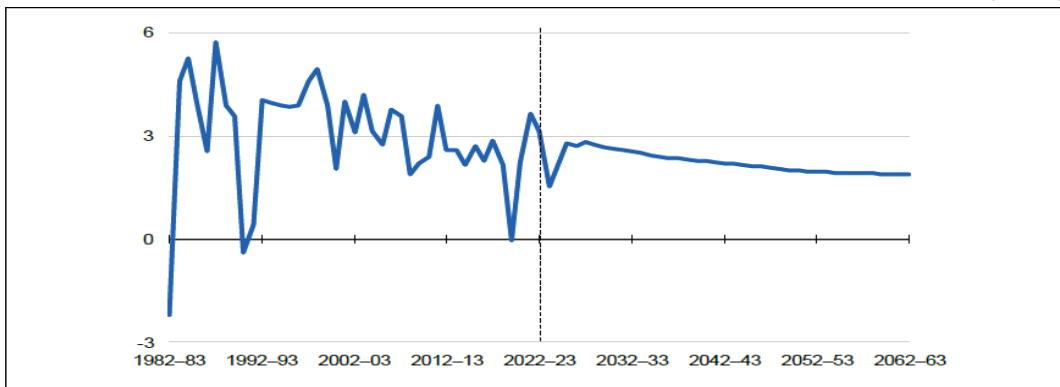
- 이는 ① 지난 보고서에서 30년 평균인 연간 약 1.5%를 적용했던 것보다 장기 생산성 성장이 둔화한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20년 평균인 연간 약 1.2%를 적용한 것과 ②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낮은 인구 성장 전망과 참여율 감소를 반영한 결과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실질 GDP는 지난 40년 평균인 1.8%보다 낮은 연평균 1.1%씩 성장할 전망

- 1인당 실질 GDP 성장의 주요 동인은 지난 40년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성장

[그림 VIII-9] 호주 경제성장률 과거 추이와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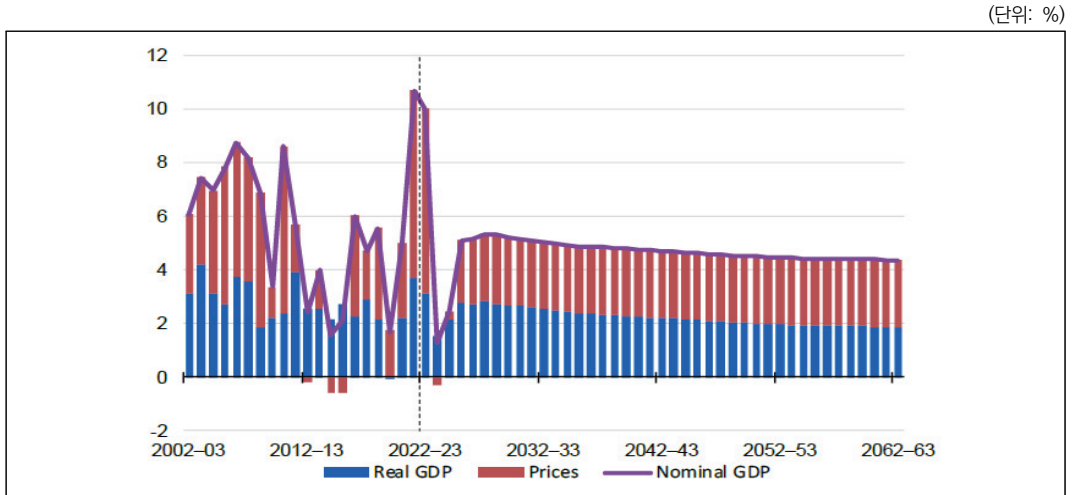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1.

○ (명목 GDP 성장률) 지난 40년 동안 명목 GDP는 연평균 6.7% 증가하였으며, 향후 40년 동안에는 연평균 4.6% 성장할 전망

- 전망 기간 말 명목 GDP 수준은 2021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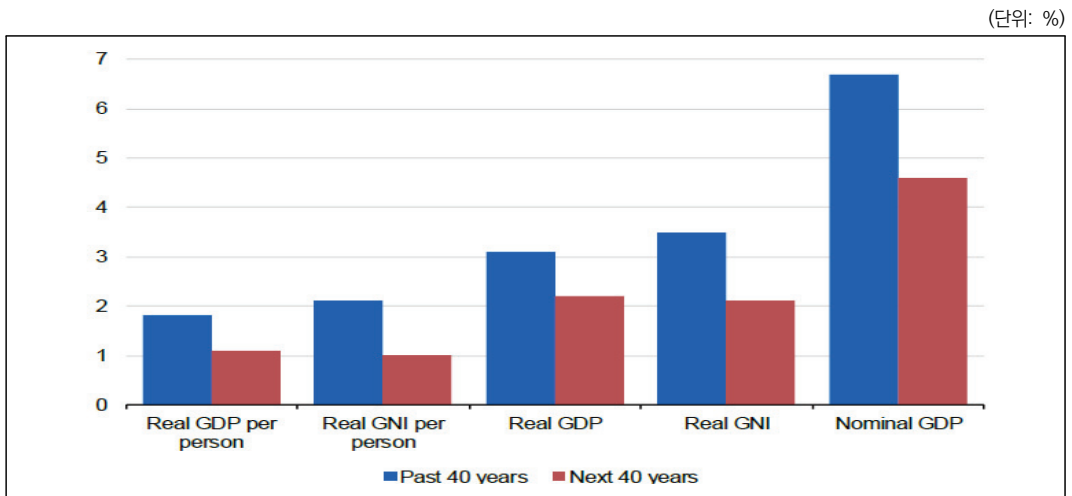
- 장기 노동생산성의 상승세 둔화 가정에 따라 실질 GDP와 명목 GDP 수준은 모두 감소하는 반면, 더 강한 상품 수출 가격 가정과 더 높은 국내 물가 수준은 명목 GDP 수준을 증가시켜 결국 두 효과가 상쇄됨

[그림 VIII-10] 명목 GDP 과거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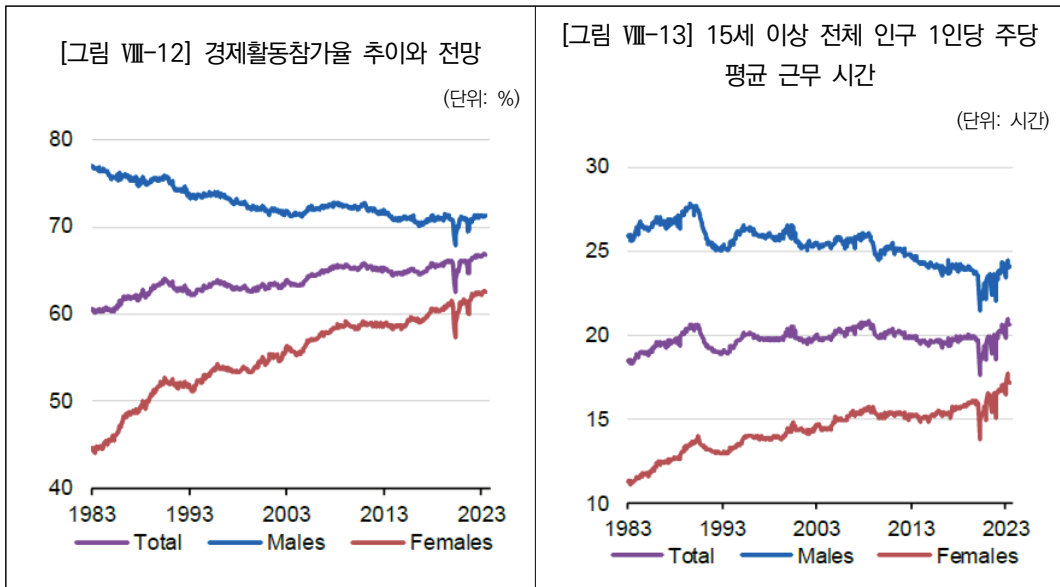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7.

[그림 VIII-11] 호주 거시경제 지표 평균 성장률 추이와 전망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4.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40년 동안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 2년 동안 노동력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FY2022-2023년 66.6% 수준에서 FY2062-2063년 63.8%로 감소할 전망
 - 이러한 감소는 노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호주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높은 참여로 부분적으로만 상쇄됨
 - 지난 40년간 참가율 증가는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연령 분포 전반에 걸쳐 여성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고, 여성 총참가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62.

-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둔화하고 있으며, 둔화세는 여러 산업 및 선진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남
 - 2021년 전망에서 과거 30년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인 1.5%로 가정한 것에 비해 이번 전망에서는 지난 20년 평균치인 1.2%로 둔화한다고 가정
 - 이러한 둔화는 여러 산업과 선진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쟁, 기술 채택, 서비스 부문의 성장, 인적 자본 축적과 같은 공통된 요인에 의한

-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은 모두 생산성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호주 정부는 2022년 10월 예산안과 FY2023-2024년 예산안에서 사용하는 생산성 평균값을 30년 평균에서 20년 평균으로 전환

〈표 VIII-3〉 호주 경제 및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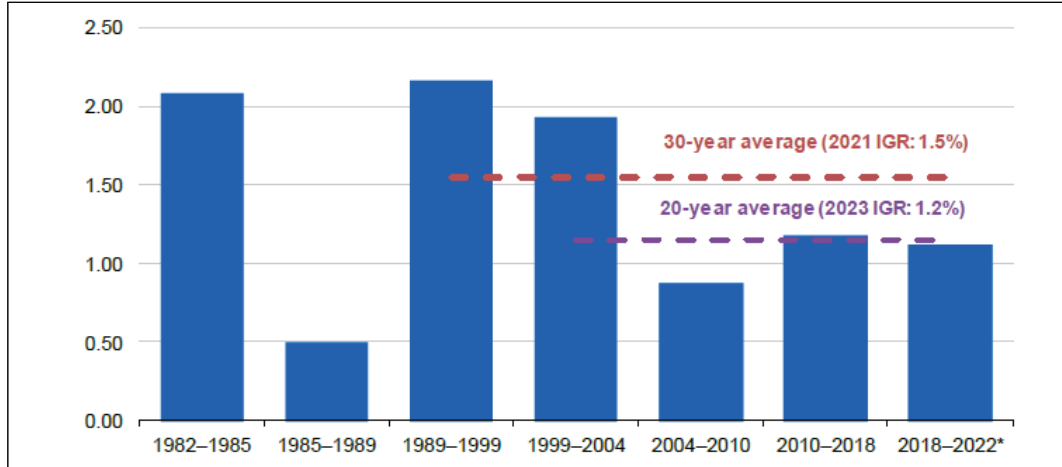
	FY2022-2023	FY2032-2033	FY2042-2043	FY2052-2053	FY2062-2063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률(%)	3.1	2.5	2.2	2.0	1.9
1인당 실질 GDP(A\$)	83,874	93,806	105,903	118,353	131,815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1	1.3	1.2	1.1	1.1
1인당 실질 GNI(A\$)	82,080	88,256	99,567	111,271	123,928
1인당 실질 GNI 성장률(%)	0.3	1.3	1.2	1.1	1.1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80.1	81.3	82.2	82.3	82.3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66.6	66.0	65.7	65.0	63.8
15세 이상 남자	71.3	69.8	69.4	68.7	67.6
15세 이상 여자	62.1	62.5	62.2	61.5	60.3
재정 전망(GDP 대비 %)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0.2	-0.5	-0.5	-1.2	-2.6
기초수지(Primary balance)	0.7	0.5	0.4	-0.4	-1.4
총부채(Gross debt)	34.9	33.6	24.2	23.3	32.1
순부채(Net debt)	21.6	21.0	14.0	15.0	25.2

주: 2023년 전망과 2021년 전망 간 실질 GDP와 실질 소득에 대한 장기 경제 전망의 차이는 주로 장기 생산성 성장 가정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2.

[그림 VIII-14] 호주 노동생산성 증가율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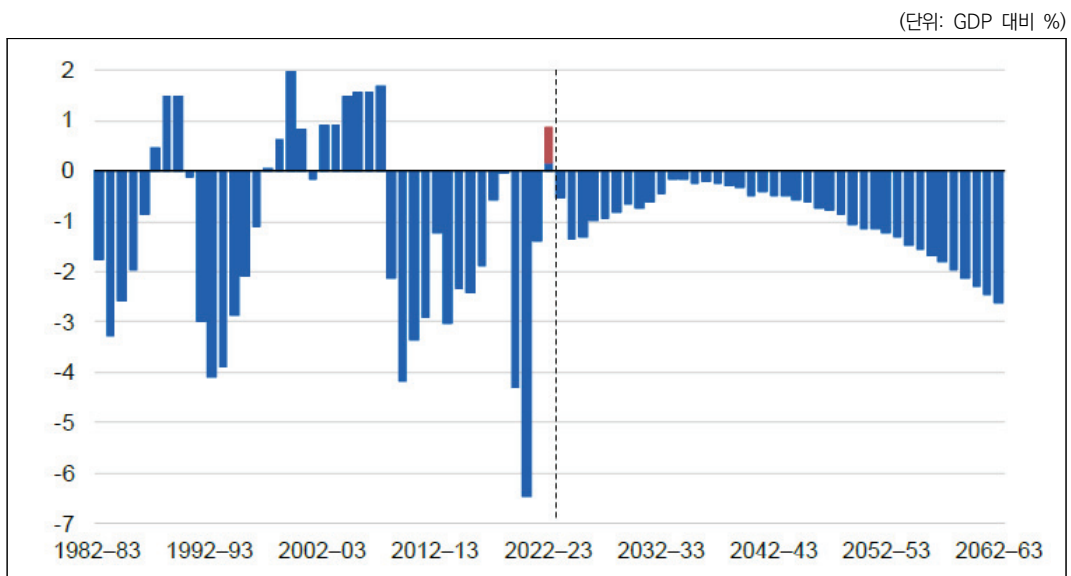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81.

6. 전망결과

- (전망결과) 호주 정부의 재정 상태는 2021년 전망보다 개선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 경제와 세금 인상의 대부분을 재정 회복에 투입하는 등 규율 있는 정부 정책의 결과
 -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FY2022-2023년에 FY2007-2008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장기적으로 적자가 지속될 전망
 - 건강 및 노인 요양, 국가 장애 보험 제도, 국방비 및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등 지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FY2022-2023년과 FY2062-2063년 사이에 GDP의 3.8%p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입(Tax receipts)은 중기 말부터 GDP 대비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FY2062-2063년 까지 예산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총부채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호주 역사적으로는 높은 수준으로, FY2020-2021년 39.3%를 정점으로 FY2048-2049년 22.5%까지 감소했다가 지출 압력이 커지면서 적자와 차입이 늘어나 FY2062-2063년 GDP의 32.1%까지 다시 증가할 전망

- 기초재정수지(primary cash balance)는 FY2023-2024 예산안에 따라 FY2022-2023년 GDP의 0.7% 흑자에서 FY2028-2029년 적자로 돌아선 후 FY2034-2035년 GDP 대비 0.7%의 흑자를 기록, FY2047-2048년까지 유지되다가 FY2062-2063년 GDP 대비 1.4%의 적자로 돌아설 전망
 - 기초재정수지는 예산수지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지만, 순이자(이자 지출 및 수입)는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수입·지출 간 불균형에 주목
-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세금과 자산 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포함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예산수지는 FY2007-2008년 이후 처음으로 FY2022-2023년 흑자가 되었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 FY2062-2063년까지 이어질 전망
 - 전망 기간 적자는 GDP의 1% 미만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지출 압력의 증가로 인해 2040년대부터 적자가 커져 FY2062-2063년에 GDP의 2.6%에 이를 전망

[그림 VIII-15]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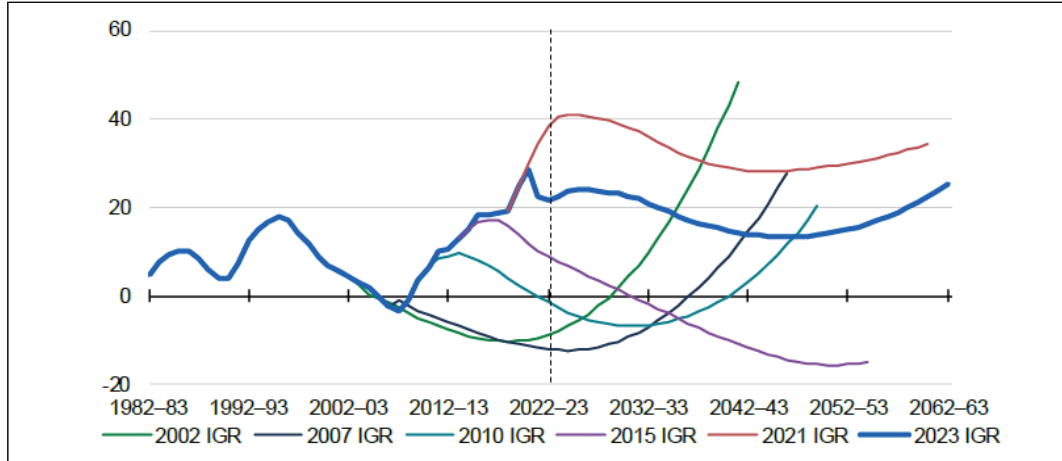


주: 빨간색 막대는 FY2022-2023년 최종 예산 결과(Final Budget Outcome)에서 최종 확정될 FY2022-2023년 예산수지 추정치.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28.

[그림 VIII-16] 역대 순부채(Net debt) 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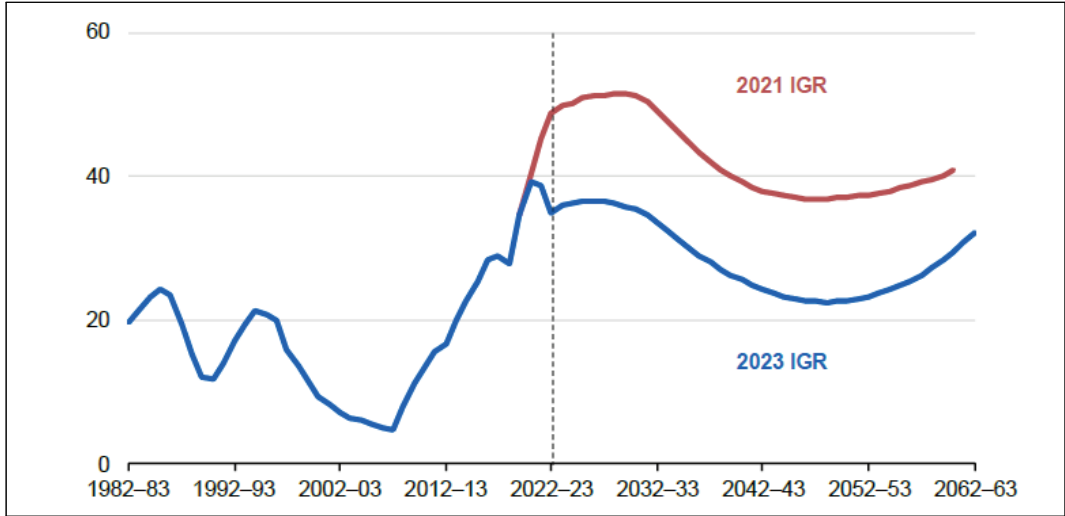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33.

- (순부채 Net debt) 순부채는 총부채보다 낮지만 유사한 궤적을 따르며 FY2046-2047년에 GDP 대비 13.4%로 감소했다가 FY2062-2063년까지 GDP의 25.2% 수준으로 증가
 - 순부채는 장기적으로 지난 전망에서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며, 누적 적자가 더 적을 것으로 전망

- (총부채 Gross debt) FY2020-2021년 GDP 대비 39.3% 수준이었던 총부채는 FY2062-2063년 32.1% 수준에 이를 전망으로, 2021년 전망치보다 FY2060-2061년 기준으로 11.3%p 낮게 전망
 -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사이에 지속된 적자로 인해 총부채는 FY2007-2008년 GDP의 4.7%에서 FY2020-2021년 39.3%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중 최고 수준
 - 점진적으로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FY2025-2026년 GDP의 36.5%에서 FY2048-2049년 22.5%로 감소하였다가 구조적 지출 압력이 커지면서 다시 증가하여 FY2062-2063년 3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총부채 전망치는 2021년 전망보다 낮은데, 이는 코로나19로부터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여 단기 재정 상황이 양호해진 것과 최근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분을 예산 조정에 사용하는 등 엄격해진 재정 정책을 반영한 결과

[그림 VIII-17] 총부채(Gross debt)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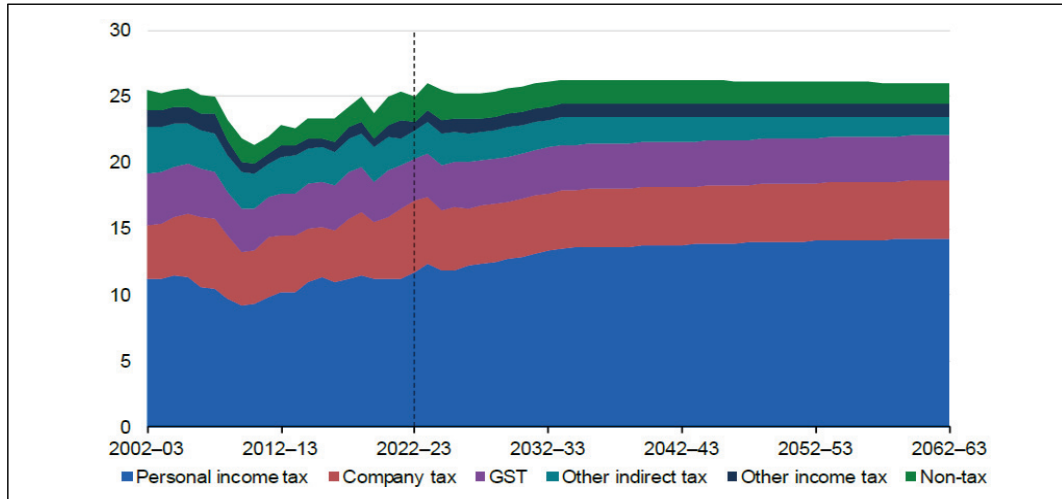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33.

- (총수입 Revenue) 총수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FY2022-2023년 GDP의 25.0%에서 FY2033-2034년 GDP 대비 26.3%까지 늘었다가 FY2062-2063년 GDP의 26.0%로 감소할 전망
- 시간이 지남에 따라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FY2034-2035년부터 세외수입이 줄어든 결과
 - (조세수입) FY2019-2020년에 근래 최저치인 21.8%까지 떨어진 GDP 대비 조세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어 FY2023-2024년 23.9%에 도달하였으며, FY2023-2024 예산안 전망에 맞추어 FY2033-2034년까지 24.4%로 증가한 후 2062-63년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 조세수입 비율의 감소는 부분적으로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GDP 대비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수가 낮아지면서 발생
 - (세외수입) 조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Non-tax receipts)의 경우 FY2022-2023년 GDP의 1.9%에서 FY2062-2063년 1.6%로 감소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DP 대비 총수입이 줄어들 것

- 세외수입에는 정부 대출에 대한 이자, 미래 기금과 같은 투자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금, 일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금이 포함되며, GDP 대비 세외수입의 감소는 주로 미래 기금(Future Fund)과 NDIS에 대한 주(state)정부 기여금에 의해 주도

[그림 VIII-18] 호주 정부 세입(receipts) 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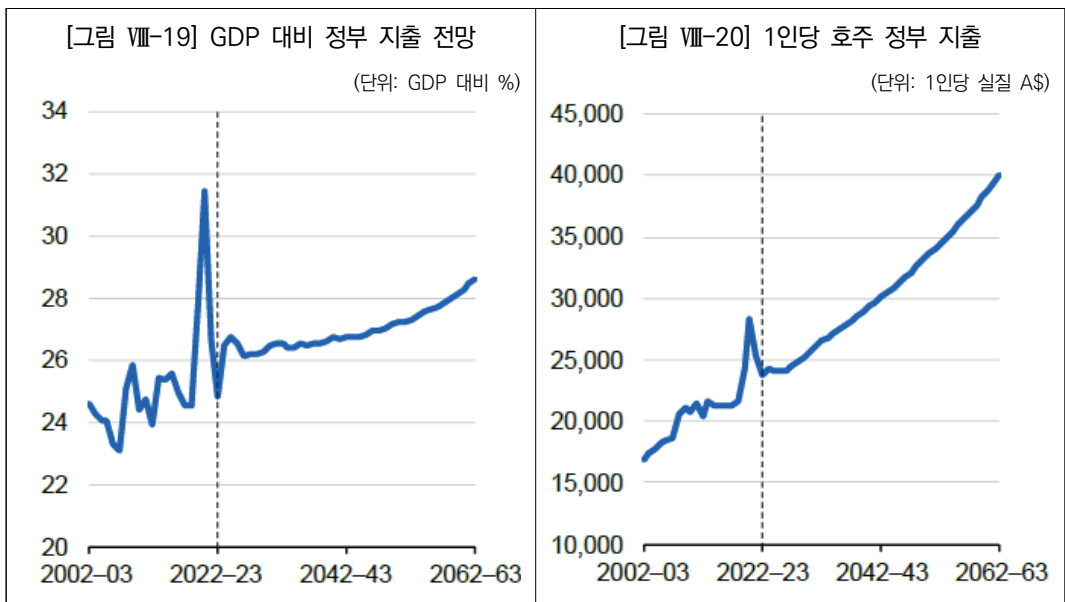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94.

- (총지출) 총지출은 FY2022-2023년 GDP의 24.8%에서 FY2062-2063년 28.6%까지 3.8%p 증가할 전망이며 예상되는 정부지출 증가의 약 40%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
 - 주요 장기지출 압박 요인은 보건, 노인 요양, NDIS, 국방,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등 5가지로, 이를 합치면 FY2022-2023년부터 FY2062-2063년까지 40년 동안 GDP의 5.6%p 증가할 것으로 예상
 - NDIS와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 항목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망 기간 말 보건 및 노인 요양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의료비 지출은 NDIS, 노인 요양 또는 이자 지출보다 느리게 증가하지만 전체 지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40년간 GDP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비용 압력과 수요의 증가,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치료법을 포함한 의료 품질 향상에 따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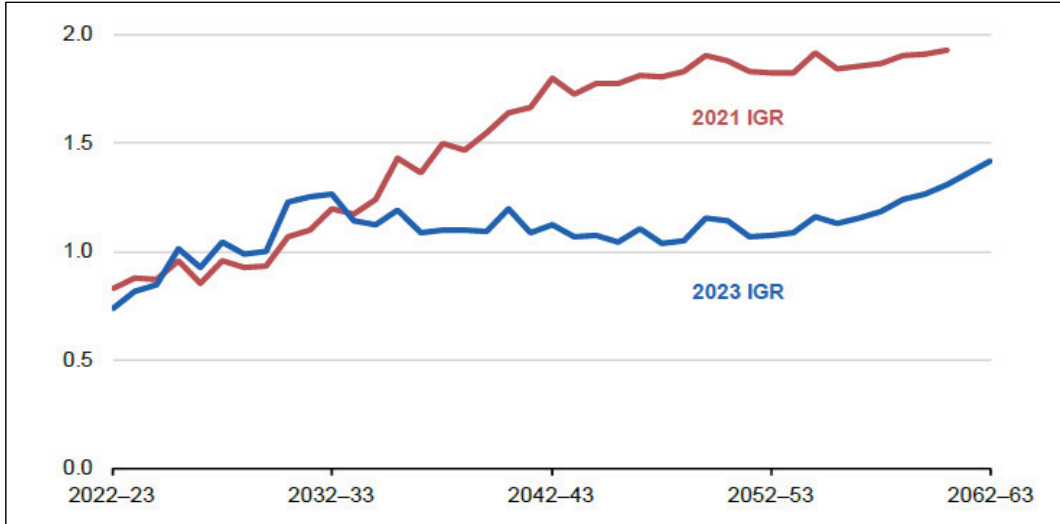
- 전망 결과는 2021년 전망보다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더 적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개선은 더 낮은 수준의 이자 지출과 GDP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단기 재정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며, NDIS 부문 지출 증가와 고품화로 인해 개선이 부분적으로 상쇄됨
- (이자지출)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미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FY2062-2063년 이자 지출은 GDP 대비 1.4%가 될 전망이며, 이자 지출액은 2021년 전망보다 전망 기간 누적 30% 낮아질 전망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44.

[그림 VIII-21] 이자 지출(Interest payments)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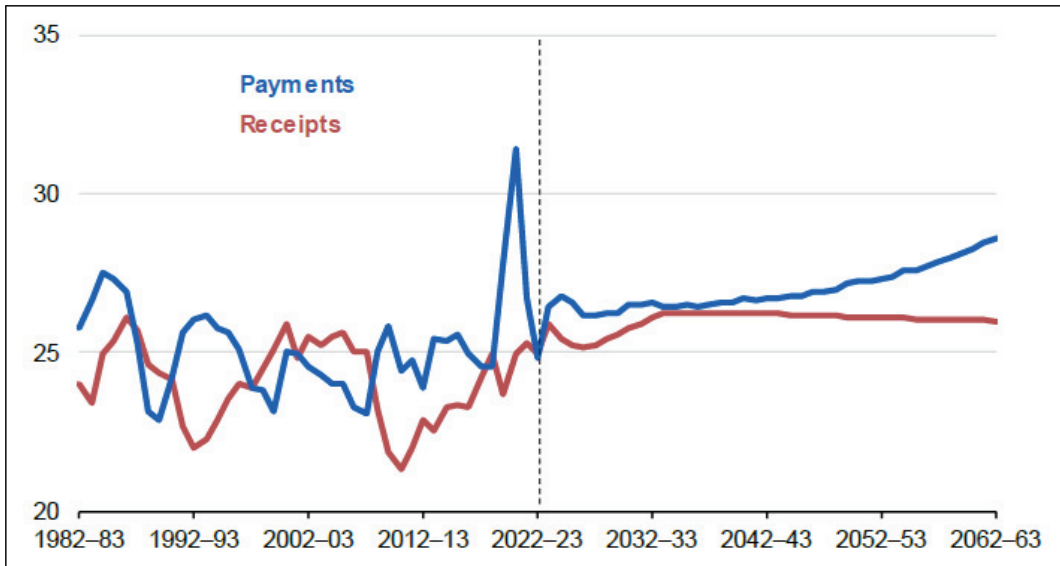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34.

[그림 VIII-22] 호주 지출 및 세입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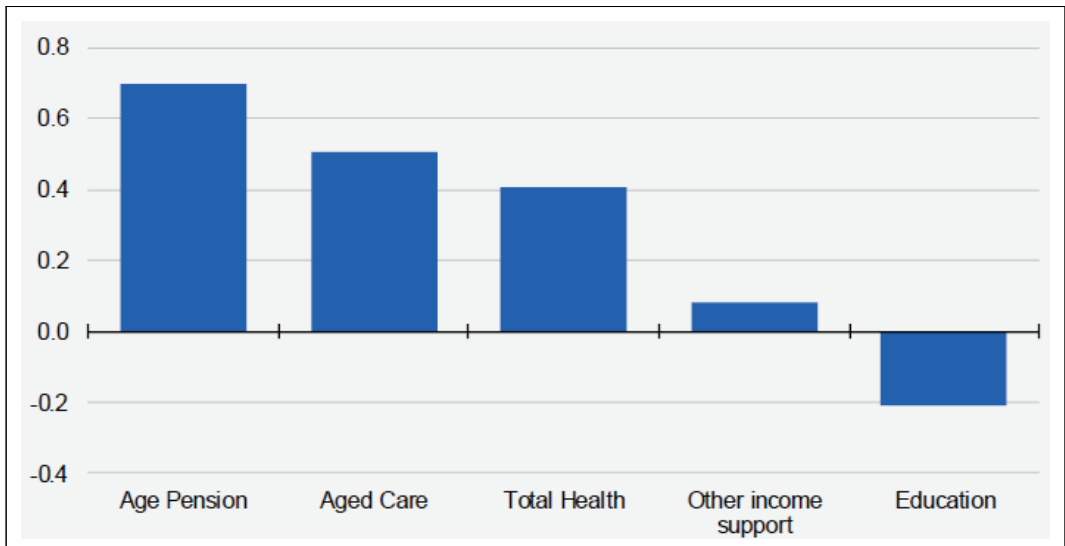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29.

- (분야별 지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인구 중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가족 관련 지출이나 노령연금, 보건 및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많은 지출이 연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FY2022-2023년 GDP의 24.8%에서 FY2062-2063년 2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지출 증가의 약 1.5%p, 즉 약 40%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주요 분야의 고령화 비용은 FY2062-2063년에 약 450억호주달러에 달함
 -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호주 정부 지출 분야 5개는 보건, 노인 요양, NDIS, 국방비 및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로, 지출액은 향후 40년간 GDP 대비 8.8%에서 14.4%로 증가할 전망이다 FY2062-2063년에는 정부지출의 약 절반에 이를 전망
 - 소득 지원금, 노령 및 서비스 연금, 교육을 포함한 호주 정부 지출의 나머지 2/3는 FY2062-2063년까지 정부지출의 약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주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여 공부하거나 자녀를 돌보거나 소득 지원을 받는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경제보다 느리게 성장하는 지출 연동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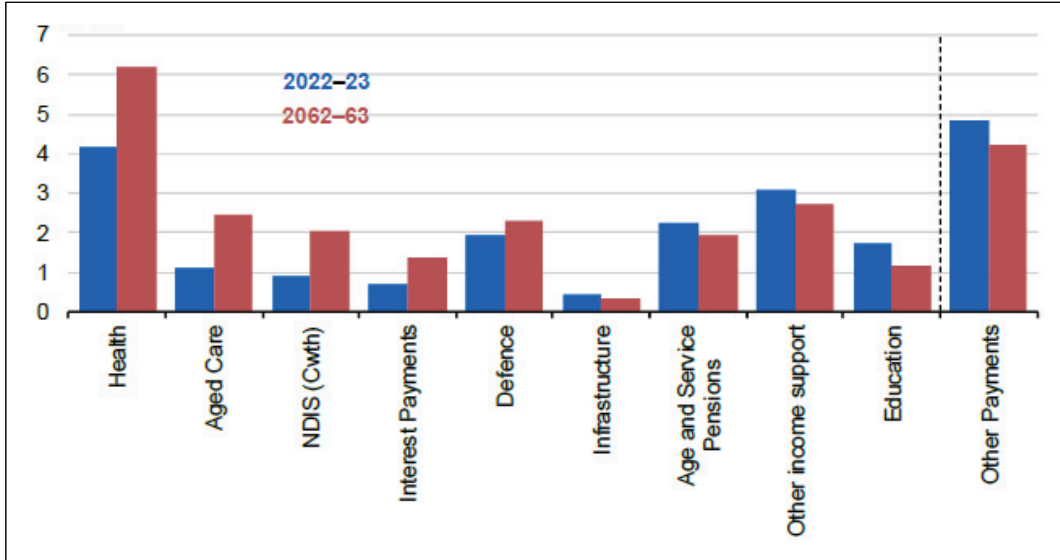
[그림 VIII-23] FY2062-2063년 고령화에 따른 주요 정부지출 변화

(단위: GDP 대비 %)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46.

[그림 VIII-24]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payments)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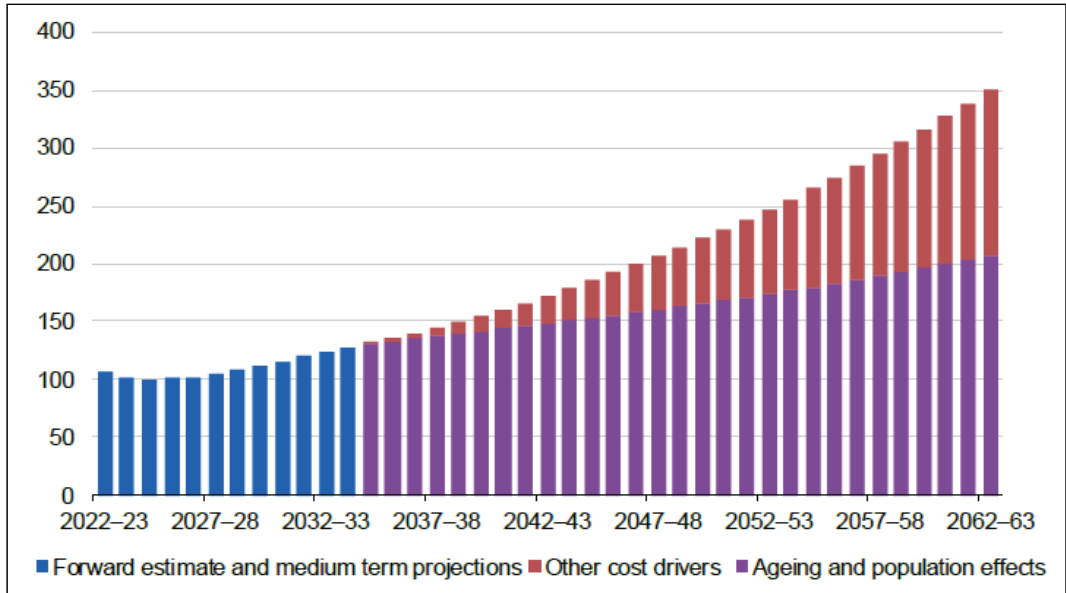
주: 기타 소득 지원(Other income support)은 장애연금, 양육수당, 구직수당, 청소년수당, 학생 지원금, 간병인수당, 가족 세제 혜택, 보육 보조금 및 유급 육아 휴가를 포함, 이자 지출(Interest payments)은 호주 정부 증권(AGS)에 대한 이자 지출, 기타 지출(Other payments)은 퇴직연금, 공적 개발 지원, 이자 지급(AGS에 대한 이자 제외) 및 기타 모든 지급 포함.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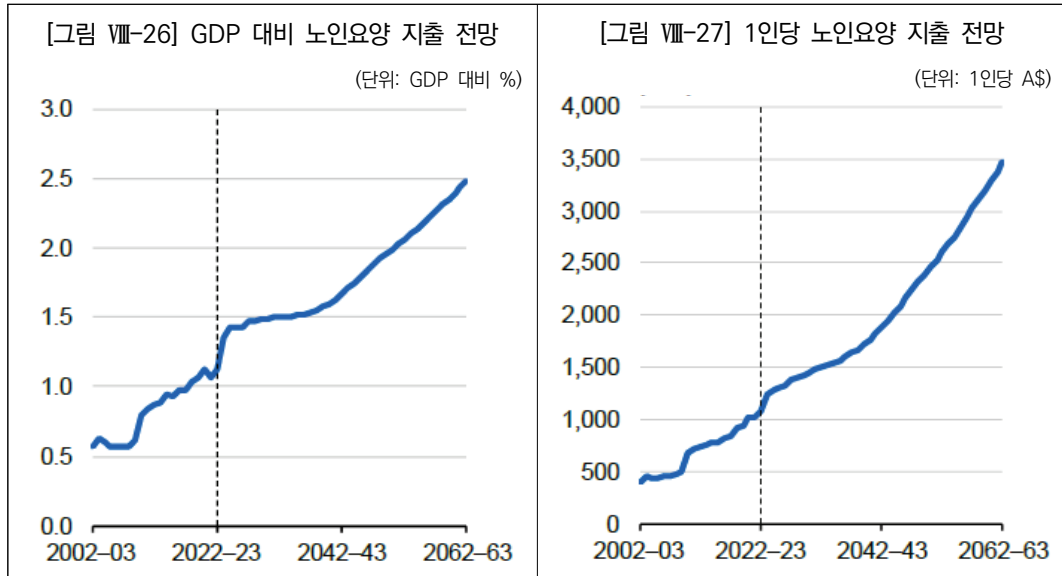
- (보건의료 health) 보건 지출 규모는 FY2022-2023년 GDP 대비 4.2%에서 FY2062-2063년 GDP 대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 증가와 고령화는 전망 기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같은 다른 동인과 함께 지출 증가의 주요 동인

[그림 VIII-25] 호주 보건 지출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49.

- (노인요양 Aged care) 거주 노인 돌봄, 가정 내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노인요양 지출은 FY2022-2023년 1.1%에서 FY2062-2063년 약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주로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형 돌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GDP 대비 및 1인당 비용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전망 기간 후반부에 발생
 - 노인요양 지출은 인구의 연령 분포, 홈 케어 및 거주형 케어를 사용하는 호주 노인 수, 노인요양 시스템에 진입하는 연령, 노인요양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 과거와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가정에 따라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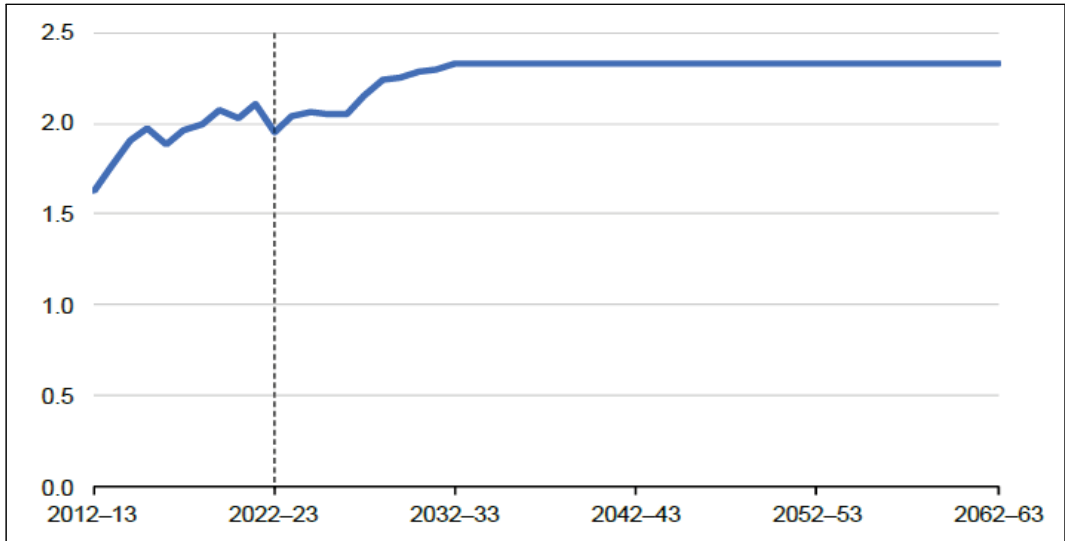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61.

- (장애연금 NDIS) 영구적이고 심각한 장애가 있는 호주인 가족과 보호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은 FY2022-2023년 GDP 대비 0.9%에서 중기 말 (FY2033-2034년) 1.8%로 증가하고, FY2043-2044년 성숙기에 GDP 대비 2.1%에 이른 후 FY2062-2063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FY2043-2044년에 NDIS 제도가 성숙한다고 가정하며, FY2043-2044년 이후에는 NDIS 총지출이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춰 증가한다고 가정
 - 제도의 성숙은 65세 이전에 가입한 호주 노인들의 노화 과정이 대체로 완전하고, 인구 전체의 참여율이 안정화되었으며, 패키지로 제공되는 지원의 폭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
- (국가안보 및 지역안정 National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외교 투자 자금 지원, 육·해·공군 및 정보 능력 제공, 해외 군사 작전 지원, 국익과 방어를 위한 전략적 정책 조건 등에 지출되는 국방지출은 FY2022-2023년 GDP의 2.0%가 될 전망이며, 국가안보 자금에 대한 압력은 증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호주의 국방전략검토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FY2032-2033년 GDP의 약 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FY2033-2034년부터 전망 기간 말까지 GDP 대비 2.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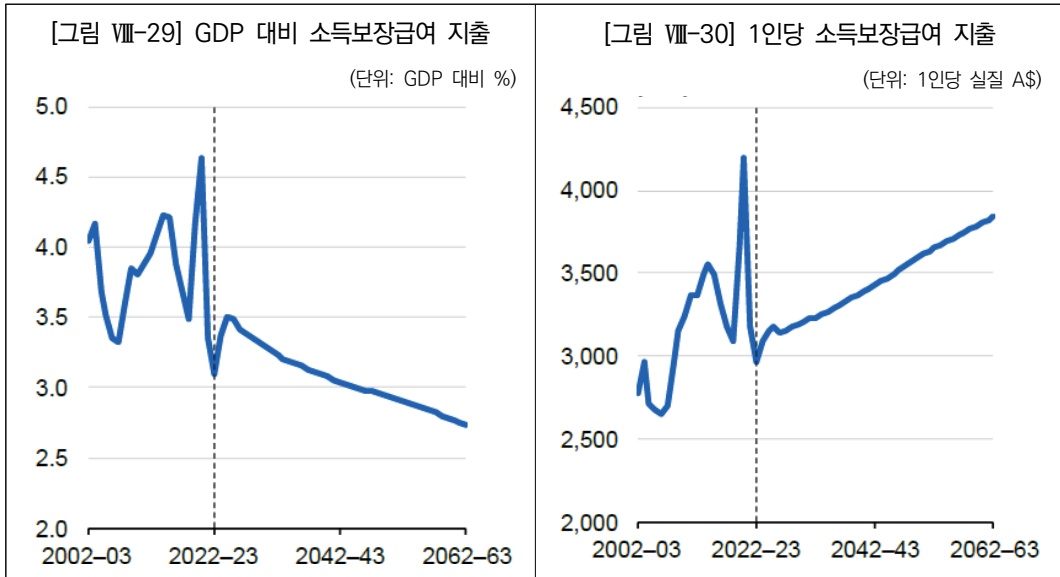
[그림 VIII-28] GDP 대비 국방 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63.

- (노령연금 Age and Service Pension) 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은 FY2022-2023년 GDP 대비 약 2.3%에서 FY2062-2063년 GDP의 2.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령 연금은 호주 정부의 가장 큰 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이러한 추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것
 - 인구 고령화는 물론, FY2062-2063년까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의 인구가 거의 두 배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감소가 전망되는 것은 은퇴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서 퇴직연금(superannuation)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결과
 - 노령연금 지출의 변화는 연금 지급이 물가와 임금 인상에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적 매개변수의 영향도 받음
- (소득보장급여) 소득보장급여는 경제활동가능인구 지원과 양육가족지원으로 분류되며, FY2022-2023년 GDP의 3.1%에서 FY2026-2027년 3.4%로 증가한 후 FY2062-2063년까지 GDP의 2.7%까지 감소할 전망
 - 대부분의 급여 지출이 상대적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있음에 따라 본 전망 결과는 GDP가 CPI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결과를 반영

- 주요 소득지원금으로는 장애지원연금, 구직자수당, 양육수당, 간병인수당, 청년수당 등이 있으며 소득지원금은 FY2022-2023년 GDP의 1.9%에서 FY2062-2063년 GDP의 2.0%로 증가할 전망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79.

- (교육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어린 인구수, 교육을 받는 어린 인구 비율 및 교육의 유형으로, 교육 지출은 FY2022-2023년 GDP 대비 1.7%에서 FY2062-2063년 GDP 대비 1.2%로 감소할 전망
 - 이는 학교 교육,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포함한 인구 증가의 둔화와 함께 CPI, 임금 비용 지수 등 명목 GDP보다 더 느리게 증가하는 지수들의 영향을 반영
-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지출은 장기적으로 모형으로 전망하지 않으며, 중기예산 전망과 일치시켜 GDP의 최소 0.33%에서 FY2062-2063년 전망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GDP 대비 지출 비중은 FY2013-2014년 이래 사회기반시설 투자 프로그램의 최근 역사적 평균 지출과 일치

- (기타지출 Other payments) 모델링되지 않은 지출 분야는 GDP에 맞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전망 기간 GDP의 일정 비율로 유지되며, FY2022-2023년 GDP의 4.9%에서 FY2062-2063년 GDP의 4.2%로 감소한다고 가정
- 환경 보호 및 보존, 국립공원 및 세계유산 지역 관리, 원주민 및 지역사회 지원, 예술 및 영화 산업, 호주 공공서비스 등 기타 모든 영역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비모형 지출과 공무원 연금 및 공적 개발 지원을 포함

〈표 VIII-4〉 정부 지출 분야별 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구분	FY2022-2023	FY2032-2033	FY2042-2043	FY2052-2053	FY2062-2063
개인에 대한 지출(Payments to individuals)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0.8	0.8	0.8	0.8	0.9
가족세제지원(Family Tax Benefit)	0.7	0.6	0.5	0.4	0.3
육아보조금(Child Care Subsidy)	0.4	0.5	0.4	0.4	0.3
한부모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Single)	0.2	0.3	0.3	0.2	0.2
양부모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Partnered)	0.0	0.0	0.0	0.0	0.0
육아휴직급여(Paid Parental Leave)	0.1	0.1	0.1	0.1	0.1
구직자급여(JobSeeker Payment)	0.5	0.5	0.4	0.4	0.3
청년수당>Youth Allowance)	0.1	0.1	0.1	0.1	0.1
돌봄제공(간병인)지원(Carer Payment)	0.3	0.4	0.4	0.5	0.5
교육훈련지원금(Austudy)	0.0	0.0	0.0	0.0	0.0
개인에 대한 총지출(Total payments to individuals)	3.1	3.2	3.0	2.9	2.7
보건의료(Health)	4.2	4.1	4.5	5.3	6.2
노령연금(Age and Service Pension)	2.3	2.4	2.2	2.0	2.0
국방(Defence)	2.0	2.3	2.3	2.3	2.3
교육(Education)	1.7	1.5	1.3	1.2	1.2
노인요양(Aged care)	1.1	1.5	1.7	2.1	2.5
장애연금(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ustralian Government)	0.9	1.7	2.0	2.0	2.1
총지출(Total payments)	24.8	26.6	26.7	27.3	28.6
이자지출 제외 총지출	24.1	25.3	25.6	26.3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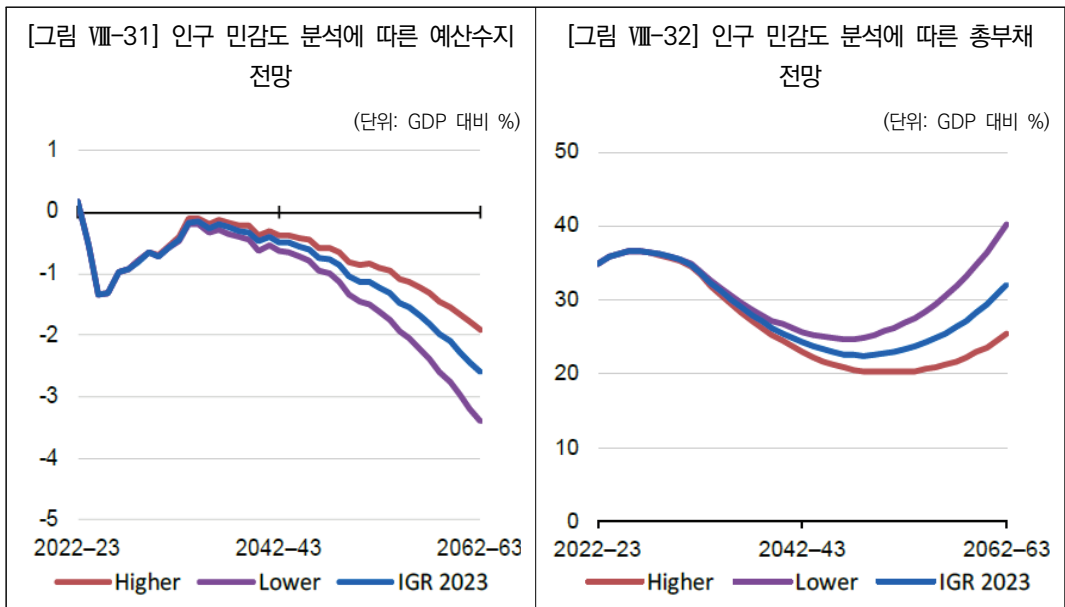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22.

7.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채권수익률, NDIS 제도의 성숙도에 따른 다섯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
 - (출산율 변화) 호주의 연간 인구증가율이 기준선 전망보다 0.2%p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를 분석하며 그 효과는 대칭적으로 나타남
 - (고위) 순 해외 이주가 FY2031-2032년부터 매년 50,000명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72명의 더 높은 장기 가정에 수렴한다고 가정
 -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경제활동참가율이 2%p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대체로 대칭적으로 나타남
 - (낙관) 경제활동참가율이 2%p 높아지면 FY2062-2063년 GDP 대비 총정부지출 비중은 더 낮아지며 실질 및 명목 GDP 수준은 모두 약 3.25% 더 높아질 전망
 - (생산성 변화) 장기적인 경제 및 재정 전망에 대한 기본 생산성 증가율 증가 및 감소의 효과를 보고자 노동생산성이 0.3%p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
 - (낙관) 노동생산성이 0.3%p 높은 경우 FY2062-2063년 실질 및 명목 GDP 수준은 약 9.5% 더 높아지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임금이 8.5% 증가할 전망
 - (채권수익률 변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
 - (낮은 수익률 가정)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80bp(0.8%p) 낮아지는 경우를 분석
 - (높은 수익률 가정)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80bp(0.8%p) 높아지는 경우를 분석
 - (NDIS 성숙도 변화) NDIS 제도가 기준선 전망에 비해 조기에 성숙하여 지출이 FY2034-2035년부터 명목 GDP와 같이 완화되는 경우와 함께, 제도 성숙이 늦어져 전망이 끝날 무렵 성숙기에 가까워지는 경우의 재정 민감도를 분석
- (출산율) 호주의 연간 인구증가율이 기준선 전망보다 0.2%p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 (고위가정) 순 해외 이주가 FY2031-2032년부터 매년 50,000명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72명의 더 높은 장기 가정에 수렴하는 경우, FY2062-2063년의 예상 인

구는 310만명 증가하고 중위 연령은 41.8세로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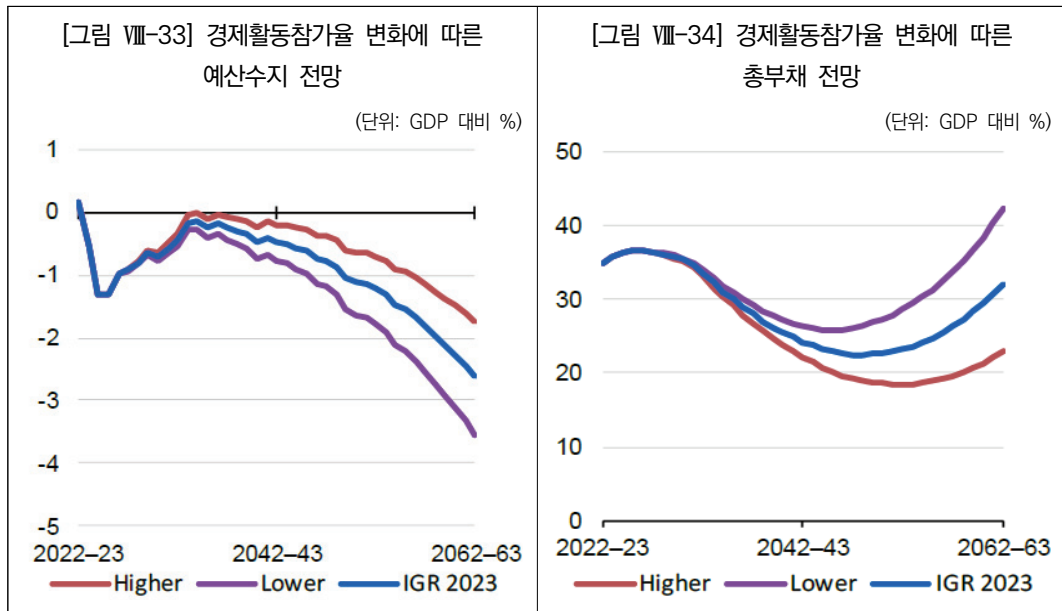
- 이주자가 전체 호주 인구보다 평균적으로 젊으므로 이주 수준을 높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지연됨
 -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FY2062-2063년 실질 및 명목 GDP 수준이 약 7.75% 증가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0.75%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총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더 어리기 때문에 1인당 노령연금, 의료 및 노인 돌봄 이용률이 더 낮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
 - 세입은 명목 GDP의 증가에 비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FY2033-2034년부터 GDP 대비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
 - 예산수지 적자는 FY2062-2063년 GDP의 0.7%p 감소하며, 적자가 줄어들에 따라 총 부채는 FY2062-2063년 GDP의 6.7%p가 누적 감소
- (저위가정) 고위가정과 대칭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중위 연령은 FY2062-2063년 44.5세로 높아짐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55.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이 2%p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효과를 분석

- (낙관) 경제활동참가율이 2%p 높은 경우 FY2062-2063년 실질 및 명목 GDP 수준은 모두 약 3.75% 더 높아지고 GDP 대비 총정부지출은 더 낮아지며, 예산수지 적자는 GDP 대비 0.8%p 감소하고 총부채는 9.1%p 감소
 - 국방 및 인프라 지출(명목)은 GDP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조세 수입은 명목 GDP 증가에 비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FY2033-2034년부터 GDP 대비 비중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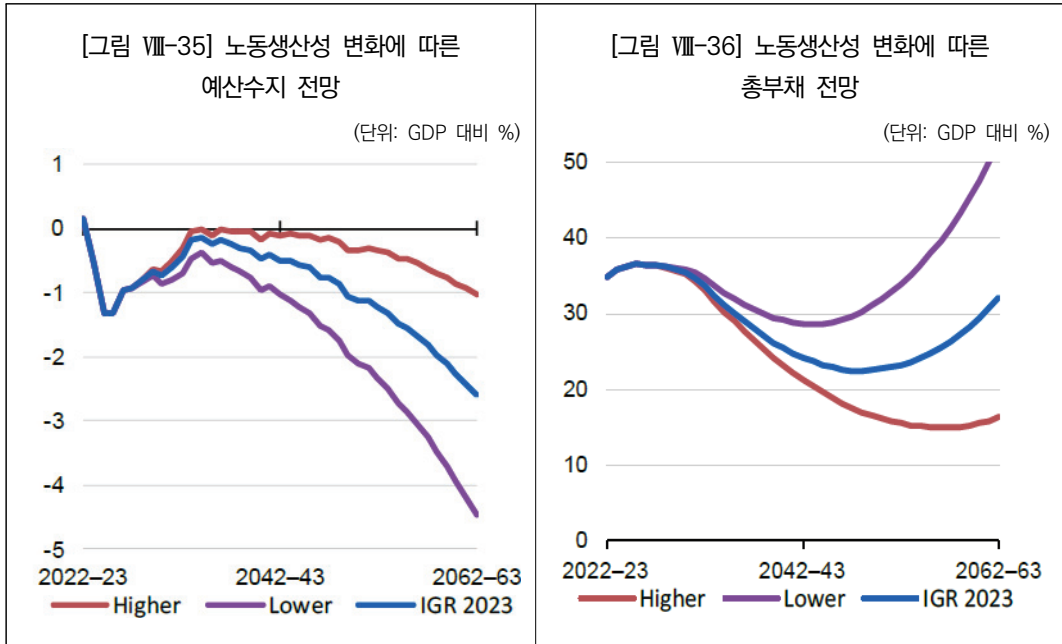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256.

□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이 0.3%p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

- (낙관) 노동생산성이 0.3%p 높은 경우 FY2062-2063년 실질 및 명목 GDP 수준은 약 9.5% 더 높아지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임금이 8.5% 증가할 전망
 -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낮아지나 임금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해 명목상 지급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을 전망
 - 조세수입은 명목 GDP 증가에 비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FY2033-2034년부터 GDP 대비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순효과로 FY2062-2063년 예산 수지 적자가 GDP의 1.6%p 감소하며, 적자가 줄어들어 따라 총부채는 GDP의 15.8%p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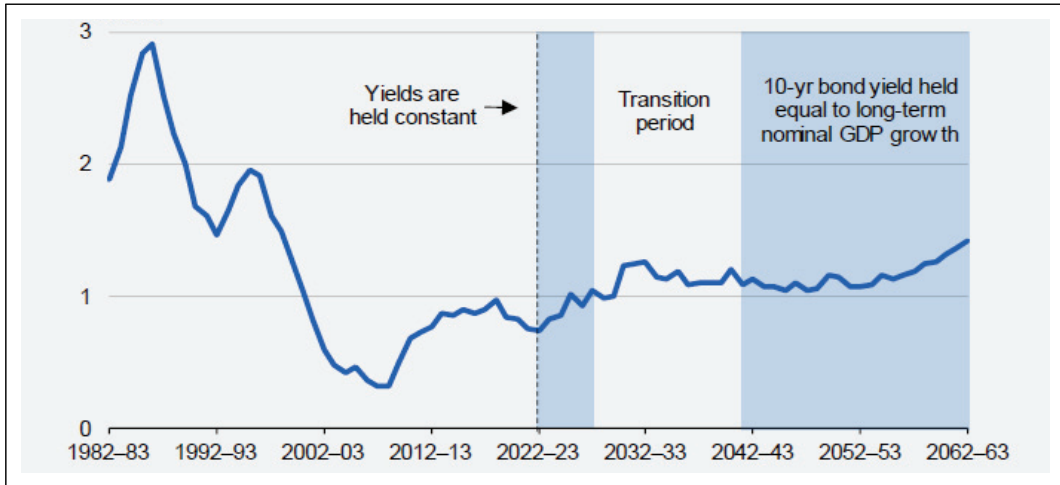
□ (채권수익률) 채권수익률이 높거나 낮아지는 경우 차입비용(borrowing costs)에 대한 재정의 민감도를 분석

-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80bp 위·아래로 수렴하는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이 현재의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아진다고 예상
- 이자 지출은 FY2022-2023년에 GDP의 0.7% 수준이었지만,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기간에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부채를 현재 더 높은 시장 금리로 차환해야 하므로 이자 지출의 대GDP 비율은 상승할 것
 - 수익률 상승은 2030년대와 40년대에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상쇄되어 총이자지출액은 줄어들 전망
 - 그러나 FY2049-2050년부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이자 지출 또한 증가하여 FY2062-2063년에는 GDP의 1.4%에 달할 전망

- 이번 전망에서는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을 FY2023-2024 예산안과 동일하게 가정하며, 채권수익률은 FY2026-2027년부터 15년간 선형적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약 4.6%의 명목 GDP 성장률과 같아진다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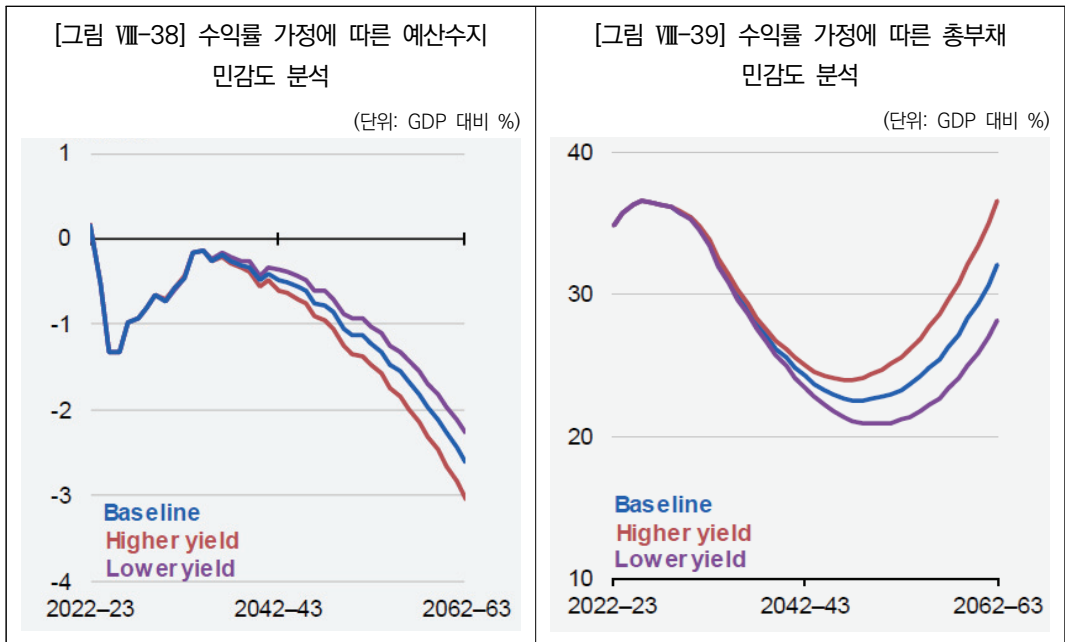
[그림 VIII-37]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단위: GDP 대비 %)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38.

- 낮은 수익률 가정은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차이로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80bp(0.8%p) 낮아지는 경우를 분석
- 수익률이 하락하면 재정 상태가 개선되어 FY2062-2063년 예산수지 적자는 GDP의 0.3%p, 총부채는 3.9%p 감소
- 높은 수익률 가정은 현재 채권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80bp 높아지는 경우를 분석하며, 높은 채권수익률이 부채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높일 것으로 전망
- 수익률이 높아지면 FY2062-2063년까지 예산수지 적자는 0.4%p, 총부채는 GDP의 4.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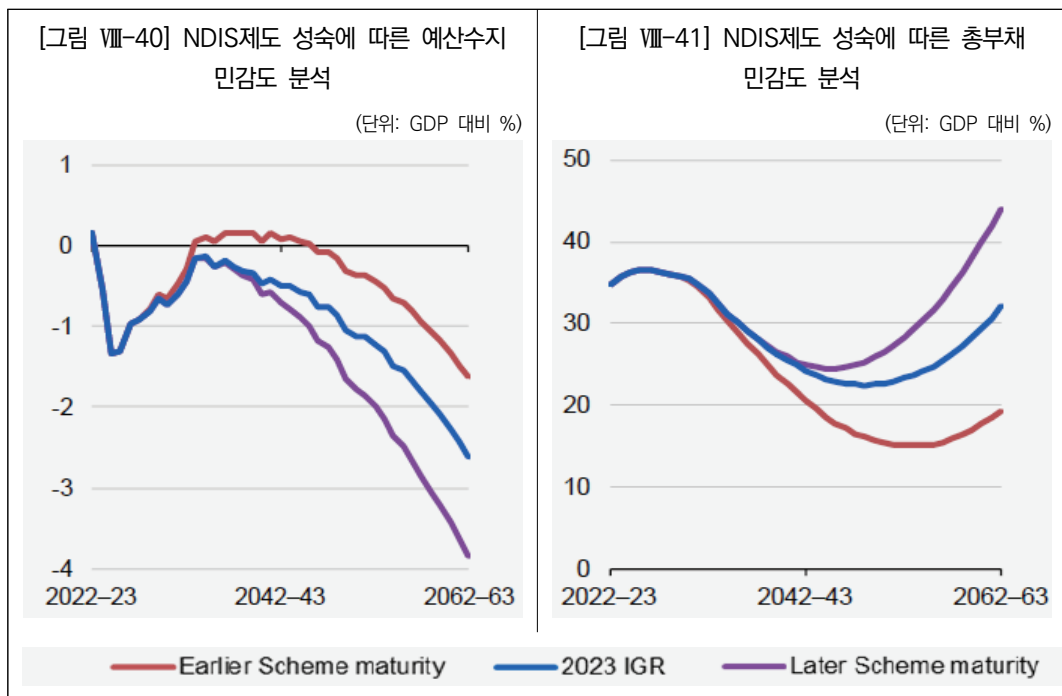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39.

- (국가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⁵²)의 성숙) NDIS 제도가 성숙하는 시기와 향후 수십 년 내에 이 제도가 도달할 규모는 불확실하며 제도 도입, 각 지원 항목별 비용, 제도 참여자들의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지원 요구와 같은 정책 설정과 요인에 따라 달라짐
 - (비교) 2021년 전망에서는 NDIS에 대한 총지출이 GDP의 1.4%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가정되었는데, 2023년 전망에서는 제도 성숙이 예상보다 늦게 이뤄지며 성장은 중기 동안 명목 GDP를 상회하여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이른 성숙 시나리오) 이른 성숙 시나리오는 제도가 기준선 전망에 비해 조기에 성숙하여 지출이 FY2034-2035년부터 명목 GDP와 같이 완화되는 경우를 가정
 - 이 시나리오에서 총NDIS 지출은 기준선 전망의 GDP 대비 2.4%보다 낮은 2.0%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증가한다고 가정

52) 호주 정부는 FY2018-2019년부터 4년간 약 430억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6만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를 도입(출처: 외교부, https://tha.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218&page=1, 검색일자: 2024. 06. 05).

- 호주 정부 기여는 GDP의 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62-2063년 부채는 GDP 대비 19%로 약 2분의 1이 낮아질 전망
- (늦은 성숙 시나리오) 제도의 늦은 성숙 시나리오는 제도가 전망이 끝날 무렵 성숙기에 가까워지는 경우의 지출을 가정
 - FY2029-2030년부터 FY2062-206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1%p씩 낮아진다고 가정
 - NDIS 제도가 이와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명목 GDP 성장을 상회하며, 전망 기간을 지나서 성숙 단계에 도달하고, FY2062-2063년까지 총NDIS 지출이 GDP의 3.2%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정부 기여는 GDP의 2.8%에 달할 전망이며, 정부지출이 높아짐에 따라 FY2062-2063년에 부채가 GDP의 44%로 약 0.4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2023, p. 156.

〈표 Ⅷ-5〉 민감도 분석 결과

구분	기준선 전망		인구 민감도		침어들 민감도		생산성 민감도	
			고위	저위	낙관	비관	낙관	비관
	FY2022-2023	FY2062-2063	FY2062-2063	FY2062-2063	FY2062-2063	FY2062-2063	FY2062-2063	FY2062-2063
경제								
실질 GDP 증가율(%)	3.1	1.9	2.1	1.6	2.0	1.8	2.2	1.6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1.1	1.1	1.1	1.0	1.2	1.0	1.4	0.8
1인당 실질 GDP(A\$)	83,900	131,800	131,900	131,500	135,900	127,700	144,000	120,100
경제활동참가율(%)	66.6	63.8	64.7	62.9	65.8	61.8	63.8	63.8
경제활동인구(백만명)	14.3	21.7	23.4	20.0	22.4	21.0	21.7	21.7
노년부양비	26.6	38.2	35.8	40.9	38.2	38.2	38.2	38.2
지출(GDP 대비 %)								
노인요양(Aged care)	1.1	2.5	2.3	2.7	2.4	2.6	2.3	2.7
노령연금(Age and Service Pensions)	2.3	2.0	1.8	2.1	1.9	2.1	2.0	2.0
교육(Education)	1.7	1.2	1.2	1.2	1.2	1.2	1.1	1.3
보건의료(Health)	4.2	6.2	6.0	6.4	6.0	6.4	5.7	6.8
장애연금(NDIS, Australian Government)	0.9	2.1	2.0	2.1	2.0	2.1	2.0	2.1
개인 연금급여지출(Payments to individuals)	3.1	2.7	2.8	2.8	2.7	2.9	2.6	2.9
총지출(Total payments)	24.8	28.6	27.9	29.5	27.7	29.6	27.0	30.5
재정건망(GDP 대비 %)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0.2	-2.6	-1.9	-3.4	-1.8	-3.5	-1.0	-4.5
기초재정수지(Primary cash balance)	0.7	-1.4	-0.9	-2.0	-0.9	-1.9	-0.4	-2.5
총부채(Gross debt)	34.9	32.1	25.4	40.3	23.0	42.2	16.3	52.6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p. 253.

참고문헌

〈미국 OMB〉

OMB, *FY202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4.

The Boards of Trustees, *Annual Report of the Boards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2023.

_____, *Annual Report of the Boards of Trustees of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and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s*, 2023.

OMB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omb/budget/analytical-perspectives/> (검색일자: 2024. 03. 12.).

〈미국 CBO〉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Under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Economy and the Budget”, 2024. 05.

_____, 「The 2024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03.

_____, 「The Demographic Outlook: 2024 to 2054」, 2024. 01.

〈일본〉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 2023.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モデル」, 2018.

_____,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4. 07.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5.cao.go.jp> (검색일자: 2024. 08. 12.).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 (검색일자: 2024. 08. 02.).

〈캐나다〉

Anderson, B. and J. Sheppard,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s,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2009/3

OCA, 「the 31st Actuarial Report of the Canada Pension Plan」, 2021. 12.

_____, 「the Évaluation actuarielle du Régime de rentes du Québec」, 2021. 12.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3」, 2023. 07.

_____,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2」, 2022. 07.

_____,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 2020. 02.

_____,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8」, 2018. 09.

_____,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 2017. 10.

_____,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4」, 2014. 09.

_____, 「the Évaluation actuarielle du Régime de rentes du Québec」, 2021. 12.

캐나다 의회예산감독관, <https://www.pbo-dpb.gc.ca/en/> (검색일자: 2024. 07. 24.).

〈스웨덴〉

Förordning(2007:759) med instruktion för Konjunkturinstitutet.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rordning-2007759-med-instruktion-for_sfs-2007-759/ (검색일자: 2024. 12. 31.).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4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4.

SCB, *Sveriges framtida befolkning 2023-2070*, 2023.

〈체코〉

Czech Fiscal Council,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4.

_____,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2023.

EU 홈페이지, 체코 노령연금 설명,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6&langId=>

en&intPageId=4478, (검색일자: 2024. 06. 04.).

유럽연합통계국, <https://ec.europa.eu/>, (검색일자: 2024. 05. 29.).

체코 사회보장국, <https://www.cssz.cz/starobni-duchod>, (검색일자: 2024. 06. 04.).

체코 전자 법령, <https://www.e-sbirka.cz/sb/2017/23?zalozka=text>, (검색일자: 2024. 05. 24.).

체코 정부 홈페이지, 돌봄급여 안내, <https://portal.gov.cz/en/sluzby-vs/care-allowance-S500>,
(검색일자: 2024. 07. 10.).

〈싱가포르〉

싱가포르 재무부, *Occasional Paper on Medium-Term Fiscal Projections*, 2023.2.

Belinga et al., “Tax Buoyancy in OECD Countries”, IMF working paper, 2014.

Deli et al., “Dynamic tax revenue buoyancy estimates for a panel of OECD countries”,
IMF working paper, 2018.

〈호주〉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foreignIndexView.do?countPerPage=10&cn=TLAW1201200187>, (검색일자: 2024. 5. 21.).

외교부, https://tha.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218&page=1, (검색일자: 2024.
6. 5.).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https://www.legislation.gov.au/C2004A05333/latest/text>, (검색일자: 2024. 5. 21.).

Commonwealth of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
2023.

_____, BUDGET 2023-24 Budget Paper No. 1: Budget Strategy and Outlook, 2023. 5.

Centre for Population, “2022 Population Statement”, The Australian Government, Canberra,
2022.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발 행 2024년 12월
발 행 인 이 영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사)아름다운사람들(02-6948-9650)
쇄 인
I S B N 979-11-6655-334-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비매품/무료



9 791166 553349
ISBN 979-11-6655-334-9